

第6章 宗 教

第1節 佛 教

I. 序言

대구시 일원의 불교의 역사는 이 나라 불교의 역사의 일 부분이다. 즉 대구시 일원의 불교의 사적 전개 형태는 이 나라의 주류적 불교의 敎綱, 敎風 및 이에 따라 형성한 불교양태에 준하여 전개한 형태이다. 따라서 대구시 일원의 불교의 사적 기술은 먼저 시대에 따라 적응 전개한 이 나라의 주류적 불교의 교강과 교풍 및 이에 따라 변화한 양태를 서술함이 순서이다.

그래서 대구시 일원의 불교의 역사를 다음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후 오늘날까지의 6시기로 나누고, 각시기 마다 1)이 나라의 주류적 불교의 전개양태, 2)대구시 일원의 불교의 전개양태를 기술하고, 둘째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불교의 각 종파 및 불교단체에 대한 현황을 간추려 기술하기로 한다.

그런데 불교는 한 민족이 창시한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가 아니라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한 것을 수용 전개한 것이다. 즉 이 나라의 불교의 수용 전개는 한 민족 고래의 신앙형태의 接本에 불교가 접목하여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불교의 역사적 전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 고유신앙의 요소가 미미하게나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한민족의 원시신앙형태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원시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대자연 속에 또는 대자연이 배후에 자연을 움직이는 근원자로서 神이 있다고 상정하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못 재앙을 없게 하고 복이 오게 하도록 신에게 기구하였다. 이런 행위가 원초적인 종교적 신앙행위이다.

원시인의 삶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대자연이었다. 일월성전의 운행, 풍우상설에 의한 寒 暖 濕 旱의 기후, 그리고 인간생존모태인 국토와 山川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삶은 적전으로 지배되고 있었다. 따라서 원시인이 대자연의 여러 형상의 속에 또는 배후에 있다고 믿고 있는 신을 움직여 그들의 소망성취를 회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앙형태가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등에 산재하는 것을 살펴 본다.

위와 같은 신앙형태로서 八間會가 있다.

“八關會는 天靈, 五岳, 名山, 大川, 龍神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君臣이 同樂하여 이를 경건히 행하는” 행사이다.

천령, 명산, 대천에 봉사함은 五官에는 지각되지 않는 天, 山, 川에 내재하거나 배후에 있다고 상정한 「신」을 모시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상적 입장을 자연신관 또는 自然有靈論(Animism)이라 한다. 이런 신앙형태는 고대중국(堯舜時代)에도 있었고, 고대희랍, 고대인도에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상존한다. 洞祭, 당산제, 용왕제, 불교사찰내의 山神閣등도 같은 유형이다.

그런데 신은 인간의 소망대로 움직이는 방법을 方術 또는 道術이라 하는데 이 방술이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자를 道士라 하거니와 이 때의 도사는 「시베리아」지방에 있는 「샤아만」이나 우리나라 무당과 거의 같은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형태를 보통 自然현상에 내재하는 신을 조종한 인간주체 즉 무당(또는 샤아만)을 강조하여 샤아마니즘이라 부른다.

사실 上古시대 한민족은 그들의 생활이 전적으로 대자연에 지배되고 있었으므로 자연의 모든 현상이 畏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태양을 비롯한 모든 자연현상을 신으로 의경하고 숭배하였다. 그 중에서도 태양과 천제와 光明(明神)을 동일한 최고신으로 받들어 신앙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祭天大會를 열고 천신과 모든 귀신을 제사하였는데 扶餘에서는 迎鼓라는 제천대회가 있었고 卒本扶餘에는 東盟, 東穢에는 舞天이라는 祭天大會가 있었다. 삼국시대에 5월 下種과 10월 추수가 끝나면 군중이 모여 위의 제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우리민족의 신앙형태는 자연신관(Animism)에 입각한 샤아마니즘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풍토위에 외래종교인 불교가 들어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II. 三國時代

1. 삼국의 불교수용과 전개과정

1) 삼국의 불교수용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고구려 17대 小獸林王 2년(372)에 前秦王 符堅이 사신과 함께 僧順道를 보내어 불상과 경전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公傳이지만 이 공전에 앞서 민간인에 의해 불교가 전해진 사연이 《梁高僧傳》과 《海東高僧傳》에 기술되어 있다.

불교 공전 2년 뒤 僧阿道가 왔으며, 이듬해(375)에 省門寺와 伊弗蘭寺를 세웠다. 다음 18대 故國壤王 8년(391)에 “불법을 숭신하여 복을 구하라”는 명을 내렸다. 다음 19대 廣開土王 즉위 2년(392)에 평양에 九寺를 세웠으며 그 후 21대 文咨王 7년(498)에 金剛寺를 세웠다.

그런데 고구려의 기존신앙이 어떤 것인지, 들어온 불교경전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위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기존신앙에 별 저항없이 불교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에 불교가 공전된 후 많은 승려가 중국에 가서 불교학을 배우고 귀국했다. 그중 遼東 태생인 僧朗은 중국에 가서 僧肇(383~414)의 三論學을 연구하여 삼론학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 체계를 완성했다. 이 명성을 들은 梁武宰는 512년 우수한 학승 10명을 뽑아 승랑에게 수학케 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인에게 학문을 가르친 최초의 인물로서 僧朗은 그 나라의 불교학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한편 고구려 승으로서 일본에 가서 최초로 교화활동을 한 해편은 日本大臣 蘇我馬子가 세운 精舍會의 스승으로 되었으며, 26대 嬰陽王 6년(595)에 일본으로 건너간 惠慈는 일본에 불교를 크게 일으킨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었고, 13년(602)에는 僧隆, 雲聰이, 21년에는 曇徴, 法定 등이 일본으로 건너가 교화활동을 하였다. 이들 중 담징은 불교학 뿐만 아니라 五經에도 밝고, 또 彩色, 紙墨, 물감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 그림에 능했으므로 이것을 일본인에 가르쳐서 일본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奈良 法隆寺에 있는 담징의 벽화는 일본의 국보로 되고 있다. 고구려 24대 陽原王 7년(551)에 惠亮이 고구려에서 신라에 와서 僧統이 되어 신라불교를 크게 일으켰다. 그런데 고구려 27대 榮留王(618~642)대에 고구려에 전해진 도교의 득세로 고승이 국외로 망명하고 국내활동이 저지되었으므로 고구려의 불교는 고구려의 국운과 더불어 쇠망해 갔다. 고구려는 다음 28대를 명망하게 되었다.

백제에 불교가 처음 전해 온 것은 고구려에 順道가 온지 12년 뒤인 제15대 枕流王 元年(384), 東晉으로부터 들어 온 인도승 말파난다에 의해서이다. 인도승이 백제에 들어 오면 王은 그를 환영하여 宮中에 있게 하고 예경하였으며, 다음 해에 漢山에 절을 짓고 10사람을 沙門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왕이 보낸 승려도 아닌 일개 인도승을 이와 같이 王이 환영하고 그를 宮中에까지 모시게 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백제인이 이미 불교를 많이 선행하고 있었고 王도 불교를 좋게 알고 숭신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백제에서는 처음부터 王이 인도승을 환영하고 禮敬했으니 그뒤 영명한 王은 불교를 숭신하고 국민교화에 힘썼으며 일본에 많은 僧侶를 보내어 불교를 전하였다.

17대 阿莘王 3년(392)에 王은 국민에게 “불법을 숭신하여 복을 구하라”는 命을 내렸다.

26代 聖王 4년(526)에 5년전 中인도에 들어가 律部를 深攻하고 돌아온 僧謙益은 論藏, 五部 律文을 가지고 律部 72권을 번역하고 王은 論藏과 新律에 序를 지었다.

27代 威德王 24년(577), 論, 律의 師와 禪師, 그리고 比丘尼, 呪術師, 佛工, 畫匠등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30년(583)에는 日本의 청으로 高僧 日曜가 건너가고, 이듬 해 日人이 불상 미륵상 2구를 가져 가고, 35년에는 불사리, 승려, 寺工등을 일본에 보냈다. 일본에 간 여러 승 가운데 혜충은 律에 정통해 日大臣 蘇我馬子에게 戒을 주었다.

29代 法王 元年(599)에 王은 “살생을 금하는” 壽命 내리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鷹)를 놓아 주게 하고 고기잡이와 사냥하는 도구를 불 사르게 했다.

30代 武王때 王妃(신라 眞平王 제3公主 善花)의 발원으로 益山에 미륵사가 세워졌다. 특히 武王은 일본에 불교문화를 많이 전했다. 武王 3년(602), 僧觀勒이 天文地理. 曆書, 遁甲書, 方術書등을 일본에 가져 갔는데 그는 삼론의 학승으로서 外學에도 통하고 더욱이 이름난 醫僧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최초의 僧正이 되어 일본 불교계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그후 많은 승이 일본에 건너 갔는데 그 中 道藏은 그 곳에서 成實論疏 16권을 찬하였는데 法相, 俱舍, 三論에도 능통한 학승이었다.

백제의 최후왕인 31代 義慈王 15년(655)에 尼僧 法明이 日本으로 건너가 거기서 維摩經을 독송하여 병자를 고쳤다고 한다.

그런데 고구려나 백제에 고대의 원시신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지역(東穢)에 舞天이란 제천대회가 있었고 백제(扶餘)에도 迎鼓 또는 東盟이란 天祭大會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 兩國에 자연신관의 원시신앙형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兩國이 다 기존신앙의 아무런 저항없이 불교를 수용 환영한 것은 그들의 토착신앙에는 단순성과 무사상성이란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점을 메우는데 고도의 이상과 사상을 가진 불교를 그렇게 환영하고 수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고구려나 백제에 있어 주류적인 經 또는 論은 없어 보인다. 초기에는 律과 一切有部論(小乘)과 大乘의 般若空의 실천론격인 三論과 成實論이 자주 등장하고 중후기에는 涅槃, 法華 彌勒, 維摩經등 大乘經典이 자주 등장한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것은 제23代 法興王 14년(527)에 異次頓의 순교가 있는 후의 일이다. 이 것은 고구려의 불교 公傳(372)보다 155년 뒤이고 백제의 인도승의 來濟(384)보다 149년 뒤의 일이다. 그러나 불교 공인전에 外來僧의 신라 來入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1) 제13代 末鄒王 2년(263): 고구려 僧 我道가 왔다는 것(海東高僧傳과 三國遺事).

(2) 제19代 訥祗王(417~458): 고구려 僧 墨胡子가 一善(善山)郡의 毛禮집에 머물렀다가 왕여의 병을 고쳐주고 갔다(三國史記－金大問의 「雞林雜傳」).

(3) 제21代 毘處王(479~500)때 阿(我)道和尚이 侍者 3人과 같이 와서 毛禮집에 머물렀다(海東高僧傳에 引用된 古記).

여기서 阿道 이전에 正方 滅垢玼란 두 僧이 왔다가 신라인에 의하여 순교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래설은 불교 공인 이전에 傳法布教僧이 끊임없이 숨어 들어와서 암암리에 표교한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민간에 유포되고 있는 것을 23代 법흥왕이 알고 왕이 즉위하자 마자 불법을 국가적 신앙으로 공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완고하고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귀족층의 반대로 불교신앙의 공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불교수용 거부의 이유는 귀족들이 기존신념형태를 고수하고 배타한 것과 당시 권력체제가 왕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아니라 귀족중심체제였기 때문에 왕이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흥왕의 從姪인 異次頓이 나라에서 금한 불교신봉의 죄로 순교하자 귀족들이 불교 금지문제를 반성 재고하고 마침내 王의 뜻을 귀족들이 동의함으로써 동왕 14년(527)에 불교 신앙이 공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귀족들이 王의 뜻을 받아 드린 것은 異次頓의 순교가 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만이 禁佛해제를 회심한 원인은 아니다. 불교는 자기들의 기존신앙형태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신앙형태를 그대로 신앙하면서 불교를 신봉할 수 있다는 것, 즉 정신의 한 울타리 안에 불교와 기존신앙형태가 함께 조화하며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귀족들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것은 사찰경내에 산신각(사마니즘)과 칠성각(도교)이 다툼 없이 오늘날까지 존립하여 기능하고 있고, 그 뒤 한민족 고유의 사상유형은 바로 이러한 여러가지 사상적 입장을 융합하는 사상유형이라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 신라의 불교 전개과정

신라의 불교와 공적 허용은 위와 같은 계기와 사유로 이뤄짐으로써 王과 귀족들이 화해하고 또 기존신앙형태와 불교가 和合하여 공적인 신라불교가 시작된 것이다. 공인 이듬 해 王은 살생을 금하는 令을 내렸다. 동왕 22년(535) 경주 西川의 다리(金橋) 동쪽 天鏡林에 興輪寺를 짓기 시작하여 일부가 이뤄지자 王이 절에 들어가 승려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다

가 세상을 떠났다.

불교수용 후 특색 있는 신라불교를 이룩한 자는 법흥왕 다음 24대 진흥왕이다. 태후의 섭정 밑에 어린 나이로 즉위한 진흥왕은 일생동안 一心奉佛했으며, 만년에는 沙門이 되어 法雲이라 호하였고 왕비 또한 영흥사에서 비구니가 되었다. 이 왕대에 시행된 주요한 불교관계 사항을 본다.

5년(54)에 興輪寺가 완성되었고, 3월에 사람들에게 僧尼가 되어 奉佛할 수 있도록 出家를 허락했다.

10년(549) 봄 梁나라 사신이 유학승 覺德과 함께 불사리를 가져옴에 왕은 백관에게 興輪寺 앞길에서 봉영하게 했다.

12년(551)에 고구려에서 온 惠亮에게 僧統을任하여 불교 諸事를 통관하게 하였다.

26년(565)에 陳의 사신 劉思와 僧明觀이 경론 1,700권을 가져 왔다.

27년(566) 기공 13년만에 皇龍寺가 완성했고, 祇園寺, 實際寺도 완성했다.

35년(574)에는 皇龍寺 丈六尊像을 鑄成했다.

37년(576)에 安弘法師가 중국에서 求法후 돌아 오면서 인도승 「비마라」등 두사람을 데리고 왔으며 능가경, 승만경과 사리를 가져와 왕에게 바쳤다.

특히 중요한 불교행사로서 진흥왕이 처음 시작하고 추진한 것은 惠亮法師 지도의 百高座法會 및 八關會 그리고 청소년수련단체인 風月道(화랑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이 시기의 불교진흥책에서 살피기로 한다.

진흥왕의 불교진흥으로 많은 고승이 배출되고, 이들은 求法유학차 중국으로 왕래하면서 많은 經 論을 연구습득하여 신라불교의 불교학적 체계와 신앙조직체를 확고히 하였다. 그중에 불교증흥에 많은 공을 쌓은 승려는 圓光法師와 慈藏律師이다.

眞平王 11년(589)에 중국으로 유학갔다가 22년(666)에 귀국한 圓光은 大乘經敎를 강설하여 大乘법문을 이 나라에 弘布했다.

30년에는 신라가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隨나라에 請兵할 때 왕명으로 乞師表를 써주었다.

35년(613)에 皇龍寺에서 惠亮 다음으로 百高座道場을 베풀면서 고승을 청하여 經을 說할 때 圓光은 上首로서 설법했다. 그리고 貴山과 笥項이란 두청년에게 세간에서 꼭 신철할 世俗五戒(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을 일러주어 가정과 국가의 화합의 국민의 윤리를 가르쳤다. 이 것은 유교윤리와 불교윤리와의 융합형태이다.

실로 圓光법사는 大乘敎學의 강설홍포에 의하여 왕실을 중심한 귀족층을 교도하여 슬기로운 국민사상과 인민도덕을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慈藏은 眞骨인 蘇判茂林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관음상을 천부 조상한 후 4. 8일에 그를 낳았으므로 그를 善宗郎이라 이름했다. 장성한 후 처자를 버리고 자기 전원을 元寧寺로 하고 홀로 白骨觀을 수행했다. 그 때 조정에서 그를 나라에 쓸 사람으로 청했으나 그는 끝내 거절하고 선덕왕 5년(636)에 제자 10여인을 데리고 唐으로 건너 갔다. 거기에서 당 太宗의 후대를 받고 同王 2년(643)에 藏經千百函과 幡幢花蓋등을 가지고 돌아 왔다. 거국적 환영을 받았는데 곧 왕명으로 芬皇寺에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大乘論과 菩薩戒本을 강설하였다.

그는 조정으로부터 불교의 정리와 교단을 통관하는 大國統에 受任되고 산만하던 교단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는 황용사에 구충탑을 세우고 국가의 안녕과 융흥을 꾀하였고, 通道寺, 水多寺, 石南寺(淨岩寺) 등 10여소에 사탑을 창건하였다.

그는 또 조정에 건의하여 당의 문물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만년에 五臺山과 太白山에 들어가 여러 곳에 寺庵을 창건하였다.

요약하면, 그의 업적들은 護國護法의 불사를 크게 일으키고 보살계본을 강성하여 많은 사람에게 授戒하고 僧尼의 기강을 바로 잡는 동시에 僧尼의 지위를 확정한 것이다. 그의 교학의 중심은 律學과 華嚴學이나 특히 律學의 대가로서 戒藏를 쌓아 持戒를 철저히 하게 하고 그 자신 戒의 실천에 뛰어 났음에 慈藏律師라 일러진 것이다.

百高座法會(道場)는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災難을 물리치고 護國하는 呪術적 공능이 있다는 법회이다. 이 법회의 所依經典은 仁王護國 반야파라밀다경이다(약해서 仁王經). 이 經의 기본사상은 어진 국왕은 나라를 지키는데는 주체적으로 「반야바라밀다」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보다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은 외적인 불교행사로서 백불상, 백보살상을 모셔 놓고 또 百獅子座에 百法師을 모시고 이 경을 독송하면 국가의 재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경의 제5 護國品에 위의 法會儀式과 功能을 이렇게 교설하고 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려면 먼저 귀신이 난동하고 도적이 일어나고 백성이 쇠망하고, 국왕·태자·백관이 서로 시비하고 천지가 괴변하여……大風 등 諸難이 일어난다. 이 때 모두가 마땅히 이 「반야바라밀다」를 受) 독송, 강설하면 일체의 所求, 즉 관위, 富饒, 남녀해해(慧解)가 뜻대로 되고 인천과보가 다 만족히 얻어지며 厄難이 곧 除癒된다.……五逆罪도 다 소멸된다”

여기 「반야바라밀」(경)의 수지·독송은 본질적으로 수지. 독송자의 심적 청정화가 기본인데 그 수지 독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지·독송자의 현세적 소망(외적 대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것은 분명히 신비적 주술적 공능을 믿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 주술적 방법은 「인도」에서의 대승말기 밀교가 法身佛에의 상응하는 방법인 진언(呪文)

의 권능을 현세적 소망성취를 위한 비밀적 수단으로 전용한 것이다.

이러한 현세의 소망성취를 위한 밀교적 주술방법은 巫俗 신앙(샤머니즘)의 주문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주술적 행사는 불교로서는 토속신앙(接本)을 습합(習合, 接本)하여 융합하는 수단이 되고 이 융합은 토속신앙으로서의 자기들의 신앙형태(샤머니즘 接本) 위에 고도의 사상과 윤리체계를 받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만한 사찰경내에는 山神閣과 七星閣 = 도교이 의종게 앉아 있고, 불교는 그런 속신앙을 품안에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종교적 형태 속에서 불교가 주요 위치에서 활동한 청소년 사상수련단체가 風流道집단이다. 崔孤雲의 鸞郎碑 서문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 한다. 이 교의 근원은 仙史에 상세히 있는데 실로 그 안에 三교(儒, 道, 佛)를 포함하고 있다”¹⁾

이 풍류도집단을 眞興王대에 창설했다. 진흥왕 37년에 君臣이 人材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무리를 모아 함께 交遊케 하고, 그 行儀를 살펴서 擧用하기로 하고 미녀 두 사람(南毛와 俊貞)을 간택하여 源花라 이름하고 무리를 모으니 300여명이 되었는데 준정이 남모를 시기하여 몰래 죽이니 나라에서 준정을 伏誅하였다. 곧 이 집단을 해체해 버렸다. 얼마 있다가 다시 풍류도집단을 재구성하였는데 그 우두머리를 미모의 남자로 하고 花郎이라 이름하였다. 이 화랑이 이끄는 郎徒를 仙郎이라 하고 또 이들은 龍華香徒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화랑은 國仙이라 했다. 이 최초의 화랑이 薛原郎이다. 용화란 도술천에 계시던 彌勒님이 下生하셔서 그 밑에서 성불한 나무 이름이다. 그리고 미륵님이 설하시는 나라는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나라이다. 그래서 용화향도란 미륵님에게 향을 올림과 함께 이상적인 용와세계를 위하여 향을 올리는 미륵신도를 의미한다. 특히 미륵향도는 죽게 되면 도술천에 계시는 미륵님곁에 나아가게 되고 미륵님이 下生하실 때 같이 下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라가 三國을 통일하는데 그 주역은 화랑이라 이르는데 그 주역들은 유·불·선을 조화 있게 신봉하면서도 미륵향도이었기에 조국통일에 자신을 초개같이 바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金庾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화랑들은 모두 자연의 어떤 대상을 움직이는 道術, 方術에 능했다고 전한다. 이 것은 일종의 「샤만」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상이 조화된 형태의 사상을 철저히 실천한 청년「에리트」들의 국가적 육성이 三國통일 추진의 인적 요소를 조성하게 한 것이다.

三國시대의 불교의 특색은 신라불교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 불교의 특색을

1)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內包含三教:《三國史記》.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

불교의 기본성정은 王室中心의 귀족불교라 할 수 있다. 이 것은 경론이 仁王經, 김광명경 등 호국경이 중시되었고 교단의 최고통관자인 大國統을 비롯한 고위 승직인 大省, 小省을 왕실에서 임명되는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教風은 밀교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불교의 기풍속에서 대구시 일원에 창건된 사찰이 桐華寺와 符仁寺이다.

2. 대구시 일원의 불교

1) 桐華寺

동화사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21대 炤地王 15년(493)에 極達화상이 창건하여 瑜伽寺라 부르다가 신라41대 헌덕왕 7년(832)에 동왕의 왕자인 心地王師가 중창할 때 오동나무 꽃이 상서롭게 피어 있기에 동화사라 불렀다 한다.

그런데 이 창건년대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 것은 21대 소지왕 15년(493)은 불교공인의 해인 23대 법흥왕 14년(527)보다 34년 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7년 경북대학교에서 펴낸 팔공산(유적조사보고서)²⁾에는 心地대사가 중창한 해인 憲德王 7년(832)을 사찰 창건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정 역시 그 것을 확증할 문헌이 없다.

그런데 신라에는 불교공인 이전에 여러 포교승에 의하여 불교가 신라의 몇몇 지역에 전래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신라의 불교공인의 해는 고구려의 불교수용의 해 보다 155년 뒤이고, 백제보다는 149년 뒤의 해이다. 비록 교통이 불편한 고대이지만 좁은 한반도에서의 인접국에 1세기반 동안 민간끼리 불교가 전해지지 않을 리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불교 공인전에 극달대사가 음성적으로 土窟정도의 유가사를 창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쉬쉬 하다가 30여년 뒤에 공개적으로 유가사라 했으리라 짐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사보고서」에서는 삼국유사 등에서 조사하여 “동화사의 창건당시의 사명을 유가사라 했다는 것은 허구다. 창조 이래 桐簾라 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최치원이 桐寺라 하고 일연이 桐簾라 기록한 것은 동화사의 약칭일 수 있고, 또 “고려사에 유가종 동화사라 했다”고 위 조사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것은 창건 당시에 유가사라 했다가 헌덕왕7년에 동화사라 했으니 유가사의

2) 大邱市·慶北大, 《八公山》, p.243.

본래의 宗旨를 밝혀 宗名으로서 유가종을 붙여서 동화사라 한 것을 立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당시의 불교교풍이 密敎적 성격이 강한 때라 창건 당시 밀교의 수행방법인 유가(yoga)를 받들어 유가사라 했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유가종은 주로 밀교를 지칭하지만 「인도」에서는 法相宗 등 唯識宗 계통까지를 포함해서 이르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미루어 보아 사찰창건 연대를 사적기대로 소지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동화사도 신라·고려시대를 통하여 유가종에 속하는 삼대사찰 중의 하나이었다. 이 종의 근본도장은 진표율사가 장육미륵불을 조성하여 봉안한 전북김제의 金山寺이고, 다른 하나는 진표의 제자 永深이 弘化한 속리산 法住寺이고 그 다음은 영보의 제자 心地가 중창한 이 桐華寺이다. 13세기(高宗, 元宗代)에 이르러 유가종의 종풍을 크게 일으킨 이대고승 弘眞國尊과 慈靜國尊은 다 동화사의 住持로 있었으니 고려말의 중심사찰은 바로 이 桐華寺이었다.

이 宗에서는 彌勒佛을 본존으로 봉안한다. 金山寺의 미륵전의 미륵불과 법주사의 미륵불상은 지금도 유명하나 동화사에는 지금 미륵전도 미륵불도 없다. 창건이래 조선조 영조까지 동수 6·7차례의 사찰중창이 있었는데 영조까지 미륵당이 있었으나 그 뒤 사세가 기울어져 중창시에 미륵당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桐華彌勒堂의 기와銘文).

동화사가 미륵신앙과 밀접한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은 동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聖簡子의 유래에서 잘 알수 있다. 이 성간자는 신라 景德王대의 고승 진표율사가 미륵보살·진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진표가 靈山寺에 들어가 비장한 각오로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3·7일 지나자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이 다 같이 眞表에게 감응 현신하였다. 미륵보살이 진표에게 “장하구나 大丈夫여, 이와 같이 戒를 구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懇求 참회하는구나”하고 지장보살은 진표에게 戒本을 주었고, 미륵보살은 占察經 2권과 證果簡子 189를 주면서 이르기를 “이 간자 중 제8간자는 새로 얻은 妙戒를 비유한 것이고, 제9간자는 具戒를 더 얻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간자는 내(미륵보살) 손가락 뼈요. 나머지는 沈檀木으로서 모든 煩惱를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것으로써 법을 세상에 전하여 사람을 救濟하는 뜻목으로 삼으라” 하였다.

그 뒤 진표율사는 속리산 법주사에 가서 제자인 永深대사에게 이 불골간자를 傳授했다. 영심대사가 이 불골간자를 받아 果證법회를 열었다. 이 소식을 팔공산 석굴에서 수도를 하고 있던 心地師가 전해 듣고 속리산 법주사에 달려 갔다. 신라 41대 헌덕왕의 왕자인 心地師는 거기에서 7일간이나 눈덮인 법당 밖 마당에 꿇어 앉아 선혈을 보이며 참회법회에 참여하였다. 이에 영심이 감동하여 심지사에게 이 불골간자를 전수하였다. 심지사가 이 불골간자를 머리에 이고 팔공산에 돌아 왔다. 公山에 이르자 山神이 두 仙人과 함께 심지를 마중하여 인도하여

바위 위에 앉히고 그들은 바위밑에 엎드려 공손히 正戒를 받았다. 이 때 심지사가 말했다. “이제 吉地를 택하여 신성한 간자를 봉안하려 하는데 우리가 지정할 수 없으니 세분과 함께 높은데 올라가서 간자를 던져 날아가 떨어지는 자리에 절을 짓기로 점치자” 하였다. 이어 심지사는 三君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쪽을 향하여 던지니 간자가 바람에 날려갔다. 그들은 간자가 떨어진 숲속을 찾아가 그 곳에 절을 지어 그 간자를 봉안키로 했다 한다. 이 때부터 동화사는 이 聖簡子를 봉안함으로써 신라불교의 一級聖道場으로 존송받아 왔으며, 그래서 동화사는 한국의 미륵신앙의 中心도장의 하나이었다.

그런데 동화사의 성격의 하나는 왕가의 원당이란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신라 불교는 王室을 中心으로 귀족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이 동화사도 중창자인 心地王師의 父王 헌덕왕을 중심한 왕실의 복을 비는 원당이었다. 그래서 동수願堂이라 했다. 이 동수원당 앞에 44대 閔(敏)哀王의 명복을 비는 석탑이 세워졌다. 48대 景文王은 동왕 3년(863) 24년전에 즉위 1년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종조부인 神武王에 의해 죽게 된 민애왕(다른 종조부의 한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한 석탑을 세웠던 것이다.

이와 함께 동화사의 소중한 정보의 하나는 석가여래의 전신사리를 분안한 금당 앞의 두 탑이다. 금당 앞의 동서 두 탑은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옮겨 온 것이다.

동화사의 사리는 중국 양무제가 신라에 보내 준 불사리 함을 분안해 준 것을 1,200여과나 봉안했으며 그 뒤 고려 충숙왕 3년(1316) 비구 玄분이 왕명으로 元나라에 다녀와서 동화사주지로 있을 때 동왕4년 양산 통도사에 가사 불사리 5매를 가져와서 동화사에 봉안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東塔에, 후자는 西塔에 봉안한 것이다.

동화사의 소속종의 변천내력은 간단하다.

신라말에 형성된 5교종과 9산(禪寂宗)의 6종에 있어서나 고려 대각국사의 천태종 개립후 5교종 양선종(曹溪·天台)의 7宗에 있거 5교 중에 법상종(유가종)이 있었으니 동화사는 유가종의 수사리이었다.

2) 符仁寺

이절은 7세기때 신라 제27대 善德女王이 창건했다 한다. 고려사등 고려시대의 여러 기록에 부인사라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 절의 현판에는 夫人寺라 쓰여 있다. 이 절 안에 선덕여왕의 廟가 있고 그 안에 선덕여왕의 影幀이 모셔져 있다. 이 절은 대구시 新武洞에 소재하므로 해마다 음력 3월 15일에는 신무동민과 사찰측이 합동으로 선덕제를 지내고 있다. 이 것을 미루

어 보아 부인사의 夫人은 선덕여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절은 선덕여왕의 원당인듯 하다.

이 절에 초조대장경판을 봉안했었으나 고려 24대 고종 19년(1232)에 제2차로 침입한 몽고병에 의하여 사찰건물 경판 경장 모두 불타버렸다.

이 대장경판조조(造彫)의 내력은 꼭 알만하다.

고려8대 顯宗 2년(1011) 契丹의 대군이 침략하므로 왕은 남으로 羅州로 피난하고 開京은 걸인병에 의하여 점령되고 불타버렸다. 이에 군신이 함께 無上大願을 발하여 大藏經의 각성을 서원했던 바 곧 걸인병이 물러났다. 걸인병이 물러난 3년후경에 국태민안을 위하여 그리고 걸인병의 침략을 佛力の 加被로 막기 위하여 대장경을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顯宗 4년(1020)에 조각하기 시작하여 同王 20년(1029)에 17년간에 5,000軸에 이르는 방대한 대장경판의 조각이 이뤄졌다. 다음 9代 德宗 10代 靖宗은 위 경판 경장을 봉안하는데만 힘썼으나 11代 文宗은 卽位하자 同王 5년(1051)부터, 대장경판 조각작업을 계승하여 大王 치세하에 6,000여권에 이르는 新彫大藏經版이 완성되었다. 이어 大覺國師 義天이 編한 《新編諸宗教藏總錄》에 따른 續藏經經版의 조조를 13代 宣宗 5년(1081)에 시작하여 15代 肅宗 4년(1099) 18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시켰는데 이 경장은 1,070부 4,857권에 이른다. 그런데 이 경장판은 조각 후 130여년이 지난 1232년 24代 高宗 19년에 제2차로 침입한 몽고군에 의하여 사찰건물과 경장·경판이 모두 불타 버렸다.

이 몽고의 침략으로 조조대장경판이 불타 버리고 난 뒤 5년에 顯宗시의 걸인병 퇴치의 정신에 따라 佛力으로 元나라 군대를 격퇴하고 국태민안을 기하고저 大藏經版의 再雕를 하기 시작하여 16년의 세월에 걸쳐 판수 81,686장, 6,780권의 巨帙을 완성했다. 이 장경판이 지금 해인사 장경각에 봉안되고 있는 바로 그 장경판이다.

그런데 불타기 전 수천명의 승려, 39棟이 堂宇가 있었다는 옛날의 巨刹부인사는 이제 초라한 大雄殿, 療舍, 山神閣, 善德廟만 남아 있다. 대장경판을 봉안한 장경각터를 비롯하여 무수한 殿閣址, 礎石, 長臺石등 그 절의 遺址만 보아도 해인사의 몇 배가 되는 큰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曹溪宗 제9교구 동화사의 末寺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華嚴宗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III. 統一新羅時代

1. 통일신라의 불교전개

1) 통일기 신라불교의 성격

신라는 三國 中 국토가 가장 적고 평야가 제일 적은 것 등 입지적 조건이 매우 불리하고 약소한 나라이었다. 그런대도 불교를 받아 드리게 된 23代 法興王 이후로 점차 개발되어 24代 眞興王 때에는 불교를 國敎로 하다싶이 함과 더불어 지방분권적인 체제가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전환해 가면서 강대한 나라로 되어갔다. 29代 武烈王 때에 백제를, 30代 文武王 때에는 고구려를 정복하여 민족 역사상 최초로 민족통일의 꿈을 실현했다.

삼국통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신라의 불교는 날로 발전하여 그 내용이 충실해 갔다. 통일을 이루고 나서 부터는 안정된 체제하에서 불교는 내용면이 더욱 심화되어갔다. 승려들은 敎義의 연구와 함께 대중교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王室 귀족층에서 부터 하층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거의 불교에 귀의하고 감화되어 불교는 국가생활과 가정생활에 밀착되어 갔다.

이것은 왕실과 귀족층이 승려의 지도로 현실적인 護國불교를 신봉하면서 종래의 토속신앙인 自然神 신앙(무속)에 불교를 접목시켜 서민에게 토속신앙위의 上層사상인 불교를 수요시켰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서 儒·佛·道의 사상과 自然神신앙이 융합한 신념 형태인 風月道を 정부 주도로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를 수련시켰기 때문에 花郎이 이끄는 仙郎들이 통일 役軍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불교는 당시의 여러 사상과 신앙형태를 總和한 이 민족의 현실에 맞게 형성한 민족불교라 하겠다. 그 위에 한 가지 더 당시의 신라불교는 三國시대 보다 더 王室中心 귀족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敎義의 내용으로서는 仁王般若經에 따른 百高座法會 등의 시행에 의한 호국불교를 추진하면서 불교 교단의 운영체제상 전국 사찰과 승려를 총괄하는 國統과 그 아래 大書省, 小書省 등의 僧官은 정부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승단과 불교는 王室과 귀족들의 보호와 감독하에 있었으니, 신라불교는 왕실중심 귀족적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2) 통일신라 불교의 변화

통일기 신라불교의 변화시기는 興盛기와 침체기로 구분할 수 있다. 흥성기는 三國통일을

이룩한 30代 文武王(611~681)대부터 36代 惠恭王(765~779)에 이르기까지 약 170년의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교학의 연구와 실천교화등 모든 면에서 극성을 이루어 찬란한 불교문화를 이룩한 황금시대이다. 침체기는 37代 宣德王(780~785)에서 56代 敬順王(927~935)까지의 약 1세기半 동안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통일(669)후 평화를 누린지 100년이 지난 때이라 국내적으로 모든 사람이 전쟁으로 긴장된 정신이 사라지고 또 전쟁시보다 문물이 풍요해진 시대이니 나라의 上下 모두가 삶을 즐기는 사회기풍이 되어 갔었다. 이 것은 자연적인 추세일 것이다. 왕실과 귀족층은 그들대로, 서민층은 그들대로 유흥과 사치로 극성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기풍은 《三國遺事》第一, 紀異第一, 〈又四節遊宅〉에 잘 나타나 있다.

“봄에는 東野택, 여름에는 谷良택, 가을에는 仇知택, 겨울에는 加伊택에서 놀았다. 제49대 憲康王대에는 城안에 草家집 하나도 없고, 집의 처마와 담이 이웃집과 연해 있었다. 또 노래소리와 피리부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차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55대 景哀王이 妃嬪들과 함께 鮑石亭에서 流觴曲水: 굽이 꺾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그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詩를 짓는 놀이를 즐기다가 현장에서 甄萱의 軍에 피살된 일은 왕실이 국가 초비상시기에 그런 놀이를 즐긴 것인데 이것과 위 四節遊宅을 볼 때 이것들은 그 당시 사회의 상하에 유흥기풍이 얼마나 미만하고 있었는가를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신라불교는 당시의 여러가지 신앙형태를 융합한 총화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신념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을 佛門에 귀입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신자가 불교의 교리는 신행하지 않고 현실욕망 충족을 기원하는 무속적인 祈福에만 골몰했었다. 불교는 국민정신의 교화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겉데기만 남은 것이다.

호국경인 仁王般若經을 신봉하는데도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仁王經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王을 비롯한 상류층이 자기만 아는 汚濁한 정신을 자기개혁, 자기정화라는 自力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百高座法會를 함으로써 나라를 해꼬지하는 모든 귀신이 물러나게 하고 재앙이 사라지게 하는 神通力이 있다는 「샤만」적인 마력적 기능이다. 그래서 王室을 중심한 지도층이 그들 스스로 오탁한 자기정신을 자기정화는 하지는 않고 百高座會등의 佛事시행으로 他力적 祈福만을 過信할 때 불교는 巫俗 내지 미신으로 타락하고 국민정신을 혼탁하게 할 뿐이다.

어떤 사람이든 유흥등 감성적이고 官能적인 욕망에 탐닉할 때 자기정신의 自制에 의하여 신행되는 불교의 진리는 필연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마는 법이다.

문물이 풍성한 이 시기 중반이후 나라의 상하가 유흥등 감상적 욕망추구에 휩쓸려 갔다는 것은 불교의 실행이 겉질만 남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의 주도하에 있는 僧團은 지배층의 해이한 기풍과 軌를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도층과 유착한 불교승단은 사회전체의 질서가 해이해 가는 이 기풍을 匡正하기에는 벌써 힘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말엽에 불교승단이 전체가 문란해 가는 사회기풍을 광정하지 못하는 상황하에 등장한 불교의 일 思潮가 中國에서 전래한 禪불교이다.

禪불교가 신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신라불교가 극성을 이루고 있던 35代 경덕왕대 초반에 法郎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라인의 禪을 이해하지 못하고 禪을 魔說이라고 수용을 거부했다. 그 뒤 여러 승려가 求法次 唐에 갔다가 귀국한 뒤 46代 文聖王(839~856)대 49代 憲康王(875~885)대에 이르는 약 半세기동안 여러 寺刹들 즉 소위 9山이 선불교 道場이 되었다.

이 禪불교는 권력계층에 의존하지 않고, 또 기존의 여러 교의에도 사로 잡히지 않고, 바로 자기정시의 자기개혁, 자기정화를 主旨로 하는 自力구제의 불교이다. 이 禪風은 僧團에게는 물론 문란해진 왕실, 귀족층 그리고 사회전체의 정신계에 대하여 크다란 新風이었다. 그러나 그 신평은 오염된 권력층과 그들에 상응한 승단 및 정신세계를 개혁 재생하는 힘은 되지 못했고, 기우려져 가는 신라를 바로 세워 재건하는데 힘이 되지 못했다.

여기에 禪불교의 본질적 성격과 신라의 禪수용에 이르는 法脈을 약술한다.

이 禪은 원래 불교의 근본교설인 四聖諦(苦·集·滅·道)의 道諦 즉 八正道 맨 끝에 제시된 正禪定の 禪이다. 이 禪定の 禪은 그 위에 제시된 正見, 正語등 7德目을 실천하는 마음바탕을 닦는 修心の 방법이다. 그런데 中國에서 창시되고 전래한 禪은 단지 수심의 방법에 그치지 않고 불교의 새로운 하나의 見解(禪宗旨)를 포함하고 있는 禪이다.

불교의 여러 宗派는 中國에서 형성된 것인데 그 모두가 기존의 經·論을 기본(所依經典)으로 하여 開立하는데 禪宗은 처음에 어떤 經 또는 論을 기본으로 하여 開立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모든 교의를 벗어나서 바로 자기 스스로 解脫의 진여心性을 직각하고 자기심성의 자기개혁, 자기정화를 하는 것이 선불교의 主旨이다(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

中國에서 禪불교의 창시전에 禪에 통달한 자로서 傅翕과 保持스님이 有名했지만 禪宗의 기초를 놓은 자는 梁武帝 때 인도에서 온 「보리달마」이다. 그 禪은 祖師禪이라 하거니와 그를 禪宗의 第一祖로 하고 五祖 弘忍의 두 제자간에 깨달음의 漸·頓문제로 禪宗은 두 派로 갈라졌다. 한 제자 神秀는 證悟의 단계에 따라 수행하는 공덕으로 깨닫게 된다는 頓悟禪을 주장하여 北쪽 洛陽에서 활동했으므로 이를 北漸禪이라 하고, 다른 한 제자 惠能은 修證不二란 관

점에서 대승의 교리를 듣고 단번에 깨닫는다는 漸悟禪을 주자하여 江南에서 활동했으므로 이를 南頓禪이라 한다.

신라에 法郎이 처음 전래한 것은 北漸禪인데 이 禪宗은 다음 代 神行(704~779)에 이어지고 그 다음은 호지부지 자취를 감추었다. 37대 宣德王대에 道義가 南頓禪을 수용하여 그 뒤 계속해서 이 宗이 신라의 禪宗의 法脈을 이어 고려조 조선조를 거쳐 오늘의 曹溪宗이 된 것이다.

九山, 寺刹과 開山祖는 아래와 같다.

迦智山(全南 長興郡), 寶林寺: 道義(821 唐에서 귀국)

實相山(全北 南原郡), 實相寺: 洪徒(826 唐에서 귀국)

桐裡山(全南 谷城郡), 泰安寺: 惠哲(785~881)

聖住山(忠南 保寧郡), 聖住寺: 無染((800~888)

闍堀山(江原 江陵郡), 堀山寺: 梵曰(810~889)

師子山(江原, 寧越郡), 興寧寺: 道允(789~868)

曦陽山(慶北, 聞慶郡) 鳳巖寺: 眞鑑(774~850)

鳳林山(慶南, 昌原郡) 鳳林寺: 玄昱(787~868)

須彌山(黃海, 海州郡) 慶熙寺: 利巖(870~936)

3) 불교계에 큰 빛 남긴 고승

이 시기에 불교계에 큰 빛을 남긴 고승을 많지만 여기서는 圓測, 元曉, 義湘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圓 測

三國時代 眞平王 34년(612)에 태어나 15세에 唐으로 들어가 당대의 고승인 法常(567~645)와 僧辨(568~642)의 講筵에 參하면서 6語를 능통하게 익히고 唯識學등 敎學을 연구하여 그 學名을 中國에 떨쳤으며 唐太宗으로부터 度牒을 받았다. 특히 그는 瑜伽論과 唯識學강의에 능했으며 則天武后의 귀의를 받았다. 신라에서 그 名聲을 듣고 王이 그의 귀국을 청했으나 武后가 허락지 않았다. 圓測은 696년 唐의 佛授記寺에서 入寂할 때 까지 60년 동안 唐에서 그의 學德을 一世에 떨쳤었다. 그의 저서는 般若心經疏一卷, 仁王般若經疏六卷, 成唯識論疏二十卷등 23冊에 이른다.

圓測은 신라에서 강의나 교화는 하지 않았지만 신라인으로서 大唐에 가서 신라인의 뛰어난 슬기와 높은 氣品을 떨친 것은 길이 기억할만한 일이다.

(2) 元 曉

신라 26代 眞平王 36년(617) (押梁郡 現 경산군 자인) 佛地村에서 태어났다. 姓은 薛氏요 이름을 誓童이라 하다가 出家한 후에 元曉라 했다. 그는 불교경전을 연구함과 수도를 전념하고 자기집을 절로 삼아 初開寺라 했다. 그는 국내에서 연구에 만족치 않고 唐에 가서 그 나라 고승에 배울 것을 간절히 회구했다. 34세 되던 해(650) 동료僧 義湘과 함께 唐에 유학가기로 하고 陸路로 고구려 遼東까지 갔다가 간첩혐의로 순라꾼에 잡혔다가 간신히 탈출해 되돌아 왔다.

그는 34세 전후에 全州 大山에 가서 고구려 亡命僧인 백제의 普德에게 涅槃經을 배웠고 興輪寺 法藏의 門下에서 배웠고 또 靈鷲山 碓高寺의 朗智 밑에서 배웠다.

요동에서 되돌아 온지 3년이 지난 뒤 그는 春情이 동했음인지 이상야릇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다녔다.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나에게 허락해 주런가?
내가 한 번 자루를 박아
하늘을 받칠 기둥을 다듬어 보련만!

이 노래를 전해 들은 무열대왕은 원효가 귀부인 과부와 인연을 맺고 국가의 기둥감을 낳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元年에 관원을 보내어 원효를 맞아오게 했다. 그가 月城宮에 오게 되자 王의 은의로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게 되어 1年후(656)에 薛聰을 낳게 되었다. 이 때 원효나이 37세였다.

이 때부터 6년이 되던 해에(43세, 661) 백제가 멸망하고 海路가 열리자 원효는 다시 義湘과 함께 唐으로 가기로 했다. 둘은 배를 타기 위해 港口로 갔다. 거기서 가는 도중 비가 오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됨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언덕 밑에 있는 땅막에서 하루 밤을 자게 되었다. 곤히 자다가 목이 날라 머리맡을 더듬다가 바가지를 잡고 그 안에 고인 물을 마시는 해갈을 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땅막은 옛 무덤의 석실이었고 그 바가지는 해골바가지였다. 그는 갑자기 구역질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문득 크게 깨달았다. 어제밤에 바가지 물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해골바가지라 생각하니 갑자기 구역질이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토로했다.

“마음이 일어나므로 온갖 사건(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므로 방과 무덤이 둘이 아니로다.

三界는 오직 마음뿐이요, 萬法은 오직 識 뿐이라.

마음밖에는 法이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할 것인가!

나는 唐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元曉는 신라고향으로 되돌아 왔다. 그는 이런 立場에서 모든 經·論을 섭렵하고 철저히 재음미하여 바르게 이해했다. 불교학에서 어느 누구의 추종을 불허하는 견지에 이르렀다.

한편 그는 파계했다고 俗服으로 갈아입고 小姓居士라 자칭하면서 가끔 自由奔放하고 해괴한 言行을 서슴치 않고 했었다. 어떤 때는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창녀집에 가서 자기도 했다. 혹은 佛經의 疏를 짓기도 하고 또는 華嚴經을 강하기도 하며 혹은 거문고를 타며 祠宇에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또는 山川에서 坐禪을 하기도 하였다.

이 때 원효와 비슷한 自由奔放한 言行을 하는 두 승려가 있었다. 헤어진 옷을 걸치고 징을 치면서 大安, 大安하며 다니는 大安大師와 큰 자루를 메고,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負簍和尚이다. 특히 元曉는 광대로부터 큰 바가지를 얻어 이를 악기로 만들어 이를 無碍瓠 -〈華嚴經：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에서 따온 것- 들 두드리면서 千村萬落을 돌아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던 것이다.

大安, 부계, 元曉의 이러한 自由奔放한 言行은 당시 계율을 중시하던 승단중진들의 심한 비팔을 받는 異端者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大安·元曉등의 태도와 言行은 권문 귀족의 비호아래 호의 호식하는 귀족승려의 자세를 바른 자세로 보지 않고 승려의 본래의 無所有의 자세를 견지하고 서민과 함께 어울리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최초의 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文武大王이 국가의 태평과 안녕을 위한 仁王經百高座法會를 개최하는데 同經을 강할 고승 大德을 전국에서 구함에 원효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승단중진들의 맹렬한 반대로 원효는 나가지 못했다.

그 후 元曉는 많은 經과 論에 대한 宗要 또는 疏를 지었다.

그런데 文武王妃가 뇌종을 앓게 되어 百藥이 무효하고 온갖 치성을 다 해도 허사가 되자 칙사를 唐으로 보내어 百藥을 구하던 中 金剛三昧經을 강설함으로써 王妃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했다. 위의 經을 강설할 고승은 元曉밖에 없었으므로 大安大師의 추천에 의하여 元曉를 궁중에 불러 왔다. 원효는 위 經을 받아 가지고 자유분방한 생활속에서 벼루를 牛의 두 뿔사이에 얹어 두고 소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위의 경의 疏5권을 완성하여 王에게 반겼다. 皇龍寺에서 강설할 날자를 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가 그 疏를 훔쳐가 버렸었다. 그래서 강설 날자를 3일 연기하고 그 동안 위 경의 略疏3권을 지어 王에게 반

쳤다. 강설의 날, 국왕, 문무백관, 고승대덕이 모인 앞에서 위풍 당당하게 대강연을 토했다. 모두 합장백배하고 웃길을 여미고 경청했다. 강설을 마치고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외쳤다.

“옛날 百거루의 석가래를 베는 것과 같은 仁王經法會에는 비록 참석치 못했으나 오늘 한 그루의 대들보를 걸어 엮는 것과 같은 金剛三昧經講席에는 오직 나만의 독무대로다.”

昔日採百椽時雖不預曾

今朝橫一棟處唯我獨能

그는 이로써 단연 신라 제일의 불교학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는 華嚴, 法華, 涅槃, 三論, 法相, 淨土, 律, 成實등 모든 經·論에 통달하여 그 것에 대한 宗要내지 疏를 지었다. 특히 그는 諸宗派間에 相異한 教義에 집착함에 의하여 무익한 다툼을 벌이어 헛된 정력을 낭비하고 허송세일을 하는데 그 相異한 교의를一味에 會通하는 原理를 論한 十門和諍論을 지었다. 相異한 교의를 會通하는一味 곧 〈眞如一心〉을 廣釋한 것이 그의 大乘起信論疏와 金剛三昧經論(疏)이다. 이 두 疏는 中國에서 으뜸되는 疏로서 그나라 고승大德의 존숭을 받은 것이다.

元曉大師는 99部 240여권의 저술을 했다. 實로 그는 인도에 있어 大乘佛教의 理論的 定礎者로서 八宗의 祖師로 추앙받던 龍樹보살 以上 諸宗의 總和的 理論的 定礎者이며 신라의 귀족적 불교를 대중화하는 시도를 한 先驅者이었다. 그는 만년에 경주南山 穴寺에 안주하다가 神文王 6년(686) 80세에 入寂했다. 그의 유골을 부수어 芬皇寺에 塑像을 만들어 안치했다. 元曉는 고려 大覺國師에 의하여 聖元曉國師로 숭앙되고 고려 숙종 6년(101)에 和正國師란 시호를 받았다.

(3) 義 湘

眞平王 47년(625)에 태어나 29세 때(善德女王 13년, 644) 서라벌 皇龍寺에서 삭발하고 중이 되었다. 眞德女王 4년(650) 원효와 함께 大唐에 求法하고자 육로로 요동까지 갔다가 간첩혐의로 잡혀 갔다가 탈출하여 되돌아 왔다. 10년이 지난 文武王 元年(661)에 다시 원효와 함께 당진에서 해로 당나라에 갈려고 배를 기다리다가 하룻밤을 옛 무덤의 석실에 자고나서 元曉는 깨친바 있어 고향으로 되돌아 가고 의상 혼자 唐으로 건너 갔다. 唐에 달했을 때 처음 楊州(또는 登州)의 州將 劉至仁이 衙內로 맞이하여 후하게 대접했다. 이 때 그의 딸 善妙尼와의 聖潔한 사랑이 꽃피었다. 둘은 世世永永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 의상은 終南山 至相寺에 이르러 賢首(法藏)國師와 함께 智儼의 門下에서 10년동안 華嚴學을 전수받고 文武王 11년

(671)에 귀국했다. 海東에 華嚴宗을 전하니 그는 海東華嚴宗의 開祖가 되었다.

文武王 16년(676) 王命을 받들어 太白山에 浮石寺를 창건했다. 이 때 唐에서 사랑하던 善妙尼가 죽어 龍이 되어 이 절에 와서 이 절을 수호했다는 전설이 있다. 문무왕 20년(680) 왕이 서울을 재건하려 하여 의상에게 자문함에 의상이 말하기를 “草野茅屋에 있더라도 正道를行하면 福業이 長久할 것이요, 참으로 그렇지 않으면 人民을 괴롭혀 城을 지어도 유익할 것이 없다” 함에 그 役事를 중지시켰다.

의상은 太白山 浮石, 原州, 毘摩羅寺, 伽耶山 海印寺, 毘瑟의 玉泉寺, 金井의 梵魚寺, 南岳의 華嚴寺등에 승을 내려 華嚴宗을 크게 弘布했다. 그는 洛山 觀音窟에서 관음보살 眞身을 보고 (靈感하고) 洛山寺를 창건하고 八公山에 들어가 공부 수도할 때 雲浮寺를 지었다. 그가 지은 저술은 華嚴一乘法界圖, 百花道場發願文, 十文看法觀 入法界品記등이 있다. 그 中에서 특히 華嚴一乘法界圖는 80권이나 되는 大華嚴의 사상을 七字로 된 句가 30句 총 210字로 압축하여 圖形相으로 象徵化한 것이다. 이 것은 大般若經 600권을 241字로 압축한 般若心經 以上으로 불자대중이 쉽게 誦할 수 있고 視角的인 想念이 加해져 華嚴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가 자랑할만한 義湘祖師의 獨創의인 圖形的 教本이다.

2. 대구에 창건된 사찰

통일후 이 지역내에 특기할 불교활동 및 불교의 변화양태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역내에 창건된 사찰의 운영양태를 본다.

통일후 이 지역내에 창건된 사찰은 三國시대에 창건된 桐華寺, 符仁寺와 같은 大刹이 아니고 조금 적은 寺刹이고 거의가 王室 또는 권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把溪寺(대구시 동구 중대동 山 7)

이 절은 신라 40代 哀莊王시 心地國師가 창건한 것으로 「朝鮮寺刹史料」에 적혀 있다. 이 밖에 이 寺刹창건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把溪寺寺蹟記」에는 다만 조선조 이후 重建 내지 창건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조의 기록은 다음 조선시대에서 논하기로 한다.

2) 安逸寺(대구시 남구 대명6동 山 225)

이 절은 신라末(54代) 景明王代 初에 지은 것으로 전한다. 이 때는 신라의 국토를 신라와 甄萱의 後百濟와 王建의 高麗가 3分하여 싸우고 있을 때이다. 王建이 견훤과 동화사(桐蘄)지역에서 싸워서 大敗하고 피하여 半夜月을 거쳐 이곳에 와서 편안히 쉬었다고 해서 이절이

름을 안일사라 했다고 한다. 이 절이 어떤 종파(宗派, 宗旨)에 속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절 창건 몇년후에 고려가 국토를 통일하게 되고(926) 이에 따라 사찰운영양태는 王室이 信佛姿勢에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3) 臨休寺(대구시 달서구 서인동 1321)

이 절은 신라 54代 景明王 5년(고려 太祖 4년, 921)에 영조禪師가 창건한 것이라 한다. 이 때는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신라와 견훤과 王建이 싸우고 있을 때인데 王建이 견훤과의 桐籙大戰에서 大敗하고 견훤의 추격을 피하여 반야월 안일사를 거쳐 이곳에 와서 임시로 쉬어갔다. 그래서 寺名을 臨休寺라 했다고 한다. 이 절 역시 어떤 종파에 속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찰 운영양태는 安逸寺와 같이 王室의 信佛姿勢에 順應하기 마련인 것이다.

4) 隱跡寺(대구시 남구 봉덕3동 1572)

이 절은 신라 55代 景哀王 3년(고려 太祖 9년, 926) 王建太祖의 명을 받아 영조대사가 창건했다 한다. 이 절은 王建이 견훤과의 동수대전에서 大敗하고 피하여 安逸寺의 자리와 임휴사의 자리에 쉬었다가 이 은적사의 자리 대숲속의 자연굴에 숨어 있다가 견훤의 추격군을 피했다는 것이다. 王建이 굴속에 숨어 있는 동안 굴 입구에 왕거미가 거미줄을 쳐 놓았기 때문에 추격군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돌아 갔다고 한다. 王建이 이 굴에서 3일간 머물고 있다가 다시 건너편 중턱에 있는 안일사가 있는 곳에서 3개월을 쉬다가 김천 황학산을 경유하여 철원으로 回軍하고 軍力을 재정비하여 안정케 한 다음 영조대사에 명하여 이 곳에 절을 짓게 한 것이다.

이 절 역시 소속종파는 알 수 없고 사찰 운영양태는 安逸寺와 臨休寺의 경우와 같이 나라의 信佛자세에 따르기 마련이다.

5) 念佛庵(대구시 동구 도학동 38)

이 암자는 신라 최종왕 56代 敬順王 2년(928)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창건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찰당국자는 “이 염불암은 법당뒤에 있는 큰 바위에서 염불소리가 들려 이 곳에 절을 짓고 염불암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염불암은 念佛宗 즉 淨土宗이 아닌 절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염불종은 「아미타불」의 名號를 일심으로 念誦하면 西方淨土에 往生한다는 것이 그 宗旨의 골자이다. 이 立場은 禪宗, 法華宗, 華嚴宗등의 自力救濟의 立場과 반대되는 他力救濟의 立場이다. 禪宗등은 聖道門인데 이 立場은 서민대중이 제일쉽게 입문할 수 있는 易行道이다.

이 지역에 정도왕생의 이행도를 제시한 절은 이 절이 처음이다.

IV. 高麗時代

1. 고려불교의 전개

고려불교는 신라불교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계승하여 그 위에 독자적으로 전개하였다. 신라 불교는 불교수용기에 있어 토속신앙을習合하면서도 敎學(哲學)面에서 前無後無 하리만큼 풍성한 업적을 남겼다. 이에 비하여 고려불교는 교학면에서는 별 진전이 없으나 信行面에서는 신라때보다 더 많은 거국적인 佛事가 거행되었던 것이다. 거국적인 佛事로 진행된 그러한 敎風은 王建太祖의 信佛姿勢에서 뚜렷이 성격지워진 것이다. 王室내지 귀족층의 行爲양식이 國風으로 형성되는 시대이니太祖의 信佛자세의 분석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1) 고려불교의 신앙형태

(1) 태조의 信佛자세와 고려불교 信行의 兩面性

태조의 신불자세는 그의 만년에 後嗣의 보좌를 고탁한 중신 朴述希(?~945)에게 親授한 訓要十條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중 3조만 살펴 본다.

첫째, “我國家 大業은 諸佛의 護衛에 힘입은 것이므로 禪敎寺院을 창건하고 住持를 파견하였는데 만일 후세에 姦臣 정권이 僧徒의 청으로 寺院을 경영하게 되면 爭奪이 있을 것이니 宜當 이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모든 寺院은 모두 道詵(827~898)이 推占한 山水 順理의 地理에 따라 창건한 것이니 후세에 國王, 公侯, 后妃, 朝臣들이 道詵이 占定치 않은 土地에 願堂을 함부로 창건하면 地德(力)이 損薄하게 되어 王業이 길지 못하리라는 바 이것(濫創)을 경계하라”

여섯째, “……燃燈(會)은 佛에 奉事하는 것이고 八關(會)은 天靈, 五岳 名山, 大川, 龍神에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姦臣이 神祇 및 의식의 加減을 건의하는 것을 切禁하고…… 君臣 同樂하여 경건히 행하라.”

여기 첫째, “태조의 國家大業을 諸佛이 호위한 힘”이란 오래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의 힘일 수 없고 大乘경전에 나오는 理念的 諸佛의 人格化 즉 태조자신의 영적 체험에 의한 〈佛〉이란 神적〈이미지〉의 신비적 加被力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肉眼에 보이지 않는 諸佛의 加被力을 얻는 방법(呪) 내지 행사가 중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려일대(一代)에 있어 거국적으로 시행한 燃燈會, 經道場, 齋 등 60여종의 佛事는 佛의 正法의 宣揚自覺을 촉구하는 행사라기 보다 治疫, 消災, 鎮兵, 祈福을 위한 행사였다. 周知하는 바 顯宗때 大藏經雕版佛事는

契丹兵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고 高宗 때 八萬大藏經組雕佛事는 蒙古兵의 退治를 위한 佛事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태조의 신불자세는 〈他力이 主〉에 〈自力이 伴〉하는 兩面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고려불교의 護國의 性格

통일신라 전부터 王에 의하여 敍任되는 國統(僧統)과 僧尼의 감독청격인 〈大書省〉 등은 僧團이 王室에 예속된 체제속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려조에서도 그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僧侶와 僧團의 諸般을 관리하는 僧官의 僧錄司와 僧科制를 설치하여 감독했던 것이다. 그런데 古代에 있어 국가란 國土와 人民을 수호하는 王室中心의 小數귀족들의 統治的 共同体인 만큼 王室수호를 지향하는 불교가 곧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이 나라의 호국불교는 바로 그런 성격의 불교이다.

(3) 고려불교의 現世置重의 성격

고려조에 있어 信者의 信佛의 관심所在를 보면 出家僧侶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現世에서의 所望成就에 있는 것이다. 私的인 불공을 비롯하여 公的인 法會, 道場, 齋 등의 佛事도 거의 대부분 現世에 있어서의 온갖 소망성취를 기원하는 것이었다. 더러는 淨世의 西方淨土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과 靈의 遷度を 위한 佛事도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고려사회의 主流的 信佛者의 관심所在는 現在에서의 소망성취였다는 것이다.

(4) 諸經의 會通的 理解와 混合宗教의 性格

우리나라는 中國에서 크게 流行한 經論등은 곧 그 것을 수용하고 그 것을 要約(宗要) 또는 注釋하고 流通시켰다. 그 中에서도 中國에서 形成된 宗派佛敎 하나의 經 또는 論을 基準(所依經典)으로 하는 宗派佛敎를 민감하게 받아 들여졌던 것이다. 신라불교에서 보았듯이 이 宗派佛敎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相異한 諸宗派의 異敎義를 會通하는 理論을 提示한 元曉大師의 會通精神을 고려대에서 再闡명한 이가 大覺國師 義天이다. 義天은 羅末 中國에서 전래한 禪宗이 고려조에서 禪一邊倒로 치닫는 敎風에 制動을 가하여, 그 때 마침 中國에서 형성된 天台宗을 고려에 移植하여 開宗하면서 敎일변도가 아닌 敎觀(禪)雙修의 立場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리고 고려中葉에 禪宗의 中興祖인 知訥은 禪을 강조하는 立場에 있으면서도 禪일변도가 아닌 〈定(禪)慧(敎)雙修〉, 禪敎融攝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 것은 敎學面에 있어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우리 불교의 한 성격이라 하겠다.

信行面에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성격을 볼 수 있다. 태조의 종교가 불교를 基幹으로 한 混

混合宗教의 性格 그대로 고려불교 일반이 어떤 宗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다른 신념행태를 함께 信行하는 混合宗教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고려의 佛教宗派와 敎學 研究의 發展

(1) 고려의 불교종파

統一신라시대에 성립했다는 五敎宗은 中國에서의 敎宗처럼 뚜렷한 宗派를 이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韓國역사에 있어서 佛教宗派의 기록은 아마 大覺國師 墓誌銘일 것이다. 肅宗 6년(1101)에 撰한 開城 興王寺 大覺和尚墓誌에 戒律宗, 法相宗, 涅槃宗, 法性宗, 圓融宗, 禪寂宗의 6宗名이 있다. 이 6宗(5敎宗과 禪寂宗九山禪門)은 고려초기까지 당시의 學宗이었다.

그리고 大覺國師가 天台宗을 開創한 후에는 7宗으로 되었다. 5敎宗과 2禪宗 즉 南山(戒律)宗, 慈恩(法相)宗, 中道宗, 華嚴(圓融)宗, 始興宗의 5敎宗과 曹溪(禪寂)宗과 天台宗의 2禪宗 합하여 7宗이다. 天台宗은 中國에서 創宗된 敎宗의 하나였으나 고려에서 大覺國師의 天台宗 開立 이후 禪宗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禪寂宗이 언제부터 曹溪宗으로 改名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떤 이는 普照國師가 修禪法의 根本道場이었던 松廣山을 曹溪山으로 고친데 따라 曹溪宗이라 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曹溪宗이란 말이 나왔으니 그 見解는 옳지 않다. 아마 天台宗이 禪宗으로 됨에 이것과 混同을 피하기 위하여 禪宗의 中始祖인 中國의 六祖 慧能이 지은 鳳林寺가 있는 땅 이름인 曹溪를 따서 曹溪宗이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고려 全時代를 통하여 禪宗은 많은 禪匠이 배출되었고, 華嚴宗에서도 적지 않은 學匠大德이 나왔으며 天台宗도 開立 이래 상당히 성하였으며 法相宗에서는 몇몇 學匠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 밖에 다른 宗에서는 宗名만 보일뿐 그 活動相은 보이지 않는다.

(2) 불교교학의 연구와 전개

諦觀의 「天台四敎義」

法華經은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온 것이며 元曉의 法華經宗要등에서 보듯이 法華思想 연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隋나라 智顗大師(法號 智者, 538-591)가 開創한 天台宗의 敎義도 신라에 들어온 것으로 전하나 그 內容은 분명치 않다. 고려대에 들어와서 智顗의 저술인 「法華玄義」(10권)와 「四敎」(12권 7萬字)의 內容을 9千字로 集約概說한 것이 諦觀의 「天台四敎義」이다.

諦觀의 傳記나 그의 「四敎義」의 由來에 관한 우리나라 문헌은 볼 수 없으나 宋나라 天台學者 志磐의 저술인 「佛祖紀記」 제7권에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吳越王 錢俶이 使臣을 보내어 五十種의 寶貨로써 天台敎籍을 우리나라에 求하여 음에 光宗 2년(960) 諦觀이 天台宗論疏諸文을 가지고 中國으로 갔다. 諦觀이 螺溪寺 義寂을 參

謁하고 禮하고 그후 10년간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런 어느 날 諦觀은 앓은 채로 죽어 있었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이 그 상자의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 「天台四教儀」만이 들어 있었다. 이 四教儀는 天台思想의 要旨를 가장 정밀하게 集約한 概說書로서 후세에 天台宗의 基本敎義의 八門書로서 동양3국에서 초학자의 指針이 되었다.

이 「四教儀」는 天台宗 開宗者 智顗大師의 〈五時 八敎〉의 敎判의 概說書이다. 敎判이란 敎相判釋의 준 말이다. 이 敎判은 佛陀一代의 敎說을 성격상으로 分類 判別하고 그 分類된 것 중 自己宗의 敎義가 제일 優位의 敎法임을 定位하는 敎義類型 分別評價論이다.

五時는 世尊一代의 敎說을 五時期로 구분하고 一時期마다 說한 經이 다른 것을 論하고 八敎란 敎說內容을 8類型으로 分別한 것이다.

五時	期間	說한 經
1. 華嚴時	→ 成道後 21日間	→ 華嚴經
2. 鹿苑時	→ 成道後 12年間	→ 阿含經
3. 方等時	→ 다음 8年間	→ 維摩經, 楞伽經等
4. 般若時	→ 다음 21年間	→ 般若經
法華時	→ 최후 8年間	→ 法華經
5. 涅槃時	→ 최후 3個月間	→ 涅槃經

그런데 이 五時論은 世尊一代의 說法의 歷史的 事實과는 全然 다른 것이다. 智顗大師는 大乘經典이 ADI세기에서 7세기까지 걸쳐서 編纂된 歷史的 事實을 알지 못하고 한꺼번 自己앞에 제공된 小大乘經典이 모두 世尊一代의 歷史的 事實로 보고 分類하여 時期마다 자기 생각대로 說한 경을 안배한 것이다. 이 것은 世尊一代의 敎說來歷에 대한 智顗大師의 나름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리고 世尊一代의 敎說內容을 8類型으로 구분한 八敎는 化儀四敎와 化法四敎인데, 化儀四敎는 깨치는 主體의 根柢행동양태에 따라 구별한 頓, 漸, 秘密, 不定이고, 化法四敎는 깨쳐가는 主體의 근기와는 관계없이 敎說自體의 客觀的 形態의 相異를 論한 藏敎, 通敎, 別敎, 圓敎등이다. 고려이래 승려나 일반신자들이 四敎儀를 眞實한 것으로 보고 신봉한 것이다. 그런데 世尊一代의 敎說을 八敎로 구분해도 無妨하지만 歪曲된 五時論을 그대로 신봉할 때 불교발전의 이념적 사실적 발전脈絡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均如의 華嚴敎學의 解釋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8·15까지 華嚴敎學의 一人者는 고려 光宗때의 高僧 圓通首座均如

(923~973)이다. 그의 華嚴教觀은 中國의 賢首(法藏)大師의 저술인 「華嚴一乘教義分齊章」(華嚴五教章)을 주석한 「釋華嚴教分記圓通抄」에 표현되고 있다. 이 「圓通抄」는 上流層 知識人을 위한 華嚴學을 廣禪한 것이다. 華嚴學은 佛教哲學에서 가장 深奧하고 어려운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均如師가 下化衆生을 위하여 華嚴經의 普賢行願品末尾에 있는 普賢보살의 十願을 詩歌(訶腦)로 표현한 11首中 몇首만 여기에 옮겨 본다. 이것은 널리 대중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原文은 漢字의 吏讀로 表現한 것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적는다.

懺悔業障歌

顛倒되어 菩提을 向함이 어지려우메
지어온 모든 罪業은 法界에 남아 있으니
모진 버릇에 떨어진 三業은
淨戒를 지키고서 오늘 부처님 아시옵소서
아아! 衆生界가 다하고
오는 世上엔 길이 惡業짓기 버리고저!

恒順衆生歌

부처님은 미혹중생을 뿌리로 삼으신
이 大悲의 물로 흠뻑 적시어
시들지 아니하옵더라
法界에 가득히 꿈실 꿈실하는
나도 부처와 同生同死하니
부처가 그랬듯이 중생을 공경하리라
아아~ 衆生의 마음이 편안한다면
부처께서 또한 기뻐하시리로다.

普皆廻向歌

내가 닦은 모든 善을 嘿 돌이켜
중생의 바다안에 迷衆 없게 알리고저
부처바다 이뤄지는 날엔
참회하고 모진 業도 法性宮의 보배라
예로부터 그리 하셨도다
아아! 禮드리는 부처도 내 몸이거니
어와 그 무슨 남이 있을까?

(3) 知訥의 新佛教觀—禪教兼修論

① 知訥의 求道와 定慧社 結成

가) 知訥의 求道歷程

知訥(1158~1210)은 회대의 風流王 18代 毅宗王 12년에 國學學正 鄭光遇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시대는 고려건국후 200년이 되는 시기라 국가전성기를 지나 국가내부 相克期(仁宗—康宗 1123~1213)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전성기에 시작된 文人관료층의 정치적 타락과 부패가 누적되어 마침내 국가내부적 변란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他力이 주 되고 이에 自力이 伴〉인 귀족의 信佛자세는 地理圖識思想과 山神崇拜등이 混合된 信仰형태로 심화되어 갔다.

이런 社會 및 정신상황하에서 知訥은 8살 때 宗暉선사에게 祝髮 得度한 뒤 學問에는 一定한 스승없이 혼자 道을 닦았다. 25세 때 禪科에 급제한 뒤 昌平(羅州) 淸源寺에 머물었다. 그 절 學堂에서 六祖檀經을 보다가 “眞如自性이 생각을 일으키고 六根이 비록 見聞覺知하지만 眞如의 性은 아무것도 물들지 않고 항상 自在하다”는 구절에 이르러 기뻐서 겪지 못한 체험을 했다. 그 때부터 名利를 싫어하고 항상 山林에 은둔하여 道를 구하고자 했다. 28세 때 예천 普門寺에서 大藏經을 읽다가 華嚴經 如來出現品에 “한 티끌을 들어도 大千經을 포함하고 있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不知中 그는 經卷을 머리에 이고, 눈물을 흘렸다 한다. 그리고 〈卽心卽佛 離妄卽佛〉의 구절에서 禪理와 相通하는 教理를 발견했다 한다. 그리고 李通玄居士의 「華嚴論」에서 “凡夫로서 처음 十信初位에 들어가 좋은 圓頓觀門을 제시한 것”과 그의 十信初位の 해석중에 “自己의 身心이 본래 法界임을 깨닫는 것, 자기 身心의 分別性이 본래 不動智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自心이 正邪를 잘 간택하는 妙慧임을 깨닫는 것, 이 세가지를 文殊보살이 信心초에 깨달아 覺首보살이라 일컫게 되었다”는 대목에서 凡夫의 無明分別之種이 곧 諸佛의 不動智임을 直觀하는 圓頓成佛의 觀門妙理를 터득했다.

나) 定慧社 結成과 新佛教運動

33세 때 禪伯得材가 普濟寺 談禪法會에서 약속한대로 公山 居祖寺에 師를 초치하여 結社하기를 간청해 왔다. 知訥등 3·4인이 居祖寺에 모여 定慧社를 결성하고 一萬字에 달하는 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했다. 그 結社趣旨의 요지는 첫머리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한 마음이 迷하여 무변한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衆生이요. 한 마음이 깨달아 무변한 妙用을 일으키는 자는 佛이라. 비록 迷와 悟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마음을 떠나서 佛이 되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하여 成佛의 本源은 마음자체인 것을 간파한 다음 당시 本源에서 벗어나 타락한 僧團의 作態를 솔직히 지적하고 비판한다.

“……우리들의 朝夕의 所行을 돌이켜 보면 佛法을 핑계하여 〈나〉와 〈남〉을 구별하여 利養의 길에 허덕이고 風塵가운데 골몰하여 道德은 닦지 않고 衣食만 허버하니, 비록 出家하였다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三界를 떠나려면서도 속세를 벗어난 修行은 없고 다만 남자의 몸이 되었을 뿐 丈夫의 뜻이 없어 위로는 道을 닦는데 어긋나고 아래로는 衆生을 이롭게 하지 못하여 중간으로는 四恩을 저버렸으니 진실로 부끄럽도다”

이리하여 知訥은 일체의 허망한 名利적 妄情을 버리고 자기안의 佛의 根本智, 진실한 自己主體性的의 회복을 위한 自己變革的인 自力的 新佛教運動을 시작한 것이었다. 거기에서는 朝廷에서나 檀信徒의 施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寺奴의 勞力에도 의지하지 않고 法友들 스스로 執勞하는 百丈淸規의인 自力自養하는 僧伽生活로 10년을 刻苦精進하였다.

知訥이 43세 때 修道處를 江南 松廣山 吉祥寺로 옮겼더니 근처에 定慧寺가 있어 寺名을 〈修禪寺〉로 고치고 山名을 曹溪山으로 개칭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金剛經, 六祖檀經을 근본으로 삼고 李通玄의 「華嚴論」과 大慧宗杲의 語錄을 羽翼으로 삼고 學者들에게 권장하였다. 이리하여 修禪寺는 한국불교의 新風(禪風)을 크게 일으키는 새로운 慧命集團의 根本道場이 되었다.

知訥이 53세 되던 해 3월 27일 이곳에서 法床위에 올라 최후의 說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入寂하였다.

② 知訥의 新佛教觀

가) 禪教兼修論

당시 불교계의 가장 큰 폐단은 禪者は 禪에만 짐착하여 偏重하고 教者は 教에만 짐착하여 偏重하는 경향이였다. 이에 知訥은 禪의 本義를 옳게 터득하지 못하고 法相(敎理)을 등한시하는 禪者에 대하여 敎相의 바른 이해를 강조하는 한편, 言敎에만 집착하고 있는 教者에 대하여 諸敎의 同根인 一心에로의 返照와 修心을 강조하였다. 즉 禪과 敎를 똑 같이 兼修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古今의 禪門達士들의 見性成佛에는 一分性淨의 體만 있고 相用(敎相一緣起門)을 갖추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고 永嘉, 大慧등이 體得한 圓經妙理의 知見을 引證하고 禪者도 반드시 敎相을 바로 信解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達磨가 학자들이 言敎, 義理, 分除에 집착하여 忘義了義할 수 없고 菩提들 速證할 수 없기 때문에 〈我是我心〉의 立場에서 〈以心傳心〉을 강조한 것인데, “愚者는 그 義를 알지 못하고 每時 비슷한 말로 頓敎와 같다고 한 것은 큰 잘못이라” 하면서 知訥은 法相(敎)을 등한시하는

禪者를 혼계했던 것이다. 한편 言教에 집착해 있는 教者에 대하여 知訥은 “先聖이 隨機設教 바로 說한 것이 廣略 다르지만 〈一心〉에로 指歸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여 禪과 教을 兼修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大覺國師 義天은 〈教觀(禪)兼修〉論을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教를 앞에 두고, 知訥의 禪教兼修論에서는 禪을 앞에 두었을 뿐 바른 成佛의 길은 兩者를 均等하게 兼修해야 한다는 基本立場은 義天이나 知訥이 다 같다고 하겠다.

나) 頓悟漸修·定慧雙修論

知訥이 평생 李通玄의 「華嚴論」을 그의 사상적 羽翼으로 삼은 까닭은 原理的으로 衆生心안에 있는 如來智의 頓悟와 治習의 後修에서 究竟位에 이른다는 圓頓成佛論은 禪旨에 契合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知訥은 그 〈修心訣〉과 그 밖의 法語에서 圓宗大家 圭峯의 先悟後修·定慧雙修主義와 六祖慧能 永嘉등의 頓悟漸修論을 受容하여 그 것을 正覺에 이르는 大道인 것을 재천명하였다. “이 頓悟漸修의 兩門은 千聖의 軌轍이다. 종래 諸聖이 先悟後修하여 因修乃證치 않은 것이 없다.”고 知訥은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佛의 正覺의 경지에 이르는데 “頓悟漸修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어느 한쪽도 꺾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은 知訥의 自己革新的 新佛教運動도 도도히 흐르는 사회적 タク류를 正화하는 힘이 되지 못했다. 즉 세속적인 욕망성취에만 급급하는 사회지배층과 밀착되고 있는 불교집단이 지배층의 세속적 욕망성취를 빌어 주는데 골몰 함으로써 정신적 タク류를 개혁 正화하는 집단이 될수 없었다.

2. 고려시대 불교집단과 寺刹

三國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이 지역내에는 桐華寺, 符仁寺등의 大刹과 이에 버금 가는 적은 寺刹 安逸寺, 隱跡寺, 臨休寺등이 세워졌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桐華寺는 彌勒信仰의 根本道場의 하나이었고 符仁寺는 華嚴宗의 道場이었다. 安逸寺, 隱跡寺, 臨休寺등은 고려왕실의 壽福長久를 빌어주는 願堂이었다. 그러면서 이들 寺刹들은 당시의 國家的 教風에 따라 國泰民安을 祈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이 지역내의 불교집단의 교화활동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 지역에 창건된 사찰인 北地藏寺를 고찰해 본다.

1) 北地藏寺(대구시 동구 도학동 620)

이 北地藏寺는 고려 19代 明宗 22년(1192)에 普照國師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절 대웅전 처마밑에 있는 「지장사유공인영세불망비」

에 지장사는 신라시대의 古刹이라 적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 동남쪽에 인접한 嘉昌面 우록리에 남지장사가 있다. 이 南地藏寺는 신라 31代 神文王 4년(684)에 郎介大師에 의하여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南地藏寺가 684년에 창건되었다면 北地藏寺가 「영세불망비」의 주장대로 신라시대에 창건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바로 지척에 있는 남쪽 산골짜기에 남지장사가 세워져 있는 맞은 편 北쪽 산기슭에 北지장사가 500년이나 뒤에야 세워졌을리가 없을 것이다.

地藏寺는 地藏보살을 本尊으로 奉安하는 절이다. 지장보살은 석가세존이 入寂하신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6道에 나타내어 天上에서 地獄까지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忉利天에서 석가여래의 부축을 받고 매일 아침 禪定에 들어 중생의 根機를 관찰하고 계신다고 한다. 地藏本願經文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한 귀절에 다음 귀절은 꼭 주목할만 하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形像을 우러러 禮敬하거나 한 偈頌의 경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백천생에 묘한 복락을 받으리라”

이 귀절은 사회의 상층 하층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자에겐 물에 빠진 자에게 던져진 밧줄같이 생각된 것이다.

물론 지장보살은 貪瞋痴 三毒의 늪에 깊이 빠져 佛性의 지혜광명을 잃어버리는 지옥속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에게는 지장보살의 大願은 고해를 벗어나게 하는 慈航이라 주장한다. 이 것은 信者가 스스로 탐·진·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自己개혁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강조한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지장신앙은 지장보살의 권능을 믿는 타력의존적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고려불교를 통관할 때 고려국은 불교에 의하여 창건되고 또 불교의 잘못으로 고려국은 폐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실로 고려조는 自己革新的 自力佛敎의 힘이 強했을 때는 富強했었는데 그 自力의 기상이 사라지고 他力爲主의 穰災招福의인 祈願佛敎가 강했을 때 나라와 불교가 함께 亡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朝鮮時代

1. 朝鮮朝 佛敎의 變化

1) 조선조 불교의 受難略史

고려 一代를 통하여 全盛을 누리다가 많은 폐단을 조성하여 그 때문에 고려조와 함께 불교

도 쇠망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고려末에 이미 불교의 폐단을 들어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는 上疏文을 올린 바 있던 儒生들이 朝鮮의 建國과 더불어 그들은 本格的인 排佛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議政府에서도 佛教를 정책적으로 억눌렀다. 이리하여 朝鮮朝 500년에는 佛法은 沙汰를 당하고 승려는 천대를 받는 受難이 계속되었으며 崇儒思想을 國家경영의 기본 이념으로 함에 의하여 排佛정책은 변하지 않고 一貫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大趨勢속에서 太祖의 創業을 도운 無學大師를 비롯한 高僧들이 있어도 排佛의 추세를 바꿀 수 없었다. 따라서 教學上 또는 禪理上에 있어서도 별다른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선조 一代를 통하여 가혹하고 긴 受難속에서도 승려들은 아무런 反抗도 하지 못했다. 다만 中期 顯宗 때(1660~1699) 白谷 處能(1617~80)이 지나친 排佛政策에 분개하여 八萬餘言의 上疏(諫廢釋教)를 올렸으나 배불정책은 늦추어지지 않았다.

승려들은 여전히 城內의 出入도 못하고 山中으로 쫓기면서 都城을 지키는 山城을 쌓고 또는 山城을 수비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그리고 官衙와 儒者들에게 종이, 기름, 신등을 만들어 바쳤고 또는 여러가지 雜役을 맡아 하였다. 그런 中에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 一壬辰亂등 一목숨을 바쳐 救國의 隊列에 앞장 섰었다. 이런 滑中에 一世의 高僧 西山 淸虛의 出現이래 불교계에는 적지 않은 人物이 배출되어 한 때나마 參禪과 觀經에 능통한 宗匠들이 나와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氣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敎團上으로는 11宗이 太宗 때에 7宗으로 되었다가 世宗 때에 다시 禪敎兩宗으로 되었다. 이러한 宗派의 廢合도 敎團의 自覺과 自律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爲政者의 政治적 필요에 의하여 強制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혀 他意에 의하여 구성된 宗團이었으므로 宗旨도 宗派도 뚜렷한 理念을 갖지 못한채 내려 오다가 成宗, 燕山君 이후로는 禪敎兩宗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그 후 한 때 兩宗이 부활되기도 하였으나 곧 흐지부지 하게 되어 불교종단을 宗旨도 宗派도 명확하지 않은채 형체만 계승돼 왔다.

이러한 조선조 불교가 三國시대 부터 내려온 傳統을 계승 유지한 것은 護國佛教의 性格과 고려시대 이후 형성된 禪敎兼修의 敎風이라 하겠다.

이러한 500년간의 조선불교사를 다시 初期, 中期, 末期로 나누고 各期에 일어났던 重要사건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조선조 불교사상의 중요사건

(1) 太祖의 信佛姿勢

太祖는 창업전부터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그는 太古懶翁등 고승을 師事하였으며 특히 無學

自超와는 관계가 깊었다. 등극 후에는 無學을 王師로 삼았다. 卽位初에 太祖는 演福寺塔을 重創하고 文殊會를 베풀었으며 海印寺古塔을 重修하고 大藏經을 願成하여 塔속에 安置하여 福國利民을 빌었다.

3년(1394)에는 天台宗의 祖丘를 國師로 삼고 內殿에서 僧百名을 飯食하였다.

6년(1397)에는 神德王后 康氏을 위하여 興天寺를 세워 曹溪禪宗의 本寺가 되게 하였다. 古寺雲場에 해마다 水陸道場을 設하여 祖宗의 冥福을 빌며 群生을 천도하게 하였다.

太祖는 建國慶讚事業으로 大藏經印經과 金銀字寫經을 하게 하였으며 王朝實錄에 등재한 것만으로도 印經12회, 消災會14회, 佛事法印35회, 飯僧9회등이다.

그런데 僧尼를 도태하고 寺院을 席罷해야한다는 거센 여론이 있었지만 太祖는 開國초 그렇게 할 수 없다하여 斥佛기류에 휩쓸리지 않았다. 특히 鄭道傳 趙浚등의 重臣과 儒士들의 적극적인 斥佛요구에도 太祖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太祖는 松軒居士라 하고 退位 후에는 念佛三昧로 만년을 보냈었다.

(2) 太宗과 世宗의 排佛政策

太宗은 일찌기 科擧에 及弟하고 儒學者와 儒士와 多遊하며 學堂을 일으켜 儒生을 양성하고 太祖의 創業을 크게 도왔다. 그가 王位에 오르자 儒生들의 思想그대로 崇儒斥佛의 政策을 거침없이 실천하여 불교도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 ① 宗派를 병합하고 寺院의 수를 줄이며 승려를 還俗시켰고
- ② 寺刹土地를 몰수하여 國有로 하고 寺院의 奴婢를 거두어 軍丁에 충당하고
- ③ 僧侶 度牒制를 엄히 하고 王師, 國師制를 폐하고 陵寺의 制를 금하였다.

世宗이 즉위하자 父王의 排佛政策 더욱을 강행하였다. 6년에 太宗이후 7宗 이던 것을 禪敎兩宗으로 하였다. 즉 曹溪宗, 天台宗, 摠南宗의 三宗을 禪宗으로 하고, 華嚴宗, 慈恩宗, 中神宗, 始興宗의 四宗을 敎宗으로 한 것이다. 兩宗各各 18個寺 兩宗合하여 36個寺院만을 남기고 그밖의 寺院을 폐지해 버렸다. 太宗에 의하여 전국 242個로 축소되었던 것을 世宗에 의하여 36個寺로 줄인 것이다.

그리고 世宗은 城外의 승려의 城內에로의 出入을 금하고 年少者의 出家를 금했다. 이와 같은 世宗의 斥佛策은 太宗보다 가혹한 것이었다. 그러나 世宗이 만년에 불교를 신앙하였으나 斥佛政策을 바꾸지는 못했다.

(3) 世祖와 文定王后의 興佛정책

世祖는 본래 신심이 두터워 평소에 守眉, 信眉등 고승과 가까이 하며 그들을 師事하였다. 首陽大君시절 父王 世宗은 만년(29년:1447)에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首陽에게 釋譜詳

節을 짓게하였다.

世祖는 王位에 오르자 護佛政策을 써서 승려의 城內出入을 자유롭게하고 出家의 制限도 받지 않게 되었다. 王은 종로 興福寺자리(과고다공원)에 큰 圓覺寺를 세우고 多層의 石塔을 세웠다. 그 밖에 正因寺를 세우고 海印寺, 上院寺등 많은 寺刹을 重修하여 名刹을 찾아 三寶에 공양하는등 많은 佛事를 일으켰다.

王의 興佛 事業中 가장 높이 평가할만한 것은 佛經의 國譯印刊이다.

初年에 海印寺大藏經을 印出하고 月印釋譜를 刊行하였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釋譜詳節과 이에 世宗이 佛院의 功德을 찬양한 것인 月印千江之曲을 世祖 5년(1459) 두 책을 합해서 한 책으로 발간하였다. 7년(1461) 6월에 刊經都監을 설치하고 佛經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 때 法華, 楞嚴, 金剛, 圓覺, 心經, 永嘉集등은 世祖의 御譯으로서 당시 信眉, 字眉 등 승려와 尹師路, 成任 등의 重臣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다. 6년(1460)에는 불교음악 靈山會上曲을 製曲하였으며, 世宗 4년에 폐지했던 都城經行을 부활시켜 성황을 이루게 하였다.

世祖의 興佛이 있는 뒤 成宗, 燕山, 中宗 치하에는 불교는 다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13代 明宗이 즉위한 뒤 그의 母后인 文定王后尹氏가 攝政을 하면서 부터 불교는 다시 부흥의 기운이 일어났다.

中宗의 妃인 文定王后는 中宗의 斥佛政策中에서도 불교를 독신하여 승려의 권익을 옹호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明宗이 12세로 즉위하게 되며 母后가 垂簾聽政함으로써 평소 품었던 興佛의 뜻을 펴나갔다. 그는 興佛의 所任을 맡을 高僧을 百潭寺의 虛應堂 普雨를 明宗 6년(1551)에 맞이 하였다.

文定王后는 儒生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奉恩寺에 禪宗을, 奉都寺에 教宗을 두어 兩宗制를 부활시켰다. 普雨를 判禪宗事 都大禪師 奉恩寺住持로 삼고 守眞을 判教宗事 都大禪師 奉先寺住持로 삼았으며, 度僧法과 僧料制를 다시 시행하였다. 明宗 6년에 僧科예비시험을 실시하고, 7년(1522)에 본 시험인 僧科를 실시했다. 이 度僧과 僧科의 부활로 敎團은 活氣를 되찾게 되고 전국에 유능한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조선조 불교의 中興의 大人物인 西山 休靜도 이 때의 僧科出身 이었으며 그는 教宗判事와 禪宗判事を 역임했었다. 四溟大師 惟政도 그 후 僧科에 등용된 사람이다.

普雨는 度生佛事に 뛰어난 능력 있는 고승이었다. 그가 주도한 水陸大齋 같은 佛事에는 놀랄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文定王后가 僧侶를 우대하고 佛教를 존중하는데 大臣들과 儒生들이 맹렬히 반대하고 있었는데, 明宗 20년(1565) 4월에 文定王后가 세상을 떠나자 大臣들과 儒生들은 들고 일어

나 排佛政策을 다시 강렬히 추진해 갔다. 이로 인해 文定王后와 普雨에 의한 興佛事業은 中途에 좌절하게 되었다. 이에 유생들은 普雨를 妖僧으로 몰아 濟州島로 귀양보내고 끝내 牧使邊協으로 하여금 杖殺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또 다시 抑佛政策을 가혹하게 시행하여 明宗 21년에 兩宗科 僧科가 폐지되고 度僧法도 금지되었다. 여기에 僧侶의 社會的 地位는 다시 땅에 떨어져서 使役과 천대를 받게되고 그 質도 크게 떨어졌으며 불교는 山中으로 숨게 되었다.

비록 文定王后와 普雨에 의한 15년간의 興佛事業은 中途에 좌절되기는 했어도 그 興佛事業의 영향으로 짧으나마 崇佛精神을 깊게 하고 敎界에 有能한 人物을 배출케 하여 敎團의 命脈을 유지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위태로울 때 救國의 隊列에 先鋒이 되게 하였다.

文定王后와 普雨의 興佛事業이 좌절됨과 동시에 곧 兩宗은 폐지되고 敎團은 禪宗도 敎宗도 아닌, 뚜렷한 宗派도 宗旨도 없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宣朝 때의 壬辰倭亂과 仁祖 때의 丙子 胡亂에 義僧兵의 救國운동에 의하여 僧侶의 社會적 위치가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가혹한 斥佛정책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文定王后와 普雨가 추진한 興佛事業中的 하나로 시행된 僧科制를 通하여 淸虛, 浮休, 四冥등 많은 유능한 인재가 배출했고 이들이 救國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하므로써 승려에 대한 인식에 좀 달라지고 그들의 떳떳한 활동으로 매마른 불교계에 하나의 生氣를 불어 넣은 것이다. 禪宗출신인 淸虛, 浮休의 法孫들만이 그 후의 敎團을 이루다시피 하였으므로 결국 禪宗만이 존속되고 敎宗은 자취를 감춘 판국이 되었다.

22代 正祖때 寶鏡, 獅駟에 의하여 正祖大王이 佛에의 귀의를 받고 水原 龍珠寺를 세우게까지 하였으나 國策으로 된 排佛政策은 끝내 변함이 없었다. 이즈음 승려간에 理判僧, 事判僧의 두가지 類가 생겼다. 승려들은 參禪, 看經, 念佛의 三門을 修業하였는데 여기 參禪 念佛하는 승려를 首座라 하고 看經僧은 주로 講師라 불렸다. 이 首座와 講師는 가급적이면 시끄러움을 피하여 山中의 寺庵으로 가서 工夫를 하였고 寺院의 事務와 諸般役任에 종사하는 것을 불명예로 생각하여 피하였다. 여기에 자연 寺刹을 운영하고 제반事務를 맡아할 승려층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事務를 도맡아 하는 僧을 事判僧이라 하고 參禪看經에 全念하여 修道하는 工夫僧을 理判僧이라 했다. 대체로 事判僧은 參禪看經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無識한 凡庸僧이 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하여튼 理判僧과 事判僧은 寺刹의 役割分担으로 볼 수 있고 專門化한 役割을 다함므로써 抑佛하는 爲政者와 儒生들에 대처하면서 미미하나마 敎團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조정(정부)에서 불교를 그와 같이 억압하면서도 王室에서

는 寺刹을 王族의 生時의 壽福과 死後의 冥福을 비는 王族의 願堂役割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는 英·正祖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보인다.

그리고 조선조 말기에 많이 유행한 신앙기풍은 阿彌陀신앙이다. 「아미타」신앙은 「아미타불」의 名號를 열심히 부르면 사후에 西方 극락정토(極樂淨土)에 往生한다는 것이 그 主旨이다. 이것이 불교에 있어 他力 구제문(門)의 대표적인 宗派이다.

高聲念佛로 日課를 삼는 이 宗의 佛事로서 念佛 萬日會란 것이있었다. 여러 절에서 개최하는 念佛 萬日會中에서 乾鳳寺와 望月寺의 萬日會가 제일 유명하였다. 乾鳳寺에서는 三會를 열었는데 처음은 純祖時(1801~1834)에 聳虛가 시행하여 마쳤고 두번째는 哲宗時(1850~1863)에 碧梧가 시설하여 마치고, 세번째는 萬化가 高宗 18년(1889)에 시작하여 隆熙 2년(1908)에 마쳤다.

末期에 와서 불교계에는 修禪과 看經 講學하는 한편 淨土信仰이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조가 거의 기우려지고 있는 高宗 32년(1895)에 승려 도성 出入禁止令이 해제되었다. 승려도성출입금지가 된지(연산군 9년, 1530) 39년 만의 일이다. 이 해제는 정부자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日本의 日蓮宗의 승려 佐野前勵라 總理大臣 金弘集에게 한국승려의 都城 出入禁止 解除를 建議함을 金弘集이 받아들여 시행한 것이다. 이듬 해 諸山의 승려가 日本僧과 합동으로 서울城內 苑洞에서 無遮大法會를 성대히 배풀었다.

이러하여 근 400년동안 무거운 굴레를 덮어 쓰고 있었던 조선조불교는 그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이제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다. 조정에서도 뒤늦게나마 시대적 추세를 깨닫고 排佛策을 止場하고 寺刹의 國家管理를 기도하였다. 佛教界에서도 全國寺刹의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高宗 39년(光武 6년, 1902) 東大門 밖에 元興寺를 세워 國內首寺刹(韓國佛教의 總宗務所)로 삼고 13道에 각각 하나씩 道首寺가 寺刹의 事務를 總轄하였다. 光武 6년 寺刹의 統一的 국가 管理를 위해 宮內府소속으로 管理를 元興寺에 두어 全國寺刹에 관한 일체 事務를 맡아 보게하였다. 이에 國內首寺刹로서 大法山을 元興寺로 삼고 道內首寺刹로서 中法山을 16個寺刹로 삼았다. 이 때 36個條의 寺刹令 즉 社寺管理署 管理總則이 定해졌다.

朝鮮朝 최후의 王인 純宗 2년(隆熙 2년, 1908) 3월에 全國 승려대표자 52人인 元興寺에 모여 會議하고 有名無實한 禪敎兩宗을 合하여 議定하고 同宗宗務院을 세웠다. 太宗正에는 李晦光이 추대되고 各部 部長에는 다시 유능한 高僧이 配定되었다. 2년 뒤 隆熙 4년(1910)에는 壽松洞에다 覺皇寺를 창건하여 朝鮮佛教中央會務所겸 中央布敎所로 하였다. 이해 가을에 韓日合邦 직후에 宗正 李晦光은 日本東京으로 가서 日本 曹洞宗 管長 石川素童을 만나 協議하

여 朝鮮의 國宗과 日本의 曹洞宗과의 聯合締盟에 合議를 보고 日本曹洞宗宗務代表者 弘律說三과 聯合條約 7個條를 締結했다. 그러나 이 연합체결은 朝鮮佛敎를 日本曹溪宗으로 改宗시키려 하는 것이며 곧 팔아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연히 반대하는 승려운동이 일어났다. 드디어 이듬해 1911년 1월 朴漢永, 陳震應, 韓龍雲등이 궐기하여 嶺·湖南의 승려를 모아 順天 松廣寺에서 總會를 열어 臨濟宗을 세웠다. 臨時宗務院을 松廣寺에 두고 臨濟宗 管長에 仙岩寺 金擎雲을 선정했으나 너무 年老하여 韓龍雲이 대리로 맡았다. 光州등지에 布敎堂을 설치하여 활동하다가 오래지 않아 臨時宗務院을 梵魚寺로 옮겨 東萊, 草梁, 大邱, 서울등에 布敎堂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1910)에 韓日合邦이 되었으므로 佛敎도 朝鮮總督府의 支配下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1911년 6월에 總督府는 寺刹令 7條를 반포하고 同年7월에 寺刹令施行規則 8條를 韓半島內의 모든 寺刹과 승려문제를 규제하였다. 이리하여 南과 北으로 대립되었던 圓宗과 臨濟宗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었다.

근 400년동안 강권의 억압으로 위축되고 허약해졌던 조선조불교가 고종 32년(1895) 그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서 불교 본연의 위치에 돌아와서 바른 정신 되찾고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나라와 함께 불교도 일제의 발굽아래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3) 朝鮮朝 나라를 지킨 高僧

僧侶의 本分은 어디까지나 중생의 영(靈)적 정신적 인 지도로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핏줄로 한 나라에 같이 살던 민족이 도적의 무리에 짓밟힐 위기에 직면할 때 그 도적을 막거나 물리침이 중생구제의 본분에 속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도적의 무리앞에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되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그 도적을 막은 일을 한 것이 조선조 불교승단의 특수한 행동양태이다.

대구시 일원내의 八公山 桐華寺는 壬辰倭亂 때 惟政 四溟堂이 義僧軍을 훈련한 장소이다. 따라서 이 지역 八公山은 四溟堂에게 인연이 깊은 곳이다. 조선조에 있어 나라를 지킨 義僧軍을 指揮한 고승한 八道都總攝인 西山大師 休靜과 그의 제자 雲圭 그리고 仁祖대에 丙子胡亂 때 적을 물리친 碧岩覺性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지역 八公山과 인연이 깊은 四溟堂의 義行, 곧 일체 중생구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가 실천한 歷程을 살피는 일이 가장 타당한 일이다.

惟政(1544~1610)의 字는 離幻, 俗姓은 密陽任氏이고 號는 四溟堂 또는 松雲 塔號는 鍾峯이다. 13세 때 出家하여 佛學을 배우고자 直持寺 信默和尚 밑에 머리를 깎았다. 明宗 16년

(1561)에 僧科에 급제하고 이 때부터 學士, 大夫, 詩人들인 朴淳, 李山海, 林悌등과 交遊하여 文苑에 명성을 떨쳤다. 이에 이 高僧에 師事하려는 學僧이 운집했다. 宣祖 8년(1575)에 禪宗의 奉恩寺 住持로 추천되었으나 사양하고 妙香山에 들어가 西山大師 休靜에 師事하여 佛學을 배웠다. 3년간 苦行修學하고 老師 休靜을 작별하고 桐岳 報待寺에서 3년, 八公山, 桐華寺 등지에서 수년간 수행하고 淸涼山, 太白山등지에서 수도하고 宣祖 20년에 沃川山 上東庵에 머물렀다. 宣祖 22년 鄭汝立의 역모사건(己丑逆謀事件)이 일어나 모함에 의하여 江陵府에 구금되었으나 선비들의 구원으로 무죄 석방되어 금강산 楡岾寺에 들어갔다. 이 때 처음 倭賊을 만나 倭將을 설득하여 寺衆을 모두 구출했다.

곧 西山大師의 全國僧衆護國 총궐기의 檄文을 접하고 義僧을 모으니 8百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로써 關東의 敵을 무찌르는 한편 順安 法興寺로 가서 西山大師의 主力과 합세하여 副摠攝으로서 활동했다. 都摠攝인 休靜은 너무 年老하여 그 職을 감당키 어려워 惟政을 추천하여 그 職을 맡게했다. 이에 惟政은 수千의 僧軍을 이끌고 體察使 柳成龍 휘하에 들어가 明나라 援軍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했다.

宣祖 4년(1594) 明將 劉綎의 命으로 釜山에 入城하여 倭將 加藤清正과 세번이나 會談하면서 敵情을 探知했다. 加藤과의 대화에서 加藤의 가슴을 썩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가등이 “너의 나라에 무슨 보배가 있느냐?”고 물으니 惟政이 “우리나라에는 보배가 없다. 너의 나라에 보배가 있다”고 답하니 가등이 “그게 무슨 말이나”고 되묻자 惟政이 태연하게 “너의 대가리가 보배이니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답하여 가등의 간담을 썩늘하게 한 것이다. 이리하여 惟政은 說寶僧이라는 말이 日本에 나 돌았었다.

宣祖大王이 유정을 대궐로 불러 平生의 일을 묻고 “만약에 그대가 머리를 기른다면 百里의 땅을 다스릴 責任을 맡기고 三軍을 거느릴 일을 줄 것이다”고 還俗 사환의 길을 권하는데 惟政은 그것을 사양하고 나왔다. 王이 下賜하는 갑옷과 무기를 받고 嶺南으로 내려와 僧軍을 지휘하며 왜적과 싸워 전과를 올리고 桐華寺에서 僧軍을 훈련하면서 八公山城을 쌓고 또 金烏山城, 龍起山城을 쌓아 왜구에 대비하였다.

宣祖 30년(1597) 丁酉再侵이 터지자 明將麻貴와 연합하여 蔚山, 島山에 入城하고 이듬해 劉綎장군과 합세하여 順天曳橋작전에 큰 功을 세웠다. 그는 四千石의 군량미와 二萬의 병기를 비축했다. 王은 그에게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제수했다

惟政은 전란이 완전히 가세지고 난 뒤 山寺로 물러가 있다가 宣祖 37년(1604)에 西山大師의 訃言을 듣고 妙香山으로 가는 도중 王의 부름을 받아 上京하였다. 王은 곧 惟政에게 特命으로 日本에 그들과의 講和使節로서 즉 修信使로 가게했다.

前後 6년간 악독한 倭賊에게 치명타를 입은 朝鮮의 朝野에서는 倭을 두려워하고 경계하였으므로 倭人을 感服하게 할 講和使로 日本에 갈만한 인물은 惟政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다. 惟政이 日本에 이르자 倭人들은 서로 다투어 說實和尚을 親見하려 하였고 그를 尊敬하였다. 惟政은 日本에서 德川家康을 만나 講和條約을 맺고 日本에 잡혀갔던 우리동포 포로 1,500명을 데리고 왔다.

이에 宣祖는 惟政에게 嘉義大夫 行龍驤衛大護軍이란 직함을 제수하고 御馬와 모시를 下賜하였다. 宣祖 39년(1606)에 妙香山에 가서 2년전에 入寂한 스승 體靜의 影塔에 배례하고 普賢寺에 머물며 服喪하고 나서 營繕軍을 지휘하여 궁궐중건에 힘쓰다가 이듬해(1607)에 벼슬을 버리고 雉岳山에 돌아왔다. 이에 앞서 朝廷에서 그에게 國一都大禪師扶宗樹教普濟生雲弘濟尊者란 법호를 내렸다.

宣祖 41년(1608) 宣祖의 諱音을 듣고 漢城에 올라가 拜哭하고 이내 병을 얻게되었다. 光海君이 西쪽으로 가서 오랑캐를 막으라는 命을 내렸으나 받들지 못하고 伽耶山에 들어가 병을 조리함에 光海君이 여러번 약을 下賜하였다. 光海君 2년(1610) 王이 方伯에게 命하여 上京시켜 名醫로 하여금 治病케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 해에 海印寺 弘濟庵에서 入寂했다. 諡號로 慈通弘濟尊者라 하고 밀양 表忠寺와 妙香山 酬州忠祠에 配享되었다.

여기에서 볼 때 惟政의 人生歷程은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중생을 위하여 우리동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쳐진 것임을 알 수 있다.

2. 대구의 사찰운영과 창건된 사찰

위에서 조선조一代를 통하여 불교집단이 겪어온 수난과 이를 극복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온 내력은 通觀해 보았다. 이 지역내의 寺刹과 불자들도 위와 같은 조선조 불교전체의 역정(歷程)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조 500년 동안 이 지역내의 불교집단이나 불자들의 신앙활동을 기록한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역내의 寺刹의 寺蹟碑에 적혀 있는 것에서 그 절의 운영양태와 관련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조선조시대의 운영양태가 기록된 把溪寺寺跡碑을 살펴 본다.

八公山 桐華寺의 末寺의 하나인 把溪寺는 《朝鮮寺刹史料》에는 신라 40代 哀莊王時 心地國師가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同寺《寺蹟記》에는 그런 기사가 없고 조선조 宣祖 38년(1605)에 壬辰亂에 불타버린 円通殿을 重建했다는 사실을 첫째 기록하고 있다. 이 寺蹟記에 光海君 14년(1622)에 窮玄을 건립하고, 仁祖 元年(1623)에 說禪堂을, 同 4년(1626)에 彌陀庵

을 짓고 同 24년(1646)에 說禪堂을 重建했다. 戒寶法師은 창건조사와 같은 大功德重創主였다. 그래서 朝廷에서 그에게 法堂知事 中樞副使 折衝將軍 嘉善大夫大功德主란 직함을 제수했다.

이 절 屬庵으로서 彌陀庵, 聖殿庵, 慈應庵이 있고 冥府殿, 七星殿, 金堂庵등이 곁들여 있다.

이 절의 三創祖師 靈源(玄應)大師의 功은 대단하다. 抑佛治下에서도 이 절에 特惠를 받게 했기 때문이다. 숙종 19년(1693)에 靈源師가 漢城에 가 있을 때 그의 학술이 뛰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이것이 宮에 알려졌다. 그래서 王子의 회임 탄생키 위한 기도를 靈源師主管으로 水洛山 聖殿에서 지성껏 百日간 드렸다. 그리하여 王子가 탄생했다. 이 이가 후일 英祖大王이다. 靈源大師가 把溪寺로 돌아감에 本房妃 金貴善으로 하여금 護送케 했다. 그리고 내당(內帑)금 三千兩을 내려주어 七佛殿大法堂, 百花樓을 짓게 하고, 해마다 元子の 壽福을 빌게 하고 숙종 22년(1696)에 親製 祝冊을 내려주어 이 절을 願堂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라에서 靈源師에게 玄應이란 號를 내려 주었다.

元子가 11살때(숙종 30년, 1704)慈應殿이란 偏額을 써 내려 주었고, 願畚을 下賜하여 供佛의 需로 삼게 했다. 또 元子가 宗親府堂上시에 完文을 내려 주어 把溪寺를 宗親本府에 속하게 하고 官府의 雜役에 승려를 동원치 못하게 했다. 英祖大王의 등극후에는 영조비 貞聖王后의 願堂으로 삼았다. 英祖 8년(1722)에 御押完文을 내리고 御衣와 香燭을 내려 齋를 設하여 王의 수명장구를 기도드리게 했다. 英祖 27년(1751) 右議政 李宜顯을 파견하여 祈永閣을 세워 英祖의 生前 死後의 祝壽福과 冥福을 祈願하는 祝願堂으로 삼았다. 여기에 英祖의 貞聖王后 徐氏, 正祖, 純祖位가 봉안되고 있다. 이곳에 여러 임금의 御押, 御筆, 御賜金屏, 書屏이 所藏되었다. 正祖 元年(1777)에는 御筆로 쓴 天香閣의 편액을 下賜하였다. 純祖 31년(1831)에는 王宮에서 내려준 돈과 신도의 회사로 彌陀庵을 세웠는데 이 때 巡察使 朴岐壽가 成造都監을 맡아 일을 하였다. 哲宗 11년(1860) 百花樓를 重修할 때 王妃가 내당금(內帑金)을 내려 주고 按使 洪裕吉에게 특별히 諭示하여 資材를 공급케 하게하여 哲宗 12년에 준공했다. 把溪寺入口에 「大小人皆下馬」라 쓴 碑가 서 있다. 이는 王室의 願堂에 감히 말을 타고 들어 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주위 40里를 願堂封界로 賜牌되었다. 이 절에는 四溟大師가 日本에 使臣으로 갔다가 올 때 선물로 받은 8폭 屏風이 보관되어 있다.

八道の 모든 寺刹과 승단이 억압 수난을 당하고 寺刹이 官衙, 兩班의 부역, 紙墨의 供出 등의 경제적 침탈과 使役에 시달리고 있던 시기에 위와 같은 王室의 惠施는 드물게 보는 예라 하겠다. 이절은 완전히 王室의 願堂化되었으니 불교 본래의 소임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선불교의 명맥을 이어 갈 수 밖에 없었으니 그것은 조선

불교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抑佛政策下에서도 이 지역내에 창건된 寺刹이 여럿이 있다.

昆盧庵－桐華寺 屬庵

조선조 宣祖 24년(1591)에 창건되었다.

內願庵－동화사 屬庵

仁祖 4년(1626) 僧惟贊에 의하여 창건 되었음.

聖殿庵－把溪寺 屬庵

肅宗 4년(1695)에 玄雄大師에 의하여 창건 되었음.

養眞庵－桐華寺 屬庵

英祖 19년(1743)에 無住國師에 의하여 창건 되었음.

龍華寺(수성구 범어동 2138)

지금부터 약100년경 즉 高宗 31년(1894)경에 창건되었다함 기록 보존된 것이 없음.

黃龍寺(남구 대명2동 1959-22)

高宗 33년(1896) 3월 2일에 창건되었으나 창건자는 불명, 海印寺 末寺임.

瑞鳳寺(남구 이천1동 439-2)

창건 년은 1903년 3월이라 하나 창건자 미상.

VI. 日帝時代

1. 日帝治下 佛教의 變化

1910년 8월 國權을 잃은 이 땅의 불교는 日本總督의 統治下에서 새로운 體制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새로운 體制는 1911년 6월 3일 조선총독부가 제정 公布한 寺刹令과 동년8월에 발표한 寺刹令施行規則에 따르는 것이다.

그 寺刹令의 主要骨子は 이러하다.

제1조: 寺刹의 屏合, 移轉 또는 廢止코저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寺刹의 本末寺 關係, 僧規, 法式 기타 필요한 寺法은 各本寺에서 制定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 寺刹에 속하는 모든 財産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寺刹令施行規則을 보면

제2조: 조선총독이 지정한 32개 사찰의 住持의 就任에는 조선총독에 申請하여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1911년 11월부터 30本山의 第一世住持를 차례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았으며, 이듬해(1912)부터 위 寺刹令에 따른 體制가 갖추어져 갔다.

禪敎兩宗이란 이제까지의 宗論을 통일하고 5월에 覺皇寺를 中央布敎堂으로 하고 30本山會議所를 設置하였다. 그리고 30本寺는 各各 寺法을 제정하여 총독의 인가를 얻고 本末寺에서 시행함으로써 寺刹令에 순응한 셈이다. 各本寺에서 제정한 寺法은 總則, 寺格, 住持, 職司, 會計, 財産, 法式, 僧規, 布敎, 褒賞, 懲戒, 攝衆, 雜規등의 113章 100조로 된 것이 거의 같다. 이 100조中 꼭 유의해야 할 몇조만 들어 본다.

總則 제3조: ○○寺 本寺一般의 法脈은 太古普愚禪師의 嫡脈 芙蓉 靈觀禪師의 二大神足 (1) 淸虛休靜 (2) 浮休善修 兩禪師의 法孫中 行解兼備者를 推하여 主職(住持)으로 하여금 法燈을 傳持하여 이를 寺門相續의 通規로 한다.

제5조: ○○寺 本末 一般寺刹에서 正法弘通에 所信經典을 限定치 아니함.

第3章: 住持

제16조: 本寺의 住持는 左(아래)의 자격을 具備함을 要함.

- ① 年령이 만40세이상 되는 者
- ② 比丘戒를 具足하고 다시 菩薩戒을 受持할 것
- ③ 法臘이 十夏以上 될 것
- ④ 修學이 大敎科 卒業以上 될 것

제17조: 末寺의 住持는 左(아래)의 자격을 檢비함을 要함

- ① 年령이 만25세以上이 될 것
- ② 比丘戒를 具足하고 다시 菩薩戒를 受持할 것
- ③ 法臘이 五夏以上 될 것
- ④ 修學이 四敎科 卒業以上 될 것

가장 특기할 일은 本寺의 恒例 法式 期日을 定해 놓은 것이다.

第7章: 法式

제42조: 本寺의 恒例 法式期日是 左(아래)와 같다.

四方拜, 1月 1日, 紀元節 2月 11日, 天長節 11月 3日, 新嘗祭 11月 23日, 秋季皇靈祭, 秋分日, 神嘗祭 10月 17日

그런데 寺刹令에서 寺刹의 屏合, 移轉 또는 廢止, 各本寺의 寺法制定도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寺刹의 재산의 처분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의 모든 寺刹은 독자적 권한이 전혀 없어지고 오직 조선총독의 命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집단으로 몰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寺刹令施行規則에 따라 30本寺가 제정한 寺法 제3조, “本寺一般의 法脈은 太古普愚 禪師의 嫡派인 靈觀禪師의 二神足, 淸虛, 浮休의 法孫을 主職(住持)으로 함을 通規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선조불교가 禪敎兩宗으로 한 것이 傳統인데 이것은 禪一色으로 된 것이다. 이 것은 조선불교 自體의 시대적 변화 양태로 보여진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寺刹法式의 章에 恒例 法式期日에 日本의 建國記念日로 정하고 있는 紀元節(2. 11)과 日本天皇의 生日인 天長節등을 恒例 法式期日로 규정한 것이다. 불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날을 恒例 法式日로 제정한 것은 우리 민족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日本皇民化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몇년후 무기력하고 구태의연한 전통불교, 국민의 마음도 행동도 사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전통불교의 일대개혁을 주장하는 韓龍雲스님의 「朝鮮佛教維新論」이 나왔다. 1910년 百潭寺에서 탈고하고 1913년에 佛教書館에서 발간한 것이다. 불교는 寺刹에 있는 것도 아니고 僧侶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불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근본적으로 고치는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山中寺刹 中心에서 世間生活터전 中心으로 내려와야 하고 僧侶中心에서 국민전체가 주체가 되는 불교, 국민전체가 보살도에 따라 修心修行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승려의 禁婚은 倫理的으로나 國家的으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 승려가 원하는 경우 승려의 禁婚을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려의 許婚문제에 대하여 比丘僧側의 맹렬한 비난과 반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萬海스님은 禁婚해 놓으면 음성적으로 더 많은 破戒와 범죄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萬海스님의 「불교윤신론」의 기본줄거리는 불자는 佛에만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불의 진리에 따라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서 현실사회와 민족 내지 인류를 소생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이 점에서 볼 때 그의 「유신론」의 대부분의 주장은 꼭 실현되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1921년 조선총독의 寺刹令에 따른 體制로 全國 30本山이 운영해 갔었다. 그런데 총독이외에 교단 자체가 全國寺刹을 통괄하고 승려를 통제한 中央기관이 없었다. 이에 1915년 初에 30本山에서 布敎 및 敎育事業의 共同的 一元化를 위하여 本山住持들이 會議하여 三十本山聯

合制規定을 定하고 覺皇寺에 聯合事務所를 설치했다. 三十本山 住持 가운데서 委員長을 선출하여 聯合事務를 맡게 했다. 그러나 聯合事務所는 文字 그대로 聯合事務所만을 집행했을 뿐 全國寺刹을 통괄하고 全僧侶를 통재하는 권한은 없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中央統制聯關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이들 운동이 일어났다.

이 무렵에 민족독립운동이 國內外에서 거세게 일어 났었다. 1919년 3월 1일 마침내 한민족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호소하는 己未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全國各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은 세계에 매아리 쳤었다. 이 만세운동의 기획과 추진에 불교대표로서 韓龍雲스님이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불교계의 민족대표로서 白龍成 韓龍雲이 선언문에 서명한 것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으로 보인 불교계의 생동한 체면을 세운 셈이다. 그위에 선언서 끝에 公約3章은 한용운스님이 초안을 加한 것이다. 그의 생동적인 사상성격을 엿볼 수 있다.

3·1운동이 지난 2년 뒤 1921년 신진 少壯승려들이 신성한 불교가 통치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들고 나와 그들이 主動이 되어 全國僧侶大會를 열었다. 그 大會에서 覺皇寺에 朝鮮佛教禪敎兩宗中央總務院을 설치하고 全國寺刹을 통괄할 기구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30寺住持中 總務院의 설치를 반대한 의견이 생겨나 그들이 주동이 되어 이듬해(1922) 朝鮮佛教禪敎兩宗中央敎務院을 역시 覺皇寺에 설치했다. 같은 절에서 두개의 宗務기관이 각각 간판을 걸고 각각 事務所를 설치했는데 이 때부터 總務院과 敎務院은 서로 正統性을 주장했었다.

이런 가운데 佛教青年會(1920년 조직)와 佛教維新會(1921년 조직)가 寺刹令의 廢止와 政·敎分離을 主張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불교의 모든 문제는 敎團에서 處理할 수 있도록 寺刹令을 廢止하고 총독은 神聖한 불교의 敎權에 간섭치 말고 敎團에 統制權을 一任하라는 主張이다. 너무나 當然한 主張이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주장을 옹하는 本寺는 30本寺中 적었고, 반대하는 本寺가 더 많았다. 이것은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通度寺, 梵魚寺, 釋王寺등 소수의 寺刹로 구성된 總務院측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 옹호하였으나 그 밖의 多數의 寺刹이 加担한 敎務院측에서는 이 움직임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本寺住持들은 가급적 이러한 움직임을 방해하였다. 우리 민족의 불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그 주장을 그들이 방해한 이유는 아마 이 운동을 지지했다가 조선총독의 미움을 사서 住持자리를 잃을까 하는 생각에서 방해했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드디어 방해하는 측의 우두머리를 大路上에서 공개적으로 큰 모욕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1922년 불교유신회원들이 初代 三十本山聯合會長 이었던 姜大蓮을 南

大門通을 북을 지우고 두드리고 다니게 하여 목욕을 준 사건(鳴鼓逐出事件)이 일어 났었다.

總務院측과 教務院측은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서로의 正當性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불법 단체라고 看板을 때는데 알력이 있었으나 마침내 1925년에 兩側의 타협이 이뤄졌다. 兩院은 다시 하나로 뭉쳐서 財團法人 朝鮮佛教中央教務院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로써 教團은 統一的인 中央統轄의 宗務機關을 구성하게 되었다. 1928년 11월에 僧侶大會發起會를 가졌으며 이듬해 1929년 1월에 覺皇寺에서 150명의 승려가 참석한 朝鮮佛教禪教 兩宗僧侶大會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佛前宣誓下에 12章31條로 된 朝鮮佛教禪教兩宗 宗憲과 7章19條로 된 朝鮮佛教禪教 兩宗中央教務院 院則을 制定하고 반포했다.

여기에 敎正 7名(金幻應, 朴漢永등)을 선정하여 宗內的 元老기관으로 하고 議決기관으로 宗會를 두었는데 宗會는 各本末寺 評議員會에서 선출된 宗會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事務기관으로서 中央教務院은 庶務部, 財務部, 教學部를 두었다. 이러한 合法的인 統制機關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全國寺刹에서 통일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다시 더 나아가서 總本山運動이 일어 났었다.

그런데 1940년까지 日帝治下의 朝鮮佛教教團의 宗名을 朝鮮佛教禪教兩宗이라 하였다. 그러나 보다 鮮明한 宗名이 필요하였으며, 좀더 강력하고 有機的인 中央統制的 體制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總本山을 太古寺(曹溪寺)에 세우고 宗名을 曹溪宗으로 정하고 또 「朝鮮佛教曹溪宗總本寺 太古寺 寺法」을 결정하고 1941년 4월 23일자부로 총독의 인가를 받았다. 全16章 30條로 된 이 太古寺寺法에 따라 第一世 宗正에 漢岩 重遠을 추대하고 宗會法, 僧規法등을 차례로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들 法規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준용되었다.

2. 大邱의 寺刹

위와 같은 朝鮮佛教教團의 꾸준한 변화의 渦中에서도 이 지역내에는 적은 寺刹들이 창건되고 운영되었다.

1) 普賢寺(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2-35)

韓日合邦이 되던 해 1910년 本寺 桐華寺의 住持 張活虛師의 주제로 信者代表 몇 사람과 誠金을 모아 창건하였음.

1982년경 大雄殿을 크게 改築하고 3년 후 건물을 콘크리트로 개축했으나 대웅전은 불

타버렸는데 다시 콘크리트로 1994년 2월에 준공했다.

桐華寺의 末寺이니 이에 따라 曹溪宗이다.

2) 法輪寺(대구시 동구 신천동 588-5)

韓日合邦이 된 이듬해 金德龍에 의하여 창건됨.

창건 당시에는 曹溪宗에 속해 있었으나 宗權다툼이 일어나자 法華宗 총本山이었음. 1991년 2월 이후 太古宗스님이 관리하고 있음.

3) 觀音寺(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26)

1916년경 일본인 僧侶에 의하여 창건된 것인데, 해방후 적산을 拂下받아 引受한 것임.

처음 拂下者는 女信徒 몇 사람이었으나 몇 사람을 거쳐 지금은 曹溪宗團에 속하게 되었다.

4) 大成寺(대구시 중구 서야동 1)

1922년 3월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창건자는 미상이다.

현재는 曹溪宗의 소속이다.

5) 金龍寺(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198-10)

1923년경 本心스님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함.

원 住所는 頭流水泳場 자리에 있었으나 두류공원이 만들어지자 1983년경 현주소로 이전 했다고 함.

종파는 조계종 소속임.

6) 定慧寺(대구시 중구 남산동 148-3)

1930년 4월 8일 金月齋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함.

法華宗에 속해 있음

7) 通天寺(대구시 동구 효목 1동 3-1)

1942년 3월에 창건된 것이나 창건자는 미상이다.

경영주가 여러 사람으로 교체되는 동안 소속 宗派가 바뀌고 지금은 曹溪宗에 속해 있음.

8) 大德寺(대구시 남구 대명동 산 227-1)

1943년 10월경 金貞順(金妙德月)에 의하여 창건됨

창건후 경영주가 여러번 교체되고 전통 불교종단의 변동에 따라 소속宗의 변동이 있었으나 지금은 曹溪宗에 속해 있음.

9) 瑞鳳寺(대구시 남구 이천1동 439-2)

1903년 3월 창건. 창건자 미상.

8·15이후 오래동안 운영권 문제로 논란이 많다가 1980년경에 조계종 선학원에 속하게 되었음

VII. 大韓民國時代

1. 8·15와 大韓民國下의 佛教

1) 傳統佛教 教團의 변화

祖國解放과 더불어 조선불교교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새 出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日帝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무한한 自由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불교 교단에겐 많은 중대한 문제성과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조선불교는 1,600년 동안 起伏을 거듭하면서 外形的으로 남겨 놓은 방대한 遺産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全國 到處에 거의 모든 名勝地에 자리 잡고 있는 大刹과 이에 屬한 많은 建物, 귀중한 國寶的 文化財 그리고 大量的 田畠 및 林野등이 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物的 遺産과 함께 조선불교에게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와 꼭 이룩해야 할 중대한 課題가 안겨져 있는 것이다.

첫째의 문제는 그 많은 遺産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것을 活用하여, 彷徨하고 있는 大衆을 바르게 이끌어 갈 有能 有德한 佛教指導層이 形成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日帝末까지 우리나라 불교지도자들은 국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변하는 세계사의 추향을 透視하는 眼目도 갖지 못하고, 더 더구나 불교의 역사상 인도와 中國에 있어 불교의 발전의 형태와 불교 퇴보의 형태의 원인을 포착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의 불교사상 불교신앙의 正機能의 형태와 逆機能의 형태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寺刹유지와 신도확보에만 열중하였으니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둘째의 문제는 급변하는 역사적 사회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병폐와 難題를 해결 또는 치유할 불교의 理論을 再構成하고 定立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日帝末까지 조선불교

지도자 대부분은 一經一論 또는 祖師語錄만을 金科玉條로 固執하면서 서로 다투어 是非할 뿐 불교宗派간의 和合, 사회계층간의 和合, 民族間的 和合, 乃至 사회적 병폐를 고칠 수 있는 處方箋으로서의 總和的 佛教理論을 再構成하고 定立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미상불 조선조 500년간 가진 억압속에서 비굴한 자세로 불교의 명맥만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36년간 日帝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동안 불교지도층은 허약할대로 허약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有能하고 有德한 불교지도층이 形成될 수 없었고 또 그러한 總和的 理論도 定立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방대한 遺産과 함께 全國的인 불교 禪敎兩宗宗團이 허약한 불교지도자들에게 8·15와 더불어 갑자기 안겨졌던 것이니 그들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매우 망서렸을 것으로 추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불교지도들이 앞일을 전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난 범불교적 사건이 比丘 帶妻僧간의 宗權다툼사건이다. 日帝時 1926년 조선총독은 日本佛教界와 같이 조선 승려의 帶妻와 肉食을 合法化했었다. 그 당시에는 朝鮮內的 日本寺刹에는 전부 帶妻僧이 있었다. 이 때에 朝鮮佛教의 대부분의 大刹은 거의 帶妻僧이 차지하고 있었고 宗權을 잡고 있었는데 比丘僧은 대개 山中에 들어가 修道에 專念하고 있으면서 묵묵히 지켜 보고만 있었다. 8·15후에도 약10년 동안 全國의 大刹을 帶妻僧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절에서 쫓겨 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런데 1955년 5월 李承晩大統領이 불교정화의 諭示와 帶妻僧의 不當性을 강조하는 유시를 내리자 比丘僧團은 自由黨政權의 비호를 받으며 1955년 11월 太古寺(曹溪寺)를 실력으로 점령하게 되고 이 때부터 比丘僧團과 帶妻僧團은 오랜 法的鬭爭과 피비린내 나는 쟁탈전이 1969년 가까이 계속했었다. 이에 앞서 1956년 이 고장 桐華寺도 比丘僧團에 의하여 접수되었다.

이러한 比丘僧 帶妻僧간의 오랜 쟁탈전으로 말미암아 兩側의 물질·人的손실은 막대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많은 불자들의 신망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帶妻僧들이 오랜 法的鬭爭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우여곡절을 거치고 어렵게 1970년 5월 韓國佛教太古宗을 설치하고 등록을 마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불교승단의 장기적인 내분으로 국민의 불신과 자질부족한 그들의 구태의연하고 半무속적인 어려운 교풍에 염증을 느낀 국민앞에 새로운 혁신적인 불교단체가 몇개 가 등장하였다.

2) 改新佛教의 등장

(1) 圓佛教

한국에 첫째로 등장한 개신 불교집단은 圓佛教이다. 圓佛教의 基本敎理는 朴重彬(少太山: 全北 靈光郡 自岾面 吉龍里)이 定立한 것이다. 그는 1924년 「佛敎研究會」라는 단체를 設立하고 그가 入寂(1943)할 때까지 圓佛教의 基本敎理의 大綱을 定立하였다. 第二代 宗法師 宋圭(鼎山)는 해방후 少太山의 理論을 조금 補完하면서 「佛敎研究會」를 圓佛教라 改稱한 것이다.

少太山은 “物質이 개벽되니 精神을 개벽하자!”는 口號를 내어 걸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개발은 종래에 있던 정신만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생산활동속에서의 정신개발이 강조된 것이다.

그래서 少太山은 1917년 貯蓄組合 조직, 勤儉節約, 禁酒禁煙, 虛禮廢止등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1918년에는 10町步의 防堤工事を 일으켜 인근주민의 生業을 마련해 주었다. 1935년에는 약약사(普和堂)를 개설하고 1940년에는 大農場(完州郡 參禮面 水溪里)을 조성하여 그 모두를 敎役者가 운영하게 하였다. 이 原理를 그들은 靈肉雙全, 理事屏行의 理念이라 한다.

이 原理는 정통불교에 있어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보시금을 수렴하여 교단과 사찰을 유지운영하는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교단주체의 自力으로 교단을 운영하는 혁신적인 방식임이 틀림없다.

원불교의 敎理는 변치하지 않고 簡明하다. 敎理의 要旨는 이러하다.

첫째, 신앙대상을 「一圓」○으로 한다. 이 一圓은 法身佛을 상징한 것이며, 宇宙萬有의 本源이요, 諸佛 諸聖의 心印이요, 一切衆生의 本性이라 한다.

이 一圓의 相을 佛像대신에 모시고 예배한다. 이 一圓相의 眞理를 中心하여 「信仰門」과 「修行門」을 밝힌다. 「信仰門」은 因果報應의 질로서 四恩(天地恩, 父母恩, 同胞恩, 法律恩)을 갚는 일이다. 人間의 삶은 天地의 안(恩)에서 父母의 보살핌(恩)에서 同胞와의 관계(恩)에서, 法律의 보호(恩)에서 조금도 잠시도 벗어날 수 없다. 이 四恩을 行하는데 自力을 길러야 하고 智를 本位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報恩하는 行이 곧 佛供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위 모든 관계의 은혜로움을 생각하고 갚는 일(行)이 「事事佛供」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事事에 報恩함이 佛供함이니 佛像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處處佛像」이라 한다. 이와 같이 報恩行을 生活化할 때 生活과 信仰이 一致된다.

「修行門」역시 日常生活속에서 이뤄진다. 一定한 시간에서만 修心修行할 것이 아니라 어떤

活動, 어떤 靜止에 있어서도 禪定의 자세로 臨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無處禪」「無時禪」이라 한다. 이와 같이 禪도 日常生活을 떠난 山中에서나 禪房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日常生活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을 가다듬고 正法에 따라 行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動靜間不離禪」이라 한다.

圓佛敎의 중요한 성격의 하나는 在家主義佛敎란 것이다. 불법지도자 즉 敎役者를 出世間者(獨身者)로 하지 않고 世間人(在家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修行도 실천도 日常生活(世向)속에서 하는 것이니 꼭 出世間人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女性의 교역자가 독신이 많은데 이것은 제도상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무수행상 필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第二代 宗師 宋圭(鼎山)는 初代宗師의 基本敎理를 補完하여 再整備한다. 그는 圓佛敎의 目標을 敎化, 敎育, 慈善의 三方面으로 정한다. 敎化사업으로 東山禪院('53), 敎育사업으로 唯一學林中高, 圓光大, 慈善事業으로 療養院, 東華병원('53), 孤兒院('53)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宋圭宗師의 三同倫理說(同源道理, 同氣連契, 同拓事業)이다.

「同源道理」란 “모든 종교는 궁극적 진리와 目的이 같음을 알아서 울을 트고 만나자”는 것.

「同氣連契」란 “온 인류는 한 가족이므로 전쟁이나 원망을 벗어나 한 형제로 살자”는 것.

「同拓事業」이란 “세상의 모든 일과 주장을 배척하지 말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힘을 합하자”는 것이다.

이 倫理說은 “一切衆生에 慈悲로 擴充할지라”는 석가세존의 추상적인 倫理를 보다 具體的인 原理로 提示한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敎理를 高唱하고 실천하고 있는 圓佛敎는 韓國에 처음 등장한 개신불교로서 이 나라의 불교계에 하나의 新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 眞覺宗

한국에 개신불교의 성격을 가진 둘째번의 불교집단은 心印佛敎로 출발한 眞覺宗이다. 孫珪祥(悔堂)이 創始한 心印佛敎는 모든 점에서 創敎가 아니라 조선조이래 斷滅되었던 新羅時代의 神印宗(明朗法師創建)을 새로운 모습으로 再構成한 秘密佛敎이다.

秘密불교란 인도에서 대승불교말기(6·7세기)에 「보라만」교에서 神(梵)에게 소망성취를 기원할 때 神과 交通(相應)하는 방법으로 신비적인 言語(眞言)인 呪文(석가세존을 배격한)을 채

용하여 이 呪文을 念誦함으로써 卽身成佛을 목표로 하는 불교류파이다. 이 呪文은 밀교가 아닌 大乘經典의 끝에 많이 붙여져 있는데 이 呪文의 기능은 原理的으로 神에게 소망성취를 기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와 法身佛과의 相應함을 기능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대중은 佛의 경지에 이르는 소망보다 간절한 현실적 욕망성취가 우세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도 밀교에 있어 呪文은 다분이 불의 경지의 도달이란 소망성취보다 현실적 욕망성취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향을 띄게 된 것이다. 더욱이 現世의 욕망을 긍정하는 대승불교의 立場을 가장 중시하는 밀교류파는 肉體를 존중하는 卽身成佛을 목표로 한 것이므로 밀교末期에서는 교단자체가 감성적 욕망성취(性的 充足)가 곧 大樂(左道밀교)으로 간주하에 되어 그 것이 교단자체내의 불교쇠망의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심인불교(진각종)는 「인도」의 밀교말기의 성향과는 정반대로 세간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서 불교의 윤리의 철저한 실천에 의하여 생동적인 불교정신문화를 정착해 가는 기풍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孫교주는 처음부터 眞言理論을 제시하지 않았고 모두가 잘못을 참회하는 懺悔院('49. 12. 4)을 설립하여 많은 사람을 교화하다가 그 다음에 心印불교란 이름을 내어 걸고 本格的인 在家生活佛敎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孫교주는 五濁한 現世의 淨化는 근원적으로 社會成員인 自我(個人)의 淨化에 의해서만 可能하다고 판단하고 自我의 淨化는 「옴·마·니·반·메·흠」의 6字眞言을 念誦하면서 三密(身·口·意)의 修行을 하는데서 成就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옴·마·니·반·메·흠」의 본래의 뜻은 “如意珠(蓮華手)보살에 귀의하고 극락왕생을 바라면서 死後에 六道에 류전하는 재액을 벗어나게 해주십사”하고 기원하는 眞言이다.

이 6字眞言을 비밀불교에서는 世間—世界, 佛世界와 윤리德目の 表相으로 해서 하고 또는 功德을 論한 4가지 觀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① 6字眞言을 六大(地·水·火·風·空·識)에 配當해서 보는 觀法:

「옴」은 地: 「마」는 水: 「니」는 火: 「반」은 風: 「메」는 空: 「흠」은 識으로 배당해서 보는 것. 六大는 世界의 構成要素인 동시에 나 자신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6字眞言을 염송하면서 世界와 나와의 一致를 觀하는 것이다.

② 6字眞言을 五佛과 菩薩에 배당해서 보는 觀法:

「옴」은 비로차나불(法身佛: 中央: 人體의 배꼽): 「마」는 아축불(無動無怒佛: 東方人體의 左

便, 肝): 「니」는 寶生佛(財寶佛: 南方人體의 右便 肝): 「메」는 不空成就佛(自利利他成就佛, 北方: 人體의 丹田): 「흠」은 金剛제보살(人體의 인후)로 觀한다.

③ 6字眞言을 6波羅密에 배당해서 보는 觀法: 「옴」은 布施行: 「마」는 淨戒行: 「니」는 忍辱行, 「반」은 精進行: 「메」는 禪定行, 「흠」은 般若行으로 觀한다.

④ 6字眞言을 6가지 精神開發機能으로(功德)보는 觀法: 「옴」은 마음을 맑게 한다고 보는 明心觀: 「마」는 自性を 깨치게 한다는 見性觀: 「니」는 生을 보위한다고 보는 衛生觀: 「반」은 氣象을 기르는 것으로 보는 養氣觀: 「메」는 道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入道觀: 「흠」은 道를 지키는 것으로 보는 守道觀이다.

위와 같은 6字眞言의 觀法에 따라 몸(身)을 結印하고 입(口)으로 6字眞言을 念誦하고 뜻(意)을 가다듬어 감이 三密行이다. 이 三密觀行을 실천함이 곧 自我가 淨化되고 人間이 改造된다는 것이다. 모든 人間이 自己淨化되고 改造될 때 五濁의 現世는 곧 淨化되고 改造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6字眞言을 염송하면 「비로차나불」이 항상 비밀한 가운데 모든 법을 설하여서 無量한 功德, 즉 智慧로서 大圓覺을 成就하게 되며 大願이 不思議하게 성취되고 諸佛의 護法聖神이 옹호하여 악마邪神을 항복받고 一切災殃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위 4가지 觀에 대한 검토는 잠깐 두고 이상의 교리에서 진각종의 불교성격을 간추려 본다.

첫째, 고대 이래의 전통적 밀교의 呪文修行을 계승하면서도 실천방법을 自覺的 自己淨化를 강조 실천하고 있고,

둘째, 出世間主義 아닌 處世間(現社會)의 淨世間主義의 大乘의 立場에 서서 現實社會生活속에서 自己淨化에 의한 社會淨化를 指向하고 있고,

셋째, 교역자도 전부 出世間人이 아닌 世間人(在家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진각종의 불교는 고대의 출세간적인 밀교를 자각적이고 사회정화적 실천면에서 쇄신하고자 하는 개신불교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3) 通佛敎 菩薩會

한국불교가 새 시대의 민족 내지 인류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첫째로 半巫俗的 祈福불교의 폐풍을 청산하여, 佛의 기본진리의 자각에 의한 汎國民的 「自己革新불교」를 定着하고, 둘째로 종파(宗派)이기주의에 입각한 승려중심불교, 사찰중심불교의 妄習을 완전히 탈피하고 종파(宗派)의식을 초월하여 각 종단이 화합하여 사회(대중)구제를 共同으로

추진하는 초종파적「救世佛教」를 樹立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땅의 영명한 불교 지식인들이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汎國民的「自己革新佛教」의 定着과 초종파(超宗派)적 汎國民的「救世佛教」의 樹立을 촉진하는 先驅的 불교단체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中興을 깊이 관심해 오던 이 지역사회 불자교수 蔡洙翰, 李鍾厚 등은 그러한 先驅的 불교단체의 理論근거를 元曉思想에서 발견하고 在邱 불교 각종파의 대표들, 呂東明(조계종 경복신도 회장), 權五錫(원불교 대구교구 원로), 金龍得(法華宗 간부), 金圓鏡(法華宗 간부), 崔孝錫(心印불교 대구지구 대표), 宋命根(淨土宗 간부), 李鐘益(조계종, 東大교수)이 同參하여 위 불교단체명을 通佛教菩薩會라 정하고 1967년 10월 6일 창설했었다.

이 회의 기본취지는 元曉의 一味(心眞如)會通和諍思想을 현대에 계승 발전케 할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다음 3가지 실천목적을 설정했다.

- ① 각 종파에 共通의인 佛의 진리의 인식, 자각, 실천으로 각자의 인격완성을 기할 것.
- ② 보살도의 사회적 실천에 의한 새 윤리정립으로 민족정신의 지주가 되게 할 것.
- ③ 각 종파의 화합으로 공동선의 공동적 실천에 의한 인류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 할 것.

이회는 하나의 定한 所依經典이 없고 三段階의 經을 標準經으로 한다. 第一基礎段階經은 四阿含(原始經典)과 정신적인 佛母인 般若經이고, 第二段階經은 보살도를 강조한 華嚴·法華經이고, 第三段階經은 右家佛子의 生活標準을 제시한 經摩經과 理想國家像을 그린 彌勒上下生經이다.

이회는 性格上으로 在家佛教集團이다. 成佛한 人格의 具現의 場은 世間(現實社會)밖에 없으므로 이회는 “處世間하면서 淨世間을 목표로 하는 大乘佛教”의 基本立場을 堅持하며 教役者도 在家者主軸으로 하는 在家佛教集團이다.

다만 出家僧은 修行人的 模範像으로 존경하여 통불교 보살회는 名實相符하게 僧俗이 相和하는 「和合大衆」(僧伽)을 指向하고 있다.

이회는 당초부터 祈福的인 齋, 佛供등을 一切 하지 않고 佛의 眞理의 弘布를 위한 法會, 학술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자주 개최하였다. 이에 소수 知識人과 학생층이 동참하였으나 현재의 절실한 욕망성취를 바라는 일반서민은 많이 모이지 않았다. 한편 각종파가 화합하여 사회정화와 공동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나 각종파인은 저마다의 종파사찰의 일에 골몰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이회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회는

창립후 25년이 지났는데도 서민층에 두터운 세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한마디로 너무나 깊이 박혀 있는 기복적 신앙성향과 종파 이기주의에 입각한 자기 사찰중심이란 미망한 의식이 굳어져 있었으므로 이 회의 이상(正法佛教)이 대중에게 깊게 파고 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득이 창립자 중심으로 회를 운영하면서 서민불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단체를 1983년에 창설했다. 실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通佛教 信用協同組合을 창설했던 것이다.

회원이 신용협동조합원으로서 용자를 받는 것은 물질거래 신용을 어김없이 지키는 것은 거래상 윤리적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을 잘 운영하는 것은 곧 물(物) 심(心)이 잘 조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불교신협은 금융을 매개로 하여 회원끼리 신용을 지키는 윤리의식의 사회적 정착을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이회는 이 신협운영에 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4) 總指宗

이 총지종은 현대에 있어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비밀불교단체인 眞覺宗과 같은 立場에서 敎學內容을 조금 달리한 改新밀교단체이다.

이 宗의 創始者 孫大練(苑淨)은 20년간 孫珪祥氏와 함께 眞覺宗을 理論的으로 主擔해 왔었다. 眞覺宗敎主 孫悔堂이 '63. 10. 16일 入寂하자 孫大練은 眞覺宗의 代表格인 總印의 職을 맡아 오다가 眞覺宗의 敎相과 事相中 不合理하고 不明確한 점을 補完하는 作業을 하다가 故孫堂의 親戚들의 曲解로 그 作業이 挫折되고 말았다. 그 해 12월에 孫大練은 眞覺宗을 떠나고 이듬해에 正純, 完璧한 密敎宗의 理論體系를 完成하고 同年 12월 24일에 서울 上鳳洞에서 「佛敎總指宗」의 創宗式을 거행하였다.

이 宗의 敎主, 本尊, 所依經典은 眞覺宗의 그 것과 같다. 敎主는 「비토차나불」, 本尊은 「옴·마·니·반·메·훔」, 所依經典은 大日經, 金剛頂經, 大乘壯嚴寶玉經, 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이다.

다만 종지종에서는 化度方便으로서 准提觀音法이 加해져 있다.

實踐儀軌가 眞覺宗보다 더 많다. 한 例로서 四弘誓願을 개조하여 五弘誓願(衆生無邊誓願度, 福智無邊誓願集 法門無滯邊誓願覺, 如來無邊誓願事, 若提無上誓願證)으로 하고 있고, 「옴」字觀의 두 眞言 「옴람」, 「옴치림」이 加해져 있으며 准提觀音의 광대한 덕을 찬양하는 准提眞言(나무 샷다남 삼막삼뭇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레주레 준체 사바하 부림)이 加해져 있고, 끝에 廻向懺悔句(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與諸衆生 皆共成佛道)가 더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 것은 이 宗의 生活佛敎 실천론이다.

① 生活佛敎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처님의 마음을 받아 섬기면서 바르게 살아가

가는 그 것이다. 그래서 佛供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참된 生活 그 自体가 佛供이란 것이다. 따라서 時時佛供 處處佛供을 하는 것이다. 이 宗에서는 6字眞言의 本尊以外에 佛像을 모시지 않고 本尊앞에 供養物 같은 것을 올리지 않는다.

② 佛教現代化의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便衣保髮(보통옷과 머리기름)이다. 教役者도 削髮하고 染衣를 입을 필요가 없다. 다만 法要式 때만 교역자는 法衣를 입을 뿐이다.

둘째는 이 宗은 在家佛教집단이다. 出家만으로 구성된 僧團은 보란만敎의 遺産이요 小乘集團이지 大乘佛敎는 元來在 家보살이 일으킨 불교운동의 結實이며 本質的으로 在家佛敎란 것이다.

셋째는 寺院을 꼭 山中에 세울 필요가 없고 市中에 세워야 하며 寺院建築樣式에 固執할 것이 아니라 現代生活에 알맞게 大衆集會에 편리하게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總指宗은 敎主, 本尊, 祈依經典은 옛날과 같지만 실천 儀軌를 改新하였고 교단 주체(교역자)가 在家者로 하고 있으며 祈福아닌 生活佛敎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밀교의 改新佛敎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런 生活佛敎를 널리 擴散해 갈때 이 나라의 社會는 점차로 淨化될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第2節 天主教

I. 朝鮮後期 天主教의 受容

1. 天主教의 東方傳來

天主教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의 使徒들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에 의해 傳來된 正統派 그리스도敎이다. 天主教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제국말기 이래 유럽 각국에서 국가적 종교로 널리 信奉되어 서구문화 창조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었다.³⁾

天主教의 東方傳來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동서횡단 탐험과 地理上의 發見을 계기로 한 西勢東漸의 세계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⁴⁾ 여기에 宗教改革과 反宗教改革이 천주

3) 柳洪烈, 《증보 한국천주교회사》上, 1989, p.13.

4) 趙珖, 《韓國天主教 200年》1989, pp.25~26.

교의 布教發展에 끼친 자극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무렵에 天主教 修道團體들이 傳敎修道會로 敎皇의 인가를 받아 東方布教에 기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회이다. 예수회(Jesuit order)⁵⁾는 1534년에 創設되었고 敎皇 바올로 3세(Paul·Ⅲ)가 1540년에 이 會를 外邦 傳敎修道會로 승인하였다. 이 새로운 布教團은 프란치스칸會·도미니칸會 등의 傳敎修道會와 함께 열렬한 정신으로 천주교를 전하기 시작 함에서 천주교의 아시아지역 전파가 이루어졌다.⁶⁾

日本에 天主教의 傳派는 프란치스코 사비에르(Francisco-Xavier, 1506~1552)에 의해서 였다. 프란치스코·사비에르神父는 1541年 인도의 고아(Goa)에 上陸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8年間, 말라카(Malaca), 세일론(Ceylon)等地에 布教하였다. 이 때 日本人 안지로(安次郎)를 만나 그의 안내로 1549年 8월에 日本의 가고지마(鹿兒島)에 가게 되었다. 프란치스코·사비에르神父는 日本에서 2年 4個月間 큐슈(九州)·야마구찌(山口)지방에 布教하여 日本에 天主教 傳派者가 되었다. 1552년에 그는 日本人들이 우러러보는 中國(당시 明)의 布教를 위해 여행하던 도중에 홍콩 근처의 외딴 섬 上川島에서 열병으로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天主教의 東方傳來에 기여한 그의 공은 높이 평가되어 그는 東洋의 使徒로 東洋敎會 發展의 主保가 되었다.⁷⁾

中國에 그리스도敎의 전파는 세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첫번째는 7세기경 唐代에 네스토리아니즘(Nestorianism)이라 불리우는 그리스도敎의 一派가 傳來되었다.⁸⁾ 네스토리아니즘은 中國에서 景敎라 불리었는데 唐의 멸망과 함께 소멸 되었다가 元代에 再興 되는듯 했으나 元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져 버렸다.⁹⁾

두번째로는 1206年 몽고는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1241年 유럽으로 침입하면서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떨치던 이슬람제국을 격파하였다. 이슬람제국의 세력권으로부터 예루살렘聖地를 회복하려던 천주교는 이 사실을 고맙게 여기어 몽고에 사절을 보냈다. 1253年 敎皇 인노첸시오 4세(Innocentius IV)와 프랑스 국왕 루이 9세(Louis IX)는 사절로 프란치스칸會의 루브루크(Guillaume de Rubruc)修士를 몽고의 수도 카라코룸에 보내여 福音을 전하게 하였다.

5) Ignatius Loyola(1491~1556)와 Fracis Xavier(1506~1522)가 프랑스 빠리大學에서 同志 60여명과 함께 1534年 創立한 天主教 修道團體.

6) 崔奭祐, 《韓國天主教會의 歷史》1982, p.7.

7) 柳洪烈, 앞의 책, p.16

8) 1625年 中國의 陝西省 西安府에서 發見된 이른바 「大秦景敎流行中國碑」에 의하면, 635년에 景敎가 中國에 傳來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9) Chles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1874. 安應烈·崔奭祐 譯註, 《韓國天主教會史》上, 1979. p.279.

1292年 이탈리아의 꼬르비노(Joannes de Monte Corbino)神父가 원나라 쿠빌라이에 와서 傳敎를 계속하여 40年間 수많은 사람을 入敎시켰다. 그후 元이 멸망하고 교통로가 단절되어 1370年을 끝으로 敎皇使節마저 단절되었다. 이후 2백년동안 중국에서 천주교는 자취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¹⁰⁾

세 번째로 中國의 天主教 再傳來는 明의 神宗때 이태리 사람으로 예수會 神父인 마테오 릿치(Matteo Ricci, 1552~1610. 中國名 利瑪竇)에 의해서이다. 그는 1582年 마카오에 이르러 中國大陸의 포교를 시도하여 1601년에는 중국 황제의 허락을 얻어 聖堂(後의 南堂)을 세우고 北京에 定着함으로써 中國近代 布敎의 선구자가 되었다. 마테오 릿치神父는 탁월한 東洋文化의 이해로 10年間 北京에서 布敎하는 동안 天主實義·交友論·西國記法·幾何原本·萬國輿圖 등의 저술을 남기고 2천5백여명의 중국인에게 洗禮를 베풀었다.

2. 天主教의 朝鮮傳敎 試圖

中國과 日本에 傳來된 천주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반도에 대해 天主教 傳敎를 시도하게 되었다. 天主教神父들의 조선전교계획은 1567年이래 약 백년간 시도 되었다.

포르투갈 사람으로 예수會 소속인 가스파르 빌렐라(Gaspar Vilela)神父는 1556年 日本에 들어와 큐슈(九州)·교오또(京都) 등지를 중심으로 15年間 선교활동을 했었다. 그는 1570年 당시의 동양전교의 근거지인 인도의 고아로 돌아 가면서 두통의 편지를 그의 본국으로 보냈다. 첫째 편지는¹¹⁾ 인도차이나의 남쪽 코친(Kotschin)에서 1571年 2月 4日字로 포르투갈의 에보라(Evora) 神學校에 있는 한 神父에게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1571年 10月 6日字로 고아에서 본국 아비스(Avis)修道院에 보내진 것이다¹²⁾ 이 두통의 편지에는 한결같이 빌렐라神父가 이미 1567年 日本에 있을 때부터 조선전교의 뜻을 품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길이 막혀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스페인 사람 도민고·요한(Dominico Joannes)神父는 1601年 필리핀에 왔다가 1611年 조선전

10) 德禮賢, 《中國天主敎會史》, 商務印書館, 1972, 參照: 柳洪烈, 앞의 책, p.15.

11) 이 편지에는 “日本으로부터 배를 타고 10日쯤 가면 코라이(Coray; 高麗)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다. 나는 4년전에 그곳으로 가고자 하였다... 나는 그곳에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 못갔다. 그 나라로부터 중국왕이 사는 파킨(Pakin, 北京)에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12) 이 두번째 편지에는 “日本에서 다른 방면으로 3日쯤 가면 그 나라에서 코라이라고 부르고 우리들이 타르타리아(Tartaria, 달단, 즉 滿洲)라고 부르는 옛날부터 유명하고 큰 나라가 있다... 그들은 긴수염을 가지고... 나는 그나라에 가고자 하였으나 마침 그 무렵 전쟁이 벌어져 못갔다... 주여 그들을 인도하사 빛을 주옵소서 아멘...” 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도의 책임자로 뽑혀 두 사람의 修士와 동행하여 朝鮮入國을 시도했으나 조선관헌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朝鮮人 修士인 權빈첸시오는 1593년 열세살 때 왜군장수에게 잡히어 日本으로 보내졌는데 후견인의 덕으로 天主教 信者가 되고 神學을 공부하여 1603년 修士가 되었다. 1614년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天主教를 박해하자 日本에 있던 神父와 함께 새로운 전교지역을 찾아 朝鮮으로 오려 하였다. 그러나 權빈첸시오 修士는 海路入國에 실패하고 中國大陸으로 가 7年間 陸路入國을 시도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1620년경 明나라 예부상서인 서광계(徐光啓)는 이탈리아인 삼비아시(Franciscus Sambiasi)神父와 함께 사신으로 조선전교를 구상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1650년 北京에 와 있던 프란치스코회 마리아(Antonie de Sainte Marie)神父도 조선국경까지 왔지만 입국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수차의 朝鮮傳教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¹³⁾

1590년 日本을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年(宣祖 25年)에 明을 칠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핑계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였다. 이 壬辰倭亂때 倭軍將首中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天主教信者로 本名(洗禮名)이 아우구스티노였다. 그의 휘하에는 천주교 신자 장병들이 많았는데 小西行長은 이들 天主教人들을 위하여 예수회 日本管區 副管區長 고메즈(Petrus Gomez)神父에게 군종신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日本 예수회 本部는 스페인 출신의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神父와 후간 에오온(Foucan eion)이라는 修士를 파견 했다. 이들은 1593年 말에 小西行長이 진을 치고 있던 곰개¹⁴⁾에 이르렀다. 세스페데스神父는 약 1年동안 軍司牧活動을¹⁵⁾하였다. 이 때 宣教師로서 세스페데스神父가 가능한한 우리나라에 布教의 기회도 찾았겠지만 전쟁중 적대관계에서 그러한 기회는 없었다.¹⁶⁾

그러나 壬辰倭亂中에 日本에 납치된 韓國人들과 그 후손들 가운데 天主教를 신봉하여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많으며 마침내 殉教하기에 이르러 日本福者 205位中에는 10名의 韓國人이 들어 있다.¹⁷⁾ 그리고 1636년부터는 日本國內에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 西歐와도 단절

13) 震檀學會, 《韓國史》, 近代後期篇, 1971, pp.494~497; 山口正之, 〈耶蘇會 宣教師의 入鮮計劃〉《靑丘學叢》3, 1931. 參照: 柳洪烈, 앞의 책, pp. 19~25.

14) 곰개는 오늘의 熊川(鎭海市 熊川1洞 臥城)에 해당한다.

15) 세스페데스 神父는 天主教 神父로서는 일단 우리나라에 온 最初의 예가 된다. 그러나 이는 韓國教會의 司牧를 위해 入國한 最初의 예는 아니다.

16) 山口正之는 이 때 朝鮮에 天主教 傳來를 암시했다. 그러나 C. Dallet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參考 ① 달레(C. Dallet)원저 安應烈·崔奭祐 譯註, 《韓國天主教會史》上, 1979. pp.284~285. ②崔奭祐, 앞의 책 p. 8. ③韓祐勳, 〈天主教 初期 傳播와 그 反響〉《韓國天主教會史 論文選集》1, 參照.

17) 安應烈·崔奭祐 譯註, 앞의 책, pp.285~294; 柳洪烈, 앞의 책, pp.35~37.

되고 조선전교 시도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불모로 潘陽에 간 昭顯世子는 淸이 明의 首都 北京을 함락하고 천도하게 되자 北京에 이르러 아담·샬(Adam Schall, 中國名 湯若望)神父와 親交를 맺게 되었다. 昭顯世子는 귀국을 앞두고 아담·샬神父와 많은 膳物과 편지를 서로 교환하고 宣教師 一名을 동반시켜 줄 것도 청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北京의 예수會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世子 또한 귀국후 急死하여 傳敎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¹⁸⁾ 이러한 모든 조선전교 시도의 실패는 明末淸初의 내외외환, 東洋三國間의 긴장과 對國정책, 그리고 한국의 對明事大 일변도 등에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다.¹⁹⁾

3. 天主教의 受容過程

1) 西學書의 導入과 學問的 研究

朝鮮後期 天主教 전래의 첫단계는 儒學者들에 의한 天主教 敎理의 학문적 연구에서 시작된다. 朝鮮儒學者들이 天主教敎理를 學問的으로 연구비관할 수 있었음은 17세기 초엽부터 도입된 西學書에 의해서였다.

鄭斗源은 北京의 天主教 宣教師와 최초로 접촉한 朝鮮使臣이었다. 그는 1631年(仁祖 9年) 陳奏使로 北京에 갔다가 로드리게스(J Rodriguez, 中國名 陸若漢)神父를 만나 紅夷砲, 千理鏡, 自鳴鐘 등의 科學器具와 科學書籍들을 膳物로 받아 왔다²⁰⁾ 서학서는 이를 전후하여 赴燕使를 통해 導入되었다.²¹⁾

朝鮮時代 政治理念과 社會的 規範의 근원은 朱子學的 儒敎思想이었다. 그러나 朱子學의 空理空談에 대한 회의와 폐해는 특히 丙子胡亂과 壬辰倭亂이란 두 차례의 시련을 겪고난 우리民族에게 새로운 자각과 民族思想運動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때 西學書를 통해 접할 수 있는 實用的인 西歐의 新學問은 당시의 先覺的인 선비들에게 깊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李瀾의 제자 安鼎福은 이에 대해 “名鄉과 碩儒가 그 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²²⁾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導入된 西學書로 天主教書籍中 가장 많이 소개되고 연구된 것은 《天主實義》이

18) 최석우, 앞의 책, pp.11~12; 柳洪烈, 앞의 책, pp.41~47.

19) 金吉洙, 〈朝鮮後期 天主教의 受容過程〉《現代와 宗教》7, 1984, pp.109~111.

20) 《星湖僊說》卷 4, 陸若漢條.

21) 李元淳, 〈西洋文物 漢譯學術書의 傳來〉《한국사》14, 國史편찬위원회, 1975,

裴賢淑, 〈17·8世紀 傳來된 天主教書籍〉《敎會史研究》3, 1981, 參照.

22) 《順菴集》卷 17, 天學考.

다. 天主實義는 마태오·릿치 著述로 天主教敎理에 대한 일종의 護敎書이다. 天主實義를 소개한 최초의 문헌은 李睟光(1563~1628)의 《芝峰類說》이다. 柳夢寅(1559~1623)도 《於野談》에서 天主實義를 소개하고 간략한 批判을 하였다. 李睟光과 柳夢寅은 마태오·릿치의 《交友論》에 대하여도 西士들이 朋友의 사귀를 중히 여기고, 심지어 “第二의 我”로 여긴다고 하였다. 英祖 때의 臣儒인 星湖 李瀼은 跋文을 써서 天主實義를 批判하였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西學의 物質的 측면 뿐 아니라 西學의 精神的 측면인 理的 및 道的 면에도 미쳤다. 그는 天主教의 敎理와 倫理思想에 대하여 儒敎와의 共通點을 인정하는 반면 相反되는 곳을 비판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는 “西學은 오로지 天主를 尊崇하는데 天主란 곧 儒家의 上帝이며 그 敬事畏信함은 佛氏가 釋迦를 대함과 같다”²³⁾고 論評하였다. 李瀼은 天主教 倫理書의 하나인 판도자(L. de pantoja, 中國名: 龐迪我)의 《七克》에 대하여 “吾儒의 克己說이다”고 하면서도 “七克 中에는 節目이 많고 處理의 순서가 있어 비유가 적절하며 간혹 吾儒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는 만큼 이는 克己復禮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²⁴⁾ 이런 표현에서 그는 天主教 倫理의 우월성을 시사했지만 李瀼의 西學에 대한 태도는 補儒論的 입장에서 學問的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北京의 宣敎師들은 天主教敎理와 西洋의 새로운 科學文物을 동시에 傳하여 이를 수용하던 儒學者들인 西學者들은 宗教와 科學을 혼동하여 全體로 파악하려는 西學觀을 가졌다. 이는 뒷날 天主教가 異端視되었을 때 西洋의 科學까지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도 했다.²⁵⁾

天主教에 대한 朝鮮後期 儒學者들의 학문적 비판연구는 信仰으로서 宗教的 受容에 이르지 못하고 學問的 限界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西學觀, 宗教觀 및 神觀이 天主의 人格性을 거부하게 되고 따라서 人間과 天主와의 人格的 相互關係가 부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天主教가 구세주이신 神中心인 반면 儒學은 人倫中心의이고 倫理至上主義的 立場이었으며 人生相互間의 倫理自體를 宗教的 차원으로 보는 儒敎的 意識은 天主教의 救援觀을 私利追求로 간주 할 수 밖에 없었다.²⁶⁾

2) 信仰實踐運動과 天主教의 受容

西學에 대한 國內 儒學者들의 관심과 연구가 세계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自覺을 갖게하고 自我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여 實學運動에도 拍車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星潮이후

23) 《星湖集》卷 5, 跋天主實義.

24) 《星湖僊說》卷 10 上, 異端門條.

25) 崔奭祐, 《韓國敎會史의 探究》, 1982, pp.31~33.

26) 崔奭祐,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1982. p.17.

李檠·李承薰·丁若銓과 若鏞형제, 權哲身과 日身형제 等の 南人 소장학자들에 의하여 비로소 天主教의 受容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단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로서 學問的 관심을 넘어서서 天主教에 대해 긍정적 이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들이 宗教的 眞理에 대한 갈증과 人生問題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얻으려는 求道的 자세와 태도로 天主教를 대하고 탐구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儒敎를 양반계급의 독점물로 삼고 政治的 權勢와 社會經濟的으로 보장된 地位를 누리던 위정계층에게는 博愛와 平等을 가르친 天主教敎理가 革命的 挑戰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同時에 그것은 또한 가난과 억눌림 속에 껍박받는 계층에게는 해방과 혁신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이다.²⁷⁾ 또한 이들 先覺者들은 朝鮮後期の 심각한 社會的 모순의 확대와 사회악의 심화현상에 精神的 空虛를 느끼고 根本的인 制度的 改革과, 社會的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염원을 가졌고 나아가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生活理念을 회구하기도 하였다.²⁸⁾

文獻上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天主教를 信奉한 사람은 許筠(1569~1618)이다. 許筠은 《洪吉童傳》의 作家로 유명하다. 그가 1575年 北京에 갔을 때 地圖와 偈十二章(天主教의 12장의 祈禱文)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홀로 그 가르침을 信奉하였다.²⁹⁾ 李瀾의 제자로 최초의 信仰實踐運動者는 洪儒漢이었다. 許筠과 洪儒漢의 경우 이들은 죽을 때까지 聖洗聖事(洗禮)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어떤 宣敎師의 가르침과 指導도 받지 못했으며 敎會의 典禮에도 參禮하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스스로 신앙적 삶을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었다. 다음으로 信仰實踐運動을 展開한 사람들이 李檠을 中心으로한 權哲身·日身형제와 丁若銓·若鍾형제 等 일련의 학자들이다. 이들이 天主教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된 것은 敎理研究會가 발단이 되었다. “天真菴·走魚寺 講學會”라 불리우는 이 天主教 敎理研究會에 대해 「달레」는 그의 著述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丁酉(1777年)年에 유명한 學者 權哲身은 丁若銓과 학식을 얻기를 원하는 그 밖의 학자들과 함께 방해를 받지 않고 깊은 學問을 研究하기 위하여 외딴 절로 갔다. 이 소식을 들은 李檠은 크게 기뻐하며 자기도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때는 겨울이라 길마다 눈이 덮여 있었고, 절까지는 百餘里나 되었다. 그러나 그런 곤란이 그렇게도 열렬한 그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李檠과 그의 일행의 도착은 산 속에 파묻힌 고적한 그 절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研究會는 10여일 걸렸다.³⁰⁾ 最近의 연구는 이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

27) 石川壽夫, 〈理學至上主義 李朝の天主教の挑戰〉《歷史學研究》100, 1942; 崔奭祐, 앞의 책에서 再引用.

28) 韓祐勛, 〈李朝後期の 實學思潮과 天主教〉, 《司牧》34, 1974, pp.44~47.

29) 李元淳, 《한국천주교회사》1970. p.11: 柳洪烈, 앞의 책, pp.54~55.

30) 安應烈·崔奭祐 譯註, 앞의 책, pp.300~301.

하고³¹⁾ 이러한 연구회가 한번에 끝나지 않았고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연구회를 통해 천주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침저녁 기도와 主日, 禁肉齋等 그들이 알아낸 天主教의 모든 가르침을 비밀리에 實踐하기 시작했다.³²⁾ 李檠은 天主教에 대한 그의 초보적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天主教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에 몰두하여 敎理研究와 討論에 더욱 열중 하였다.

李承薰은³³⁾ 평소 학문과 사색을 즐겼다. 1783年 그의 부친 李東郁이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임명되어 北京으로 가게 되었다. 이 소식은 들은 李檠은 李承薰을 만나 은밀히 권고 하였다. “北京에 天主堂이 있으니 자네가 찾아보고 信經 한 부만 달라고 하고 領洗받기를 청하면 그는 반드시 크게 사랑할 것일세 기이한 물건과 놀이것감을 많이 얻어 가지고 오되 그냥 돌아 오지 말게”³⁴⁾ 北京에 간 李承薰은 李檠의 간절한 권고를 지켜 北堂의 그라몽(de Grammont, 中國名 梁棟材)神父로부터 筆談으로 敎理를 受講하고 聖洗를 받았다. 이때가 1784年 正月末 그의 나이 27세였다. 李承薰은 韓國教會歷史上 最初로 聖洗入教한 信者로 1784年 3月末 귀국 하였다. 그가 귀국할 때 宣敎師로부터 膳物받은 천주교관계 서적과 十字架 聖畫等은 상당한 양이었다. 七聖事의 해설, 敎理問答, 福音聖書의 註解, 聖人行蹟 및 祈禱書等이 모두 이 때 지입 되었다.³⁵⁾ 李承薰의 귀국을 기다리던 李檠은 承薰이 가져온 책들을 가지고 研究와 명상을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은거처에서 깊이 연구하면서 새로운 生命感和 참된 信心을 체험하게 되었다.³⁶⁾ 李檠이 은거처에서 나와 承薰과 丁若銓·若鏞형제를 찾아가 했던 말은 당시 그의 信仰心을 웅변하고 있다. 즉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도리이고 참된 길이요, 위대하신 天主께서는 우리나라의 무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시오, 이것은 天主의 명령이오 우리는 천주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을 수가 없소 天主教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福音을 傳해야 하오”³⁷⁾ 李檠은 이로부터 李承薰과 함께 韓國天主教 創設의 先導의 역할을 하게 된다.

31) 남상철, 〈한국천주교의 요람지인 走魚寺가 발견됨〉《경향잡지》1962. 12. pp.44~48 참조.

32) 安應烈·崔爽祐 譯註, 앞의 책, pp.300~302.

33) 李承薰(1756~1801) 1780년 24세에 진사급제, 1783부친 李東郁을 따라 北京에 감, 1784 그라몽神父로부터 영세받고 信者가 됨 귀국 후 이벽·권일신 등에 영세 줌, 1790 평택현감 취임, 1791 신해박해 때 체포 당함, 1795 예산으로 유배당함, 1801.4.27 신유박해로 의금부에 수감중 서소문 네거리에서 사형당함.

34) 黃嗣永, 〈帛書〉, 43~44行.

35) 安應烈·崔爽祐 譯註, 앞의 책, 제1권 제2장, 참조.

36) 黃嗣永, 〈帛書〉, 44行 참조.

37) 安應烈, 崔爽祐 譯註, 앞의 책, pp.307~308.

李檠의 傳敎活動은 매우 활발하여 聖洗入敎를 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는 먼저 그가 布敎한 權日身, 丁若銓, 若鍾, 崔昌顯등과 함께 李承薰으로부터 聖洗를 받고 入敎하였다. 그는 中人階級의 有德한 人物들에게도 布敎하여 譯官인 崔昌顯, 金範禹, 崔仁吉을 위시하여 池璜, 金宗教 등이 入敎하게 되었다. 權哲身, 日身형제는 學德을 겸비하였으며 湖南地方 布敎에 크게 기여하였다. 權氏家의 영향으로 李存昌이 入敎하여 忠淸地方 布敎의 초석이 되고, 柳恒儉은 湖南布敎의 基礎가 되었다. 抱川의 洪敎萬은 고향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 洪樂民은 禮山사람으로 李承薰과 丁若鏞의 벗이 되어 天主教를 믿고 實踐하게 되었으며 全羅道의 尹持忠은 金範禹의 권고로 入敎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韓國敎會創設과 初代敎會의 빛나는 공로자들이다. 이들이 布敎를 시작하며 信仰實踐運動을 벌리기 시작한 1784년에 명례방(지금 明洞 天主敎會 근방)에 있던 金範禹의 집에서 定期集會를 갖고 함께 모여 祈禱하며 포교하였는데 이것이 韓國天主敎會 歷史의 첫 出發이 되었다.³⁸⁾ 朝鮮後期 天主教의 受容은 이와 같이 단 한 사람의 宣敎師도 없이 젊은 유학자들에 의해 스스로 연구하고 신앙을 실천하며 洗禮를 받아 入敎하고, 자치적 敎회의 운영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의 宣敎史上 유례가 없는 자발적 자주성은 韓國天主敎의 긍지이며 우리민족의 자랑이다.

II. 天主教의 大邱地域 傳播

1. 大邱地域 最初의 福音傳播

1) 天主教受容期の 嶺南지역

朝鮮後期 儒學者들은 天主教에 대해 補儒論的 입장에서 批判的 태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主教敎理는 民間에 퍼져 1668년경에는 天主學이 성행하여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을 감영으로 잡아보낼 것을 주장한 적도 있고, 1758년 黃海道와 江原道 地方에서는 天主學이 널리 번져 祭祀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觀察使로 하여금 이를 嚴禁하도록 한 바 있었다.³⁹⁾ 黃海道와 江原道와는 달리 慶尙道와 全羅道에서는 1760년경만 해도 天主學이 傳來되지 않았다. 慶尙道 地方에서는 嶺南學派에 의해 儒學이 성행되었다. 특히 이곳은 李滉과 같은 臣儒가 배출되어 鄒魯之鄉으로 자처하는 만큼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서 새로운 사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西學의 경우에는 天主教의 受容過程에

38) 金吉洙, 앞의 논문, 《現代와 宗教》7, 1984. p.120. 柳洪烈, 앞의 책, p.89.

39) 《正祖實錄》卷 33, 正祖 15年 10月. 丁卯條, 參照.

서 한국교회의 성립이전에 信仰實踐運動이 이 지역에 먼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洪儒漢은 李瀾의 門下生으로 최초의 信仰實踐運動者이다 ‘달레’는 그의 《韓國天主教會史》에서 朝鮮初期 天主教가 전하는 口傳이라 하면서 洪儒漢의 信仰生活을 소개하고 있다. 그 소개에 따르면 洪은(子는 士良) 양반집 자제로 天主教서적을 읽고 實踐에 힘썼다고 한다. 그는 每七日째를 主日로 알고 노동을 중지하며, 祈禱에 전념했을 뿐 아니라 欲望은 邪惡하니 억제하라고 가르치며 自身도 禁慾生活과 자선행위를 실천했다고 하였다. ‘달레’가 口傳이라면서 소개한 이상의 要旨은 文獻上으로 洪儒漢이 李瀾의 門人으로 立證되고,⁴⁰⁾ 그 후의 자료들이 口傳內容을 더욱 뒷받침하게 되었다⁴¹⁾ 그는 그의 스승이 天主實義등을 통해 西學을 研究할 때 거기서 얻은 놀랍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혼자 조용히 이를 實踐할 결심을 하고 1757年 고향으로 내려 갔다. 그는 고향 禮山에서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하여 1775年 더 조용한 곳을 찾아 慶尙道 榮州로 이주했다. 그는 1785年 죽을 때 까지 철저한 信仰生活을 실천하였다⁴²⁾ 洪儒漢은 嶺南地方에서 처음으로 西學을 研究해 信仰으로 받아들인 첫 信者가 됐다. 嶺南은 또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세스페데스神父가 비록 朝鮮傳教를 目的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奉獻하고 聖事를 執行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韓國教會의 成立以前에 信仰의 대상으로서의 서학을 다른 지방보다 먼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⁴³⁾

2) 大邱地域에 傳해진 첫福音

1784年 李承薰이 李檣, 權日身, 丁若銓, 若鍾, 崔昌顯 등에게 洗禮를 베풀고 柳恒儉, 洪樂民 등과 信者共同體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서 韓國教會가 成立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들의 布教活動은 매우 활발하여 1784年末에 이미 서울의 明禮洞, 마재, 天安郡, 여사울, 全羅道, 진산, 全州, 초담등에 傳播되었다. 이렇게 주로 京畿, 忠淸, 全羅등 3個道에 분포된 것을 우리나라의 第一次 가톨릭信者傳播地域으로 본다. 이제 이 第一次 信者 傳播地域에서 天主教는 迫害를 거치면서 全國으로 퍼져 나가게 됨을 볼 수 있다.⁴⁴⁾

우리나라에서 最初의 天主教迫害는 韓國天主教 歷史가 시작된 바로 그 이듬해인 1785年에 일어난 乙巳秋曹摘發事件이다. 이는 明禮洞 金範禹의 집에서 갇던 天主教信者들의 비밀집회

40) 《星潮先生全集》卷 32, 答洪士良.

41) 金九鼎, 〈韓國最初의 信者 洪儒漢에 關한 史料發見〉《가톨릭青年》1965, pp.60 ~ 72 參照.

42) 安應烈·崔奭祐譯註, 앞의 책, pp.295 ~ 297; 金九鼎, 《嶺南殉教史》1966. pp.81 ~ 97.

43)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大邱本堂 百年史》, 1986, p.117.

44) 교구사편찬기획실, 〈대구교구사(2): 영호남 지방의 교우촌 형성과정〉《빛》11, 1984, pp.70 ~ 73.

가 우연한 기회에 刑曹의 포졸에 의해 적발된 사건을 말한다. 형조판서 金華鎭은 이 비밀집회에 참여한 사대부집 자제들은 타일러 보내고 中人階級の 집주인이며, 洗禮名을 ‘토마스’라고 하는 金範禹만을 잡아들였다. 金範禹는 信仰을 굳게 지키다가 慶尙道 밀양의 丹場으로 귀양가서⁴⁵⁾ 1786年 가을 그곳에서 刑曹에서 매맞은 상처가 덧나 세상을 떠났다. 金範禹는 귀양지에서 공공연하게 자기의 宗教를 信奉하였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고, 자기 말을 듣고 자하는 모든 이를 가르쳤다. 그의 용기와 인내심은 잠시도 변하지 않았다.⁴⁶⁾ 이로서 그는 韓國天主教教會의 첫 殉教者가 되었다.

徐光修(1715~1786)는 서울의 명문가 후예로 일찌기 學問에 전념하다가 教會創立時에 자녀들과 함께 天主教를 信奉하였다. 그는 1785年 乙巳秋曹摘發事件때 門中の 迫害를 받고 추방당하게 되어, 자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는 五男인 有道와 함께 尙州 상서면 배목리(現 상주군 이안면 양범리)로 피난해 온 것 같다. 그는 상주로 피난온지 1년만인 1786년에 72歲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아들과 후손들이 福音을 傳播하였다고 그 후손들이 전하고 있다. 徐光修의 후손 가운데는 慶北 北部地方에서 福音을 傳하고 殉教한 徐翼淳·泰淳兄弟와 친척 徐有亨등이 있다. 그리고 그 후에 훌륭한 愛國志士이며, 大邱本堂 設立과 大邱教區 設立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徐相燾 會長도 그의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⁷⁾ 慶尙道 지방의 最初의 福音傳播는 이렇게 最初의 迫害와 그 迫害로 인해 귀양온 첫 殉教者와 피난온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2. 迫害속에 이루어진 教友村

우리나라 최초의 天主教 迫害인 乙巳秋曹摘發事件으로 慶尙道에 복음이 전파 되었다. 그리고 1791년에는 辛亥迫害가 일어났다. 이는 全羅道의 信者인 尹持忠과 權尙然등이 尹持忠의 母親喪을 입고 神主를 불태운 사건이 일어나 일어났다. 辛亥迫害 때에 尹持忠과 權尙然은 殉教하고 權日身도 이 일에 관련되었다고 하여 체포되어 殉教하게 되었다. 이 辛亥迫害는 地方教會에서 일어난 최초의 迫害였다. 辛亥迫害以後 1795年 韓國教會는 처음으로 입국한 中國人 周文謨神父를 맞이하여 다시 활발한 宣敎活動을 할 수 있었다. 이 때 4천명의 信者들은 비로

45) 金範禹의 유배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김옥희수녀, 변기영신부 등은 경남 밀양 丹場으로 보고, 최석우신부, 조광교수 등은 忠南 丹陽으로 본다.

46) 安應烈·崔奭祐 譯註, 앞의 책, pp.318~319.

47)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19.

마백락, 《경상도 교회와 순교자들》, 1989, pp.87~89.

소 牧者를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周文謨神父가 초창기 신자들의 영웅적인 도움을 받아 6年間 행한 布教活動은 참으로 놀라웠다. 1801年 周神父가 殉教할 때 信者數가 1萬名을 헤아리는 教會로 발전하게 되었다.⁴⁸⁾

그러나 1800年 6月 正祖가 승하하고, 純祖가 11세의 어린나이에 王位를 계승하고, 貞純王后의 섭정이 시작되면서 가혹한 天主教迫害가 일어났다. 貞純王后 金大王大妃는 老論 僻派에 속해 있어서 항시 南人 時派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實權을 잡게 되자 南人時派를 물리치는 방법으로써, 그들이 信奉하는 西學인 天主教를 배격하면서 祖上祭祀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天主教禁敎令을 전국에 내리고 五家作統法을 악용하여 信者들을 밀고하게 하였다. 이 迫害가 우리나라 최초의 天主教에 대한 全國의인 迫害로 辛酉迫害라 한다. 이 박해는 초기 한국교회를 초토화 시켰다. 辛酉迫害 중에 天主教信者 4百名이 유배되고 1百名 이상이 처형되었으며, 初創期 韓國教會의 주요인물들이 모두 刑場의 이슬로 사라졌다. 丁若鍾·洪樂民·崔昌顯·洪敎萬·崔崐公·李承薰·姜完淑등은 참수 당하고, 李家煥·權哲身등은 옥사 하였으며, 丁若鏞·若銓등은 慶尙道와 全羅道로 각각 유배 당하였다. 당시의 朝廷은 이들의 罪名을 역적이나 謀反罪를 적용하여 家産과 土地를 적몰하고 처자는 대부분 僻地의 官奴婢로 보내졌다. 간혹 살아남은 양반의 자손이나 처자들은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邪學罪人으로 信仰人이라는 이유만으로 숨어서 얻어 먹으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방랑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깊은 산간벽지로 들어갔다.⁴⁹⁾ 이렇게 辛酉迫害以後 信仰生活만을 영위하려는 信者들은 고향을 버리고 깊은 산간에 숨어 들어가서, 풀뿌리 나무껍질로 연명하면서도, 天主教의 信仰을 實踐하는 외로운 信仰生活을 하였다. 당시의 信仰人들은 信仰生活을 방해받지 않는 이런 곳을 찾아 모여 사는 부락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마을들을 敎友村이라 한다⁵⁰⁾

敎友村은 辛酉迫害以後로 형성되었고, 그 분포는 京畿·忠淸·全羅에서 江原道와 慶尙道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辛酉迫害以後 天主教 信者들은 제1차 확산지역 6個地域을 포함해서 35個所에 확산되었는데 이중 嶺·湖南地域은 7個所였다. 最初 6個所에서 35個所로의 信者村 확산은 辛酉迫害 속에서 이루어진 韓國天主教 信者의 第二次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⁵¹⁾ 1815年 慶尙道 最初의 迫害인 乙亥迫害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敎友村이 은밀히 이

48) 安應烈·崔奭祐譯註, 앞의 책, pp.333~356.

柳洪烈, 앞의 책, pp.97~107.

49) 安應烈·崔奭祐譯註, 《韓國天主教敎會史》中, 1980, p.10.

50) 金玉姬, 《崔良業神父와 敎友村》, 1983, pp.125~126.

51)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21.

투어졌고, 은밀히 이루어진 敎友村이 관청에 발각되면서 慶尙道 迫害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3. 慶尙道 迫害와 敎友村의 擴散

1) 乙亥迫害와 慶尙道 敎友村

慶尙道地方의 最初의 迫害는 1815年의 乙亥迫害이다. 1814年 全國의인 飢饉으로 살기가 어려워지자 敎友村에 대한 地方官吏들의 탐학으로 迫害가 일어나게 되었다. 1815年 음력 2월22일 청송 老萊山의 敎友村에서 敎友들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經文을 誦하고 있을 때, 밀고자에 의해 갑작스러운 포졸의 습격을 받았다.⁵²⁾ 이렇게 시작된 乙亥迫害는 주로 慶尙道와 江原道에 대한 地方迫害이다. 이 地域의 敎友村이 발각되고 피해를 입은 迫害였다.

乙亥迫害의 발상지인 청송 老萊山의 敎友村은 德山고을에 살았던 孝性이 깊고 열심한 信者인 高여빈(聖云)·高성일(聖大) 兄弟가 1801年 辛酉迫害 때 고산 저구리골에서 잡혔다가 全州로 압송되었으나 풀려나와 兄弟가 함께 이 곳으로 이사와 살았는데 그 주위의 敎友들이 모여 살게 되어 형성된 敎友村 이었다.⁵³⁾

慶尙道地方에 있었던 이밖의 敎友村으로는 金稀成이 日月山 중에 있는 英陽고을 ‘곧은정’에 이룩한 敎友村이다. 그는 禮山 ‘여사울’의 中人家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801年 父親의 殉敎와 敎訓을 따르기 위하여, 이곳 英陽으로 들어와서 禁慾生活과 德을 닦았으며 家族들을 가르치면서 敎友村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慶尙道 安東고을 우련밭의 깊은 산곡에 있는 敎友村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金震厚의 아들인 金宗漢이 苦行과 克己와 德行을 實踐하면서 17年間이나 살았다. 그들은 낮에는 天主教書籍을 베껴 사방으로 전하였고, 저녁에는 자정이 넘도록 信者들을 가르치며 지극한 열심을 보여 주었다. 外敎人에게 信仰을 전하는 일에도 열정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入敎시켰다. 이 敎友村은 본격적인 布敎活動을 전개했던 곳이기도 하다.⁵⁴⁾ 다음은 慶尙道 眞寶고을의 敎友村인데 乙亥迫害때 朴師行 등 35名이나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보아 좀 규모가 큰 敎友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慶尙道 靑陽고을 수단이에도 敎友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官邊側 기록에는 1815年 乙亥迫害때 慶尙道の 靑松, 英陽, 眞寶등지에서 잡힌 확실한 信者數만도 71名이 되었고, 이중에 重罪人으로 大邱監營

52) 安應烈·崔奭祐譯註, 《韓國天主教史》中, 1980, pp.51~52.

金九鼎, 앞의 책, pp.112~115.

柳洪烈, 앞의 책, pp.189.

53) 安應烈·崔奭祐譯註, 앞의 책, p.58.

54) 金玉姬, 앞의 책, p.142.

으로 압송된 숫자가 33名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敎友村이 慶尙道の 山間地方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⁵⁾ 敎友村의 분포에 대해서는 殉敎者 金綱伊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原州에서 가장 榮光스럽게 殉敎한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성격이 고상하고 용맹하며 財産도 많았다. 그는 天主教信者가 된후 財産과 종들을 버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동생 金다테오와 함께 全羅道 高山으로 이사하였다. 1801年 迫害때 포졸의 눈을 피해 갖은 곤경을 겪으며 숨어 살다가 生計를 위해 등짐장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外敎人들과 어울렸었고 迫害가 치열했을 때에도 이웃에 福音을 傳하여 入敎하게 하였다. 그러던 그는 信心生活에 專念하기 위하여 등짐장사를 그만두고 慶尙道 머루산으로 피해 들어가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그는 그가 入敎시킨 新入敎友들과 그들의 家族들을 데리고 함께 머루산에서 敎友村을 세웠던 것이다.⁵⁶⁾ 金綱伊는 1815年 4월에 체포되어 乙亥迫害의 殉敎者가 되었다. 乙亥迫害는 지역적으로 大邱와 原州 감옥에서 殉敎者를 많이 냈다. 靑松 老萊山에서 체포된 信者들은 慶州를 거쳐 14名이 大邱監營으로 이송되었고, 眞寶 머루산 敎友村 信者들은 安東을 거쳐 13名이 大邱監營으로 넘겨졌으며, 英陽 곧은장에서는 6名이 大邱로 압송되었다. 이렇게 이송된 신자들은 각기 출신지역으로 보내지고 高聖云·高聖大·金宗漢·金稀成·李時任·崔性悅·金華春등 29名이 大邱 觀德亭⁵⁷⁾에서 殉敎하였다.

2) 大邱監營의 信仰共同體 生活

乙亥迫害로 慶尙道와 江原道에 형성되었던 敎友村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무렵 迫害 중에서도 天主教는 더 널리 전파되었다. 1次와 2次 擴散으로 35個 地域에 전파되었던 敎友村이 이때 第三次 擴散으로 全國 48個 지역에 걸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뿐만 아니라 이때의 信者들은 오랜기간의 감옥생활을 하여 옥중에서 목숨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獄中 殉敎者들은 감옥생활을 信心行事를 實踐하는 場所나 德을 배우는 學校로 생각하며 옥중에서 信者共同體를 이루는 기록을 볼 수 있다.

55) 安應烈·崔奭祐譯註, 앞의 책, pp.59~66.

金玉姬, 앞의 책, pp.142~143.

56) 安應烈·崔奭祐譯註, 위의 책, pp.70~72.

金玉姬, 위의 책, pp.143~144.

57) 觀德亭:現 大邱直轄市 中區 南山二洞 일원. 天主教 大邱大敎區에서는 이곳에 觀德亭 天主教 殉敎紀念館을 세워 殉敎精神 현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58) 《韓國天主敎會史》中, pp.51~84.

金九鼎, 앞의 책, pp.109~184.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22.

大邱監營에서 獄中生活을 하던 信者들의 모범적인 信仰生活은 教友들 뿐만 아니라 外教人들에게까지도 감탄의 대상이 되었다. 의지할 데 없이 獄에 갇혀 있는 그들은 낮에는 쥔신을 삼아 연명하면서도 밤이 되면 등불을 켜놓고 모두 함께 聖書를 읽으며 큰 소리로 共同祈禱를 드리면서 共同禮拜를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듣고 보는 住民들은 이 모습을 제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구경하러 왔다가는 冴이 感動하여 돌아가곤 하였다고 한다. 나라의 法으로 다스림을 받는 소위 이 罪人들이 기쁨과 平和 속에 잠겨 아름답게 서로 위하는 모습을 信仰이 없는 外教人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조차 信仰共同體를 이루고, 말과 行動에 규율이 잘 잡힌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에 “저곳이 죄인들의 소굴일 수가 없다” “창살 안에 갇힌 저들이 罪人인가, 내가 罪人인가” 하며 감탄하게 하였다. 더욱이 포졸이나 포교들이 와서 天主教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까지 하였으며 이들의 敎理討論을 듣고 놀라워 하였다 한다.⁵⁹⁾ 이렇게 大邱地域 天主教 傳播는 迫害 속에 이루어진 教友村의 형성과 信者共同體의 아름다운 獄中生活, 그리고 殉教者들의 證據의 삶에 의해 더욱 널리 擴散되어 갔다. 우리는 大邱地域의 初代教會에서도 殉教者들의 피는 그리스도敎 信仰의 씨앗이라고 말한 페르뮐리아누스의 명언을 실감하게 한다.

3) 丁亥迫害와 教友村의 擴散

1801年 辛酉迫害로 韓國初代教會건설 공로자들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指導者를 모두 잃어버린 韓國教會는 이제 第二世代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 그리고 教會의 中心人物들도 이제 兩班階級이 아닌 서민계층의 平民教會로 특징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教會의 代表的 指導者가 丁夏祥과 그 동료들 이었다. 丁夏祥은 韓國教會의 재건을 위해 聖職者 迎入運動을 계속 주도하여 15年동안 9차례에 걸쳐 北京을 드나들면서 路程을 탐사하며 聖職者의 과견을 호소하였다. 1821年 부터 玄錫文, 李景彦등이 聖職者迎入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1825年 劉進吉, 趙信喆등과 協議하여 로마의 敎皇께 직접 聖職者 과견을 청원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書翰은 敎皇과 世界教會를 크게 감동시키면서 韓國教會의 敎階的 教會의 發展의 기틀이 될 朝鮮敎區設定의 직접적인 動因을 제공하였다.⁶⁰⁾

이러한 가운데 1826年 日本의 德川家康은 朝鮮에 書信을 보내어 日本에서 피신한 天主教 信者가 朝鮮에 잠입했을 가능성을 말하며 이들의 체포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로 인해 관

59) 《韓國 天主教會史》中, pp.73~74.

金玉姬, 앞의 책, pp.144~145.

60) 《韓國天主教會史》中, pp.212~239.

헌들의 天主教 信者 수색이 강화되고 있던 중에, 1827年 全羅道 谷城고을에서 불미스러운 密告事件이 있어 또 한차례의 迫害가 全羅道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박해가 丁亥迫害이다.⁶¹⁾ 이때 全羅道에서 잡힌 信者들 중에 信心이 약한 배교자들의 토설로 연류된 他道の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全州의 포졸들이 慶尙道와 서울에까지 출동하였다. 이로 인한 여파가 경상도까지 미쳐 尙州 丈井(現. 尙州郡 咸昌面 尺洞里)에서 뛰어난 지도자 申太甫·베드로가 체포되어 가고 앵무당 敎友村이 습격을 당하였다. 잇달아 尙州牧使가 5~6곳의 敎友村을 습격하여 감영으로 압송하고 그중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大邱감영으로 이송되었다.⁶²⁾ 丁亥迫害는 전라도지역에서 만도 24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慶尙道에서는 金恩禹, 朴敬化, 金思健등 6명이 殉敎하였다.

이 迫害 중에도 天主教 信者들의 이동과 확산은 계속되어 第三次 擴散時 48개 地域에서 이 迫害중에 이루어진 第四次 擴散은 全國에 68個所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嶺南地域에는 태백산, 소백산, 순흥, 봉화, 울진, 예천, 상주, 안동, 영양, 청송, 진보, 대구, 안의, 진주, 함안, 고성등 16個 地域에 전파되어 있었다. 이렇게 거듭된 迫害에도 全國에 걸쳐 天主教 信者들의 敎友村이 확산되어 1827年경에 韓國敎會는 이미 朝鮮敎區를 設定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⁶³⁾

III. 大邱敎區의 設定과 天主教의 大邱地域 定着

1. 朝鮮敎區 設定과 파리外邦傳敎會의 進出

1) 司祭迎入運動과 朝鮮敎區 設定

1801年 周文謨神父가 殉敎하자 韓國敎會는 다시 牧者 없는 敎會가 되었다. 이에 丁夏祥을 中心으로한 平信徒들의 司祭迎入運動은 시련과 역경 속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1825年경 劉進吉의 명의로 敎皇께 쓰여진 서한이 北京主敎의 협력으로 1827年 敎皇 레오 12세께 전해졌다. 司祭를 請願하는 가슴을 찌르는 이 편지를 보고 당시 敎皇廳 布敎 聖省長官 가뵐라리(Cappellari) 추기경은 파리外邦傳敎會 神學校長 랑글로아(Langlois)神父에게

61) 金九鼎·金榮九, 《天主教 湖南發展史》, 1964, pp.126~129.

《韓國天主教會史》, 中, pp.125~205.

62) 金九鼎, 《嶺南殉敎史》 1966, pp.184~187.

63)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23.

朝鮮布教地를 맡아주도록 제의하였다. 이것이 장차 韓國教會와 外邦傳教會와의 깊은 관계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敎皇廳과 傳教會의 어려운 사정으로 진지한 노력을 하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던 중에 브뤼기에르(Bruguière, Barthélemy)神父의 용감한 결의에 의해 해결되기에 이르렀다.⁶⁴⁾ 브뤼기에르神父는 당시 淸(現. 타이, 1939年 以前의 國號) 布教地에 있었고, 主教로 成聖될 참이었다. 그는 朝鮮布教地에 司祭의 功績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外邦傳教會 神學校에 서신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1829年 5月 19日 字로 敎皇께 직접 글을 올려⁶⁵⁾ 스스로 朝鮮宣敎師가 되겠음을 자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 서한이 韓國에 敎區를 設定하고 敎階의 敎會의 발전의 기틀을 닦는 새로운 활로를 열게 하였던 것이다.

1831年 9月 9日 敎皇 그레고리오 16세(Gregorius, XVI, 1765~1846)는 2通의 敎書를 반포하였는데, 하나는 朝鮮에 獨立된 敎區를 設定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新設된 朝鮮敎區의 初代 敎區長에 朝鮮宣敎師를 自請한 브뤼기에르神父를 갑사(Capsa)의 主教로 任命한다는 것이었다.⁶⁶⁾ 이렇게 敎皇廳 布教聖省은 朝鮮布教地에 代牧區를 設定하는 동시에 브뤼기에르主敎를 初代監牧으로 임명하여 朝鮮代牧區를 北京主敎로 부터 獨立시켰다. 이에 韓國敎會는 代牧區라는 잠정적 敎階制度에 의해 지탱되고 확충되기에 이르렀다.⁶⁷⁾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서 外邦傳教會는 朝鮮에 進出하게 되었다. 이후 韓國敎會는 外邦傳教會 소속 선교사에 의해 司牧이 주도되었다. 外邦傳教會는 1658年 7月 29日 創設되었는데 創設目的은 布教地에 監牧을 功績해서 敎皇廳 布教聖省의 布教地 發展政策에 협조하려는 것이었다. 1664年, 外邦傳教會 神學校를 設立하고 聖職者를 양성해 布教地에 終身토록 머물면서 傳敎生活을 하도록 宣敎師를 功績해 왔다. 또 이들 宣敎師들은 功績된 布教地에서 敎會를 組織하고 現地人 聖職者를 養成하여 그 地域敎會가 自主적으로 運營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⁶⁸⁾

2) 宣敎師의 入國과 己亥迫害

朝鮮敎區 初代敎區長 브뤼기에르主敎는 그가 1831年 9月 9日 敎區長으로 任命된 사실을 이

64) 《韓國天主教史》中, p.219.

65) 外邦傳教會에서는 이 서한의 1百週年을 記念하는 뜻에서 1929年 기관지에 이 서한의 全文을 다시 소개하였다. 이만큼 이 서한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는 크다. 달레原著, 앞의 책 中, pp.223~231.

66) 《韓國天主教會史》中, pp.234~238.

67) 崔奭祐, 〈朝鮮敎區設定의 敎會史的 意味〉《敎會史研究》4, 1983, pp.59~81.

68) 崔奭祐, 〈外邦傳教會의 韓國進出〉《韓國敎會史의 探究》, 1982, pp.110~127.

듬해인 1832年 7月 25일에야 듣고⁶⁹⁾ 삼에서 그의 임지 朝鮮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中國大陸을 횡단하는 3年間の 여행으로 몸무게는 3분의 1로 줄고, 피부는 성한 곳이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끝내 朝鮮을 향한 여행도중 1835年 10月 남만주의 敎友村 빠리구에서 善終하였다.⁷⁰⁾ 朝鮮敎區 初代敎區長은 朝鮮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의 使徒的 열의에 감동하여 朝鮮布敎를 지원하고 同行했던 모방(Pierre philbert, 1803~1839)神父, 샤스당(Jacques, Honoré Chastan, 1803~1839)神父가 1836年 1月과 12月에 각각 朝鮮에 入國하게 되었다. 이어서 1837년에는 第2代 朝鮮敎區長 앙베르(Laurent Marie Joseph Imbert, 范世亨, 1796~1839)主敎가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들 外邦傳敎會 소속인 西洋宣敎師들에 의한 司牧活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宣敎師들은 全國 68個 地域에 산재해 있는 敎友村을 방문하여 聖事を 집행하고 共同祈禱와 公式예배를 드리며, 信者中 代表者를 會長으로 選任하여 敎會의 조직력을 갖추게 하였다. 이때 大邱地域은 샤스당神父가 巡禮하며 司牧하였다. 이로서 그는 大邱地域 最初의 西洋人 宣敎師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 宣敎師들은 朝鮮人 神父를 養成하기 위하여 神學生 候補로 崔良業, 崔方齊, 金大建을 선발하여 마카오로 유학 보냈다. 이와는 별도로 傳敎地域의 速成司祭養成方法에 따라 나이든 丁夏祥과 李재용등을 따로 선발하여 神父가 될 敎育을 시키고 있었다.⁷¹⁾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라면 韓國인 최초의 司祭는 이들 중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번째 전국적인 迫害인 己亥迫害로 실패하고 말았다.

1834年 純祖가 在位 34년에 승하하고 憲宗이 8살의 어린나이가 卽位하자 純元王后의 垂簾聽政이 시작되었다. 初期 時派의 執權期에는 평온하였으나 天主教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僻派가 得勢하여 대두하면서 邪教排斥이란 명분으로 憲宗5年(1839年) 우의정 李止淵을 중심으로 좌포장 南憲敎등에 의해 己亥迫害가 시작되었다. 同年 11월에 斥邪倫旨가 내리고, 지방관 리들의 탐욕과 공명심으로 혹심한 문초를 받게 되고 밀고자들에 의해 많은 信者들이 희생되었다. 李鎬永을 필두로 李光獻, 南明赫, 崔京煥 會長等이 殉敎하고, 丁夏祥, 劉進吉, 趙信喆 등 유능한 指導者들을 모두 잃었다. 1839年 9月 21日 앙베르主敎와 모방, 샤스당 두분 神父는 신자들의 색출과 迫害의 擴散을 막아보려는 主敎의 뜻에 따라 主敎의 命을 받고 자수하여 세 남터에서 함께 殉敎하였다. 이로 인하여 韓國敎會는 다시 牧者없는 敎會가 되었다⁷²⁾ 이 時期

69) 《韓國天主教會史》中, p.241.

70) 위의 책, p.324.

71) 위의 책, pp.383~384.

72) 위의 책, pp.456~463; 柳洪烈, 앞의 책, pp. 399~402.

의 특징적 저술로 丁夏祥의 「上帝相書」와 玄錫文의 「己亥日記」가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번째의 全國的 迫害인 己亥迫害로 教會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때 殉教한 사람들 가운데 70位가 1984년에 諡聖된 韓國殉教聖人 103位中에 포함되어 韓國教會는 인류의 귀감이 되는 거룩한 聖人을 迫害 속에 얻게 되었다.

2. 거듭되는 迫害와 大邱地域 公所 設立

1) 教會再建運動과 金大建·崔良業 神父

己亥迫害이후 牧者없는 教會를 이끈 指導者들이 玄錫文, 李在誼, 鄭베드로 등이었다. 이들은 北京에 연락원을 파견하는데 거듭 실패하면서도 꾸준히 노력하며 敎友들을 격려하고 지도해 나갔다. 1842년에 파견한 연락원 金프란치스꼬가 변문에서 접촉이 이루어져 韓國教會의 己亥迫害의 참상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⁷³⁾ 朝鮮敎區 第三代 敎區長으로 피임된 페레올(Jean Joseph Ferreol, 1808~1853)主教도 이 접촉을 통해 朝鮮教會의 실정을 알았다. 페레올主教는 金大建神父의 과감한 활약으로 金神父와 다블뤼(Marie Nicolas Antoine Daveluy, 1818~1866)神父가 함께 朝鮮入國에 성공하여 韓國教會의 再建과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⁷⁴⁾

金大建神父는 神學課程을 마치고 司祭로 敍品되기 전에 宣敎師의 入國通路의 확보를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지대를 탐사하였다. 그는 陸路入國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1844年 副祭가 된 후 海路의 개척을 위해 黃海道 海岸을 탐사하고 中國으로 가서 1845年 司祭로 敍品되어 韓國人 最初의 神父가 되었다. 金神父는 페레올主教와 다블뤼神父의 海路入國을 성공시켰고 이후 宣敎師들의 韓國入國은 국경수비가 강화된 陸路를 피해 海路를 이용하게 되었다. 金神父는 1846年 페레올主教의 命에 따라 崔良業神父와 宣敎師들의 入國을 위한 海上連絡을 시도하기 위해 黃海道 沿岸으로 갔다가 뜻밖의 사고로 체포 당하였다. 그는 옥중에서도 牧者로서의 뛰어난 귀감을 보이며 26세의 약관으로 殉教하였다.⁷⁵⁾ 金大建神父의 체포로 시작된 丙午迫害는 金神父의 협조자 玄錫文, 金神父가 감옥 속에서 만나 聖洗를 베풀어 入敎한 林致白等 9位の 聖人이 나시게 되어 韓國 103位 殉教聖人中에 들게 되었다.

1849年 韓國人으로서 두번째 司祭로 敍品된 崔良業神父는 다섯번째의 入國시도가 성공하여 그해 12월에 변문을 통해 入國하였다. 그때 먼저 入國해 있던 페레올主教와 다블뤼神父는 중

73) 柳洪烈, 앞의 책, pp.440~441.

74) 柳洪烈, 앞의 책, p.462

75) 李元淳·許寅 編著, 《金大建의 書翰》 1975, 參照; 柳洪烈, 위의 책 上, pp.483~486.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全國 5個道を 巡禮 司牧活動을 하였다.⁷⁶⁾ 그는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갇힌 자국만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活動하였으며, 慶尙道の 남단 東萊, 梁山지방까지 도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巡禮하며 傳敎하였다.⁷⁷⁾

당시 信者總數 15,206名中 崔神父가 담당한 지역의 信者數가 4,075名이었다. 1857年 崔神父는 일년동안 2,867名에게 告白聖事를 주었고, 171名의 어른에게 聖洗聖事를 주었으며 代洗받은 어른 17名에게 補禮를 집행하고, 181名을 傳敎會에 가입시켰으며, 예비신자 108名을 가르쳤다고 한다. 1858年 崔神父의 관할구역인 慶南 東萊와 釜山等地에만 公所⁷⁸⁾ 8個所가 있고, 7個所가 더 조성될 예정으로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무렵 崔神父의 司牧活動과 그 업적은 歷史的 意義를 지닐만 한 것이었다.⁷⁹⁾ 崔神父의 마지막 傳敎活動地域이 慶北地方이었는데 傳敎狀況을 主教께 보고하려고 上京하던 도중, 1861年 6月 애석하게도 善終함으로써 12年間の 司牧活動을 마감했다.

2) 丙寅迫害

憲宗을 계승하여 哲宗이 在位한(1848年~1863年) 14年間은 비교적 평온한 時期였다. 페레올主敎가 善終하고 뒤를 이은 朝鮮敎區 第四代 敎區長 베르뇌(Simeon Francois Berneux, 1814~1866) 主敎는 1856年 평온하던 때에 入國하였다. 1857年 베르뇌主敎는 다블뤼神父를 계승권이 있는 補座主敎로 맞이하여 韓國에서는 처음으로 主敎敍品式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이때 國內 모든 宣敎師들을 불러 最初의 聖職者 會議를 召集하고 그 會議結果를 정리해 司牧書翰으로 張主敎諭示諸友書를 發表했다. 그리고 韓國人 司祭養成을 목적으로 배론(舟論, 現 忠北堤川郡 鳳陽面 九鶴里)에 聖요셉神學校(舟論神學堂)를 운영하였으며, 出版事業의 기초작업으로 敎理관계 서적을 편찬하게 하였다. 베르뇌主敎는 고아를 보호하는 聖嬰會를 운영하고, 주요지역에 施藥所를 세워 극빈자를 치료 해주기도 하였다.⁸⁰⁾ 우리나라에서 福祉事業의 효시가 될 이러한 敎會活動들은 朝鮮時代의 마지막 全國的 迫害인 丙寅迫害로 좌절되고 말았다.

1864年 哲宗이 승하하자 12세의 高宗이 卽位하고 興宣大院君이 實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무렵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차지하여 1806年(哲宗 11年)우리나라와 두만강에 국경을 접하게 된 이래 南下政策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興宣大院君은 北邊의 對策을 통감하고 있었

76) 崔良業神父의 1850年 10月1日字 書翰.

77) 金玉姬, 《崔良業神父와 敎友村》, 1983, p.66.

78) 本堂보다 작은 단위의 敎회, 神父가 상주하지 않은 작은 단위의 信者 集會所.

79) 金玉姬, 위의 책, pp.75~76.

80) 崔奭祐, 《韓國敎會史의 探求》, 1982, pp.470~471.

는데 洪鳳周와 金勉浩의 防我建議文에 이어 南鍾三의 以夷制夷의 防我策을 접하고, 한 때에 宣敎師의 活用에 관심을 갖고 在鮮宣敎師와의 면담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興宣大院君은 東北亞情勢의 변화와 淸의 天主教 탄압 및 주변인물들의 排外思想의 영향으로 태도를 돌변하여 天主教 迫害로 선회하였다. 1866年 宣敎師 체포형으로 시작된 丙寅迫害는 丙寅洋擾, 오페르트의 南延君墓 도굴사건, 辛未洋擾를 거치면서 1萬名 이상의 信者들의 희생을 내고 大院君의 실각으로 종식되었다.⁸¹⁾ 이 迫害를 두고 형벌은 가혹하고 끔찍하여 피보라가 몰아침과 같다고 하였다. 朝鮮敎區 四代敎區長 베르뇌主敎를 위시하여 五代敎區長 다블뤼主敎와 동료 司祭등 9位의 宣敎師가 殉敎하고, 산속 은신처에서 목숨을 건진 깔래(Calais, 1833~1884) 神父, 페롱(Féron, 1827~1903) 神父, 그리고 후에 朝鮮敎區 六代敎區長이 된 리델(Ridel, 1830~1884) 神父등 3名의 宣敎師는 천신만고 끝에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韓國敎會는 또 다시 牧者없는 敎會가 되었다.⁸²⁾ 이 때 殉敎者中 24位가 韓國 103位 殉敎聖人 속에 들게 되었다. 大邱敎區의 第二守護聖人인 聖李尹一·요한(1823~1867)도 이때 殉敎하였다.

3) 大邱地域의 公所들

거듭되는 迫害속에 敎友村들은 초토화되고, 다시 옮겨 형성되며 天主教는 擴散되어 갔다. 崔良業神父와 과리外邦傳敎會 소속 宣敎師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 敎友村을 巡禮하며 司牧活動을 전개 하였다. 그리고 이들 敎友村에 은밀히 公所를 마련하였다. 1839年 己亥迫害 이전의 영호남지방에는 샤스당神父가 司牧을 담당하였다. 그가 殉敎한 후에는 페레올主敎와 다블뤼神父가 丙午迫害를 피해 1847년부터 영호남지역을 맡아 司牧하였다. 그리고 1853年 페레올主敎가 善終한 후에는 崔良業神父에 의해 1861년까지 12年間 영호남의 敎友村을 巡禮하며 司牧活動을 전개하여 公所를 세웠다.⁸³⁾

1861년에 入國했던 리델神父가 제작한 지도에 의하면 1860年代에 全國 153個 地域에 公所가 設立되어 있었다. 이 地圖는 처음에 金大建神父가 1845년에 제작한 것으로 かり 國立博物館에 보관 중이었다. 리델神父는 1855年 프랑스로 가서 이 地圖를 참작하여 그린 것으로 地名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⁸⁴⁾ 이 地圖에 표시된 全國의 公所 153個所 가운데 영호남

81) 柳洪烈, 《증보 한국천주교회사》 下, 1988, 제8편 참조.

82) 柳洪烈, 《高宗治下 西學受難의 研究》 1962, 參照; 安應烈·崔奭祐譯註, 《韓國天主教敎會史》 하, 1980, pp. 385~485.

83) 《大邱本堂 百年史》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1986, pp.126~127.

84)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127.

교구사편찬기획실, 〈대구교구사(3): 영호남지방의公所조성과정〉, 《빛》 12, 1984, pp.70~73.

지방의 公所分布地域이 47個所였다.

朝鮮敎區 第五代敎區長 다블뤼主敎의 殉敎로 第六代 敎區長에 迫害 당시 극적인 탈출에 성공했던 리델神父가 任命되어 1870年 로마에서 主敎敍品을 받았다.⁸⁵⁾ 1876年 丙子修好條約이 후 블랑(Jean Marie Gustave Blanc, 1844~1890) 神父와 드게트神父가 入國하고, 1877年末 리델主敎는 두세神父와 로베르(Achille Paul Robert, 1853~1922) 神父를 同行하여 入國하였다. 그러나 리델主敎는 바로(1878年 1月) 피체되어 5個月間 수감되었다가 추방 당하였다.⁸⁶⁾ 이는 宣敎師로 朝鮮에 入國했다가 체포 당했으나 처형되지 않고 추방된 첫 예로 信敎自由의 여명을 알리는 표징이 된다.

추방당한 리델主敎가 신병으로 再入國이 불가능하게 되자 朝鮮敎區 第七代敎區長에 블랑神父가 피임되어 主敎로 敍品되었다. 1880年末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1854~1933) 神父와 리우빌神父는 블랑主敎를 도와 丙寅迫害로 황폐화한 韓國敎會의 再建을 시작했다. 이 눈물겨운 노력에 힘입어 敎友村이 다시 정착되고, 公所는 1860年代보다 22個 地域이 더 늘어났다.⁸⁷⁾ 1889年 로네(W. Launay)에 의해 제작된 地圖에는 1880年代에 영호남지방에 54個의 公所가 있었는데 이는 1860年代의 47個所에 비해 7個所가 더 증설된 것이었다.⁸⁸⁾ 이렇게 영호남지역에 증설된 공소는 장차 大邱本堂 設定과 大邱敎區 設定의 기초가 되었다.

3. 信敎의 自由獲得과 大邱本堂 設定

1) 信敎自由의 獲得

朝鮮後期 天主教의 受容은 傳統思想과 가톨릭시즘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당시 조정은 천주교가 儒敎的 理念에 기초한 사회체제에 대한 놀라운 도전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탄압하고자 하였다. 天主教迫害 百年史를 통해 信者들은 一萬名을 넘는 殉敎로 그들의 信仰을 證據하였다. 일찌기 우리나라 5千年 歷史上 百年에 걸쳐 一萬名이상이 동일한 한가지 眞理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예는 없었다. 이들의 죽음은 朝鮮王朝로 하여금 그 탄압일변도의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재고를 하기에 이르렀다.⁸⁹⁾ 信仰과 思想의 自由保障이 近代民主社會의

85) 柳洪烈, 앞의 책 下, p193.

86) 柳洪烈, 앞의 책 下, pp.216~219.

87) 金九鼎, 앞의 책, pp. 289~377.

金九鼎·金榮九, 앞의 책, pp.324~396.

88)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128~129.

89) 趙珖, 《韓國天主教 200年》1989, p.53.

특징이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天主教의 信仰自由 獲得은 단순히 韓國天主教會史에서 만이 아니라 韓國史에서 信敎와 良心의 自由確保에 기여한 人權의 신장이란 맥락에서 기억 될 만한 사실이다. 韓國天主敎의 信仰自由의 獲得은 대략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段階는 信仰自由 獲得을 위한 투쟁단계이다. 이는 1784년이래 百年以上 계속된 迫害의 시기이다. 이 迫害의 시기에 信者들은 信仰의 自由를 갈구했고, 信仰의 自由를 누리지 못해 목숨을 바쳐 殉敎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殉敎者들의 죽음은 곧 韓國에서 信仰自由를 위한 거룩한 희생으로 評價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두번째 段階는 信仰의 自由가 默認된 단계이다. 信仰의 自由가 비록 公的으로는 認定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默認되었던 시기는 대체로 1882年으로 추정된다.⁹⁰⁾ 이해에 教會는 公式의 漢韓學校라는 敎育기관을 서울에 設置하여 運營하였다. 1885年부터는 지방에서도 學校를 세우고, 教會는 잇달아 고아원, 양로원, 施藥所등을 設置運營하였다. 이러한 福祉 및 社會開發 活動을 시작했던 起點이 대개 1882年이었다. 敎育과 社會福祉事業은 教會가 社會에 대해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중의 한 부분인데 信仰의 自由에 대한 默認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教會의 活動이 가능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882年은 信敎의 自由가 默認된 年代로 기억 된다. 開港期를 맞이한 朝鮮은 1882年에 美國, 英國, 獨逸등과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고, 1884年에는 伊, 러시아와도 修好條約을 맺음으로써 朝鮮에서의 外國人의 活動의 自由가 保障 되었다. 1886年에는 佛과도 條約이 체결되었는데 韓·佛修好條約에 있는 「護照」⁹¹⁾와 「敎誨」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프랑스 宣敎師에 대한 活動의 自由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宣敎師의 活動自由일 뿐으로 韓國人의 信仰自由는 아니었다. 그리고 佛宣敎師도 宣敎師에 대한 明示의 活動自由의 保障이 아니라 宣敎師도 프랑스人이었기에 條約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 일련의 사항들은 모두가 信仰自由의 默示의 認定에 대한 예로 볼 수 있다.

세번째 段階가 信仰의 自由가 公認되는 段階이다. 信仰自由의 公認起點을 1895年으로 본다. 당시 朝鮮敎區 第八代 敎區長 뮈텔(Mutel, 1854~1933) 主教는 高宗의 요청으로 임금을 알현했다. 高宗은 이 만남에서 丙寅迫害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教會와 國家내지 왕실과 원만한 관계유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해에 대규모의 伸冤이 있는 가운데 1866年의 丙寅迫害때에 殉敎한 天主教信者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뮈텔主教는 그의 日記에 “이로써 한국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적고 있다. 絶對

90) 앞의 책, p.53.

91) 조선시대 말기에 여행하는 外國人들에게 발급해 주던 旅行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宣敎師들은 조약체결 이후 護照만 소지하면 공식적으로 宣敎活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君主時代 國王의 行爲는 公式의이며 法的性格을 가질 수 있기에 1895年을 公式의 迫害의 종료로 보아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法的確認은 그 뒤에 있게된다. 1899年 主教와 鄭駿時를 정부측 代表로 하여 「敎民條約」을 맺음으로서 政府는 韓國民의 信仰의 自由를 法律的으로 保障하고, 또 韓國天主教信徒들도 이를 통해서 비로소 다른 韓國民들과 同等한 權利와 義務를 가질 수 있음을 法律的으로 確認했던 것이다. 1904年에는 宣敎條約이 체결되어 敎民條約의 內容이 補強되었다.⁹²⁾

信敎의 自由가 이렇게 段階的으로 補完되어가는 이 시기에 宣敎師들의 入國이 증가되고 司牧方法도 巡禮司牧에서 定住司牧으로 전환하여 마침내 本堂設定을 보게 된다.

2) 大邱本堂의 設定

信仰의 自由가 默認되던 1882년부터 1889年末까지 嶺湖南地域에서는 宣敎師들의 布敎活動을 통해 年平均 165名의 信者數의 증가를 보였다.⁹³⁾ 大邱지방에서는 信者들의 열성이 고조되어 가고 1880년부터 煉靈會에서 시작한 天主教 무료 장례예식 奉仕를 통해 住民들의 관심을 끌며 入敎動機를 마련해 주고 있었다. 丙寅迫害로 중단되었던 고아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재개되어 1885년에는 聖嬰會活動으로서⁹⁴⁾ 大邱地域에서도 70여명의 고아들이 天主教 信者들의 보호아래 養育되고 있어서 住民들의 敎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1886年 朝鮮敎區 第7代敎區長 블랑(Blanc, 1844~1890)主教는 종래 敎友村과 公所를 방문하여 聖事를 집행하는등의 巡禮司牧에서 그 방법을 바꾸어 小地域單位에 神父가 머물러 상주하면서 司牧하는 定住司牧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大邱·慶尙道地域의 司牧中心地로 大邱本堂을 設定하고 로베르(Robert Achille Paul, 1853~1922, 韓國名, 金保祿)神父를 初代 本堂主任司祭로 任命하고 大邱에 定住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嶺南地方 天主教의 본거지이며 한국가톨릭교회에 있어 서울과 함께 큰 根幹인 大邱本堂이 設定되었다.

1886年경은 信仰의 自由가 默認되었던 시기였지만 지방관아의 횡포는 계속되어 宣敎師와 地方官吏, 그리고 地域民과 信者들 사이에 宗教問題로 발생하는 마찰인 소위 敎案이 계속 일어났다.⁹⁵⁾ 金保祿·로베르神父는 敎案을 피하기 위하여 大邱邑內에 바로 進出하지 않고 大邱 근교의 신나무골(現. 漆谷郡 枝川面 蓮花洞)에서 2年間 은신하여 司牧活動을 하였다. 신나무

92) 趙琬, 《韓國天主教 200年》1989, pp.54~57.

93)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大邱本堂 百年史》1986, p.138.

94) 聖嬰會活動은 大邱에서 最初로 시작된 고아원 사업이었다. 主教는 신자들의 가정에 고아들을 위탁 양육하게 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모아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였다.

95)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138.

골은 乙亥(1815年), 丁亥(1827年)의 慶尙道지방 迫害와 己亥迫害(1839年) 때 信者들이 모여살던 敎友村으로 歷代 慶尙道 전교담당 神父들이 巡訪하던 곳이다. 金神父는 이곳과 八公山 산록에 있었던 敎友村 「한티」(現. 漆谷郡 東明面 得明里)를 中心으로 장차 大邱邑內로 진출할 기회를 노리며 그가 담당한 嶺南전역에 걸쳐 活動하였다.

한티는 1862년부터 1864년까지 慶尙道地方을 巡禮司牧하던 다블뤼主敎와 그뒤 1866년까지 嶺南地方에 傳敎를 맡았던 리델(Ridel, 1830~1884) 主敎의 手記에도 나오는 오랜 敎友村이다. 이로부터 한세기가 지난 1991年 天主教 大邱大敎區長 李文熙·바울로大主敎는 이곳 한티에 迫害時代의 敎友村과 敎友村 殉敎者들을 記念하고, 그 殉敎精神을 현양하며 계승할 수 있도록 「한티피정의 집」을 建立하여 開館하고, 피정과 敎育의 센타가 되게 하였다.

1888年 로베르·金神父는 地理的으로 大邱進出에 유리한 새방골(現. 大邱市 西區 竹田洞)로 옮겨 草家 한 채를 매입해 임시 聖堂을 꾸미고 3年間 머물며 活動하였다. 그러던 중 1890年 로베르神父는 불랑배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信者들도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로베르神父는 이를 朝鮮敎區 第八代 敎區長으로 부임해온 뮈텔主敎에게 보고하게 되자 프랑스公使의 항의를 받게까지 되었다. 朝鮮政府는 閔正植 慶尙道 監使을 해임하고 李憲永을 새 監使로 任命하고 범인 4名을 귀양보냈다.⁹⁶⁾ 이 사건은 地方管理의 행패와 住民들의 天主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91年 로베르神父는 待御伐의 承旨 鄭圭鈺·바울로의 집으로⁹⁷⁾ 옮겨와 大邱本堂의 聖堂建立을 위한 부지확보에 전념하였다. 1897年 봄에 待御伐에서 앞박걸 桂山洞으로 다시 옮겨 草家를 구입하여 임시성당과 神父舍宅으로 사용하면서 聖堂建立에 착수하여 3년만인 1899年 韓式 瓦家 十字型의 聖堂이 준공되었으나, 단층이 곁게된 이 韓式木造聖堂이 1900年 원인을 모를 火災로 소실되었다. 로베르神父는 즉시 당시의 敎會의 중진인 徐相燾, 金鍾學, 鄭圭鈺등의 협력을 얻어 그 자리에 西洋式 聖堂을 建立하였다. 嶺南 最初の 西洋式 聖堂이 준공되자 1903年 성대한 祝聖式이 거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建立된 고딕樣式의 聖堂으로서는 서울의 藥峴(現. 中林洞, 1893年), 鍾峴(現. 明洞, 1898)에 이어 세번째 것이다. 지금은 文化財로 指定된⁹⁸⁾ 이 桂山洞 聖堂은 특히 中國의 기술자가 동원되어 벽돌로 마천루의 쌍종각형으로 축조된 고딕식尖塔의 鐘閣이 당시로서는 매우 진기한 풍물감이었다. 그리고 이 西洋式 건축양식은

96)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39.

97) 待御伐은 現 大邱市 北城路 壽昌國民學校 부근이며, 鄭圭鈺은 로베르神父가 새방골에 住在時 聖洗入敎한 信者로 大邱本堂 設定의 공로자이다.

98) 1981年 10月 文公部에서 사적 제290호로 지정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建築史와 開化史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⁹⁹⁾ 이 桂山洞 聖堂의 建立은 大邱地域教會의 굳건한 母體로써의 상징성을 지니며, 天主教의 大邱지역 정착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嶺南지방 福音傳播의 새로운 기반이 되고, 장차 대구교구 설정의 토대를 훌륭하게 이루어 놓은 결과가 되었다.

4. 大邱敎區의 設定과 敎階的 敎會의 定着

1) 國權守護運動과 大邱敎會

韓國敎會는 계속되는 迫害속에서도 꾸준히 敎勢가 신장되었다. 信仰의 自由가 默認되던 때부터 敎區設定前까지 통계를 보면 1900年 全國信者數는 42,441名으로 1886年の 14,039名에 비해 3배에 해당하는 28,302名이 증가 하였다. 1886年 大邱本堂이 設定된 이후 1910년까지 嶺湖南地方에는 모두 18個의 本堂이 증설되었다. 1886年 大邱本堂을 필두로 釜山本堂(1889年), 가실의 洛山本堂(1894年), 金泉 황금本堂(1901年), 馬山 完월동本堂(1901年), 진주의 文山本堂(1904年), 永川의 龍坪本堂(1907年)等 慶尙道地域의 7個本堂이 증설되었다. 호남지방에는 全州(1891), 安大洞(1890), 나바위(江景, 1892), 井邑(1901年), 木浦(1899)에 5個의 本堂이 設定되고 1899年에 濟州島에 濟州와 서귀포의 2個 本堂과 이 밖에 水流 되재(升峙) 鎭安等에 임시本堂 내지 巡禮傳敎 근거지가 設定되었다. 이렇게 영호남지역에 本堂이 계속 증설되면서 大邱敎區 設定의 基盤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日帝의 침략이 가속되어 國權이 기울게 되었다. 이에 敎會는 敎育과 言論을 통해 民族意義을 고취하며, 國權守護에 앞장서게 된다. 1884年 서울에 韓漢學校를 設立하여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시초로하여 1885年 原州에 예수성신학교를 세워 近代的敎育을 실시했다. 이것이 지금 가톨릭大學校 神學大學의 起源이 되었다. 가톨릭敎會學校는 1893年에 36個校, 1904年에 75個校, 1910年에 124個校로 증설되어 敎育을 통한 계몽과 民族意義의 고취로 國權守護에 기여하였다.¹⁰⁰⁾ 이때 大邱에서는 성립학교, 해성학교, 金泉 성의학교가 設立運營되고, 뜻있는 가톨릭靑年들이 야간학교를 운영하며 大邱지역에서 문맹퇴치와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 하였다.

1906년에는 경향신문을 創刊하여 1910年 日帝의 탄압으로 폐간되기까지 自主的 民族自強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07年 이 신문의 社說에서 國債報償運動을 적극 권장하여 모

99)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216 ~ 217.

100) 崔奭祐, 《韓國天主教會의 歷史》 1982, pp.343 ~ 376.

금운동을 전개하였는데 全國 天主教信者들이 대대적으로 호응하였다. 大邱本堂의 信者이며 후에 大邱教區 初代會長인 徐相燾(1849~1913)은 國債報償運動의 先驅의 主唱者이다. 그는 國權守護의 意志를 모아 이 運動을 全國에 확산시키고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따라서 朝鮮末期 國權守護를 위한 이 民族的 運動의 主動은 大邱地域의 天主教信者들이었다.

이러한 教會의 國權守護 노력에 대해 탄압의 구실을 찾던 日帝는 1909年 天主教 信者인 安重根(1870~1910)義士가 한국침략의 주동자인 이또오·히로부미(伊藤博文)를 포살하자 教會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大韓帝國은 1905年 乙巳保護條約을 거쳐 마침내 1910年 강압에 의한 合邦條約으로 國權을 상실하였다.

2) 大邱教區의 設定

國權을 상실한 슬픔에 잠긴 우리民族에게 天主教는 위로와 격려를 하듯 大邱教區를 設定하여 信仰生活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教皇 비오 10세(Pius.X. 1835~1914)는 1911年 4月 8日字 教皇敎書에서 朝鮮代牧區로부터 慶尙道와 全羅道 2個道를 따로 분할하여 이를 大邱代牧區로 設定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울代牧區로 한다고 宣布하였다.¹⁰¹⁾ 이로써 朝鮮代牧區가 서울과 大邱의 2個 代牧區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大邱代牧區 初代監牧에는 드망즈(Florian Demange, 1875~1938)神父가 任命되어 6月 11日 主教로 敍品되었다. 이때 大邱教區에는 24,694名의 信者和 18個의 本堂과 390個의 公所에 除外邦宣教會 소속 司祭 16名, 韓國人 司祭 5名이 司牧을 담당하고 있었다.

드망즈主教는 1911年 7月 2日 루르드의 聖母를 教區의 主保(受護者)로 정하고 聖母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教區에 主教館, 神學校의 設立, 桂山洞 主教座聖堂의 증축등을 다 이룰 수 있다면 教區의 가장 아름다운 場所를 聖母님께 奉獻하고 그곳에 루르드의 聖母동굴 모형대로 聖母堂을 세워서 教區의 모든 信者들로 하여금 巡禮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가난 밖에 나눌 것이 없었던 당시의 教會實情에서도 教區主保께 드린 청원이 이루어졌다. 1913年 12月 4日 主教館이 完工되고, 1914年 10月 1日 유스티노 神學校가 設立되었으며, 1918年 主教座聖堂 증축공사를 위한 財政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이 면에는 徐相燾會長의 놀라운 기여가 있었다. 그는 조선교구가 나뉘이게 될 때 조선남방교구의 소재지를 大邱로 유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大邱教區가 設定되자 자기 소유인 수만평에 달하는 南山花園 전부를 교구사업에 회사하였다. 오늘날 大邱教區의 증추기관인 教

101) Acta Apostolicae Sedis, 1911, pp.224~255; 천주교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교구사 연대표》1984, p.38.

區廳을 위시한 聖母堂, 神學校, 修女院等이 모두 그가 봉헌한 대지위에 서있게 되었다.¹⁰²⁾ 드망즈主教는 聖堂증축에 앞서 敎區主保가 主教의 청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기억하여 그해 10月 13日 南山洞에 聖母堂을 完成하고 聖母堂 巡禮에 대한 司牧敎書를 公布하였다.¹⁰³⁾ 지금도 이 聖母堂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信者들의 祈禱의 巡禮가 이어지고, 參배信徒數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1912年 6月 1日 大邱敎區 指導書가 발간되어 敎區司牧체계를 정립했다. 1915년에는 살트르 聖바울로 修女會가 修女院으로 設立되고 1919年 5月 11日 主教座聖堂 증축이 완료되었다. 이로서 敎區의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

大邱敎區 初代敎區長 드망즈主教와 大邱本堂(現. 天主教 桂山洞敎會, 桂山本堂) 初代主任 로베르·金保祿神父 그리고 主教를 中心으로 一致를 이룬 司祭團의 눈물겨운 헌신은 敎區初期의 역사를 개척해 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徐相燾, 鄭圭鉦, (1852~1931), 金鍾學(1850~1937) 會長들은 敎區史에 길이 기억될 만하다.¹⁰⁴⁾

IV. 民族의 受難과 激動을 함께한 大邱敎會

1. 日帝에 抵抗한 大邱地域 天主教

1) 民族意識 고취와 近代의 地域社會運動의 展開

日帝는 1915年 布敎規則을 制定 公布함으로써 敎會에 대한 制裁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 規則은 總督府의 허가 없이 傳敎할 수도 本堂이나 公所의 設立도 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私立學校規則 改正令이란 것을 公布해 宗教와 教育의 分離원칙을 세워 學校內에서 宗教教育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¹⁰⁵⁾

敎會는 日帝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安重根等 天主教信者들에 의한 獨立運動은 安明根, 李基唐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파외外邦傳敎會 宣敎師들은 國際情勢의 判斷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자, 韓國天主教 信者들은 個人的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3·1運動이 일어나자 大邱地域에서도 金夏鼎(1890~1951)·九鼎(1898~1984)兄弟등 信者들이 個人자

102)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카톨릭대사전》 1985, p.593.

103) 〈대구교구사(5): 교구 초창기(1911~1938)〉《빛》 15, 교구사편찬기획실, 1984, pp.60~63.

104)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43.

105) 布敎規則과 私立學校規則改正令은 《경향잡지》 9, 1915, 參照.

격으로 가담하였다. 教會는 주로 教育과 信仰活動으로, 民族意識의 고취로 日帝에 저항되었다. 1920年代에 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으로 실행해오던 고아원, 양로원, 시약소등 近代的 社會事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 특히 가톨릭靑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社會活動을 더욱 폭넓게 展開시켜 나갔다.¹⁰⁶⁾ 大邱地域에서도 각종 近代的 社會事業이 教會의 주도로 가톨릭 團體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1909년에 발족한 成立學友會는 韓國天主教 가톨릭靑年運動의 효시가 되었다. 이 學友會는 3·1運動이후 1919년부터 1928년에 이르기까지 慶尙道地方에서 創立된 271個 靑年團體의 효시이기도 하다.¹⁰⁷⁾ 1910年 教會에서 公認한 信者團體인 明道會가 創立되고, 1911年 大邱敎區가 設定되자 敎區의 組織體로 확산되었다. 明道會에서는 大邱에서 最初의 취주악단을 구성하여 1912年 첫 연주회를 가진이래 각종행사에 樂團이 참가하여 近代音樂을 지역사회에 보급시키는데 주동적인 기여를 했다.

이 會員들은 日帝에 대한 저항과 民族意識의 각성운동으로 일어났던 體育活動을 擴散시키기 위해 1915年 海星體育團을 결성했다. 海星體育團은 정구·축구·야구 등 근대 운동경기를 大邱地域에 소개하는 한편 夜間講習會와 초청강연회들을 개최하여 近代教育과 社會運動에 이바지 하였다.¹⁰⁸⁾ 大邱本堂에서는 練靈會事業을 확장해 極貧者들의 葬禮를 돕고 고아를 위한 聖嬰會事業을 위한 財政 확보의 일환으로 修女들에 의해 양잠업이 여러지역에 확산되었다. 이어서 무의탁 노약자들을 돕기 위한 鄰愛會가 발족되어 소외계층에 대한 敎회의 사랑을 실천하여 社會的 관심을 환기 시켰다. 大邱本堂의 女信徒들로 구성된 聖母會에는 慈善部를 두고 社會事業에 참여하여 1920年代 大邱·慶北地方의 女性運動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¹⁰⁹⁾ 1927年 4月 1日 朝鮮南邦天主教會 靑年會에서는 〈天主教會報〉를 月刊으로 創刊하여 大邱地域 近代文化의 普及에 일익을 담당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가톨릭新聞〉의 歷史的인 起源이 된다.¹¹⁰⁾ 그리고 大邱敎區 산하 모든 本堂의 信者團體들도 3·1運動이후 地域社會에서 活動하던 다른 社會團體들과 교류·협력하면서 民族의 福音化에 역주하였다.¹¹¹⁾

1925年 7月 5日 로마의 聖베드로大聖堂에서 韓國殉敎者 79位에 대한諡福式이 敎皇 비오11세(Pius XI. 1857~1939)에 의해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大邱敎區 산하 모든 本堂

106)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44.

107)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44.

108) 崔正福, 《大邱天主教會史》1952, pp.181~188.

109)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敎區年報》, 1984, 參照.

Compte Rendu dela Société des M. E. P. de Taikou, 1919.

110) 崔爽祐, 〈가톨릭新聞과 敎會言論의 發展過程〉《韓國敎會史의 探究》1982, p.373.

111)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45.

과 公所에서는 萬國旗로 장식하고 祈禱하며, 특히 殉教史劇 發表會를 열어 地域住民과 함께 기쁨과 감동을 나누며, 우리民族의 우수성을 은연중에 확인함으로써 日帝의 탄압 속에 큰 위안을 얻게 하였다. 1931年 大邱教區 設定 20週年이 되던 때에는 夜學으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國權상실후 이 地域住民들도 만주간도 일본등지로 移民을 떠나 教勢擴張은 기대할 수 없었으나 日帝의 受難속에 地域社會에 奉仕한 教會는 地域안에 定着하고 성숙하여 教區司牧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¹¹²⁾

2) 全州教區와 光州教區의 設定

1931年 朝鮮教區 設定 百週年을 맞이하여 韓國教會는 主敎會議를 열어 全朝鮮教會 指導書를 改正하고 敎書를 發表하여 教區司牧의 새로운 지침을 확정시켰다. 1934년에는 각 本堂과 公所에서 모든 信者들을 대상으로 새敎理書인 〈天主教 要理問答〉에 의한 共同敎育을 실시하여 信仰生活을 더욱 고취시켰다. 1911年에서 1936년까지 教勢를 보면 信者數는 24,694名에서 46,901名, 司祭數는 21名에서 78名, 本堂數 18個所에서 53個所, 公所 390個所에서 467個所로 각각 증가되었다.¹¹³⁾ 이는 日帝下에서 오히려 성장한 大邱地域 天主教의 놀라운 모습으로 大邱教區가 이제 새敎區를 分割設定하여 司牧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931년에 이르러 大邱代牧區로부터 全羅道와 제주도를 獨立시켜 全羅道地區 監牧代理區를 設定하였다.¹¹⁴⁾ 이에 따라 1933년에 大邱에 도착한 聖골롬바노 外邦傳敎會는 全南地域 布敎活動에 참여하게 되었다. 1937年 4月 全羅北道에 全州지목구, 全羅南道와 제주도에 光州지목구가 각각 設定되었다. 全州教區와 光州教區가 大邱教區에서 이렇게 分割됨에 따라 大邱教區의 管轄지역이 慶尙南北道로 축소 되었지만 大邱教區의 教勢는 1911年 教區設定 당시를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¹¹⁵⁾

3) 神社參拜와 教會의 受難

1917年 日本의 나가사키(長崎)教區의 가톨릭學生들이 神社參拜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韓國天主敎會에서는 1920年代에 이르러 神社參拜가 問題視되기 시작했다. 1925년에 발한 敎理敎師를 위한 敎理敎授 指導書인 天主教要理에서 韓國教會는 神社參拜를 금지한다고 宣言하였다. 이때에 大邱教區 初代敎區長 드망즈主敎는 神社參拜를 거부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당시 敎會學校들은 神社參拜에 참가하던지 아니면 學校設立

112) Compte Rende de Taikou, 1931, 《大邱本堂 百年史》에서 再引用.

113) Compte Rende de Taikou, 1936, 《大邱本堂 百年史》에서 再引用.

114) 천주교대구대교구, 《대구대교구 총람》 1986, p.135.

115) Compte Rende de Taikou, 1937.

認可를 취소당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당국으로부터 강요 당하고 있었다. 1925年 10月 15日 소위 日本의 天皇에게 바치는 神社獻堂式이 서울에서 거행되었는데 日帝는 이를 위한 物品이 大邱驛을 지나갈 때 이에 경의를 표하도록 各級學校에 대해 驛에 까지 학생들을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教會學校들이 이 지시에 응하지 않자 學務局에서는 各級學校에 장학관을 보내 엄중히 경고하였다.¹¹⁶⁾

1932年 日本 東京大主教가 文部大臣에게 서면으로 神社參拜의 성격을 문의하자 日帝는 이를 愛國心과 忠誠을 표현하기 위한 儀式에 불과하다고 정식으로 회답하였다, 日本主教들은 이에 만족하고 가톨릭信者들에게 神社參拜가 宗教的 性格을 띤 것이 아니라 愛國心과 忠誠 표현의 儀式일 뿐이므로 이를 허락하였다. 이러한 日本主教들의 결정을 근거로 教皇廳에서도 1936年 神社參拜를 허용하고 이 사실을 教皇使節을 통해 韓國가톨릭信者들에게 알려졌다.¹¹⁷⁾ 이에 따라 韓國天主教會에서도 公式的으로 神社參拜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많은 天主教 司祭와 修道者 그리고 平信者들은 神社參拜를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시련을 겪었다.¹¹⁸⁾

2. 日帝末期 大邱教會의 試鍊

1) 日帝의 韓半島 政策

日帝는 1931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 朝鮮小作調停令을 시행하여 民族資本家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듬해에는 朝鮮農地令과 朝鮮相續令을 公布하여 經濟活動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그리고 유럽정세가 불안해지자 1936年末 朝鮮思想犯 保護觀察令을 시행하여 일반인에게까지 통제를 강화하였다. 마침내 1937年 日本語 사용을 강제하기 시작하였다. 1938年 第二次 世界大戰이 일어나자 조선육군 특별지원병제도를 만들고, 또 朝鮮教育令을 公布하여 中等學校에서 朝鮮語 과목을 폐지함으로써 소위 日鮮一體化政策을 표면화시켜 나갔다.¹¹⁹⁾

韓民族의 말살을 목적으로 日帝는 國民精神總動員聯盟을 조직하고 宗教團體에도 가입을 의무화 시켰다. 그리고 忠誠으로 精神力을 總動員한다는 명분으로 日章旗를 教會堂에 걸고 예배 때마다 皇國臣民의 선서를 제창하도록 강요했다. 日帝는 日鮮基督教一體化運動을 일으키면서 全國教會에 대해 神社參拜를 강요했다. 教會의 특별한 集會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神社

116) Compte Rendu de Taikou, 1925,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50.

117) 《경향잡지》 31, 1937, pp.97~101.

118)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50.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 1982, pp.423~451, 參照.

119) 震檀學會, 《韓國史》 年表 參照.

參拜를 강요했다. 教會의 특별한 集會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神社參拜를 強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教會指導者를 찾아내기 위해 (1)神社參拜가 國民儀式이나 宗教儀式이나 (2)천조대신이 높으나 예수·그리스도가 높으나 (3)국가가 첫째나 宗教가 첫째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투옥하였다. 韓國가톨릭教會는 宗教儀式 이외는 어떠한 儀式도 聖堂內에서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며 總督府에 항의 하였다. 總督府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했으나 지방에서 경찰의 횡포가 심해 수난을 겪어야 했다.¹²⁰⁾ 1940년에는 創氏改名을 실시하고 〈朝鮮日報〉와 〈東亞日報〉를 폐간하며 宗教탄압은 더욱 강화하는 등 皇國臣民化政策을 強化하여 민족말살정책을 본격화하였다. 太平洋戰爭이 시작되면서 日帝의 탄압은 더욱 격화되는 중에 1942年 外國人 聖職者의 受難이 시작되었다. 서울敎區 敎區長 라리보(Larribeau, 1883~1974)主敎가 강제사임 당하고, 平壤敎區長 오셰아(Oshea, 1884~1945) 主敎는 추방 당했으며, 春川敎區長 킨란(Quinlan, 1896~1970)主敎는 감금 당했다. 平壤敎區의 外國人 神父 35명을 선두로 全州, 光州, 春川敎區등에서 外國人 司祭 32명이 구금되었다. 그리고 모든 外國人 敎區長을 日本人으로 대치하려 하였다.

日帝의 私立學校 國有化 계획추진으로 1942年 서울의 龍山神學校는 폐교되고, 1943年 大邱의 聖유스띠노神學校도 폐교되어 元山 德源神學校와 합병되었다. 그리고 이들 神學校 건물은 日本軍의 兵舍로 사용되었다. 太平洋戰爭의 막바지에 日帝탄압은 더욱 가혹하여 징병제가 강행되고, 1944年 學兵制가 시행되면서 神父와 神學生들 마저 군인으로 징병 당하거나 노무자로 징용 당하였다. 全國各地에서 聖堂건물이 軍用으로 징발당하고 教會의 各種公文書 書式作成에까지 간섭하였다.¹²¹⁾

2) 殉敎信心運動의 展開

日帝의 가혹한 폭정하에 온 겨레가 모욕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教會는 1939年 己亥迫害百週年을 맞이하면서 殉敎者를 顯揚하고 殉敎精神을 본받으려는 信心運動을 일으켰다. 大邱敎區에서는 司祭 20명을 포함하여 各本堂과 公所의 남녀노소가 열렬한 마음으로 이 運動에 호응하였다. 殉敎 百週年 信心運動은 外國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團體로나 個人으로 자신의 환경과 능력이 허락하는 대까지 殉敎精神을 顯揚하며 그 모범을 따르자는 것이었다. 1939年 9月 朝鮮天主教 殉敎者 顯揚會 발기인 모임을 갖고 〈朝鮮天主教 小史〉〈殉敎者略傳〉의 발

120) 崔奭祐,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1982, pp.340~342.

121) 金永垠, 《日誌》, 1941, 參照.

金永垠은 1911年 7月 13일부터 大邱敎區 初代敎區長 드망즈主敎의 개인비서로 1945年 1月 31일까지 敎區司牧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행을 시도 했으나 日帝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全國의 모든 本堂과 公所에서는 殉教劇과 殉教記念公演 殉教地 巡禮行事와 百週年 記念大會를 잇달아 열었다.¹²²⁾

教會는 殉教百週年을 기한 殉教者顯揚을 표방하여 시작한 이 信心運動이 民族精神과 무관하게 시대를 넘어서 진리를 증거하였던 이들에 대한 공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日帝는 朝鮮의 殉教者들을 朝鮮人이 공경한다는 殉教者顯揚 그자체가 民族精神을 복돋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어 이를 방해 했던 것이다. 韓國가톨릭教會는 殉教精神현양을 위한 殉教信心運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韓民族에 대한 긍지를 더욱 제고 시키는 것으로 民族運動의 세력을 확산 시켜나갔다¹²³⁾

3) 大邱教區의 受難

1938年 大邱教區 初代教區長 드망즈主敎가 善終한 후 日帝의 탄압이 격화되는 가운데 1939年 5월 7日 第二代 教區長으로 무세(Germain Mousset, 1876~1957) 主敎가 着座하였다. 무세主敎는 財團法人 大邱區天主敎會 維持財團의 設立認可를 받고, 教區維持財團의 不動產 등기수속을 마침으로써 어려운 時期에 教區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러나 1942年 7月 日帝의 外國人 教區長에 대한 사임압력으로 9月 10日 敎皇의 허락을 받고 教區內 聖職者와 信者들에게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¹²⁴⁾ 第二代 教區長 후임으로 1942年 8月 30日 第三代 教區長으로 日本人 하야사가 구베에(早坂久兵衛, 1887~1946)神父가 任命되어 主敎로 敍品되었다. 하야사가主敎는 敎會에 대한 탄압이 격화되던 시기에 日本人으로서 教區長이 되어 教區司祭의 보호와 教區財團 維持에 주력했다. 그러나 1945年初 全國의으로 外國人 主敎와 神父에 대해 住居를 제한 하였는데 大邱教區에서는 外國人 司祭들이 南山本堂에 集團으로 수용되는 受難을 당하였다.¹²⁵⁾

日本人 教區長의 등장은 宗教的 信心과 民族的 自主意識의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게하여 더욱 敎會를 위축되게 하였다. 1911년부터 1937년까지는 해마다 평균 928名의 信者가 증가하였는데, 1938년에 27,003名의 信者數가 8年后인 1945년에 겨우 27,298名으로 每年 平均 37名밖에 증가하지 않았다.¹²⁶⁾ 다만 이시기에도 화원본당(1938年), 경남의 고성본당(1899年), 거창본당(1940年), 밀양본당(1940年)등 4個의 本堂이 新設되어 地域福音化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122) 《경향잡지》 33, 1939, 參照.

123) 《경향잡지》 34, 1940, pp.169~171.

124)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大邱本堂 百週年》, 1986, p.154;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68~75.

125) 金永垠, 《日誌》, 1945. 3. 11. 參照.

126) 천주교대구대교구, 《통계로본 대구교구 발전상》 1982, 參照.

地域住民에게 民族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¹²⁷⁾

3. 光復과 激動期の 大邱地域 天主教

1) 光復과 社會混亂 속의 大邱教會

日帝의 패망으로 1945年 8月 15日 우리는 光復을 맞이하였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自由를 얻게되자 과격한 흥분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런 상태가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한동안 社會混亂이 야기되었다.

대구지역에서는 해방이후 두가지 社會的 潮流가 형성되었다. 하나는 社會主義運動에 의한 社會改造 사조였고, 다른 하나는 國民教育運動에 의한 사회쇄신이였다. 1946年 하야사까主教가 善終한 후 그 후임으로 朱在用神父가 教區의 임시관리자로 任命되어 第四代 教區長에 着座했다. 朱在用 教區長은 해방된 韓民族을 올바르게 教育시켜야 民主主義 社會를 建設할 수 있다는 司牧意志로 教育事業에 의한 福音化에 진력했다.¹²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 運動에 의한 社會改造에 모든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급증해서 社會混亂이 거듭되었다. 大邱地域에서는 1946年 수해를 당하고 콜레라가 번져가는 중에 南朝鮮總罷業 大邱市鬭爭委員會가 주도한 대규모 파업의 여파로 10·1暴動事件이 발생 하였다.¹²⁹⁾

이러한 社會的 불안이 教會에도 반영되어 教區內에서도 시련을 겪으며 마침내 朱在用 教區長이 사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教區 第十代 教區長이던 盧基南 主教가 教區임시관리자로 任命받고 1948年 5月 27日 着座하여 大邱教區 第五代 教區長을 역임하게 되었다.¹³⁰⁾

2) 韓國人에 의한 自治教區로 成長

社會的 混亂속에 시련을 겪는 教會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韓國人에 의해 司牧하는 自治教區로서 自主的 教會로 성장하게 되었다. 1948年 8月 29日 파리外邦傳教會는 서울과 大邱教區를 온전히 韓國人 聖職者들에게 위임하고 철수하였다. 이로서 1831年 朝鮮大牧區 設定이래 韓國에 進出한 파리外邦傳教會는 初期 韓國教會 歷史와 함께 殉敎의 피를 흘리며 홀륭하게 그 使命을 완수하고 이제 서울과 大邱教區에서는 철수하고 新設된 大田教區에서 活動하게 되

127) 교구사편찬기획실, 대구교구사(6): 교구수난기(1938~1945), 《빛》 16, 1984, pp.64~67.

128) 가톨릭時報社, 《天主教 大邱教區 略史》 1961, pp.30~31.

129) 이정훈, 〈언론인이 본 해방40년 10대뉴스〉 《빛》 28, 1985, pp.48~51.

문경현, 〈사회학자가 본 해방40년 10대뉴스〉, 같은 책, pp.52~55.

130) 朴壽遠, 《盧基南大主教》 1985, pp.339~340.

었다. 이렇게하여 大邱敎區는 敎區設定 47年만에 온전히 韓國人에 의해 司牧을 주도하게 되는 自治敎區로 일어서게 되었다.¹³¹⁾

韓國人에 의한 自治敎區로 成長한 大邱敎區는 바로 그해 12月 9日 崔德弘 神父가 第六代 敎區長으로 임명되어 1949年 1月 30日 主教敎品 및 敎區長 着座式을 가졌다. 崔德弘 主教는 大邱敎區最初의 韓國人 主教이며 敎區長으로서 가톨릭 人材의 養成을 위해 해외 유학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敎區事業의 확장에 힘쓰고 敎區內에서 布敎할 傳敎團體와 修道會를 초빙하였다.¹³²⁾ 그리고 특별히 敎育事業에 주력하여 1946年 왜관 순심여자중학교, 大建中學校, 釜山工科學院등이 이미 設立되고 1947년에는 金泉의 성의학원, 1949年 慶州 堇花女子中學校, 馬山 성지여자중학교, 曉星女子中學校등을 新設하여 地域敎育事業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¹³³⁾ 1948년에는 大邱敎區 가톨릭靑年聯合會가 조직되어 가톨릭靑年運動을 계승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그간 정간상태에 있었던<天主敎會報>를 1949年 4月 1日字로 복간시켜 오늘날<가톨릭新聞>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도록 했다. 1950년에는 大韓天主教 大邱敎區聯盟이 결성되어 天主敎의 社會參與에 폭 넓게 기여하게 되었다.¹³⁴⁾

3) 6·25戰爭中の 大邱敎會

1950年 6月 25日 韓國戰爭이 일어났다. 江山은 피로 물들고 삶의 터전은 초토화 되었다. 이 民族의 試鍊期에 北韓의 敎會는 더욱 가혹한 수난을 겪었다. 南侵을 감행한 후 敎會에 대한 迫害는 노골화하여 司祭와 修道者에 대한 구속과 납치가 도처에서 자행되었다.¹³⁵⁾ 이때 北韓共產軍에 의해 主教와 敎區長 5名, 神父 82名, 修士 25名, 修女 34名, 神學生 4名이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信者들이 피살되고 各種 敎會建物이 파괴되었다.¹³⁶⁾

大邱敎區에서는 敎區內 36個 本堂中 北韓共產軍에 점령당했던 곳이 21個所이며 12個地域의 敎會와 敎會學校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불타버렸다. 그리고 全國各地의 수많은 聖職者 修道者 平信徒들이 大邱와 釜山으로 피난해 왔다. 大邱敎區는 모든 信者들이 일치협력하여 이들을 위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¹³⁷⁾ 戰爭이 계속되는 동안 大邱敎區의 敎

131) 가톨릭時報社, 앞의 책, p.32; 崔正福, 앞의 책, pp.146~147.

132) 교구사편찬실, 대구교구사(7): 교구격동기(1945~1954) 《빛》 17, 1984, pp.62~65.

133)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78~87.

134)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84~89.

135) 平壤敎會史 編纂委員會, 《天主教 平壤敎區史》 1981, pp.214~236.

136)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59; 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부록), pp.207~211.

137) 가톨릭時報社, 앞의 책, pp.34~35.

會建物이 軍用으로 使用되었다. 大建中學校는 陸軍病院으로 曉星女子中學校는 空軍本部로 大建出版社는 軍用 인쇄소로 使用되었다. 信者들 사이에서는 戰爭의 종식과 平和를 위한 祈禱運動이 自發的으로 벌어져 敎區廳 經내 聖母堂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信者들의 기도가 봉헌되었다. 이 기도운동이 韓國에 있어서 最初의 平和를 위한 祈禱運動으로, 信者들에게는 洛東江의 반격으로 大邱가 지켜진 것과 함께 기억되고 있다. 이 기간동안 大邱의 가톨릭靑年들은 피난민 구호활동과 信者들의 보호를 위해 天主教義勇隊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大邱地域의 치안유지에 협력하였다. 그리고 大邱가톨릭 合唱團을 결성하여 戰線에서 위문공연활동을 하였다.¹³⁸⁾ 大邱敎區는 敎區內 各地域 本堂과 修道團體 그리고 平信徒團體들을 中心으로 전쟁희생자와 皮난민을 위한 각종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샬트르 성바로 修女會와 布敎 聖베네딕도修女院에서는 施療院과 施藥所를 開設하여 亂民救濟에 참여하였고 敎區廳의 經내에는 給食所가 설치되어 굶주리는 형제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특히 스펠만(Francis Joseph Spellman)추기경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美國가톨릭 福祉協議會 산하의 전쟁구호위원회(Catholic Relief Service)에서 韓國戰爭의 전쟁포로와 皮난민과 빈민들을 돕기 위해 보내온 구호품과 財源은 試鍊中에 있던 韓國民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피해의 복구사업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¹³⁹⁾

4) 고통을 나누며 成長하는 大邱敎區

民族의 試鍊期에 大邱敎區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社會속에서 奉仕함으로써 成長해 갔다. 1950年 포교 성베네딕도 修女院은 釜山中央本堂에 皮난 하였다가 1951年 10月 22日 大邱로 이전하여 大邱敎區에 定着했다. 1·4후퇴 때에 유엔軍과 함께 南下한 聖베네딕도修道會는 釜山皮난생활 중에 역시 大邱로 進出하여 敎區廳內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共同生活을 하다가 1952年 왜관에 정착하였다. 1951年初에 釜山에 進出한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修女會는 11月 5日 초량동에 聖분도 자선병원을 개원해 정착하였다. 1952年 9月 8日 敎皇廳의 認可로 1935年 12月 8日에 設立되었던 浦項예수성심 시녀회가 修道會로 승격되었다. 1950年 10月 1日 南鮮經濟新聞社로 부터 大邱每日新聞을 敎區가 인수하여 言論창달에 기여하며 地域社會의 文化

138) 윤광선, 〈대구교구와 6·25사변〉 《빛》 26, 1985. pp.70~73.

139) 미국가톨릭 복지협의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는 1947년부터 한국에서 원조사업을 펼쳤고,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양곡으로 농토개설, 축산, 저수지축조, 관개, 주택, 간척사업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창달을 주도하여 오늘날 毎日新聞으로 成長하게 하였다. 그리고 1950年 해성의원, 釜山테레사의원, 釜山 聖분도의원, 1954年 성모성심의원과 聖요셉병원등을 개원하고 무료진료소도 개설하여 전쟁중에 의료진료 및 의료시혜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¹⁴⁰⁾

1925年 4月 曉星女子中學의 設立認可를 받아 國文, 音樂, 家政의 3個學科를 설치하여 5월에 開校하였다. 이로서 海星學校로 부터 1924年 曉星國民學校가 獨立된 후 曉星女子中學校(1949年), 曉星女子高等學校(1950年)의 開校로 효성유치원(1926年)에서 효성여자대학에 이르는 曉星學園이 이룩되어 女性教育에 크게 기여 하고있다.¹⁴¹⁾

왜관에 정착했던 聖베네딕도 修道會의 초대원장 비테를리(Timotheus Bitterli)몬시뇰이 1952年 5月 9日 덕원과 함흥敎區長으로 겸임 발령을 받았다. 大邱敎區는 聖베네딕도 修道會에 칠곡, 성주, 선산지역에 포교를 위촉하고 倭館監牧 代理區를 設定하여 崔德弘 主教의 主禮로 着座式을 거행하였다.¹⁴²⁾ 이어 1954年 6月 18日 大邱敎區 관할지역인 慶尙南道地方에 釜山敎區의 設定을 위한 준비로 慶南監牧代理區를 設定했다. 한편 해방과 동란의 激動속에서 試鍊을 함께하는 敎會는 地域民의 희망과 위로의 상징으로 꾸준히 本堂設定을 이루어 갔다. 이러한 결과로 光復당시인 1945年 信者數 27,298名에서 戰爭을 격는 격동의 10年間을 지난 1955년에 62,473名으로 敎勢가 크게 증가 하였다.¹⁴³⁾

V. 韓國天主教의 敎階制設定 大邱地域 天主教의 發展

1. 獨裁에 抵抗한 大邱敎會

1953年 8月 15日 光復節을 기해 戰爭의 고통중에 봉사하던 大邱敎區는 敎區內 모든 本堂과 公所를 사랑과 平和의 어머니이신 聖母聖心께 奉獻하였다. 이해 말 敎皇 비오 12세(Piux, XII)는 1854年 敎皇 비오 9세에 의해 宣布된 「聖母의 原罪없으신 잉태」敎義宣布 百週年 記念으로 1953年 12월부터 1954年 12月까지를 마리아의 해로 정하고 聖母聖年을 宣布하였다. 韓國天主教會는 戰爭의 상처가 체 가시지 않은 서울에서 1854年 10月 8일부터 10日까지 全國 各敎區

140)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78~95.

141) 曉星女子大學校, 《曉星女子大學校 三十年史》, 1982, pp.13~24.

142) 天主教倭館敎會, 《倭館半世紀》, 1978, pp.177~180.

143)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62.

의 主教神父 修道者 平神徒등 1萬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聖母聖年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였다.¹⁴⁴⁾

한편 이해 12月 14日 大邱敎區 第6代 敎區長 崔德弘 主教가 司牧方間中 지병이 악화되어 끝내 善終하였다. 敎區信者들은 새牧者를 請願하는 祈禱를 드렸다.¹⁴⁵⁾ 1955年 敎區信者들의 기원대로 第7代 敎區長으로 徐正吉 神父가 任命되어 9月 15日 主教座聖堂인 桂山本堂에서 主教敎品 및 着座式을 가졌다. 그런데 第7代 敎區長 着座 하루 전날인 9月 14日 〈學徒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社說內容으로 발단이 된 大邱每日 백주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事件은 自由黨 政權이 言論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려던 중대한 고비에 일어나서 全國 言論界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敎會는 가난하고 억눌린 소외계층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당당히 正論을 펼 수 있게하여 言論의 自由를 守護함으로써 民主發展에 크게 기여하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 事件은 이듬해 5월에 全國의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종결 되었으나 이로 인한 天主敎會와 自由黨 政府間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어 1950年代 후반에 政府에 의한 敎會탄압이 강화되었다.¹⁴⁶⁾

李承晚 政府의 獨裁下에서 大邱地域住民은 물론 온 國民들이 自由를 위해 抵抗하는 天主敎會에 希望을 걸고 社會正義를 실현하는 大邱敎會에 깊은 신뢰를 보여 주었다. 敎會는 이러한 社會的 여건에서 충실한 成長을 계속해 간다. 1955年 가르멜修女會가 釜山에 進出하고, 釜山에 왔던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는 6월에 倭館에 友愛의 집을 設立하고 定着하게 되었다. 곧벤두알 聖프란치스꼬會는 1959年初에 大邱에 進出해서 범어本堂의 司牧을 담당하게 되었다.¹⁴⁷⁾ 修道會의 進出과 함께 敎會의 信心團體인 레지오·마리아가 敎區에 定着하였다. 1953年 3月 5日 韓國戰爭中에 처음 시작된 레지오·마리아는 1956年 11月 釜山에서 꾸리아가 發足되고 1957年 2月 大邱에도 꾸리아가 결성되면서 점차 敎區內 各本堂에 확산되었다.¹⁴⁸⁾

1958年 3月에는 大邱市 天主敎信者 代表者 協議會가 創立되었다. 이는 1953년에 이미 결성된 大邱市內 本堂 學生聯合會와 大邱가톨릭 教育者 協議會와 함께 大邱敎區의 使徒職運動의 활성화를 위한 자각에서 시작 되었다. 그리고 이는 가톨릭 靑年運動의 효시를 보여준 大邱敎區의 전통을 계승하여 해방이후 敎會의 社會를 위한 활동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 6·25戰爭中

144) 《경향잡지》 46, 1954, pp.241 ~ 262.

145) 가톨릭時報社, 앞의 책, p.35.

146) 大邱每日新聞社, 《大邱每日新聞社史》, 1981, pp.90 ~ 105.

147) 天主敎大邱大敎區, 《敎區總覽》, 1980, pp.962 ~ 963.

148) 윤광선, 〈레지오·마리아에 대구도입과 발전과정〉 《빛》 30, 1985, pp.84 ~ 87.

教會의 社會奉仕活動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 것이었다. 1959年 大邱敎區는 己亥迫害 120週年을 맞아 殉敎者 顯揚大會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해 9月 17日 慶尙道와 全羅道를 강타한 暴風雨로 피해를 입은 水災民을 돕기 위해 10月 2日 敎區信者들이 斷食을 하여 義演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며 고통을 함께 하였다.¹⁴⁹⁾

大邱敎區에서 初創期부터 每年 개최하여 오면서 光復以後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社會的 觀心을 모우며 地域社會文化運動에 기여한 것으로 天主教 聯合體育大會가 있다. 그런데 이大會가 1949年 第28回大會를 마치고 6·25戰亂동안 중단 되었다가 1955年 第29回大會를 열고 1959년까지 계속되어 大邱地域 體育發展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敎區 聖體舉動은 1915년에 시작된 이래 꾸준히 개최해 왔는데 1954년에는 戰爭中 진주한 美軍과 韓·美合同으로 開催하여 1961年 敎區設定 50週年記念 聖體大會까지 韓·美合同 聖體舉動이 開催되었다.¹⁵⁰⁾ 이는 信仰의 보편성과 단일성의 상징으로 그리고 거룩한 教會의 神聖性的의 표현으로 全敎區民의 주목을 받았다. 大邱敎區 設定 50週年記念大會를 성대히 개최하고 더욱 활발한 社會奉仕活動으로 얻은 地域社會와의 일체감 속에 敎區內 各地域의 本堂이 계속 設立되고 韓國人 司祭가 養成되어 잇달아 임지를 맡아 司牧하였다. 1911年 信者 24,694名, 司祭 21名 本堂18個所로 출범한 大邱敎區는 1937年 全州와 光州敎區를 분할하여 獨立시키고, 1957年 1月 21日에는 釜山敎區를 獨立시키고도 敎區設定 50週年이 되는 1961년에 信者 71,642名 司祭 96名, 本堂 42個所의 敎勢를 보이고 있다.¹⁵¹⁾ 大邱敎區는 敎區設定 半世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歷史的 전환기를 맞이할 성숙한 教會로 地域사회 속에 뚜렷한 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

2. 韓國敎會 敎階制 設定과 大邱大敎區의 昇格

1) 大邱大敎區로의 昇格

1962年 3月 10日 敎皇 요한 23세(Joannes, X X III.)는 敎皇敎書를 통해 韓國天主敎의 敎階制度를 設定 領布하여 3月 24日부로 종래 代牧區로 있던 韓國敎會를 정식 敎區로 승격시켰다.

¹⁵²⁾ 이에 따라 서울, 大邱, 光州에 3大管區가 設定되고 全國의 各 敎皇代理 代牧區는 自治敎區

149) 〈가톨릭時報〉, 제204호, 1959. 10. 11日字 參照.

150) 〈가톨릭時報〉, 제301호, 1961. 11. 4일자 및 제308호, 1961. 12. 25일자 參照.

151) 天主教大邱大敎區, 앞의 책, pp.53~55.

152) Acta Apostolicae Sedis, 1962, pp.552~555.

로 승격되어 各管區에 소속되었다. 6月 29日 서울 明洞大聖堂에서는 韓國가톨릭 敎階制度 設定 敎皇敎書 公布禮式이 있었다.

敎區(Diocese)는 가톨릭敎會를 地域的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基本單位이다. 따라서 가톨릭敎會는 全體敎會와 地域敎會로 구별되는데 全體敎會는 全世界의 모든 가톨릭敎會를 한單位로 말하는 것이고 地域敎會는 世界도처에 散在하는 地域單位 敎會를 말한다. 地域敎會는 主教들에 의해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信者共同體인 敎區로서 存在하게 된다. 敎區는 大敎區(Archdiocese)와 敎區로 구분된다. 大敎區는 1個以上の 敎區를 갖고 있는 敎區로 大主教에 의해 관할되며 이밖의 地域敎會는 敎區라 부르고 主教가 이를 관할한다. 그리고 地域單位 敎會인 敎區는 다시 大敎區(管區)에 소속된 속교구(屬敎區, diocesis suffraganea)라하고 敎皇廳에 직할된 敎區는 면속구(免屬區, Abbatia Nullius)라고 한다. 그런데 傳敎地方에서는 敎階制度의 設定以前에 위에 말한 정식교구가 아닐지라도 敎區와 同一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 준교구 형태인 代牧區(Vicariatus Apostolicus)와 知牧區(Praefectura Apostolica)가 있다. 代牧區는 名義 主教가 敎皇을 代理하여 관할하는 敎區이고 知牧區는 主教가 아닌 聖職者가 관할하며 일정단계로 기반이 잡히면 代牧區로 昇格된다.¹⁵³⁾

그동안 韓國敎會의 모든 敎區는 1962年 3月 10日 敎皇敎書에 의해 韓國敎階制度가 設定되기 이전까지 代牧區와 知牧區라는 準敎區의 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本稿에서도 편이상 敎區라고 표현했으나 그동안은 실제로 代牧區체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韓國敎會의 敎階制度가 設定됨으로써 韓國의 各敎區들은 名義主教에 의해 관할되던 代牧區가 아닌 主教에 의해 관할되는 敎區가 된 것이다.

이제 韓國敎會의 敎階制度 設置敎書에 의하면 大邱代牧區는 大敎區로 昇格되고 淸州代牧區와 釜山代牧區는 敎區로 각각 승격되어 大邱大敎區의 산하敎區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韓國敎會는 서울, 大邱, 光州등 3個의 大敎區와 그 산하에 8個敎區, 그리고 3個의 監牧代理區를 갖게 되었다. 이제 韓國敎會는 종래의 傳敎地區의 모습을 벗어나 完全한 自治敎區의 體制를 갖추게 되었다.¹⁵⁴⁾

2) 새 典禮의 보급

153) 韓國敎會史研究所, 《한국가톨릭대사전》 1985, pp.114~115.

154) 金昌文·鄭宰善, 《韓國가톨릭 어제와 오늘》 1963, p.349.

1962年 10月 11日 敎皇 요한 23세는 全世界 2,600명의 聖職者代表들이 참석한 가운데 第二次 바티칸公議會의 역사적인 개막을 宣言하였다. 이 公議會는 4次會期로 進行되었는데 1965年 12月 8日 公式會期가 끝날때 까지 모두 16차례의 公式發表가 있었다.¹⁵⁵⁾ 이 公議會의 첫 결실로 1963年 12月 4日 公布된 〈거룩한 典禮에 관한 憲章〉을 施行하도록 허가 함으로서 各國의 실정에 맞는 새典禮가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大邱大敎區에서도 聖音樂, 聖美術, 敎理 및 公式指導書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敎區司祭 典禮세미나를 개최하여 새典禮에 관한 司牧的 배경에 대해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大邱大敎區에서는 公議會 祈禱文을 배포하면서 敎區民으로 하여금 公議會의 成功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하였다.¹⁵⁶⁾

1965年 3月 7日 새典禮憲章에 의한 우리말 미사가 奉獻되었다. 이는 典禮의 土着化를 위한 새로운 轉期가 되었으며 信者들의 信仰生活에 새로운 活力을 얻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다. 1966年 2月 새典禮의 研究와 보급을 위한 敎區典禮委員會를 發足하고 大邱大敎區 산하 敎區의 聖職者를 위한 典禮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66年初에는 敎區역선團體 協議會 主催로 公議會에 대한 개몽강연회를 열고 敎區各本堂 巡廻 講論 및 특별 聖年行事가 시작되었다.¹⁵⁷⁾

3. 地域社會에 봉사한 大邱大敎區

1) 社會福祉事業의 擴散

바티칸 二次公議會를 통해 現代社會에 있어서 敎會의 使命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大邱敎區에서는 地域社會의 각종 社會事業을 더욱 확신시켜 이 時代的 要請에 응답하였다. 慶尙北道로 부터 윤락여성 再活事業에 대한 의뢰를 받고 1962年 8月 大邱, 慶州, 浦項등지에서 보호가 요청되는 여성들을 모집하여 가톨릭女子技術學院을 開院하였다. 음성 나환자 定着村 自立事業도 활발히 전개되어 1963年 2月 나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가톨릭 피부과병원을 설립하였다. 고아들을 한 가정에 모아서 家族처럼 살게 하는 아동복지사업을 착수하여 1963年 5月 SOS어린이마을을 이루었다. 그리고 영세민과 결손가족의 자녀들을 위탁받아 保護養育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1965年 5月에는 소화 어린이집을 開院하였다.¹⁵⁸⁾ 1962年 8월에 認可된 파티마病院內에 육아상담실을 설치해 母子保健事業을 推進하고, 1968年 3月에는 大邱요양원을 開

155)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69, 參照.

156)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 발한 공문서〉 천대교 제64-4호, 1964. 5. 4日字; 천대교 제64-11호 1964. 8. 28日字.

157) 천주교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160~169.

158) 이 福祉事業에 Susannah Younger, Emma Freisinger, Fransiska Lemayr, Inge Ellernkamp等の 헌신적노력은 특히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院하여 극빈 폐결핵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1968年 12月 불우청소년의自立을 돕기 위한 시설인 개미마을을 設立하였다.¹⁵⁹⁾

2) 使徒職 團體들의 結成

바티칸 二次公議會는 現代社會에서 平信徒 使徒職의 重要성에 대한 자각과 召命意識을 높임에 일깨워 주었다. 大邱大敎區에서는 敎會의 社會參與를 위한 다양한 使徒職 活動을 展開할 수 있는 平信徒 使徒職團體들이 結成되고, 그 活動을 더욱 심화시켜 활발한 平信徒 使徒職 活動의 수행을 보게 된다. 1961年初 가톨릭勞動青年會가 創立되고, 9月에 가톨릭 간호원회가 發足되었으며, 10月에는 가톨릭 의사회가 結成되었다. 1963年 1月 가톨릭 敎師會가 조직되고, 1964年 6月 상지회가 結成되었으며 7月에 가톨릭學士會가 發足하여 각기 전문적인 使徒職 活動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¹⁶⁰⁾ 1964年 9月 27日 위의 敎區諸團體 共同主催로 公議會의 성공과 殉敎精神양양을 위한 祈禱會인 聖經의 밤이 개최되었다. 이어서 1965年에 작은꽃 敎師會, 가톨릭美術人協會, 中等女敎師會가 組織되었다. 그리고 이들 知性人 團體가 中心이 되어 同年 11月 21日 敎區액션團體協議會가 構成되었다. 1967年 5月 13日 이 團體協議會가 주관하여 파티마 聖母 발현 50週年 聖母의 밤이 개최되고, 5月 29日에는 기념 대연주회가 열렸다. 계속하여 1969年 가톨릭勞動壯年會가 構成되고 가톨릭音樂人協會가 발족했다. 그리고 敎區액션團體協議會는 平信徒 使徒職 講習會를 개최하여 公議會이후 敎會와 社會에 있어서 平信徒의 使命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무렵 平信徒 使徒職 수행을 위한 敎會指導者 養成을 위해 單期講習會인 〈꾸르실료〉가 1969年 6月 26日부터 29日까지 敎區史上 처음으로 開設되어 大邱大敎區 꾸르실료運動이 시작되었다.¹⁶¹⁾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各種 후원단체가 結成되어 敎會의 社會奉仕에 원동력이 되었다. 1970年 敎區 軍宗後援會, 敎區 司祭養成後援會, 敎區 敎導所後援會가 創立되었다. 1972年 1月에 敎區 가톨릭합창團이 結成되었으며 이후 각종 전문직 使徒職團體와 信心團體 및 諸後援會들이 계속하여 발족을 보게 되어 大邱大敎區의 底力을 튼튼하게 구축하게 하고 있다.

3) 敎會의 自己刷新

모든 時代 모든 사람들에게 福音을 전하고 사랑을 實踐할 敎會의 보편적 使命의 수행도구

159) 天主教 大邱大敎區, 《敎區總覽》1980, pp.949~952.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68.

160) 천주교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교구사 연대표》1984, p.122, p.126, p.128, p.136 參照.

161) 천주교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184~193.

로써 教會自身은 언제나 불완전함을 잊지 않고 그 不完全性을 최대한 克服할 수 있는 自己省察과 刷新¹⁶²⁾을 끊임 없이 해오고 있다. 第二次 바티칸公議會를 前後하여 教會의 이러한 自己刷新의 노력은 敎區司牧에도 깊고 광범하게 반영되었다. 1963年 2月 傳敎協議會가 構成되고, 이에 따라 敎區司祭會議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敎區司牧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여 여러차례 會議를 열고 傳敎活動方案 모색과 대안을 논의 하였다. 1968年 3月 12日 敎區司牧委員會가 發足되고 이어서 各本堂運營委員會가 조직되었다. 1970年 3月 26日 敎皇廳의 결정에 따라 司祭들이 獨身으로 보다 투철한 司祭의 삶을 계속하겠다는 司祭獨身誓約 갱신을 성유축 성미사 중에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敎區司祭團은 敎區長과 一致하여 더욱 教會의 刷新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1970年 7月 11日 大邱大敎區는 敎皇廳 聖職者聖省長官 라이트(Joannes Wright)추기경이 보내온 司祭評議會 設定에 대한 指針書를 敎區司祭들에 알리고 이를 研究한 사제들을 추천하도록 요망하였다. 11月 司牧研究院이 新設되어 敎區司牧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文書司牧 刷新에 관한 敎區長의 새指示事項이 확정되어 敎區司牧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¹⁶³⁾ 1971年 6月 24日 敎區司祭會 規約이 통과되어 敎區內 모든 司祭들이 敎區長을 중심으로 상호결속하고 福音宣布의 능률화를 기하고 敎區行政 전반에 司祭들이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10월에 管區法院이 開設되고, 1972年 8月 敎區制度 研究委員會가 발족되어 敎區行政機構, 人事原則 및 財政管理運營에 관한 研究를 계속하여 敎區司牧의 刷新에 기여하게 하였다.¹⁶⁴⁾

한편 이무렵 信心行事로는 公議會폐막후 特別聖年이 公布되었는데 大邱大敎區는 聖年期間(1966. 1. 1. ~ 5. 29)동안 聖年巡禮聖堂으로 8個本堂을 指定하였다. 그리고 信者들의 聖年祈禱와 聖年巡禮指定聖堂에 巡禮를 권유하고, 徐正吉 大主教의 主禮로 聖年巡禮聖堂에서 各各 聖年慶祝行事를 거행하였다.¹⁶⁵⁾

敎皇 바울로6세는 1967年 2月 22日 使徒베드로와 바울로 殉敎 1천9백週年을 記念하여 6月 29日부터 1年동안 〈信仰의 해〉로 정해 全世界信者들에게 信仰의 심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당부하였다. 大邱大敎區는 信仰의 해에 관한 敎書를 통하여 敎區의 聖職者, 修道者, 神學生, 平

162) 刷新(renovatio): 그리스도敎에서 쇄신은 信者個人이나 修道會 특히 敎會가 그 모형인 그리스도의 精神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意味한다.

163)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 발한 공문서〉, 천대교 제71-3호, 1971. 2. 4日字.

164)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 발한 공문서〉, 천대교 제71-22호, 1971. 11. 24日字 參照.

165)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 발한 공문서〉, 천대교 제66-6호, 1966. 3. 10日字 參照.

信徒들로 하여금 本堂, 修道團體, 學校, 病院, 公所, 職場등에서 함께 信仰을 고백하는 行事를 자주 갖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各團體와 本堂별로 적어도 年 1回以上 信仰告白의 行事를 개최하였다.¹⁶⁶⁾

4) 修道團體들의 進出

教會의 自己刷新과 社會奉仕活動이 활발하게 展開되는 이 時期에 더욱 올바른 信心을 자극하는 韓國殉教者를 福子位에 올리는 諡福式이 있었다. 1968年 10月 6日 로마의 聖베드로大聖堂에서 韓國의 丙寅殉教者 24位의 諡福式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敎皇 바울로6세는 信者들에게 韓國가톨릭教會의 모범을 본받으라고 권고하였다.¹⁶⁷⁾ 大邱敎區는 1964年 11月 9日 殉教福者 記念聖堂 건립을 위한 기성회를 결성하고 1965年初부터 丙寅殉教 百週年記念福者聖堂 建立에 착수하였다. 敎區에서는 또 1965年 9月 6일부터 26일까지 당시의 殉教福者 金大建神父의 유해를 모시고 大敎區 산하 20個本堂을 巡廻하면서 殉教精神顯揚 및 公議會 성공을 위한 〈聖書禮節의 밤〉을 거행했다. 그리고 이듬해 9月에는 17日동안 丙寅殉教 百週年 記念 福者聖月 巡廻(福者の 밤) 行事를 개최하였다. 諡福式이 있는 후에는 殉教者顯揚行事로 丙寅殉教者 慶祝大會, 記念展示會, 殉教顯揚 構演會 諡福祝賀宴등을 성대하게 가졌다.¹⁶⁸⁾ 이렇게 自己刷新과 새로운 靈의活氣를 얻어가는 時期에 修道會의 大邱大敎區 進出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1952年 5月 韓國殉教福者修女會가 大邱에 도착하고, 1962年 9月 14日 大邱가르멜 修道會가 設立되었다. 1964年 4月 28日 倭館 聖베네딕도 修道會가 大修道院으로 昇格되어 5月 20日 初代 아빠스에 오도·하스(Odo Haas)神父가 着座했고, 1971年 4月 16日 第二代 아빠스에 李東鎬神父가 취임하였다. 1969年 11月 17日 聖體會가 倭館에 進出했고, 1967年 3月 살트르 聖바오로修女會는 大邱管區를 設立하였다. 1972年初에 聖바오로 女子修道會가 大邱에 進出하여 5月 27日 聖바오로書院을 開院하였다. 1962年 女子修道會 聯合會가 결성되고 1969年 4月에는 傳敎修女 聯合會가 發足하였다.¹⁶⁹⁾ 그리고 同年 6月 프란치스코 世俗兄弟會가 창설되었다.

1960年代初에서 1970年初대까지 韓國社會도 엄청난 변모를 보였다. 1963年 第三共和國이 출범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韓·日國交를 정상화시켰으며, 國軍을 越南에 派

166) 《가톨릭時報》 제639호, 1968. 10. 13 參照.

167) 《가톨릭時報》 제639호, 1968. 10. 13.

168) 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182~183.

169) 천주교 대구대교구, 《大邱大敎區 總覽》 1986, pp.997~1029.

兵하였다. 3選改憲이 단행되어 政局이 불안정해지고 끝내 10月維新이 宣示되었다. 이러한 激動속에서 教會는 時代的 轉換을 맞아 그간 확장된 敎區의 司牧現場에 靈的 指導力의 補強이 要請되어 補座主教를 모시게 된다.

VI.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宣敎 3世紀를 向하여

1. 補座主敎의 敎品과 司牧領域의 擴大深化

敎皇廳은 1972年 10月 7日 李文熙 神父를 大邱大敎區의 첫 補座主敎로 任命하였다.¹⁷⁰⁾ 同年 11月 3日 桂山洞大聖堂에서 主敎敎品式이 엄숙히 거행되었으며, 李文熙 主敎는 大邱大敎區長을 總代理하여 敎區司牧 전반을 管轄하면서 획기적인 司牧活動의 기반을 확충해가기 시작했 다. 李文熙 總代理主敎는 1975年 敎區편제를 정비하여 敎區廳內에 事務處, 管理局, 事務局 등 을 확충보완하고 뒤에 敎育局과 弘報局등을 新設하여 敎區의 司牧領域을 세분하고 전문화하 여 관장하게 하였다.¹⁷¹⁾ 이어서 敎區內 諸團體들의 조직확산 및 기관신설을 추진해 갔다. 1974年에 敎區內 本堂의 高等部 聯合會, 幼稚園修女聯合會, 1975年에는 女性聯合會 1976年 主 日學校 校長會, 本堂敎理敎師 聯合會, 그리고 1977年 農民會 慶北支部 聯合會, 1979年 인성회 敎區聯合會가 各各 發足하였다.¹⁷²⁾

1973년부터 本堂運營委員會를 本堂司牧委員會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各本堂의 司牧委員會 를 聯合하여 敎區司牧協議會를 構成하면서 組織的인 敎區司牧의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同 年 5月에는 司祭와 平信徒로 構成된 敎區司牧會를 결성하여 敎區司牧의 효과적 방안을 논의 하게 하였다.¹⁷³⁾ 1973年 敎區역선協議會를 敎區平信徒 使徒職協議會로 바꾸어 敎區內 모든 使 徒職 團體들을 관장하게 하였다. 1982年 敎區平信徒 使徒職協議會를 정식기구로 發足시켜 第 二次 바티칸 公議會의 平信徒 使徒職에 관한 敎會의 精神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게 하였다.¹⁷⁴⁾

이 무렵 各급기관의 設立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74年 12月 1日 가톨릭 文化館을, 12月 16日 敎區直營의 효성인쇄소, 1975年에 가톨릭근로사회관을 각각 開館하였다. 1977年 6月 3

170)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 발한 공문서〉 천대교 제72-7호, 1972. 10. 16日字 參照

171) 천주교대구대교구, 《大邱大敎區 總覽》1986, 교구기구표 參照.

172)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175~176.

173)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 발한 공문서〉 천대교 제73-9호, 1973. 3. 21日字.

174) 천주교대구대교구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214~349.

日 浦項聖母病院이 개원되고, 1980年 4月 1日 市立希望院의 運營權을 大邱市로 부터 引受하고, 同年 7月 1日에는 가천에 靑少年教育院을, 8月 12日에는 가톨릭病院을 開院하였으며 1981年 10月 19日 가톨릭女性教育館을 開館하였다. 그리고 1982年 聖유스피노 神學校의 전통을 精神的으로 계승하는 大邱 가톨릭大學校(設立 당시 善牧神學大學)를 開校하여 敎區 司祭養成을 위한 活路를 열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각급기관의 設立으로 튼튼한 司牧活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司牧의 多樣性和 専門성을 제고하게 되었다.¹⁷⁵⁾

이에 병행하여 敎區內의 信心團體와 使徒職團體의 저변도 계속 확대되어 나갔다. 1974年 9月 3日 幸福한 家庭運動과 1975年 女性 꾸르실료가 시작되었다. 同年 6월에 가르멜 在俗 修道會, 9월에 그리스도共同體 默想會가, 10월에는 聖靈刷新세미나가 열렸다. 1976年 5월에 푸른 군단과 성모의 기사회가, 그리고 6월에는 聖書모임이 시작되었다. 1979年 6月 17日 휘폴라레·마리아폴리 첫 하루행사가 베풀어졌고 9月 20日 夫婦週末 避靜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80年 聖靈刷新奉仕會가 創立되고 1982年 레지오·마리에 敎區評議會가 發足하였으며, 1983年 3月 1日 어버이 聖書모임이 시작되었다. 이 밖에 액션團體로 가톨릭實業人聯合會, 가톨릭 금융인연합회, 가톨릭스카우트가 조직되고, 가톨릭盲人선교회, 가톨릭藥師會, 가톨릭文友會 등이 각각 發足を 보게 되었다.¹⁷⁶⁾

그리고 이때 大邱에 進出한 修道會는 聖母聖心修女會(1979. 3. 7), 그리스도의 敎育修女會(1979. 12. 1), 예수聖心傳敎修女會(1981. 2. 14), 동정성모회(1983. 3. 25) 등이다.

이 무렵 중요한 信心行事로는 1974年 4月 21日의 敎區聖年大會와 韓國殉敎福者 79位 諡福 50週年 記念行事였다. 1973年 5月 9日 敎皇 바울로 6세는 祈禱와 默想 그리고 慈善을 통한 人間의 內的刷新을 目標로 聖年을 頒布하였다. 이에 大邱大敎區는 主教座聖堂인 桂山洞大聖堂을 聖年巡禮 聖堂으로 指定하고 따로 6個의 本堂을 順番으로 1個月間씩 巡禮聖堂으로 指定하였다. 그리고 1974年 4月 21日 ‘하느님과 의 和解와 이웃과 和解’를 主題로 大邱大敎區 聖年大會를 성대히 개최하였다.¹⁷⁷⁾

韓國主教團은 殉敎福者 諡福 50週年을 맞아 1975年 9月 26日 司牧敎書를 發表하고 모든 信者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殉敎先烈의 信仰과 表樣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였다. 大邱大敎區는 同年 9月 25일부터 4日間 韓國殉敎福者 79位 諡福 50週年 記念行事를

175)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76.

176) 천주교대구대교구, 앞의 책 參照.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76.

177) 〈가톨릭時報〉 제912호, 1974. 4. 28.

거행하였다. 그리고 諡福 50週年을 기한 記念大會를 통한 殉教先烈의 精神顯揚에 힘입어 1976年 9月 16日 韓國天主教 諡聖諡福 推進委員會를 결성하였으며 同年 10月 15日 韓國의 103位 殉教福者에 대한 諡聖申請書를 敎皇廳에 제출하고, 諡聖運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마침내 韓國天主教 宣敎 2百周年에 103位의 聖人 탄생을 보게 된다.

1978年 大邱大敎區는 韓國敎會史上 처음으로 체계화된 敎區司牧計劃을 發表하였다. 이 司牧指針은 1981年 敎區設定 70週年과 1984年 韓國天主教 宣敎 2百週年을 앞두고 宣敎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傳敎推進 5個年 計劃을 수립한다고 했다.¹⁷⁸⁾ 敎區內 本堂에서는 司牧指針에 따라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宣敎 2百週年을 준비하는 敎區의 司牧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81年 6月 6日 敎區內 3萬여 信者들이 참석한 가운데 敎區設定 70週年 記念聖體大會를 거행하였다. 이는 1961年 敎區設定 50週年記念聖體大會이후 20年만에 敎區에서 거행된 것이었다. 信者들은 聖體大會에서 聖體를 中心으로 一致하여 敎區發展을 위해 노력하면서 宣敎 2百週年을 보다 뜻깊게 준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렇게 大邱大敎區는 敎會史講座, 敎會史자료전시회 등 聖體大會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¹⁷⁹⁾ 韓國天主教 歷史가 시작된지 2百年이 되는 宣敎 2百週年을 착실히 준비해 가기 시작했다.

2. 103位 韓國殉教聖人 諡聖과 敎皇의 司牧訪問

1) 宣敎 2百週年과 103位 韓國聖人의 諡聖

韓國天主教 宣敎 2百週年 준비는 1980年 6月 1日 2百週年 全國準備委員會 敎區代表를 選定함으로써 시작되었다. 大邱大敎區에서는 1982年 11月 9日 宣敎 2百週年準備委員會가 결성되고 1983年 출범하면서 2百週年 紀念事業 推進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때인 1983年 1月 25日 敎皇 요한·바울로2세는 예수·그리스도의 救援聖業 1950週年을 맞아 救援의 特別聖年을 宣布했다. 이에 大邱大敎區에서는 同年 3月 25日 桂山洞 大聖堂에서 聖年개막미사를 봉헌하고 특별히 聖年期間동안 大邱敎區 순교유적지인 한티, 신나무골, 그리고 진목정에서 每月 순교유적지 순례성년미사를 봉헌했다.¹⁸⁰⁾ 이로써 聖年信心 活動과 함께 宣敎 2百週年을 祈禱속에서 준비하며, 아울러 殉教先烈의 얼을 기리며 諡聖運動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게 되었다. 敎皇廳은

178)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계획〉, 1980, pp.2~10.

179) 〈가톨릭新聞〉 제1252호, 1981. 4. 26日字; 제1259호, 1981. 6. 14日字 參照.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발한공문서〉 천대교 제81-13호, 1981. 5. 25日字

180)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79.

1983年 6月 11日 謚聖請願을 한 韓國殉教福者 103位에 대한 기적심사를 면제하여 주고, 또 宣敎 2百週年을 맞는 韓國教會에 대해서는 1984年 11月 25일까지 特別聖年을 연장하는 특전을 베풀었다. 大邱大敎區는 1983年 9月 1일부터 12月 12일까지 全敎區 信者들의 참여 속에 韓國殉教福者 103位가 聖人으로 宣布될 수 있도록 祈願하는 103祈禱를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 祈禱期間中인 10月 23日 敎皇廳으로 부터 聖人으로 謚聖될 것을 확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敎區에서는 특별 감사미사를 봉헌하여 祈禱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¹⁸¹⁾

1984年 5月 3日 마침내 敎皇 요한·바울로2세(Joannes paulus. II)는 韓國에 도착하여 殉敎者의 땅에 입맞추고 歷史的인 訪韓 첫날을 맞았다. 5月 6日 敎皇은 서울 여의도廣場에서 韓國天主教 宣敎 2百週年 紀念大會 및 韓國殉教福者 103位 謚聖式을 집전하였다. 敎皇은 金大建 神父와 丁夏祥등 103位の 殉敎福者를 聖人품에 올리면서 世界教會 안에서 다른 聖人들과 함께 正성되이 공경하도록 宣布하였다. 이렇게 韓國教會는 2百年 歷史를 통해 103位の 聖人을 배출하는 영광을 누리며 世界教會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¹⁸²⁾

이는 당시 韓國의 현실에서 모든 國民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위로와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이었다. 1972年 10月 유신이 단행되고, 1974年 긴급조치가 발표되자 國內 反體制運動이 激化되었다. 韓國天主教會는 체제비판기능을 수행하면서 1976年 3·1明洞事件, 1979年 安東農民會 사태, 그리고 1980年 光州民主化運動 등 일련의 現實問題에 대해 正義의 입장에서 批判的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社會의 醇化에 기여하였다.¹⁸³⁾ 그러나 이로 인한 敎會와 政府間의 긴장관계가 불안하게 계속되고 있고, 自由와 正義를 갈구하는 國民의 意志는 깊어가고 있는 때에 世界人類의 귀감이 되는 聖人이 우리 民族中에서 나게 되었다는 긍지와 희열은 뜻있는 모든 이들을 감격하게 하였다.

2) 敎皇의 司牧訪問과 大邱大敎區의 2百週年事業

1984年 5月 5日 敎皇 요한·바울로2세는 大邱 東村비행장에 도착하였다. 敎區長 徐正吉 大主教, 總代理 李文熙 主教, 李東鎬아빠스 그리고 이상희 大邱直轄市長, 정채진 慶尙北道知事등의 정중한 영접을 받으며 敎皇의 大邱大敎區 司牧訪問은 시작되었다. 敎皇은 空港에서 行事場인 市民運動場까지 연도의 市民들과 信者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2百週年 大邱大敎區 行事는 ‘나눔’을 主題로 한 〈靑少年大會〉였다. 敎皇은 大會를 주재하며 敎區司祭團과 함께 장

181)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같은 책, p.180.

182) 《빛》 14, 1984, 6월호 參照.

183) 明洞天主教會, 《韓國가톨릭人權運動史》 1984, 參照.

엄대미사를 집전하였다. 이大會에서 敎皇은 젊은이들에게 위험과 기회, 희망과 고민, 행복과 고통으로 가득찬 미래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福音精神에 따라 주어진 挑戰과 召命에 應答하라고 격려하였다. 敎皇은 韓國敎會 3世紀를 이끌어갈 牧者로 全國 各敎區出身 새司祭 38名을 파견하였다. 이 새司祭들에게 敎皇은 현세의 모든 實在를 비추어 주고 完成해 주는 希望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管理人으로 불림받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敎皇은 靑少年大會와 司祭敍品式을 마치고 桂山本堂을 방문하여 主日學校 어린이들에게 敎皇의 祝福을 해 주었다. 그리고 敎區廳경내의 聖母堂으로 가서 敎區內의 聖職者, 修道者들의 영접을 받으며 이들과 함께 祈禱하고 환송객들에게 答禮하며 떠남으로써 大邱大敎區 司牧訪問을 끝냈다.¹⁸⁴⁾

大邱大敎區는 韓國天主教 宣敎 2百週年을 기하여 2百週年 記念 大邱大敎區委員會를 구성하여 記念事業을 추진하며 敎區司牧 전반에 대한 省察과 自己刷新으로 닦아오는 宣敎 3百週年을 向한 자세를 가다듬기 시작했다. 2百週年 大邱大敎區委員會는 分科委員會別로 記念事業을 추진했다. 먼저 記念行事分科委員會에서는 2百週年行事 事務局을 설치하고 2百週年 大邱行事인 司祭敍品式과 靑少年大會를 개최하도록 했다. 1983年 10月 1日 主日學校 잔치와 12月 3日 새人類를 위한 奉仕者의 밤을 개최하고 동시에 大邱行事의 최종점검을 완료했다. 이렇게 하여 行事分科는 2百週年記念 大邱行事를 성공리에 끝냈다.

司牧會議分科委員會에서는 每月 常任委員會를 열어 敎區의 信仰共同體生活를 評價하고 그 問題點과 改善策을 提示함으로써 敎區司牧 전반에 대한 刷新을 모색하였다. 1985年 11月 3日 2百週年 司牧會議分科委員會는 聖職者, 修道者, 平信徒, 典禮, 信心運動, 地域社會, 敎理敎育, 家政司牧, 特殊司牧, 敎會運營, 宣敎, 社會參與, 靑少年등 13個 分科別로 平信徒의 議案을 發表하여 韓國敎會의 宣敎 3世紀 元年에 大邱大敎區의 司牧基盤과 方向을 굳건히 마련하였다.¹⁸⁵⁾

精神運動分科委員會에서는 殉敎精神의 擴散과 信仰의 刷新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4年 사순절에 敎區內 各本堂에 特別講論 草案을 배부하고 각 本堂별로 殉敎者顯揚 9日祈禱를 봉헌하게 하였으며, 殉敎者 遺骸 巡迴祈禱會를 가졌다. 정신운동분과는 信仰生活의 쇄신과 殉敎精神을 본받을 새로운 결의를 갖도록 지속적인 活動을 전개하였다.

記念事業分科委員會는 1982年 全敎區民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13個所의 聖堂建立과 11個處의 聖堂建立을 위한 垡地 확보, 그리고 信仰遺跡地 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1983年 7月 이事業의 첫 결실로 2百週年 記念 제1호 聖堂으로 慶州의 城乾聖堂을 祝聖

184) 《빛》 14, 1984, pp.16~21.

185) 대구대교구사목회의위원회, 《사목회의위원회평신도의안》 1985, 參照.

하였다. 이어서 1984年 敎區廳內 救援의 神祕 19처 祝聖式을 가졌으며, 신나무골 復元 祝聖式을 가졌다. 그리고 가톨릭病院과 파티마病院의 協力으로 2百週年 무료개안수술사업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중에 있다. 1984年 浦項예수성심 시녀회는 敎皇의 大邱訪問 및 韓國敎會 2百週年 記念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복지시설인 〈요한·바오로2세 어린이의 집〉 祝聖式을 가졌다. 同年 觀德亭 殉敎記念館이 착공되어 1991年 開館됨으로써 韓國敎會 宣敎 3世紀의 벽두에 殉敎精神을 이어받고자 하는 敎區民의 信仰의 지주를 바로 세우게 되었다.¹⁸⁶⁾ 그리고 1983年 교구사편찬위원회를 發足시켜 敎區史 자료의 수집정리를 체계화하고, 1984年 敎皇訪問 記念으로 〈敎區史 年代表〉와 〈敎區史 畫報〉를 발간하여 敎皇께 訪問記念으로 헌정하였다. 관덕정을 개관하면서 嶺南敎會史 研究所를 敎區기관으로 하여 大邱敎會의 信仰의 전통을 보존하는 교구사의 정리를 착수하게 하였다. 同年 5月 1日 地域文化와 가톨릭精神의 접근을 시도하여 敎區잡지로 月刊 〈이 땅에 빛〉을 創刊하여 지금 信者家庭을 위한 종합잡지 〈빛〉으로 발간되고 있다. 2百週年을 기한 이러한 記念事業들은 바로 宣敎 3世紀를 향한 大邱大敎區의 기반이 되고 있다.

3. 宣敎 3世紀를 향한 大邱大敎區의 現況

1) 第八代 敎區長 李文熙 大主教 着座

1986年 7月 5日 大邱大敎區 第八代 敎區長 李文熙 大主教의 着座式이 聖金大建 紀念館에서 韓國主敎團과 內外貴賓 그리고 敎區信者들이 參席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미사강론을 통하여 金壽煥 추기경은 韓國敎會의 모든 聖職者와 修道者 그리고 平信徒와 함께 일찌기 主敎로 敍品되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해 온 李文熙 大主教의 着座를 진심으로 祝賀한다고 전하였다. 天主教 大邱大敎區 第8代 敎區長 李文熙 大主教는 答辭에서 그의 문장에 새겨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司牧指標를 다짐하듯이 이 敎區가 하느님의 뜻대로 成長해 갈 것을 믿고 이를 위해 最善을 다해 奉仕할 것이라고 밝혔다.

第7代 敎區長이었던 徐正吉 大主教는 光復以後의 격동기에 교구발전의 위업을 남기고, 老齡에 의한 敎會의 傳統에 따라 敎區長職을 물려 주었다. 그간 敎區의 總代理로 직접 교구발전에 기여하고 있던 李文熙 大主教가 승계하여 第8代 敎區長으로 着座함으로써 韓國敎會 宣敎 3世紀를 向한 大邱大敎區의 힘찬 새출발을 기약하게 되었다.

186)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大邱本堂 百年史》, 1986, p.186.

2) 天主教 大邱大敎區 現況

韓國天主教會는 3大管區와 15個敎區에 947個本堂 1,416個의 公所에서 3位의 大主教(1位 추기경 포함)와 16位의 主教, 2,174名의 神父, 그리고 3백2만9천4백94명의 信者가 이루고 있는 信仰共同體이다.¹⁸⁷⁾ 大邱管區는 大邱大敎區, 釜山敎區, 淸州敎區, 馬山敎區, 安東敎區 등이 소속되어 慶尙南北道와 忠淸道 일부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다.

大邱大敎區는 1911年 4月 8日 朝鮮敎區에서 分割되어 設定된 이래 1937年에 全州敎區와 光州大敎區, 그리고 1957年 釜山敎區를 各各 分割 獨立시켰다. 1962年 韓國天主教 敎階制度의 設定以後 大邱大敎區는 1969年 安東敎區를 分轄 獨立시킴으로써 大邱大敎區의 管轄地域은 大邱直轄市와 慶北南部 일원에 한정되었다.

韓國教會史에 나타나는 大邱大敎區는 韓國教會의 선구적 敎區로 또 韓國南部地域 모든 敎區의 母校區로써 礎石의 역할과 기능을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大邱大敎區는 지금 敎區長 李文熙 大主教를 中心으로 95個所의 本堂, 124個所의 公所에서 1位의 보좌주교 4位의 몬시뇰, 248位의 司祭와 1,088位의 修道者 그리고 2십9만6천5백36명의 信者들이 共同의 信仰을 告白하며 民族의 福音化에 증진하고 있다.¹⁸⁸⁾ 이와 같은 大邱大敎區의 敎勢는 서울大敎區에 이어 두번째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敎區內 住民人口에 대한 信者의 비율은 7.1%에 불과하다. 住民數에 대한 信者의 비율은 이렇게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地域內 社會·敎育·文化 등 諸領域에서 지역사회에 奉仕하는 기여도는 높은 評價와 認定을 받고 있다. 이제 宣敎 3世紀를 향해 활동하는 大邱大敎區의 몇가지 現況을 간추려 보면서 신뢰와 기대속에 더욱 무궁한 증진 있기를 기원한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개황

(1) 교세현황

(가) 관할구역 총인구 및 신자총수

구 분	남	여	계
교 구 관 할 구 역 내 인 구	2,104,814	2,080,538	4,185,352
교 구 신 자 총 수	117,191	179,345	296,536
인 구 대 신 자 비 율 (%)	5.6	8.6	7.1

18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천주교회교세통계》(1993. 12. 31 현재), 1994.

188) 천주교대구대교구, 《1993년도 교세통계표》(1993. 12. 31 현재), 1994, 參照.

(내) 본당 및 공소

구 분	본 당	공 소	비 고
대 구 시 내	51	7	
대 구 시 외	44	117	
계	95	124	

(대) 성직자 및 수도자

구 분	한국인	외국인	계	비 고
대 주 교	1	0	1	수도회 및 전교회 사제 (1) 성베네딕도 왜관 대수도원 29명 (2) 존벤뚜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 4명 (3) 차리의방전교회 1명 (4) 한국회방선교회 2명
몬 시 놀	3	1	4	
교 구 사 제	212	0	212	
수 도 회 사 제	25	9	34	
전 교 회 사 제	0	1	1	
수 사	51	4	55	
수 녀	1,021	12	1,033	
계	1,313	27	1,340	

(2) 교육기관

구 분	교 육 기 관 명	교 원 및 직 원	학 생
대 학	대 구 가 톨 릭 대 학 교	107	333
	효 성 여 자 대 학 교	464	9,839
	소 계	571	10,172
고 등 학 교	대 건 고 등 학 교	67	1,499
	무 학 고 등 학 교	46	1,000
	순 심 고 등 학 교	55	1,044
	성 의 종 합 고 등 학 교	64	1,294
	근 화 여 자 고 등 학 교	69	1,471
	성 의 여 자 중 학 고 등 학 교	57	1,176
	순 심 여 자 고 등 학 교	41	880
	효 성 여 자 고 등 하 교	69	1,516
	소 계	468	9,880

第6章 宗 教

구 분	교 육 기 관 명	교 원 및 직 원	학 생
중 학 교	대 건 중 학 교	60	1,599
	무 학 중 학 교	36	967
	순 심 중 학 교	21	421
	성 의 중 학 교	23	531
	근 화 여 자 중 학 교	22	601
	성 의 여 자 중 학 교	36	831
	순 심 여 자 중 학 교	18	411
	효 성 여 자 중 학 교	64	1,934
	소 계	281	7,295
국민학교	효 성 국 민 학 교	28	860
유 치 원	근 화 (성 동)	8	160
	도 동 (울 릉)	3	77
	마 리 아 (김천황금)	7	120
	분 도 (원 평)	15	215
	삼 덕 (삼 덕)	11	160
	상 지 (내 당)	9	161
	셋 별 (신 동)	4	51
	셋 별 (안 강)	4	80
	셋 별 (영 천)	9	159
	성 모 (남 산)	5	110
	성 모 (인 동)	5	80
	성 심	10	188
	성 심 (비 산)	8	130
	성 심 (신 평)	6	100
	순 심 (왜 관)	6	100
	신 성 (성 주)	6	87
	청 도 (청 도)	7	80
	평 리 (평 리)	6	98
	효 성 (대 덕)	5	120
	해 성 (성베네딕도수녀원)	2	25
	소 계	136	2,301
특수학교	가 톨 릭 신 학 원	20	112
총	계	1,504	30,620

(3) 병 원

구분 단 체 명	의 사	간 호 사	종 사 자	진료	
				침 대 수	전체수용능력
가 톨 릭 대 학 병 원	171	206	344	462	462
가 톨 릭 병 원 성 주 분 원	1	1	5		
가 톨 릭 피 부 과 의 원	7	14	58	54	60
논 공 가 톨 릭 병 원	2	17	28	75	110
대 구 정 신 병 원	14	32	59	295	315
파 티 마 병 원	174	308	293	524	524
포 향 성 모 병 원	81	155	305	407	407
합 계	450	733	1,092	1,817	1,878

(4) 사회복지기관

분 류	기 관 명	종 사 자	수 용 자
아 동 복 지	가 톨 릭 소 화 어 린 이 집	29	305
	성 심 복 지 센 타	10	194
	S O S 어 린 이 마 을	44	149
	백 합 보 유 원	11	50
	백 합 어 린 이 집	9	110
	요 한 바 오 로 2 세 어 린 이 집	26	35
교육 행려 자 복지	가 톨 릭 여 자 기 술 원	6	30
	새 얼 학 교	17	31
	들 꽃 마 을	17	123
	나 자 랫 집	15	317
	대 구 시 립 회 망 원	56	1,697
	빠 스 카 의 집	2	6
노 인 복 지	다 윗 효 도 원	4	18
	분 도 노 인 마 을	13	85
	성 가 양 로 원	13	58
	성 심 양 로 원	10	53
	성 모 자 애 원 (요 셉 의 집)	7	42

第6章 宗 教

분 류	기 관 명	종 사 자	수 용 자
노 인 복 지	성 마 오 로 안 나 의 집	16	10
	안 나 의 집 (베 네 덕 도)	1	2
	성 가 요 양 원 (안 심 원)	10	57
	엘 리 사 벳 의 집	4	18
결 핵 요양원	대 구 결 핵 요 양 원	6	31
	밀 알 의 집	4	14
	보 금 자 리	1	8
장애 자 복지	국 제 재 활 원	26	79
	일 심 재 활 원	32	156
	성 모 자 애 원	13	38
	(마 리 아 의 집)		
청소년 복지	성 바 오 로 청 소 년 의 집	8	21
무료 급식	요 셉 의 집	10	360
	인 성 의 집	2	337
	성 심 복 지 원	23	
복지관	본 동 중 합, 월 성 제 2 중 합	36	
나환자 정착촌	6 개 정 착 마 을	74	616

(5) 홍보기관

홍 보 기 관	종 사 자 수
가 톨 릭 신 문 사	46
계 산 서 원	5
매 일 신 문 사	473
분 도 출 판 사	19
분 도 인 쇄 소	43
대 건 출 판 사	11
성 바 오 로 서 원	9
시 청 각 종 교 교 육 연 구 회	5
월 간 “빛”	6
효 성 인 쇄 소	12
합 계	629

(6) 피정과 교육센터

기 관 명	종 자 사 주	수 용 능 력(명)
가 톨 릭 근 로 자 회 관	9	
영 남 노 동 교 육 원		
가 톨 릭 문 화 관	5	
구 미 가 톨 릭 근 로 자 센 터	4	
가 톨 릭 목 상 의 집	4	50
가 톨 릭 여 성 교 육 관	2	100
성 바 오 로 안 나 의 집	14	50
성 베 네 디 도 피 정 의 집	7	83
청 소 년 교 육 원	4	120
S O S 피 정 의 집	2	80
한 티 피 정 의 집	13	120
기 도 의 집	7	50
합 계	63	653

(7) 교구내 수도단체

성 별	단 체 명	사 제	수사 및 수녀	총 계
남 자	성 베네딕도 왜관 대수도원	26	75	101
	콘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5	8	13
	천주성삼 성직 수도회 분원	1	4	5
	소 계	32	87	119
여 자	그리스도 왕 선교 수녀회 대구분원	0	5	5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청원소)	0	37	37
	대구 가르멜 수녀회	0	22	22
	동정 성모회 분원	0	6	6
	성모 성심 수녀회 분원	0	34	34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0	452	452
	성 바오로의 딸 수도회 분원	0	9	9
	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분원	0	9	9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분원	0	4	4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분원	0	10	10

第6章 宗 教

성 별	단 체 명	사 제	수사 및 수녀	총 계
여	예수 성심 시녀회	0	333	333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분원	0	3	3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분원	0	12	12
	인보성체 수도회 분원	0	9	9
	천주의 습리 수녀회 분원	0	10	10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0	234	234
자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분원	0	5	5
	한국 순교여자 사도회(재속회)	0	15	15
	노틀담 수녀회	0	6	6
	성모영보 수녀회	0	7	7
	아시시성프란시스꼬전교수녀회	0	3	3
총	계	32	1,312	1,344

(8) 신심 및 액션단계

단 체 명	회 원 수			단 체 명	회 원 수		
	남	여	계		남	여	계
가르멜 재속 수도회	13	259	272	신심단체 소계(14)	14,639	40,370	55,009
MBW(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	9	2	11	가톨릭스카우트 지구연합회	139	73	212
꾸르실료('93년 수료자)	290	295	585	간호사연합회		308	308
레지오마리아	8,678	24,358	33,036	경북도청 가톨릭신우회	71	19	90
M.E('93년 수료자)	169	169	338	고등부 쉼 연합회	189	214	403
선택('93년 수료자)	11	13	24	경북체신청 가톨릭신우회	49	29	78
성령쇄신봉사회	3,396	9,365	12,761	공소후원회	5	150	155
성모의 기사회	753	1,504	2,257	교도소후원회	35	1,265	1,300
빠스까 성서모임	76	178	254	군중후원회	423	702	1,125
성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50	200	250	노동장년회	33	16	49
바오로 성서모임		200	200	노동청년회	8	3	11
휘폴라레	672	1,166	1,838	농아선교회	46	34	80
어버이 성서모임	314	787	1,101	대구시청 가톨릭신우회	217	94	311
푸른군대 대구지부	208	1,874	2,082	대구지방국세청 가톨릭신우회	47	25	72

단 체 명	회 원 수			단 체 명	회 원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대학생협의회	110	330	440	정의평화위원회	15	3	18
대구가톨릭문우회	23	22	45	종교음악연구소	5	46	51
맹인선교회	41	9	50	주일학교 교장회	35	5	40
미술인협회	21	21	42	가톨릭학술원	370	95	465
미바회	333	814	1,147	중등여교사회		70	70
미용인회		75	75	가톨릭체육인협회	43	8	51
법조인회	103	24	127	초등교원 사도직업의회	61	127	188
실업인회	24		24	통신공사 슬퍼연합회	122	123	245
약사회	80	100	180	조폐공사 성우회	29	21	50
언론인회 대구클럽	32	4	36	한·중 천주교 친선협회	8	21	29
여성연합회		185	185	대구은행 가톨릭신우회	154	133	287
운전기사 사도회	183	2	185	영남의료원 가톨릭신우회	23	42	65
유아교육협의회		64	64	가톨릭여성합창단		80	80
의사회		30	30	휴양 및 은퇴사제 후원회		22	22
음악인협회	18	22	40	사제양성 후원회	7	4	11
교구 사회복지회	488	271	759	베리마스 장학회	50	280	330
전교 수녀 연합회		170	170	액선단체 소계(47)	3,706	6,158	9,864
전력인 신심회	66	3	69	총 계 (61)	18,345	46,528	64,873

천주교대구대교구, 《1993년도 교세통계표》1994.

第3節 基督教(改新教)

I. 黎明期

1. 개신교의 탄생

로마 제국에 의해 약 3백년간 박해를 받아오던 기독교는 4세기 초엽,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후 급속도로 발전·팽창했다.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것은 다행한 일이나 교

세가 급격히 팽창 하다보니 부작용도 따랐다.

敎皇제도가 생기고 교황권이 지나치게 비대화 되어 국왕의 권위조차 억누를 정도가 되자 기독교는 내부에서 부패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전횡과 사제들의 부패는 사람들의 새로운 원망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부패에 깊은 피의를 느낀 마틴루터(Martin Luther) 신부는 1517년 95개조항의 신앙 고백과 반박문을 발표, 기독교의 잘못을 공박했다. 그 다음해에는 유명한 「釋明書」를 공포, 기독교의 개혁을 주장했다..

로마카톨릭 교회는 루터신부를 파문했으나 스위스의 쾰링글리(Zwingli), 프랑스의 요한 칼빈(J.Calvin)등 신학자들이 교회 개혁에 동조하고 나섰고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하여 창설된 새 교파를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 불렀으니 로마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항의(Protest)한다는 뜻이다. 이후 기존의 기독교 즉 로마카톨릭을 천주교 또는 구교라 부르고 프로테스탄트를 개신(혁)교 또는 신교라 부르기 시작했다.

개신교의 원리는 카톨릭에 비해 다음 몇가지 사항이 다르다. 신자들에게 많은 제약을 가했던 종전에 교회법을 폐지하고 聖事는 성찬과 세례 두가지로 줄였다. 교회법 폐지에 따라 司祭중심의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회는 신도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 모임이 되었다.

개신교의 핵심사상인 萬人司祭의 원리(신자는 누구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원리)에 입각,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종교적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없고 교회는 목사와 신도 대표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교회운영은 그 사회의 전통과 선택에 따라 장로제도나 감독제도, 회중제도를 택할 수 있게 됐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각기 독립과 자유를 보장했다. 이 모든것보다 더 중요한 공통적 원리는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즉 카톨릭이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을 중시한데 비해 개신교는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어 교회의 전통이나 의식은 그 하위 개념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카톨릭이 사제만 성경을 읽고 가르칠수 있게 한데 비해 개신교는 누구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다. 이런 원리에 의해 개신교는 성경중심의 종교가 되었고 각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기 신앙생활을 추구했다.

이러한 개신교의 원리는 신앙을 같이하는 동지들간의 자유로운 결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새로운 교파가 많이 생겨 나게 됐다.

2. 개신교의 한국 전래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전래된 해는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1784년으로 간주하나 개신교가 공식 전래된 해는 알렌의사가 입국한 1884년으로 잡는다.

그러나 1884년 이전에도 개인적, 비공식적, 산발적인 선교가 있었고 이것은 본격 선교의 문을 열기위한 개척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을 찾은 최초의 개신교인은 화란인 벨트브레(J.J Weltevree 한국명 朴燕)였다.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동료 두사람과 함께 동해안에 표착, 慶州에 들어온 것이 1627년이였다.

세사람은 한국에 영주했고, 동료 두사람은 병자호란때 출전 했다가 전사했으나 벨트브레는 이름까지 朴燕으로 바꾸고 한국여성과 결혼 1남1녀를 두었다.

병법에 밝은데다 지식이 높고 언동이 道人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를 한국교회사를 정리한 金良善목사는 개신교 신자라고 본다.¹⁸⁹⁾

1653년 8월 15일 역시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한 화란인 하멜(H, Hamel)도 개신교 신자였다.

일행과 함께 14년간 우리나라에서 역류생활 하다 본국으로 탈출한 하멜은 자신이 장로교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귀국후 그가 쓴 「하멜표류기」는 은둔국 한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책이 되었다.

표류기에 보면 하멜은 제주도를 위시하여 여수, 순천, 남원, 서울 등지를 두루 돌아다녔고 제주목사 이원진으로 부터 받은 호의를 고맙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후 화란선교회 소속 구출라프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된것도 하멜표류기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1816년 한국 서해안 해도작성·임무를 띄고 리라호를 끌고 한국에 온 바실 홀(BasillHall)함장과 알세스트호 함장 맥스웰함장도 개신교인이었다.

맥스웰과 홀 선장은 1816년 9월4일 庇仁灣 馬梁鎭 앞바다에 정박했고 검문하기위해 알세스트호에 오는 僉使 趙大福에게 영어 성경을 조정에 전달해 달라면서 주었다. 趙첨사가 받은

189) 金良善, 《한국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1980, p.37.

성경은 조정에 전달되었고 비록 외국어로 쓰여진 것이었으나 이것은 개신교 성경이 한국에 들어온 효시다.¹⁹⁰⁾

위의 네 사람은 한국을 스쳐 지나간 정도의 개신교신자였으나 1832년 7월 17일 황해도 앞 바다 백령도에 상륙한 칼 구출라프(K. Guzlaff, 한국명 郭實獵)목사는 한국 선교를 위해 일부러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다. 백령도에 도착한 구출라프 목사는 군산, 홍주, 古代島, 安港등을 향해하며 가는곳마다 한문 성경과 의약품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또 감자 종자를 나누어 주고 감자 재배법을 가르쳤으며 洪州목사의 서생 梁氏의 도움을 받아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 하기도 했다.

그가 서해안 일대에서 전도한것은 40여일에 불과했지만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한것등은 한국 기독교 전래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⁹¹⁾

구출라프 목사가 40여일간의 서해안 전도를 마치고 돌아간 33년 뒤인 1866년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왔고 그는 한국 개신교사상 첫 순교자가 됐다.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사가 된 토마스(R.J Thomas 한국명 崔蘭軒) 목사는 1863년 12월부터 중국상해에서 선교한 중국 선교사였으나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1865년 9월 4일 황해도 창린도 자라리에 도착했다.

토마스 목사는 웅진등 해안지방에서 두달동안 전도하다가 일단 중국으로 되돌아가 갔다. 1866년 6월 토마스 목사는 미국 상선 제너럴셔면호를 타고 다시 한국을 향했다.

한국 지리에 어두운 셔면호선원들은 대동강을 한강으로 오인하여 내륙 깊숙히 들어왔다. 셔면호가 평양 만경대에 도착하자 토마스 목사는 동리에 들어가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때 낮선 배의 침략에 놀란 병졸들과 군중은 셔면호를 火攻, 셔면호는 완전히 불타 버렸고 토마스 목사와 선원들은 포로가 됐다. 이때는 쇄국정책이 절정에 이른 때라 토마스목사는 사형을 선고 받고 羊角島옆 쪽섬에서 참수 되었으니 1866년 9월 1일 저녁 무렵이었다.

토마스 목사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병졸에게 성경을 주며 전도 했는데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친 朴春權은 성경을 읽고 회개, 1899년 세례를 받고 평양의 초대교인이 되었다.¹⁹²⁾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대동강변에는 1932년 2월 토마스의 첫 글자인 T자형 기념관이 세워

190) 《한국기독교사연구》, p.40.

191) 金光洙,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기독교문사, 1978, p.23.

192)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1928, p.57.

졌고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개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뒤에도 한국 선교를 위한 중국등 한국 밖에서의 선교활동은 꾸준히 전개되었고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高麗門 선교다.

고려문(Korean Gate)은 柵門이라고도 불린 곳으로 한국의 북쪽 국경도시인 義州에서 압록강을 건너 약 120리 지점에 있던 국제 교역지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을때 외국의 신학문, 신사조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국의 뜻있는 사람들은 국외로 빠져나갔고 고려문은 이들의 집합처였다.

고려문에는 춘추로 교역시장이 열려 중국인, 한국인과 서양인들이 몰려들었다. 국제도시였던 것이다.

이때 스코틀랜드 자유일치교회 선교사로 1872년 이후 만주의 우장과 봉천지방에 선교사로 와있던 로스(J.Ross 중국명 羅約翰)목사와 그의 매부 매킨타이어목사는 고려문에 한국사람이 많이 모이는것을 알고 이곳에 와서 한국선교를 위한 선교활동을 폈다.

1874년 이들은 義州에서 이곳으로 건너온 白鴻俊, 李應贊, 李成夏, 金鎮基 등에 청년을 만나 서양문명을 소개하는 한편 이들에게서 한국말을 배웠다.

이렇게 같이 생활한지 2년만에 네 청년은 모두 개신교신자가 되어 1876년 매킨타이어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4명이 세례를 받은 때는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효시로 삼는 알렌의 사의 입국(1884년)보다 8년이나 앞선때이고 한국의 개신교를 自生教會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유래한다.

네 청년이 입교하자 로스목사는 이들과 함께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1878년 역시 의주 청년인 徐相崙이 찾아와 세례를 받고 성경번역 작업에 동참했다.

이리하여 1887년 신약성경을 완전 번역하여 《예수성경전서》를 출판했으니 최초의 한글성경이다. 이 성경은 로스역본(Ross Version)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이 오랜 쇄국정책을 거두고 문호를 개방하는 날이왔다.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은것을 시작으로 다음해에는 한영수호조약, 1886년에는 한불수호조약을 맺었고 이 수호조약에 따라 외국인도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게 되자 선교사들이 다투어 입국,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다.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미국북장로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상해에 와있던 알렌(H.N Allen, 安連)이다. 의사였던 알렌은 1884년 9월 20일 인천에 도착, 쇄국정책이 걷힌 한국에

최초로 발을 디딘 외국선교사가 됐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선교의 자유까지는 없었으므로 알렌은 미국 영사관의 공의신분이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사건을 시발로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이때 개화파의 칼에 맞은 閔泳翊이 중상을 입었으나 알렌의 치료로 완쾌 됐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알렌은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고 고종의 어의로 임명 받았다. 알렌은 이러한 궁중과의 친분을 십분 활용, 선교에 열을 올렸고 廣惠院이란 병원을 설립했는데 이 광혜원이 오늘의 연세대병원이다.

알렌의 뒤를 이어 들어온 선교사가 미국복장로회의 언더우드(H.G. Underwood 元杜尤)와 미국감리회의 어펜셀러(H.G. Appenzeller 阿扁薛羅)였다.

미국계 선교사 외에 호주장로교회의 데이비스(J.H. Davies)와 영국 성공회의 코오프(C.J. Corfe), 벤슨(Benson) 및 캐나다장로교회 선교사, 미국 안식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나 주류는 미국 선교사들이었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는 미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개신교는 카톨릭과 달리 정식 국교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邪教視 당할 위험이 없었고 확고한 선교정책에 따라 선교활동을 벌였음으로 급속한 발전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기독교라하면 개신교를 지칭하는 것이 되고 카톨릭은 카톨릭이나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1882년 이후 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와 각 교파별로 전교에 착수했으나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대구·경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장로교의 비중과 활동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구의 개신교 전래과정은 장로교의 그것을 중심으로 고찰코자 한다.

3. 개신교의 대구 전래

대구에 개신교가 전래된 것은 1893년 4월 22일이고,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는 베어드(William M Baird, 한국명 裴偉良)다.

미국 북장로회선교부에 소속된 베어드선교사는 부인 안니 베어드와 함께 고종 27년(1890년)말 부산에 도착하여 선교를 시작했다.

부산을 거점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베어드선교사는 경상북도에도 선교하기 위해 초도순시길에 올랐다.

徐景祚전도사와 박재용이란 소년 및 마부 두사람을 데리고 말을 타고 육로로 밀양, 청도를

거쳐 대구에 도착한 것이 1893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경이었다.¹⁹³⁾

일행은 대구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25일 동명을 거쳐 상주, 안동지방을 향해 떠났다. 종로에 임시 숙소를 정한 이들은 대구에 머무는 동안 때마침 열린 약령시를 구경하고 사람들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지를 나눠 주었다.

4월 17일에서 5월 20일까지의 한달이 조금넘는 경북일원 전도여행결과 베어드는 대구가 경북지방 선교의 중심지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①대구가 지리적으로 경북지방의 중심이고, ②인구가 많고, ③부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고, ④낙동강을 통해 선교본부가 있는 부산과의 왕래가 용이하고 ⑤도청소재지가 있는 곳이라 정치적 사회적 비중이 높고 ⑥약령시가 있어 상업의 중심지라는 사실 등이었다.¹⁹⁴⁾

부산선교본부로 돌아갔던 베어드는 2년뒤인 1895년 12월 다시 대구로 올라와 대구선교거점으로 쓸 땅과 건물을 물색, 계약은 이듬해 1월에 했다. 베어드가 땅과 건물을 물색한 것은 부산에 있던 북장로선교회가 대구에 선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때 매입한 건물이 대구성안 남문 근처에 있던 鄭完植소유의 대지 420평과 그 위에 지은 초가 5채, 기와집 4채로 대금을 그때 돈 435원50전이였다. 미국돈으로는 217불76센트였다.¹⁹⁵⁾ 베어드는 이 집을 수리한 뒤 1896년 4월 부인과 생후 1년반 되는 아들 존(John)을 데리고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왔다.

이들이 대구로 이사오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중에는 대문을 마구 밀치고 마당에 들어오기도 하고 문구멍을 뚫고 방안을 들여다 보는 사람도 있었다.

베어드 부인은 겹이나 외출할 때는 가마를 타고 다녔고 가까운 곳에 갈때는 꼭 얼굴을 가리우는 처네(장옷)를 쓰고 다녔다고 일기에 쓰여 있다.

베어드는 189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선교사 연차총회에서 서울지역 교육담당 고문으로 임명받았다. 그래서 베어드는 대구 선교 업무를 그의 처남인 아담스에게 인계했고 대구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개신교의 기반을 닦은 것은 이 아담스 선교사다.

대구 선교업무를 인계받은 아담스(James E. Adams, 한국명 安義窩)는 1894년 5월 인디애나주·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북장로선교부 한국주재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아담스 선교사는 1895년 5월 29일 아내와 생후 3개월된 장남(안두화목사)을 데리고 부산에

193) Richard M.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a profile*, California, 1968, pp.30~38.

194) Richard M. Baird 앞의 책, pp.55~56.

195) Richard M. Baird 앞의 책, p.56.

도착, 부산선교부에서 2년간 한국어를 익혔다.

아담스가 베어드의 뒤를 이어 정식으로 대구에 부임한 것은 광무 1년(1897년) 11월 1일이었다. 아담스는 부인(Nellie Dick)과 두 아들 그리고 金基源조사와 함께 대구에 왔다.

이 해 12월에는 의사 존슨(Johnson, 한국명 張仁車)이 부인(Edith parker)과 함께 대구에 왔고 이들 두 가족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존슨은 濟衆院이란 병원을 세웠는데 이 제중원이 오늘날 동산병원의 전신이다.

아담스 선교사일가, 존슨부부, 김기원조사 등이 남문안 선교기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교회이름은 「대구읍교회」였고 오늘날 대구제일교회의 첫 이름이다.

대구읍교회, 남문(안)교회, 남성정교회 등으로 불리던 대구제일교회의 창립교인은 아담스 가족, 존슨가족, 학습교인 徐子明, 鄭完植 등 7명이었다.¹⁹⁶⁾

교회가 설립된 이듬해(1899년) 9월 브루엔(H.M. Bruen 한국명 傅海利) 선교사가, 11월에는 사보담(R.H. Sidebotham 한국명 史利秋)선교사가 와서 대구제일교회는 선교사 3인, 의사 1인, 세례교인 1인(徐子明), 학습교인 9인 등 25명으로 교인수가 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광무 4년(1900) 1월에는 당회를 확대 조직했는데 당회장 아담스선교사, 서기 브루엘선교사, 조사 김기원, 領袖 金德卿, 집사 徐子明, 서성호 등이었다.¹⁹⁷⁾

대구에 교회를 세운 그들은 선교회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의료사업, 교육사업을 선교사업과 동시에 추진했다. 광무 2년(1898) 10월 1일 제일교회 구내에 제중원을 열고 의료선교사 존슨이 원장으로 취임했다.

제중원은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방 최초의 서양의료 기관으로 그뒤 동산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구시 동산동 현 동산병원 자리로 옮겼다.

아담스 선교사는 신교육을 통해 복음사업을 펴기로 계획을 세우고 1900년 당시 제일교회 대문채 집을 校舍로 정해 大南남자소학교를 열었다. 그리고 브루엘선교사 부인 마르타브루엔(傅馬太)여사는 같은 제일교회 구내에 信明여자소학교를 시작했다.

이 두학교는 광무 7년(1902) 旧韓國,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정식학교가 되었으니 대구경북지역 신교육의 효시다.¹⁹⁸⁾

196) 대구제일교회, 《대구제일교회 90년사》, 1983, p.63.

197) 《대구제일교회 90년사》, p.64.

198) 계성중고등학교, 《계성80년사》, 1989, p.56.

두 학교는 1914년 시설을 확장하여 남자부는 喜瑗학교, 여자부는 順道학교라 이름을 바꾸고 1922년 제일교회 옆 수동100번지(현 회도아파트자리)에 새 교사를 신축, 이전했다.

그후 1924년 學制를 변경, 6년제 소학교로 바꾸면서 두 학교를 통합 喜道보통학교라 부르고 제일교회 金宜均장로가 교장에 취임했다.

아담스선교사는 광무 10년(1906) 啓聖중학교를 브루엔여사는 信明여자중학교를 각각 설립, 중등교육의 문을 열었다.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초·중등학교가 세워지자 경북일대에 산재한 교회들이 다투어 학교를 설립 1902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사이에 39개 교회가 학교를 세우게 됐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자 교계는 사회교육 및 윤리학립을 위해 1908년에 YMCA를, 1923년에는 YWCA를 각각 창설, 대구 경북지방 사회운동의 초석이 되게 했다.

기독교의 의료, 교육 등 여러 사업은 기독교에 대해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일반대중에게 친근감을 심는 계기가 됐고 이들이 속속기독교를 믿게 됨에 따라 교세는 급속도로 확장됐다.

4. 개신교의 확장

1903년 元山에서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열린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물결은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하여 1907년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사의 일대 전환점을 이루게 됐다. 즉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중앙) 교회에서 모인 미국 남·북장로교회와 캐나다 및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예수교장로회 獨老會를 조직, 한국교회가 독립된 기구로 역사적인 출발을 한 것이다.

독노회는 전국교회를 관할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노회 회집이 어려움으로 경기도, 충청도, 평북도, 평남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등 각 지방에 7개 대리회를 설치하여 노회의 위임사항을 처리케 했다.¹⁹⁹⁾

한국교회가 독노회를 창립 독립하는것에 발맞추어 대구·경북 교세도 크게 성장했으니 제일교회는 1907년 7월 새 건물 건축에 착공해 이듬해 亞鉛단층 140평의 넓은 교회를 준공했다. 교인수가 더욱 늘어나자 제일교회는 다시 새 건물을 짓기로 하고 1933년 4월 8일 착공, 다섯 달 뒤인 9월말 붉은 벽돌2층, 건평 448평의 현대식 예배당을 준공했다.

199)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사》 1977, p.17.

신축 건물은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건물로 경향 각지에서 구경오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교회는 더욱 빠르게 성장, 1910년 10월 25일 부터 일주일간 부흥회를 열어 대구교계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 교회안에 전도실을 설치, 전도의 중심기지가 마련됐다. 1911년 3월 15일에는 여전도회가 처음으로 조직됐다.

이후 제일교회는 매 주일마다 천여명의 신자가 모이는 큰 교회로 발전했고 다음해인 1912년에는 이때까지 외국인 선교사가 중심이 되었던 대구교회에 한국인 洪承漢 목사가 최초로 취임했다.

교회규모가 점점 커지고 신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배당의 수용능력이 모자라게 되자 교인의 편리도모와 교회 확장을 위해 分會를 두기로 결정, 1912년 3월 2일 최초로 범어교회가 분립했다.

이어 같은해 8월 20일에는 신정교회(현 서문교회), 10월 30일에는 효목교회가 각각 분립했다. 1915년 7월 18일에는 남산교회가 신축되어 브루엘선교사가 교인 2백여명과 함께 분립해 예배를 보다가 같은해 9월 26일 경북노회승인을 얻어 완전히 분립하였다.

그뒤 잇따라 1919년 6월 16일 산격교회, 1921년 3월 23일 칠성교회, 1922년 4월 6일 중앙교회, 그리고 다음해 9월 19일 동인교회가 각각 분립했다.

이때 대구 시내에서는 남성(제일), 서문, 남산교회를 三處교회라 부르고 칠성, 중앙, 동인, 서남교회를 합쳐 七處교회라 불러 교계의 큰 자랑으로 여겼다.

대구의 복음은 경북 곳곳으로 번져 나갔으니 매년 수십개소 교회가 세워졌다.

안의와선교사와 서자명조사는 주로 경산, 영천, 청도 3개군을 담당, 순회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고 부해리 선교사는 김기원, 김영채, 이희봉, 김호준 조사와 함께 선산, 군위, 김천, 칠곡 4개군을, 명의와선교사는 김호준, 서성오조사와 함께 고령, 영일, 경주, 청송지방을, 이도만선교사는 김성삼조사와 함께 군위, 의성, 선산 지방에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다.

이때 세워진 교회는 다음표와 같다.

〈表 6-1〉 경북지역의 교회설립상황(1901~1912)

연 도	교 회 명	설 립 자	조 사	영 수	집 사	비 고
1901	청도 풍각교회	안 의 와		김 양 석	조 사 녀	
	김천 송천교회	부 해 리	박 명 원			
	선산 죽원교회	부 해 리	이 회 봉	노 사 진	최 대 익	
	선산 괴평교회	부 해 리	김 기 원	김 영 채	김 병 조	
	성주 대흥교회	부 해 리	서 자 명			
	영일 괴동교회	박 군 현		박 천 필	안 중 필	
1902	선산 지평교회	부 해 리	김 영 채	김 의 전	김 성 도	
	군위 봉황교회	부 해 리	김 영 채	김 전 겸	고 두 섭	
	고령 원송교회	명 의 와	김 호 준	정 재 현	서 홍 현	
	경산 사월교회	안 의 와	박 덕 일	한 경 선	김 명 근	
1903	선산 상모교회	부 해 리	김 기 원	정 점 백	김 명 언	
	선산 도산교회	부 해 리	김 영 채	노 점 록	김 칠 언	
	김천 월명교회	부 해 리	김 호 준	신 한 조	성 태 준	
	고령 안림교회	부 해 리	김 호 준			
1904	군위 내리교회	어 도 만	김 성 살	최 만 화	권 장 천	
	경산 봉회교회	안 의 와		김 상 욱		
	칠곡 진평교회	부 해 리	김 기 원			
	칠곡 왜관교회	부 해 리	김 영 채	김 원 영	손 량 언	
	선산 노상교회	부 해 리	이 회 봉	노 석 원	윤 원 정	
1905	선산 오가교회	부 해 리	이 회 봉	조 영 무		
	김천 류성교회	부 해 리	김 호 준	박 영 조	최 도 언	
	김천 판기교회	부 해 리	김 호 준	박 경 일	김 화 일	
	김천 광기교회	부 해 리	이 재 욱	김 상 국	장 성 수	
	선산 습례교회	부 해 리	이 회 봉	박 해 봉	김 문 선	
	경산 김곡교회	맹 의 와	서 자 명	석 재 욱	석 재 문	
	경산 전지교회	안 의 와	서 자 명	송 남 극	김 응 두	
	경산 송림교회	안 의 와	서 성 오	김 강 능	김 형 원	

연 도	교 회 명	설 립 자	조 사	영 수	집 사	비 고
1905	경 산 신 기 교 회	안 의 와	황 경 선			
	칠곡 읍내 교 회	어 도 만	김 성 삼	김 태 하	이 종 태	
	칠곡 승오 교 회	부 해 리	이 재 욱	정 재 봉	오 낙 세	
	칠곡 황학 교 회	부 해 리	김 영 채	이 치 화	정 군 선	
	의 성 실업 교 회	이 도 만	김 성 삼	조 원 수	조 칠 성	
	고령 간문 교 회	부 해 리	김 호 준			
	고령 개포 교 회	안 의 와	김 호 준	이 두 천	손 한 주	
	고령 사부 교 회	맹 의 와	김 호 준		이 인 욱	
	달성 하동 교 회	부 해 리		이 영 우	조 기 문	
	영천 평천 교 회	안 의 와	서 자 명	김 호 도	박 재 성	
	경주 장산 교 회	맹 의 와	서 성 오	장 병 호	김 용 태	
	영일 홍해 교 회	안 의 와	서 성 오	김 상 연	이 춘 욱	
	군위 매성 교 회	어 도 만	김 성 삼	김 주 욱	이 종 연	
1906	영천 명주 교 회	안 의 와	황 경 선	박 기 진	손 재 우	
	영천 동도 교 회	안 의 와		박 익 범	황 주 설	
	영천 신령 교 회	안 의 와		이 관 용	하 덕 윤	
	영천 우천 교 회	안 의 와	서 자 명	김 명 현	이 지 호	
	영천 성내 교 회	안 의 와	황 경 선	박 영 호	최 영 호	
	청도 오산 교 회	맹 의 와	김 호 준	정 경 래	김 석 홍	
	청도 서상 교 회	맹 의 와	김 호 준	최 한 창	김 기 욱	
	김천 파천 교 회	윤 상 연			최 윤 약	
	김천 대양 교 회	부 해 리	이 회 봉	김 인 배	신 학 회	
	김천 복전 교 회	부 해 리	이 회 봉	이 필 세	남 건 우	
	선산 청산 교 회	부 해 리	김 영 채	소 시 영	소 독 식	
	영일 대도 교 회	맹 의 와	서 성 오		김 난 수	
	고령 객기 교 회	맹 의 와	김 호 준	김 재 판	유 봉 서	
	고령 월산 교 회	맹 의 와	김 호 준	김 문 극	김 내 관	
	칠곡 죽전 교 회	이 도 만	김 기 원	채 경 식	송 시 약	
	의성 매곡 교 회	이 도 만	김 성 삼	김 재 윤	김 재 고	

연 도	교 회 명	설 립 자	조 사	영 수	집 사	비 고
1907	영 일 괴 동 교 회	맹 의 와	서 성 오	만 문 찬	박 천 필	
	군 위 상 곡 교 회	어 도 만	김 성 삼	김 호 도	이 진 호	
	군 위 장 군 교 회	어 도 만	김 성 삼	하 주 옥	하 현 옥	
	고 령 평 리 교 회	맹 의 와	김 호 준	이 경 화	유 봉 수	
	고 령 산 당 교 회	맹 의 와				
	의 성 체 오 교 회	어 도 만	박 영 화	정 규 호		
	달 성 무 동 교 회	맹 의 와	정 흥 태	손 양 언	김 명 조	
	달 성 조 암 교 회	안의와부		이 교 맥	조 회 윤	
	성 주 경 산 교 회	행 리	서 자 명	이 벽 계		
	군 위 평 리 교 회	맹 의 와	김 준 호	이 정 화	정 영 수	
1908	청 송 구 산 교 회	맹 의 와		조 성 만	강 원 백	
	영 천 부 현 교 회	어 도 만	이 사 윤	최 만 일	이 재 복	
	청 도 삼 신 교 회	맹 의 와	경 용 호	서 경 조	홍 사 룡	
	김 천 인 의 교 회	부 해 리	이 회 봉	조 재 홍	조 득 환	
	김 천 용 지 교 회	부 해 리	유 만 순		김 판 희	
1907	영 린 조 곡 교 회	부 해 리	서 자 명	이 재 채	최 진 규	
	김 천 장 내 교 회	부 해 리	이 재 옥	이 기 만	이 홍 주	
	김 천 중 감 교 회	부 해 리	이 재 옥	이 계 춘	이 종 원	
	영 일 대 곡 교 회	맹 의 와	서 성 오	정 운 오	정 민 조	
	영 은 포 향 교 회	맹 의 와	황 경 선	이 찬 유	남 문 오	
	의 성 효 선 교 회	어 도 만	김 성 삼	박 윤 문	박 달 표	
1909	경 주 내 칠 교 회	맹 의 와		황 명 숙	김 호 범	
	청 도 칠 곡 교 회	맹 의 와	김 용 호	이 문 관	정 인 술	
	김 천 동 부 교 회	부 해 리	김 영 채	김 종 업	금 춘 실	
	선 산 상 림 교 회	어 도 만	김 기 원	유 택 준		
	의 성 산 운 교 회	어 도 만	박 영 조	이 기 재	박 재 화	
	의 성 삼 산 교 회	어 도 만	박 영 조	정 치 순	김 준 현	
	경 산 당 곡 교 회	안 의 와		한 기 원		
	경 산 삼 복 교 회	안 의 와	정 재 순	서 재 순	이 종 성	
	경 산 북 사 교 회	안 의 와	정 재 순	한 기 원	백 남 채	
	군 위 매 성 교 회	어 도 만		김 주 옥		
1909	달 성 침 산 교 회	안 의 와	박 덕 일	박 경 목	박 홍 관	남성정교회에서 分立
	달 성 신 당 교 회	안 의 와	전 영 호	김 문 진		남성정교회에서 分立

연 도	교 회 명	설 립 자	조 사	영 수	집 사	비 고
1910	영 천 자 천 교 회 의 성 양 지 교 회 의 성 청 로 교 회 달 성 범 어 교 회 달 성 설 화 교 회 상 주 서 정 교 회 울 룡 도 평 리 교 회	어 도 만 권 일 두 권 일 두 안 의 와 안 의 와 부 해 리	곽 해 문 곽 해 문 박 영 화	김 덕 수 김 덕 수 김 병 규 유 병 기 조 치 옥 송 영 근 정 윤 석	현 수 익 현 수 익 김 영 근 배 중 호 배 학 경 최 대 익 박 춘 목	남성정교회에서 分立
1911	김 천 송 곡 교 회 선 산 백 자 교 회 영 일 칠 포 교 회 군 위 선 곡 교 회 의 성 도 동 교 회 칠 곡 남 울 교 회 칠 곡 옥 계 교 회 칠 곡 청 평 교 회	부 해 리 부 해 리 맹 의 와 권 일 두 맹 의 와 권 일 두 권 일 두 권 일 두	이 재 옥 이 문 주 황 경 선 박 제 화 박 영 화 이 사 윤 김 석 삼	김 시 윤 김 원 주 김 홍 규 박 길 필 김 지 화 최 지 근 박 용 화 황 현 백	진 천 진 최 석 우 장 원 식 박 기 후 김 천 득 양 문 선 양 갑 준 황 태 백	남성정교회에서 分立
1912	경 산 박 사 교 회 영 일 방 산 교 회 대 구 신 정 교 회	권 일 두 안 의 와 안 의 와	허 일 금 석 호 정 재 순	김 상 원 오 상 문 서 자 명	한 기 준 오 재 근 이 쾌 영	남성정교회에서 分立
1913	김 천 봉 천 교 회 영 일 성 법 교 회	부 해 리 맹 의 와	정 윤 삼 김 순 니	김 석 만 박 복 장	오 순 남 권 상 용	

※ 경북노회지역 이외 교회가 들어 있는것은 선교사의 활동지역 전체를 참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5. 교육·의료 활동

개신교는 우리나라 곳곳에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 우리나라 신교육, 신의료의 구심체가 되었는데 대구교계의 교육, 의료 활동은 어느곳보다 활발했다.

1902년 제일예배당 대문채를 교사로 문을연 大南남자소학교, 信明여자소학교는 지역 국민학교의 효시였고 아담스목사가 세운 啓聖중학교와 브루엘선교사 부인이 세운 信明여자중학교는 이 지역 중등교육의 효시다.

두 학교를 시발로 대구와 경북 도내 여러곳에 잇달아 학교가 설립되었다. 안의와 선교사는

경북 각처 교회에 4백원씩 보조해 학교를 세우게했고 각 교회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소 학교를 설립했다. 1902년부터 1910년 사이에 설립된 학교는 다음과 같다.²⁰⁰⁾

〈表 6-2〉 신교의 설립 학교 일람표(경북지방:1902~1910)

地 名	設 立 者	學 校 名	教會設立年代	學校建立年代
大 邱	美國北長老教會宣教會	대 남 남 자 소 학 교	1902	—
大 邱	美國北長老教會宣教會	신 명 여 자 소 학 교	1902	—
金 泉 郡	松川教會	양 성 학 교	1902	1918
善 山 郡	竹院洞教會	창 성 학 교	1903	1918
善 山 郡	槐平教會	선 명 학 교	1903	—
善 山 郡	習福洞教會	永 明 學 校	1905	—
善 山 郡	路上教會	廣 成 學 校	1905	1909
慶山郡安心面	新基教會	啓 東 學 校	1905	1911
慶山郡河陽面	松西洞教會	普 晶 學 校	1906	1911
金泉郡鳳山面	柳城教會	私 塾	1906	—
漆谷郡若木面	崇島教會	普 興 學 校	1907	1909
善 山 郡	月湖教會	永 昌 學 校	1907	1915
善 山 郡	五佳洞教會	廣 明 學 校	1907	—
善 山 郡	上毛教會	私 塾	1907	1914
金 泉 郡	巴川教會	私 塾	1907	—
高靈郡開津面	開浦教會	開 浦 學 校	1907	1915
慶 山 郡	松林教會	堂 里 學 校	1907	—
漆 谷 郡	竹田教會	私 塾	1907	—
義 城 郡	實業教會	私 塾	1907	—
永 川 郡	平泉教會	基 督 養 德 學 校	1907	1912
盈德郡南亭面	長沙教會	長 沙 學 校	1908	1912
永 川 郡	新寧教會	興 和 學 校	1908	—
清道郡本一面	茶洞教會	私 塾	1908	—
金 泉 郡	月明教會	彰 聖 學 校	1908	—
金 泉 郡	柳城教會	廣 倫 學 校	1908	1915

200) 《계성80년사》. pp.58 ~ 59.

地 名	設 立 者	學 校 名	教會設立年代	學校建立年代
金 泉 郡	太陽教會	永 興 學 校	1908	1914
金 泉 郡	福田教會	基 督 明 聖 學 校	1908	—
慶 山 郡	鳳林洞教會	基 督 道 明 學 校	1908	—
慶 山 郡	東湖教會	啓 南 學 校	1908	—
慶 山 郡	田旨教會	進 新 學 校	1908	—
慶山郡慈仁面	堂谷教會	崇 德 學 校	1908	—
漆 谷 郡	眞坪教會	克 明 學 校	1908	—
漆 谷 郡	倭館教會	私 塾	1908	—
永 川 郡	牛川教會	基 督 進 道 學 校	1908	—
達 城 郡	縣內洞教會	縣 內 學 校	1908	—
金 泉 郡	東部教會	永 眞 學 校	1910	—
金 泉 郡	充基教會	光 基 學 校	1910	—
迎 日 郡	浦項教會	永 興 學 校	1910	—

참고로 1910년 2월 당시 우리나라에 세워진 종교계학교 현황과 운영주체등을 살펴보면 장로회가 세운 학교가 501개교로 가장 많았다.

운영방법은 한국인 운영 62교, 미국인 운영 412교, 영국인 운영 72교였다.

다음이 감리교가 158교를 세웠는데 한국인 운영 2교, 미국인 운영 156교, 영국 선교회 운영 4교였다.

천주교는 46교를 세웠는데 한국인 운영 21교, 프랑스인 운영 25교였고, 운영주체 미상 84교, 불교계 운영 5교였다.

위의 모든 학교에 종사하는 교사수는 1천1백16명이고 학생수는 3만3천여명이었다.²⁰¹⁾

이들 학교에 처음부터 학생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오랜 봉건사상에 젖어있던 사회분위기 속에 이른바 신학문을 전한다는 학교가 문을 열었으나 논어, 중용, 대학등 유교경전을 배우는 것만이 「학문하는 것」인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선뜻 아들 딸을 학교로 보내려 하지 않았다. 자기 자녀를 보내지 않을뿐 아니라 보내려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까지 했다. 「서양귀신이 들면 사람 망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의료선교사들의 의료활동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차츰 늘어

201)·《계성80년사》. p.57.

나고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전도와 겸손한 처신등에 대한 호감이 처음의 부정적인 시각을 물리쳐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라야 교회 예배당이나 교회부속건물을 이용한 것이고 교과과정이나 학교규칙, 교과서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대구에 최초로 세워진 중등교육기관인 啓聖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교 수칙이 있었다.

1. 수업료는 없음
2. 학비가 없는 학생은 일을 하고 그 댓가로 공부를 함
3. 학생은 학교출입을 자유롭게 함
4. 해가지면 자기 방에서 자습을 하고 밤 열시가 되면 취침
5. 등교는 오전 8시, 점심은 12시, 오후4시까지 수업
6. 각 교시는 종으로 시작과 마치는 시정을 알리기로 함.
7. 학생은 예의를 존중해야 함.
8. 학생은 술과 노름, 천한말, 음란한 책을 읽어서는 안됨
9. 병을 빙자한 결석을 금함.
10. 학교의 건물이나 교구를 아껴 써야 하고 더럽히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함.
11. 안식일을 지키고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릴 것.
12. 심신과 거처는 늘 깨끗이 함.
13. 큰 허물이 있으면 퇴학, 작은 허물은 설득과 정학으로 처리함.
14. 자퇴를 할 경우는 부모 또는 보증인이나 추천인의 승인이 있어야 함.
15. 都講(정기시험)은 한 해에 두번, 때에 따라 임시 시험을 시행하며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하는 낙제, 60점이 넘어야 급제로 함.
16. 경어를 쓰고 교장과 교직원이 모범을 보임.²⁰²⁾

학칙 2항은 가난하여 학비는 없으나 향학심과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적당한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그 보수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음을 보여준다.

자주 독립 정신을 길러주고 의뢰심을 버리게 하려는 교육적 배려를 읽을 수 있다.

202) 《계성80년사》, p.60.

II. 教會의 成長과 日帝의 彈壓

1. 慶北老會 창립과 해외선교사 파송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회이후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교회는 독노회를 조직했고 독노회를 조직한지 5년만에 교세가 더욱 늘어나 1912년 9월 1일 평양신학교에서 총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즉 목사 52명, 장로 125명, 선교사 44명등 모두 221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총회가 창설되었는데 회장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부회장 김선주, 서기 한석진, 부서기 김필수, 회계 부레이선교사, 부회계 김석창 제씨가 피선되었다. 이 총회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전국적 회합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한국교회 발전의 큰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세의 발전에 따라 1911년 12월 6일에는 慶尙老會가 釜山鎮예배당에서 소집되었다.

이 창립노회에서 초대 노회장에는 王吉志목사가 선출됐고 서기겸 회계에 洪承漢이 선임됐다. 그후 제11회 경상노회가 1916년 12월 16일 남성정예배당(현 제일교회)에서 열렸는데 이 노회에서 경상노회를 경북·경남 두 노회로 분리기로 결의했다.

선교사6명, 목사6명, 장로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된 慶北老會는 초대회장에 朴永祚, 부회장에 金永玉, 서기 金忠漢, 부서기 李萬集, 회계 鄭在淳, 제씨를 뽑았다.²⁰³⁾

경북노회 창설은 대구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이 지역 교세가 그만큼 급성장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탄탄한 교세를 갖추게된 대구경북교회는 경북노회 창립 다음해인 1917년 해외선교사를 파견한다.

대구제일교회가 洪承漢목사를 중국 산둥성 來陽縣 주재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그것이다. 다음해에는 李大榮목사를 경북 安東교회에 파견했으니 대구교회가 해외와 농촌교회에 선교사, 목사를 파송 할만큼 성장한 것이다.

1928년 三南지방을 휩쓴 대홍작으로 선교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山東省선교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했으나 대구女傳道會가 앞장서 선교기금을 마련해 선교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²⁰⁴⁾

203) 朴浣, 《실록한국기독교100년》, 제6권(부흥의장) pp.387~388.

204) 위의 책, p.387.

2. 3.1운동과 대구기독교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후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아래 들어갔을 때 한국기독교회는 신앙의 바탕위에 민족정신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씀으로써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신의 든든한 기둥이 됐다.

개신교의 전파초기에 입교한 사람들중에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외에 다음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입교한 사람이 많았다.

서민대중의 경우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탐학을 피하기 위함이고, 지식인, 관료들은 개화를 통한 救國의 방편으로 기독교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식인과 관료로는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 남궁억, 유성준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韓末의 정치적 상황에 한계를 느끼고 救國濟民의 방편으로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이 적지 않았고 이들 기독교인들에 의해 새로운 의식이 성장하게 됐다.

반봉건 개화의식이 그것이다. 이들은 남여평등론, 교육흥국론, 미신타파론등 각종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인권의 신장을 요구했다.²⁰⁵⁾

대내적으로는 반봉건운동,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운동을 추진하던 기독교인들은 독립협회, 협성회등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게 됐고 이를 못마땅히 여긴 日帝는 기회있을 때 마다 기독교를 박해했다.

대구지역 교회에 대한 일제 박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1913년에 있는 경산 仙谷교회 교인 구타 사건이다. 경산군 선곡교회 신자들은 일요일에 나오라는 부역을 거부했는데 이 때문에 교인들이 경찰에 불려나가 구타 당했다.

그러나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 기독교도에대한 일제의 종교박해가 본격화 된것은 3.1운동 이후 부터였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9년 1월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는 등 세계사가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자 주권을 잃은 약소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전환기를 자국의 독립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했고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무렵 기독교 지도자들은 해외와 국내에서 세계사의 진운에 발맞춘 항일 독립운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미주 지역에서는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등이 중국 만주지역에서는 김규식, 여운형, 선우혁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고 1919년 2월 김규식을 파리에, 여운형을 러시

205) 李萬烈, 〈한말기독교인의 민족형성과정〉 《韓國史論》 1973.

아예, 선우혁을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외의 동시적인 독립운동을 전개 하도록 주선했다.

국내에 들어온 선우혁은 평북 선천의 양전백목사, 이승훈장로, 김선주, 변린서목사등을 만나 독립운동 계획을 설명하고 기독교계의 동참을 부탁했다. 이것과는 별개로 서울에서는 YMCA와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데 합쳐 일어난 것이 3.1운동이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중 16명이 기독교신자였다.

민족대표 구성면에서 뿐 아니고 3.1운동과 관련하여 일본경찰에 체포된 사람 수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3.1운동이 끝난 뒤에 일본의 보복도 기독교에 대해 특히 가혹했다.

제암교회 학살이 대표적인 것인데 교회당 파괴 47동, 일부 파괴 27동, 손해 41동이며 1919년 6월 30일까지 투옥된 교역자만 151명이었고 일본경찰에 의해 맞아 죽은 사람이 6명이고 기독교 계통 학교 두곳이 소실되었다.²⁰⁶⁾

서울에서 3월 1일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난것은 3월 8일이였다. 이날 정오 대구의 목사, 장로를 중심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계 학교인 계성, 신명 학교 학생들과 성서학원 학생들이 이날 정오 큰시장(현 서문시장)에 모여들었고 미리 연락을 받은 대구고보(경북고), 대구농림(대구농고) 학생들도 합류했다. 군중들이 모여들자 제일교회 李萬集목사와 남산교회 김태련 조사가 소달구지 위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 했으나 군중들의 회집을 수상히 여겨 달려온 경찰이 독립선언문을 찢는 바람에 공약 3장만을 힘차게 외친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했다.

주위에 물려든 기독교인, 학생, 장꾼들이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대구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만세운동으로 이만집목사를 비롯해 김영서, 이재인, 김무생, 박재원, 신대근 등 141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재판결과 이만집 3년, 김영서, 김무생, 정재순 2년, 박재원, 권희운 1년6월, 이재인, 임봉선 1년, 신태근, 이선애 각 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불복 상고 했으나 고등법원이 기각판결, 형이 확정됐다.

구속된 사람들은 경찰의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만집은 고문 후유증으로 내내 고생했고 이재인은 손가락 사이에 나무토막을 넣고 비트는 고문을 당해 손가락이 꼬부라졌고 임봉선은 27세, 이선애는 31세에 고문 후유증으로 요절했다.²⁰⁷⁾

206) 李萬烈,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81, p.71.

207) 위의 책, p.98.

만세운동은 3월 10일에도 대구 덕산시장에서 일어났고 경북도내 여러곳으로 확산됐다. 일본경찰 통계에 의하면 경북도내에서만 90여회의 만세봉기가 일어났고 27회는 미리알고 막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람이 1천7백85명인데 이중 기독교인이 481명이었고 목사, 교사 및 부속학교 교사가 30명이나 되었다. 기독교계의 항일투쟁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고해서 좌절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됐다.

혹독한 시련과 희생으로 일제의 탄압정책의 실상을 확인한 교계는 문서출판, 독립군 양성, 독립운동자금 모집, 민족의식고취, 국제여론 환기, 청원활동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운동을 확대했다.

기독교의 항일투쟁은 대구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日帝는 교회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해갔다.

일제의 물샐틈 없는 감시와 조직적인 탄압앞에 기독교의 세력이 꺾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았으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심과 민족과 나라에 대한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고 그때까지 기독교를 白眼視 해오던 국민들도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무서운 박해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을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됐다.

이에따라 교세는 그후 계속 성장하여 경북노회는 1921년 9월 10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제10회 총회에서 安東노회 분립을 건의, 허락받아 그해 12월 10일 慶安노회가 창립되었다. 신자수와 교회수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조직회장 權燦永의 인도로 발족한 경안노회는 초대회장에 金泳玉을 뽑아 명실상부한 독립노회가 되었는데 안동노회는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지역을 관할했다.

이후에도 기독교계는 더욱 발전 1936년 6월에는 慶東노회가 분립, 영천, 경주, 영일등이 분립되어 나갔다.

1952년 6월에는 金泉 평화동교회에서 慶西노회가 창립, 분리해 나갔는데 경서노회 소속 회원수는 목사 10명, 장로 28명이었고 초대회장은 김상백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후 1954년 9월에는 의성읍교회에서 慶中노회가 창립되었는데 회원수는 목사 10명, 장로 30명이었고 초대회장은 조성암 목사가 선출됐다.

대구 제일교회에서 출발한 이 지역 기독교는 이렇게 여러 노회가 새로 창설될 정도로 급속히 성장했으나 기독교의 성장이 순탄하기만 한것은 아니었다.

대구 기독교 성장의 어려움은 日帝의 탄압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가장 컸지만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도 있었다.

그 첫 분열은 1918년에 일어나 1931년까지 14년을 끌었던 「自治파동」이다.

안의와목사가 설립하고 선교사들이 키워온 대구제일교회는 1911년 김천일목사가 최초의 한국인 목사로 시무하게 됐고 다음해 홍승한 목사가 위임목사가 됐다.

언어의 불편등이 있던 선교사 목사 보다 한국인 목사가 취임한후 제일교회는 더욱 급속한 성장을 했다.

1917년 홍승한 목사가 총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산둥성 선교사로 파송되고 1918년 1월 이만집 목사가 부임했다.

이 목사는 다음해 3월 8일 대구에서 일어난 대구 3.1운동을 주도했고 일경에 체포, 투옥됐다.

1921년 출옥한 이만집목사가 제일교회를 다시 맡고 제일교회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자들이 늘어났다.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민족의 지도자가 목사로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친근하고 믿음직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1923년 3월 18일 대구기독교 사상 가장 큰 파동이 일어났다. 제일교회 이만집목사와 남산교회 박영조 두 목사와 이들에 동조하는 교인 수백명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노회 및 교회의 지배 감독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자치선언문과 略法4條로 그들의 주장을 밝히고 경북노회를 탈퇴했다.

자치선언문과 약법4조는 다음과 같다.

대구예수교 자치선언 「30성상에 비릇 각오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진리에 속하자, 교회는 신성한 것인데 불의의 구속을 어찌 당하리오. 今我 대구교회는 저 권리를 주장하는 선교사의 정신지배를 받는 경북노회를 탈퇴하고 자치를 선언함」

略法 4條

- 1조 음모결당으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성회에서 제거 할 일
- 2조 예배시에 회석을 소란케 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교문에서 축출할 일
- 3조 교회 변동을 기회로 하여 이단을 창조하는 자들을 금할 일
- 4조 그리스도의 영화의 사업과 자유의 진리를 만방에 발휘할 일

대구 기독교에서 이러한 자치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3.1운동후의 시대적 배경 즉 민족의 주체적 자립의식이 교회에 까지 번진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시비로 번져 1931년 노회측이 교회명도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자치선언파와 갈라져 그동안 회도학교등을 전전하여 예배를 보던 老會派교인들이 1931년 11월 15일

교회를 차지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²⁰⁸⁾

제일교회의 자치선언 파동은 주동자들의 정신적 이유와는 관계없이 제일교회는 물론 초기 대구기독교계의 가장 흑독한 시련이었고 법정소송등 14년간 끌어온 양쪽의 다툼은 교회를 아끼던 사람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3. 日帝의 탄압과 교회의 수난

일본은 정치적, 외교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한 민족을 일본에 완전히 동화시키는데에 식민정책의 궁극 목표를 두었는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방해세력이 기독교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1938년 3월 조선총독부는 기독교를 무력화 시켜 끝내 교회의 문을 닫게 한다는 목표아래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치열한 자주·자립정신을 알게된 일제가 20여년간 조사연구한 끝에 세운 것이어서 매우 치밀한 것이었다.

그들이 세운 이른바 기독교 「지도대책」은 바로 기독교 말살정책이었다.

①교역자에 대한 변절강요 ②신사참배 강요 및 불응자 처벌 ③성경과 교회의 개편 및 설교 내용 사찰 ④기독교 신자 구속 ⑤사이비 또는 어용기독교 단체의 출현등이 그들이 세운 소위 「지도대책」 골자다.²⁰⁹⁾

이중에서도 신사참배는 그뒤 일제가 제정한 「종교단체법」과 함께 한국기독교를 파괴하고 수백명의 순교자를 내게한 올가미가 되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평양신학교를 폐쇄했으며 백여교회의 문을 닫았고 2천여 신도를 투옥하고 투옥자중 50여명이 순교했다.

일본은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란 이유를 내세워 기독교인도 여기 참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즉 신사는 일본 국가 유공자의 제사장으로 종교적 의미를 지닌것이 아니며 둘째로 종교의 자유는 일본제국의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사참배는 애국심의 함양과 국민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한국의 미국북장로회선교부 실행부는 1935년 12월 13일 회의를 갖고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총독부는 반대를 결정한 이 모임을 주도한 송실학교 윤산은교장과 송의여중 스노크 교장을 파면해버렸다.

208)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100회사》 1933, pp.84~86.

209) 위의 책, pp.86~89.

일본의 강경조치에 반발, 미국북장로회선교부와 남장로회선교부는 그렇다면 학교 문을 닫겠다고 맞섰다. 이리하여 1938년 2월까지 문을 닫은 기독교계 학교는 북장로회 학교 8개교와 남장로회 학교 10개로 모두 18개교가 폐교 됐다.

미국의 남·북 두장로회 선교부 선교사들은 학교 문을 닫은후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는 점점 더 집요해졌고 노회별로 신사참배를 가결 토록 압력과 회유를 가해 1938년 8월 31일까지 전국 23노회중 17노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됐다.

지방부터 격파한 일본은 드디어 전국조직을 공격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토록 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목사 86명, 장로 85명이었고 회원 사이사이에는 일본 사복형사 97명이 끼여앉아 반대 발언을 못하도록 했고 단상에는 평안남도 경찰국장과 평양시 경찰국장이 흥택기총회장 양옆에 버티고 앉았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는 그날 총회를 마친후 평양신사를 참배했으나 이러한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당하거나 투옥된 목사도 적지않게 있었으니 평북의 李基宣목사, 평남의 朱基徹목사, 경남의 韓尙東목사, 경북의 李源永목사, 전남의 孫良源목사등이었다.

신사참배를 탄압으로 가결시킨 일본은 1939년 9월 11일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모인 제28회 총회에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이란 어용단체를 만들게 한후 이 단체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채택케 했다.

1940년 9월 6일 평양 창동교회에서 열린 제29회 총회에서는 총회常置委員會를 구성하도록 유도해 총회가 폐회한 뒤에도 자기들의 자유로운 이용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42년 3월 친일 기독교 목사들이 조선혁신교단 이란것을 결성, 일본에 과잉충성했으나 이 운동에는 교회 대중들이 따르지 않았다.

태평양전쟁발발후 일본은 기독교 탄압을 더 강화하면서 외국인 선교사 전원을 1942년 강제 추방시켰다. 이때부터 일본은 각 교파의 고유한 교파명 대신 일본식의 「教壇」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압력을 가했다.

1943년 5월 5일에는 총회명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바꾸게 하고 친일 목사를 統理로 임명했다.

1945년 8월 1일에는 전국의 모든 기독교를 강제로 통합시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발족시켰다.

전국적인 교회탄압은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1935년 9월에는 「대구교화단체연합회」라는

것이 생겨 기독교, 불교, 천리교, 유교등을 묶어 지휘했는데 그 사무실은 대구부청(시청)안에 두었다. 1938년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조직됐을 때는 대구에도 그 지부적인 대구기독교연합회가 발족했는데 회장은 일본인 佐藤新五郎이, 부회장 이하 임원은 일본인을 적당하게 섞었다.

1939년 말에는 주민정신 총동원조선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연맹도 발족했다. 일본의 기독교 탄압은 국가지상주의의 미명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기독교자들에게는 ①天照大神이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②신사참배가 국민의식이나? 종교의식이나? ③국가가 첫째냐? 종교가 첫째냐? 라고 물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때는 투옥등 박해를 가했다.

일본은 기독교의 신앙체제자체를 훼손 시키기위해 구약성경은 히브리민족의 역사라는 이유로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장로교의 기본교리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적대국인 영국의 산물이라 해서 탄압했다. 신약성경도 다 못 읽도록 하고 4복음서만 읽도록 했고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은 일본황실에 대한 불경이라 해서 금했는데 재림사상 금지 위반으로 구금된 교인이 침례교 교역자 32명, 성결교인 2백여명이었다.

일본은 재림사상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안식교, 성결교, 침례교를 1943년 폐쇄 시키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와 곡도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것은 고쳐서 부르게 하거나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예배의식에 까지 손을대 예배때에는 먼저 「황국시민의서사」를 암송케 하고 매일 첫주일은 애국주일로 정해 국방헌금을 바치도록 강요했으며 1942년 싱가포르가 함락 되었을때는 전승축하 예배를 보도록 요구했다.

1940년 제29회 총회 보고에 의하면 1937년부터 1940년까지 3년간 전승축하회를 654회, 무운장구기도회 8천953회, 강연수 1천355회, 위문수 181회, 국방헌금 1백58만3백24원, 위문袋 1천580개를 제작한것으로 되어 있다.²¹⁰⁾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무자비하게 징발했는데 교회도 중요 징발대상이었다.

교인들에게는 낫그릇을 「헌납」케 하는 한편 교회 종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빼앗아 간것이 1942년 10월 17일 열린 제31회 총회보고에 의하면 낫그릇 2천165점, 교회종 1천540개였다. 이런 와중에도 대구 남산교회는 목사가 기지를 발휘, 교회 종은 땅에 파묻고 고물종을 구해 헌납했는데 해방된후 땅에 묻었던 종을 파내 종각에 올린후 쳤을 때 오랫동안 교회 종소리를 들은 기독교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일반 시민들도 감격속에

210) 《대구제일교회 90년사》, p.33.

들었다.

태평양 전쟁의 패색이 점점 짙어지자 일본은 미군이 한국에 상륙할 경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945년 8월 18일 한국의 목사, 장로등 기독교 지도자를 대량 학살기로 하고 그 명단까지 작성했으나 그들이 집행일로 정한 날 사흘 전에 무조건 항복하게되어 기독교 지도자 대량 학살은 불가능케 됐다.²¹¹⁾

교회탄압의 구체적 사례로 1944년 5월에는 대구기독교전시보국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동산성경학교를 폐쇄하고 그 자리를 청년훈련소로 만들었다.

일본의 탄압은 교회와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기독교계통 학교에도 가해졌으니 啓聖, 信明 학교에 대한 탄압이 그것이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들의 소위 「황도정신」을 주입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다. 모든 교육기관이 「황국시민」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나 기독교계의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등 그들의 교육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일본은 마침내 1943년 기독교계통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성경과목을 폐지해 버렸고 아침 예배도 못 올리도록 했다.

성경과목을 폐지한 일본은 곧 이어 영어과를 선택과목으로 격하시켰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영어반과 실업반중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도록 했는데 어려운 문법과 영어단어 암기등을 싫어한 학생들은 얼씨구나 좋다며 실업반을 선택했다. 그래도 영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두 학교의 교련교관과 일본교사들은 영어반 학생을 구미송배자, 비국민이라고 비난하며 영어반에서 탈퇴하도록 공공연히 압력을 가했다.

일본의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끝내 啓聖, 信明 두 학교의 校名을 못쓰게 하고 각각 公山中學, 南山女中으로 바꾸도록 했다.

일본이 「啓聖」 교명을 못쓰게 하자 계성학교는 「앞에 섰는것 비슬산이요, 뒤에는 팔공산 둘렀다」는 교가에 나오는 「八公」을 새 교명으로 하기로 정한후 총독부에 개명신청 했으나 총독부는 「八公」의발음이 일본의 「八高」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못쓰게 하고 「公山」이란 이름으로 바뀌 허락했다.

기독교계통 학교에 이어 일본이 손을 댄것은 기독교계 병원인 東山병원이었다. 동산병원은 경찰병원으로 바뀌었고, 해방되기 한달전쯤인 1945년 7월에는 서문교회가 일본 육군병원으로 전용되었고 같은 달 25일에는 제일교회 마저 육군병원으로 전용했다.

211)이 사실은 종전 당시 종로경찰서 형사주임이었던 崔雲霞가 밝힌 것이다.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P451.

일본은 그들 정책에 불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가차없이 탄압했고 이에 대해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는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대신 자기집 골방이나 산골짜기에서 몇사람씩 모여 예배하는 지하교인이 되기도 하였다.

4. 교회의 사회·교육활동

개신교는 왜국정책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내던 한국사회에 서양문물을 접목 시켜 크게 근대화 시켰고 일제암흑기에는 애국애족의 민족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개신교의 성경번역 및 보급 사업은 한글전용에 크게 기여했고 여권신장과 평등사상등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 확대시켰다. 해방후 대한민국이 탄생한 뒤에는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견인차가 됐다.

1882년 한미조약 체결후 닫혔던 문호가 활짝 열렸고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라, 에비슨등 선교사들이 속속 입국해 배제학당, 연희전문, 이화여전등 신식교육기관과 광혜원, 제중원, 세브란스병원등 의료기관을 세웠다.

교회와 이들 교육 및 의료기관을 통해 서구의 새 문물이 활발히 소개됐고 이에 따라 班常타파, 남녀평등 의식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구의 신교육과 서양의술도 기독교를 통해 들어왔다. 1900년 11월 11일 안의와선교사가 제일교회 구내 초가집에서 개교한 喜道학교는 이 지역 신교육 기관의 효시다. 같은해 부해리 선교사의 부인 부마태(Martha, S. Bruen 傅馬太)는 여자소학교를 역시 제일교회구내에서 시작했다.

남자부를 大南학교, 여자부를 信明여자학교라 불렀다. 두 학교가 설립된 1900년은 대구에서 가장 오랜 공립국민학교인 대구국민학교가 설립된 1906년 보다 6년이나 빠른 해다.

두 학교는 1909년 구한국 정부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았고 1919년 5월 10일 대남학교는 喜瑗학교, 信明학교는 順道학교로 개명했다.

1922년 7월 두 학교가 병합 喜道학교가 되면서 학제도 6년제가 됐다. 대남학교와 신명학교가 1907년 제11회 졸업생을 내게되자 졸업생들의 계속면학을 위해 중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미국북장로회는 1906년 10월 15일 제일교회구내 안의와목사 사택이었던 기와집 3동에 계성중학교를 개교했으니 이것이 대구지역 신식중학교의 출발이다. 안의와 목사가 설립자겸 교장이고 이만집씨가 교사였고 학생은 27명이었다.

계성학교는 식민치하 일제의 압력으로 한때 교명을 公山中학교로 바뀐적도 있으나 해방뒤 곧 본명을 회복했다. 현재의 신명학교는 1907년 10월 23일 부해리선교사의 부인 부마태씨가 세운것으로 부마태가 교장, 조경로가교감 장인차선교사부인 칼손, 강대경이 교사였다.

제일교회안에 대남남자소학교와 함께 세웠던 신명여자소학교는 順道학교와 통합되어 버리고 중학과정의 신명학교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동산병원의 전신으로 대구지역 서양의료 기관의 효시인 濟衆院도도 제일교회에서 시작됐다. 제중원은 1898년 제일교회구내 초가집에서 張仁車의사(W.O. Johnson)가 처음 문을 열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알렌이 광혜원을 설립한후 13년이 되는 해다.

제일교회 구내에 있던 제중원은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 장소가 비좁고 치료에 불편을 느껴 1899년 10월 1일 대구시 대신동 현재의 위치로 옮기고 이름도 東山병원으로 바꾸었다.

동산병원을 운영해온 미국연합장로회는 일찌기 구라사업에도 착수하여 1813년 동산병원장 프렛처박사가 나환자를 위한 애락원을 대구시 내당동에 개설, 대구·경북 지역뿐 아니라 전국 나환자들을 치료수용하는 기관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근대화 작업은 교육 및 의료사업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들 활동외에 고아원설립, 신문발간, 미신타파, 금주, 금연운동등 많은 업적을 남겼고 특히 한글의 보급과 재발견에도 지대한 기여를 했다.

선교사들이 신문을 발간한 것은 신문이 교회, 학교, 병원과 함께 개화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문이 한국사회 개화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개신교계에서는 독립신문이 발간된 그 이듬해에 두가지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감리교계에서 아펜셀러 주관하에 발간한 《조선 크리스도인회보》(1897. 2. 2 창간, 뒷날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로 개명)와 장로교의 언더우드 중심의 《그리스도 신문》(1897. 4. 1 창간)이 그것이다.

두 신문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계몽과 자주성을 고취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말할것없고 일반 국민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그리스도 신문》의 경우 창간때 부터 〈농민평설〉난을 두어 농사법을 계몽했고 가내수공업 소개등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기사를 많이 실었다.

또 〈국가문답〉등 각종 문답난을 고정으로 두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특히 5권 37호(1901. 9. 12)부터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고정난을 두어 김유신, 정몽주, 박제상등의 인물을 소개했다.

개신교가 한글보급과 한글전용에 이바지한 공적은 문화사적으로 보면 위의 교육, 의료, 언론, 사회복지 활동 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개신교는 그때까지 언문 또는 반쪽글로 천대 받아온 한글을 민중의 글로 대중화 시켰고

국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문맹을 퇴치하고 개화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개신교의 한글 운동은 성경번역작업이 효시다.

개신교 선교역사를 보면 대부분 나라가 개신교가 먼저 들어간후 그나라 말로 된 성경이 출판되었는데 비해 한국은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기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즉 로스목사와 매킨타이어목사가 만주에서 徐相崙 등 한국 청년의 도움을 받아 누가복음을 번역, 인쇄한 것이 1882년이고 《사도행전》은 1884년에 《신약전서》가 1887년에 각각 번역, 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李樹庭이 일본에 건너가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해에 한문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여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를 한글로 번역 출간했다.

만주와 일본에서의 이러한 성경 번역 사업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한국 청년들이 역시 국외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온 사실과 함께 한국의 개신교를 自生教會라고 부르는 두 가지 이유다.

한국땅에 개신교의 씨를 뿌리려 왔으나 오히려 추수하기에 바쁘다는 초기 선교사의 고백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교회가 성경을 통한 한글보급에 힘쓴 결과 많은 교인들이 한글을 해독하게 되었고 특히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부녀자들이 한글을 읽고 쓰게 되었다.

여성들을 문맹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한글 보급 운동은 여성을 의식화 시켜 여성 교육 기회를 확대했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기독교 신자들의 이와같은 한글 해독과 성경읽기는 한글판 성경 번역과 출판에 상당한 자극을 주어 성경 번역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 결과 1898년 1월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갈라다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요한일 이 삼서가 잇달아 번역 출간됐다.

한글성경 번역과 출간을 위해 耶蘇敎書會가 창립되었는데 야소교서회는 성경뿐 아니라 종교서적과 사회계몽서적도 번역, 출판했다.

《초학언문》, 《영어총론》 같은 것이 여기 해당되고 馬布森悅선교사는 1895년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쓴 《환난 면하는 론》을 펴내기도 했다.

한글 성경의 보급으로 교인들의 의식이 높아지자 한글의 문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고 한글판 성경의 오역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역을 발견한 한국교회는 새 성경 번역에 착수했으니 곧 성경 改譯사업이다.

1887년에 시작한 개역사업은 1900년에 《신약성서》를 끝내고 《구약성서》번역으로 들어갔다.

뿐 아니라 개신교는 한글전용을 결의한다. 즉 1893년 1월 열린 제1차 장로회 공의회에서 「모든 문서는 한문을 섞지않고 순전히 한글로만 기록한다」는 결의가 그것이다. 한글전용뿐 아니라 문법정비에도 앞장 섰다.

1904년 9월 13일부터 서울 銅峴예배당에서 모인 제4차 조선예수교장로회공회에서 천로역정, 한영문집, 그리스도신문등을 번역하는 등 한글에 조예가 깊었던 선교자 奇一(Gale)이 한글 문법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문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켰다.

이 자리에서 金興京이 「국문을 사용하는데 동일한 규칙을 세우고 각인의 마음대로 문란하게 사용하는 일을 없도록 하고 어떻게 하던지 용이한 法으로 개정하자」고 촉구하자 이 문제를 奇一, 裴緯良, 王吉志 등 선교사와 韓錫普, 金興京, 金弼秀 등이 연구하여 다음해 공의회에 보고토록 가결했다.²¹²⁾ 한글 문법연구 위원회가 결성된 것이다.

이듬해 9월 서울 勝洞예배당에서 모인 제5차 공의회에서 국문교정위원 王吉志목사는 아래 아자를 폐지키로 한것을 보고했고 이 회의에서 국문교정위원으로 추가 선임된 柳乃春장로가 건의한 「국문교정 하는 일은 전과같이 玉篇과 字典에 있는대로 시행하기로」한 것을 받아들였다.²¹³⁾

기독교의 한글문법 연구작업은 구한국 정부가 學部내에 《국문연구소》를 설치(1907)한 것보다 3년이나 앞선 것이다.

기독교는 한국사회의 여권을 신장 시키는데도 앞장섰다. 유교적 전통이 강해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 여성의 정당한 지위를 인식시켜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한것은 기독교의 큰 업적이 분명하다. 기독교는 남녀평등을 성서의 정신에서 찾는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실때에 남녀 귀천의 구별없이 만드셨다고 주장한다.

갑신정변때 개화당원으로 활동했고 그후 미국에 망명했다가 을미사변 후에 귀국 하여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사장으로 활약한 徐載弼은 1897년 12월 31일 貞洞예배당 청년회가 주최한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 교육하여 동등권을 주는 것이 가하다」는 토론회에 참석, 남녀평등을 적극 주장했다.

남녀평등 사상을 도입한 기독교계는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좌담회등을 통해 이 운동을 넓혀가는 한편 언론기관과 교회당 및 학교를 통해 일반국민도 계몽했다.

《그리스도신문》은 논설을 통하여 남녀평등권의 실현이 천리와 인정에 합당한 것이고 부자유한 여자를 자유케 함이 세상에 인재를 많이 내게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212) 郭安連, 《長老教會史典禮集》 1918, pp.238~239.

213) 위의 책, p.246.

위한 기독교계의 이러한 계몽활동은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권리와 지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더 나은 지위에 있는 서양여성들의 활동이 어떠한가에 까지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기독교의 교육, 의료, 한글보급등 사회, 교육 사업은 서울과 대구등 전국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대구의 선교활동중 특기할 것으로 「대구사과」의 전래가 있다.

유명한 대구사과는 선교사를 통해 대구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의 사과 이전에도 효종때 중국으로 부터 전래된 능금이 있었으나 그 열매는 앵두만한 것이었다.

대구사과라고 불린 개량종 사과는 유럽원산으로 미국에 건너갔고 대구에는 張仁車의사 선교사(W.O.Johnson)가 처음 들여왔다. 장인차선교사가 제일교회 구내에서 濟衆院(1898년)으로 출발한 동산병원(1899년 10월 1일)은 병원 부지로 東山을 달성徐씨 문중으로 부터 매입, 병원 공사에 들어갔다. 이때 병원옆에 병원장 사택도 함께 건축했고 병원장 張仁車는 미국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사과 나무를 사택 뒤뜰 약 3백여평에다 심었다. 1900년경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대구사과의 시작이고 대구사과는 그후 대구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초기의 사과재배는 대부분 일본인이 했는데 1911년 당시 대구의 일본인 과수업자는 56명이었다. 대구는 분지로 한서의 차가 심하고 砂質土가 많아 사과재배에 적지라 사과 재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일제때는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었는데 대구사과는 일본에서도 유명해서 일본 왕의 식탁에 까지 올랐다.

과거에는 祝, 홍옥, 국광 등이 주류를 이뤘으나 일본에서 개량된 富士가 들어온데 이어 국내의 개량종으로 바뀌었다.

대구교계는 서울에서 1903년 10월 서울 YMCA(황성기독교청년회)가 조직된 것을 본받아 1918년 9월 대구YMCA를 조직했다. 서울 YMCA는 1903년 10월 28일 서울 정동 유니온클럽에서 조직되어 회장에 게일, 총무 질레트, 金貞植 두 사람이었는데 李商在 등 독립운동 지사들이 YMCA에 동참하면서 YMCA는 민족운동의 구심체가 되었고 여기에 자극받아 대구 YMCA도 창설된 것이다.

대구 YMCA는 1918년 9월 15일 대구교계의 지도층이었던 이만집, 김태현, 백신철, 백남채, 김덕경, 정광순, 이제인등과 선교사 방혜범, 부해리, 벌리추 등이 함께 발기하여 교남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고 회관은 제일교회 구내에 두었다. 조직은 회장 이만집, 부회장 정광순이었고 제일교회, 남산교회, 서문교회 등 대구 시내 각 교회 청년 수백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²¹⁴⁾

214) 《대구제일교회90년사》, p.119.

여성기독교청년들의 조직인 YWCA는 3.1운동이후 전국 중요도시에서 거의 동시에 조직되었다. 즉 1922년 6월 전국여자 화령회가 서울에서 모여 조선기독교 여자청년연합회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장 유각경, 부회장 홍에스터, 서기 신의경, 부서기 김함라, 총무 김필례를 선출했다. 대구 YWCA는 1923년 창립했다.

즉 1923년 4월 제일교회에서 대구 YWCA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임성례를 선출했다. 대구 YMCA, YWCA는 기독교 정신으로 대구사회, 특히 청년층을 계몽하는 구심체가 되었고 6.25동란중에는 부상병을 위문하는 일등 각종 사회봉사 활동과 계몽활동에 앞장섰다.²¹⁵⁾

대구 기독교는 대구지역 예술활동, 특히 서양음악 보급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1917년 7월 제일교회에 조직된 성가대는 대구지역 최초의 남녀혼성 성가대로 「남녀칠세부동석」의 남녀구별이 엄격하던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朴泰元이 지휘한 제일교회성가대는 한달동안 연습한 후 조직 한달뒤인 8월 하순에 첫 찬양예배를 올렸다. 이때 성가대원은 玄濟明, 진기찬, 김병옥, 서상옥, 문영복등이 있는데 玄濟明은 그 뒤 오페라 창작, 음악대학설립 등 우리나라 음악을 앞장서 이끌어간 서양음악의 거목이 되었다.

대구지역 첫 남녀혼성성가대의 찬양예배는 대구시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도 교회 가운데 포장을 친후 남녀가 따로 앉아 예배를 보던 때인데 남녀가 한자리에 서서 합창을 했으니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첫 발표회(찬양예배)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들었고 이것은 음악활동을 넘어 남녀칠세부동석의 낡은 인습을 타파하는 사회운동의 의미도 가졌다. 그러나 남녀유별 관념이 엄하던 때라 제일교회 당회는 혼성성가대의 활동을 반대했고 이에따라 대구최초의 남녀혼성합창단의 활동은 3년여 중단되었다.

교회안의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1920년 다시 박태원씨가 혼성성가대를 조직, 남녀혼성성가대가 재출발했다. 제일교회 혼성성가대가 다시 조직되자 대구 시내 다른 교회들도 혼성 성가대를 조직했고 이들 교회성가대를 통해 서양음악이 급속히 보급되었다.

대구지역 합창운동의 효시라 할 제일교회 성가대의 초대 지휘자는 박태원이었고 1931년 이후 지휘는 박태원의 아우인 朴泰俊이 맡았다.

제일교회 성가대로 활동한 사람중에서 우리나라 서양음악에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이 많이 나왔으니 박태원, 박태준형제와 현제명, 문영복, 윤복진 등이 그들이다.

215) 앞의 책, p.20.

III. 解放과 教會成長

1. 教會의 재건

일제 치하아래 온갖 수난을 당하던 한국교회는 8.15해방을 감격속에 맞았다. 8.15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보장하는 해방인 동시에 교회로서는 신앙자유의 회복이었다.

일제 식민통치가 한국교회에 가한 탄압은 가혹하고 끈질겼다. 성경 출판을 제한하고 예배에 간섭했으며 부역등의 동원으로 주일聖守를 방해했다.

개개 교회를 통폐합 한데 이어 교파까지 통폐합하여 일본식 교단이란 이름을 붙였다. 8.15해방은 교회를 짓 눌렸던 이러한 굴레가 벗겨진 날이었다. 해방된 교회의 재건은 바로 우리 사회의 재건을 의미한다.

그간 해외에서 망명하여 조국독립을 위해 애쓰던 독립운동가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다.

해방정국의 3대 거두로 추앙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은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이들의 영향에 따라 국내에 있던 정객들도 이들이 귀국한후 기독교에 입문 하는 분들이 많았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이 속속 귀국하고 옥에 갇혔던 지도자들이 모두 풀려났으며 지하에 숨었던 신자들이 교회로 물려들기 시작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 당했던 선교사들이 돌아와 활동을 재개했고 북한에서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를 피해 남한으로 내려와 교회를 세웠다. 한국교회의 재건은 남·북에서 따로 진행되었다.

해방 이틀뒤인 1945년 8월 17일 대구시내 각 교회연합해방감사예배가 제일교회에서 올려졌다. 1946년 6월 12일부터 4일간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남부총회는 총회장에 裴恩希목사, 부총회장에 咸台永목사를 선출하고 조직을 마쳤다.

총회명칭을 대한예수교남부총회라 한것은 북한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공산주의자의 간섭으로 참석하지 못한것을 고려한 예의에서 였다. 지금은 북부총회 대표들이 참석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남북대표가 함께 모여 명실상부한 대한예수교 총회가 조직되길 바라는 통일지향의 의지다.

이러한 취지는 남부총회가 결의한 다음 4개항의 결의문이 잘 나타내 준다.

- ① 헌법(교회)은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개정 하지 않고 중전 것을 쓴다.
- ② 제27회 총회가 범과한 신사참배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 ③ 조선신학교를 남부총회의 직영신학교로 한다.

④ 여자장로직 설정 문제는 남북통일 총회시까지 보류한다.²¹⁶⁾

한국교회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의 조속 실현이 어렵게 되자 1947년 4월 18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린 제2회 남부총회는 남북통일의 조속실현이 어려운만큼 대한예수교의 대통을 남부총회가 계승하기로 결의하고 이 총회를 대한예수교 제33회 총회로 명명했다.

이것은 1942년 10월 16일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총회가 31회 였기 때문에 46년 6월 12일 서울에서 가졌던 제1회 남부총회를 제32회 대한예수교 총회로 계산하여 회수를 확정한 것이다.

교회의 재건과 더불어 교회가 세운 교육기관등 부설기관도 활발히 재건되었다.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를 하자 선교사들이 이에 항거, 자신들이 설립한 학교병원등의 문을 닫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해방과 함께 그들이 한국으로 다시 나와 전국 곳곳에 세웠던 학교와 병원의 문을 열었다.

서울의 연희대학은 전쟁기에 경제전문학교로 개편되었으나 해방과 함께 원래이름을 되찾았고 세브란스의과대학도 전쟁중 아시아의학전문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가 제 이름을 되찾았다.

이화여자대학도 경성여자전문학교로 불리다가 해방후 이화의 이름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방전에 설립된 교육기관, 의료기관이 재건되거나 본래 이름을 찾았고 기독교계통 많은 학교가 해방뒤 신설되었다.

해방뒤 신설된 기독교계통 학교는 대구의 계명대학을 비롯, 서울의 한국기독교 보육대학, 서울여자대학, 대전의 대전대학, 부산의 칼빈대학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성경학교가 재건되었는데 대구고등성경학교도 해방후 재건되었다.

대구고등성경학교는 1913년 3월 아담스목사에 의해 창설되었다가 1940년 5월(교장 현해련 선교사) 일제 탄압으로 폐교됐다. 대구고등성경학교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 삼년제 고등성경학교로 다시 문을 열었다.

또한 公山중학교와 南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던 계성학교와 신명학교도 원래이름을 되찾았다. 경찰병원이던 동산병원 역시 교단으로 소속이 환원되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지역에 있던 기독교계 교육기관이 재건 또는 신설되었는데 해방후 신설된 학교는 안동의 경안고등학교, 영주의 경일중학교 김천의 시온중학교가 있다.

해방후 기독교의 발전상에 결들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군목제도 창설과 기독교 방송국설립이다.

216) 《대구제일교회90년사》, p.142.

군목제도는 1951년 2월 7일 이승만대통령 특명으로 창설되어 군장병들의 정신무장과 건전 생활에 크게 이바지 했고 1954년 12월 15일 기독교방송국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방송으로 국민정신 순화 및 방송문화 창달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2. 6·25전쟁과 교회의 시련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자행된 북한공산군의 남침은 한국 근대사의 비극일뿐 아니라 해방후 틀을 잡아가던 교회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교역자와 신도의 과반수를 순교 또는 남북등으로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의 대부분이 소실, 파괴되어 중흥기에 접어들었던 교회는 치명상을 입었다. 괴뢰군이 남침을 하기 시작한 다음날인 6월 26일 서울 시내 각 교회 교역자들은 승동교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국군원호회를 결성했으나 28일 아침 서울이 괴뢰군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재빠른 결의는 빛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서울을 빠져나온 교역자들과 다른 지역 교역자들은 서울에서 결의 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국군지원사업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1950년 7월 3일 대전제일장로교회에서 회집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한경직, 부회장 김창근, 황치헌, 황종률을 뽑았다.

대한기독교구국회는 대구·부산을 비롯한 남한 33개 도시에 지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협조하여 선무, 구호, 방송, 의용대 모집등에 큰 기여를 했다.

정부가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국회는 7월17일 대구로 본부를 옮겼다.

구국회는 본부사무실은 대구제일교회에 두고 국방부, 사회부등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했고 대구와 경북의 교회들은 서울과 충청도등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 입을것을 제공, 전쟁에 지친 동포에게 육신의 안식과 마음의 위로를 주었다.

이때 미국연합장로회 선교부도 대대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했다.

안두화목사, 권세열목사, 감부열목사등은 대구가 위험해지자 구국회본부도 대구에 있고하여 대구에 운집해 있던 약2천여명의 교역자등과 그 가족들을 교파의 구별없이 차량을 동원 울산·부산 등지로 피난시키고 미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로 그들을 구호했다.

6.25때 피해를 입은 교회수는 장로교가 152교회, 감리교가 84교회, 성결교 27교회, 구세군 4교회등이었는데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미국교회가 교회복구자금과 구호물자를 보내 교회재건을 도왔다.

그리하여 휴전이후 적어도 10년동안은 재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였던 교회는 오히려 늘

라운 속도로 부흥하였으니 1955년까지 교회수는 6·25당시에 비교하여 약 2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회의 이러한 부흥은 교회가 전란으로 인한 수십만의 고아와 전쟁미망인들을 돌보고 피난민들을 교회에 숙식케 하는등 사랑을 베풀데 따른것이고 미국등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로 전쟁후의 피폐한 가정과 사회에 큰 도움을 준것도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6·25동란으로 한국의 많은 교회가 소실·파괴 되었을뿐 아니라 순교·납치 등 엄청난 인명피해도 입었다.

순교자로는 공산군에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던 손양원목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남궁택, 양주삼, 송창근등 저명한 신학자 목사들이 공산군에 납치되어 순교 당하거나 생사불명이 되었다.

6·25때 공산군에 납치당한 숫자는 장로교가 177명, 감리교가 44명, 성결교 7명이었다. 전북 옥구군 원당교회에서는 75명의 교인중 73명이 공산군에 학살당했다.²¹⁷⁾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교역자와 신자들이 공산군에 의해 이렇게 학살 당했는데도 6·25사변후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경학교 신학교등 기독교 계통 교육 기관은 지방 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3. 교파활동과 교회의 일치운동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아 보기 힘든것으로 기독교 사상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교회중에서도 특히 장로교회는 교세가 왕성해 한국교회의 6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기독교라면 곧 장로교회를 지칭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장로교회는 급속히 성장한 반면 분열현상 또한 두드러져 예장合同派, 예장統合派, 高麗派, 再建派, 基長派, 성결장로회등 여러 교파로 분립되었고 군소교파들의 대부분도 장로회에서 분파한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의 4대교파는 합동, 통합, 기장, 고려파를 드는데 합동, 통합의 분열은 약간 늦었으나 고려파와 기장파는 6·25사변 전후해서 분립되었다.

고려파의 분립은 경남지방에서 신사참배로 오염된 교회를 정화한다는 명분에서 일어났고 기장파의 분립은 서울을 중심으로 학문의 자유와 교회의 현대화 또는 세계화의 기치이래 일어났다.

217) 《대구제일교회90년사》, p.161.

고려파의 지도 인물은 한상동목사였다. 그는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하다 자기와 함께 교도 소살이를 한 주남선목사와 함께 교회정화를 외쳤다. 이들은 확고한 정통주의 신학교를 설립기로 하고 박윤선목사와 의논, 1946년 9월 20일 박윤선목사를 교장으로 고려신학교를 설립했다.

이렇게 설립된 고려신학교측의 태도에 대해 기성 교회측에서는 지나치게 독선적이라 하여 반발하는 기운도 점점 높아졌다. 이리하여 1952년 4월 29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린 제37회 총회를 계기로 고신측은 완전 분리됐고 이들은 고려파라 불렸다.

이와는 별도로 에큐메니칼운동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고 보수 정통을 주장하는 合同측과 이에 호응하여 W.C.C와의 유대와 친선을 중요시한 統合측이 1959년 9월의 大田총회에서 역시 갈라서고 말았다.

이들은 連洞파와 勝洞파로 분리되었는데 연동파는 1960년 2월 17일 새문안교회에서 모여 연동파총립과 및 승동파일부의 통합총회를 열어 統合측의 이름을 얻게되고 합동파는 승동파와 고려파가 합동하여 합동측이라 부르게 됐다.

그후 고려파중 주류는 합동측으로 부터 다시 분리해 나갔으나 합동측이란 이름은 그대로 사용한다. 고려파와 반대방향의 파동이 기장파의 분리이다. 기장파는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신학 운동이 그 출발이었다.

일제말엽 서울에 조선신학교(한국신학교의 전신)가 설립되고 38선으로 인해 평양신학교가 격리되자 1946년 6월 12일 모인 남부총회는 조선신학교를 총회신학교로 인정했다. 그때 조선신학교 주도 교수는 김재준교수로 김교수는 현대신학 노선을 과감히 따랐고 그러한 강의 내용이 교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즉 1947년 봄 조선신학생 51명이 제33회 총회에 김교수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단이라고 총회에 고발한 것이다.

총회 조사위원회는 김교수를 단죄하는 방향으로 갔고 김교수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분리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1948년 5월 박형룡목사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교가 별도로 설립되어 장로교회안에는 신학교가 두개가 되었다.

이에 1951년 5월 부산에서 모인 제56회 총회는 조선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의 인준을 모두 취소하고 총회신학교를 새로 설립하기로 결의, 새롭게 출발한것이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다.

1953년 4월 24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린 제38회 총회에서 조선신학교측이 총회 탈퇴를 선언하고 1953년 6월 10일 한국신학대학 강당에서 9개노회(경북, 전북, 군산, 김제, 충남, 경서,

목포, 충북, 제주) 대표 47명이 모여 새총회를 조직 하면서 기장파가 완전히 분립하게 됐다.

한국교회중 가장 큰 장로교회에서 고려파와 기장파가 분립돼 나갔고 남은 장로교회가 또 합동과 통합으로 나뉜것은 한국 교회사상 큰 진통으로 에큐메니칼 운동과 관련된 노선의 차이가 있긴하지만 본질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합동과 통합 두 교파가 분립된것은 한국교회의 큰 손실이고 다시 하나가 되려는 교회일치 노력이 여러번 있었으나 아직 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IV. 韓國教會成長의 特徵과 社會的 役割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는 근세 한국의 특수한 역사 전개 과정때문에 아시아·아프리카등 다른 지역에 전래된 기독교와는 달리 한국의 민족주의와 쉽게 결합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전래된 기독교는 유럽 국가들의 대외침략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해당 국민들에게 침략의 전위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피선교 지역의 민족주의와 결합되기 어려웠지만 한국의 경우는 기독교를 전해준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된것이 아니고 이웃하고 있는 비기독교국가인 일본에 의해 침략을 받았으므로 정의와 자유, 독립과 평등을 훈련받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통하여 민족주의에 눈 뜬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려는 항일운동의 든든한 동반자 내지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것은 3.1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고 적극 동참한것에서 확인된다.

3.1운동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국내외 항일독립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상해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했는데 이것은 소수의 지배자가 지배하던 군주제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및 항일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한 결과는 자유, 평등, 정의의 성서적 이념을 통해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이념을 민중속에 보다 광범하게 확산시켰다.

1920년대에는 물산장려운동, 1930년대에는 절제운동으로 우리 민족을 각성시킨 기독교는 해방후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1960년대까지 급성장했다.

급성장한 기독교는 197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상황에 의해 두 가지 양상을 나타냈다. 즉 사회참여와 초연, 비판과 침묵, 사회구조의 개혁과 개인의 구원,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그것이다.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사회를 비판하고 산업화에 따른 빈부격차 문제, 인권문제등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 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각각 신학적 근거를 달리하기 때문에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르다는 판단을 할수가 없으나 현실참여파는 기독교의 구원과 사회구조 개혁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비참여파는 개인 구원을 통해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갖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그 내부에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장 활기있는 종교의 하나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력은 기독교세의 성장과 함께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V. 大邱地域 改新教 現況

대구지역 개신교는 수많은 교회와 교인수를 바탕으로 의료, 교육등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기독교계 교육기관

기독교계 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로 계명대학교가 있고 신학교로는 영남신학교, 대구신학교가 있다.

중고등학교로는 계성중고등학교, 성명여중, 신명여고 같은 초기 선교사가 직접 세운 학교와 성광중고등학교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인이 세운 많은 학교가 있다.

의료기관으로는 대구 동산기독병원이 있다.

2. 교회현황

92년말 현재 대구시내 개신교 교회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表 6-3〉

대구시내 개신교 교회현황

1) 동구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 직 자	신 도 수
예 수 교 장 로 회	강 남 교 회	신암1동 635-24	1990. 2.13	박 노 준	1	80
"	동 원 교 회	신암1동 603-185	1961. 6.	김 강 한	1	150
"	대 성 교 회	신암1동 714-3	1973. 3. 1	윤 성 열	1	50
"	반 포 교 회	신암1동 662-17	1992. 6.	황 병 기	1	
장 로 회	영 동 교 회	신암1동 722-35	1968.	김 규 식	1	250
"	양 지 교 회	신암 1동 628-1	1970. 8.30	이 성 철	1	100
장 로 교	신 성 교 회	신암2동 482-1	1982. 8.16	김 홍 규	4	650
"	청 구 교 회	신암2동 485-9	1970. 5.18	김 희 열	2	350
침례회	제 일 교 회	신암2동 451-84	1978. 5.30	안 인 환	3	350
장 로 회	대 영 교 회	신암3동 189-4	1975. 4.13	공 병 진	1	550
"	동 대 구 교 회	신암3동 234-43	1991. 3.12	김 홍 근	1	20
"	신 암 교 회	신암3동 220-20	1986. 7. 6	윤 의 근	3	1,020
"	은 천 교 회	신암3동 210-9	1964. 1.22	김 형 천	2	950
"	동 부 제 일	신암3동 185-8	1978. 5.10	정 병 용	1	50
침례회	동 대 구 중 앙	신암3동 242-3	1992. 9.10	조 성 화	1	110
장 로 교	새 소 망 교 회	신암4동 162-23	1982. 4	허 성 동	1	155
"	천 성 교 회	신암4동 622	1985.10.	박 문 주	1	65
"	동 대 구 교 회	신암4동 1787	1972. 6.15	이 영 근	1	110
"	북 대 구 교 회	신암4동 678-19	1986.	최 주 석	1	145
"	신 원 교 회	신암4동 645-13	1970.11.15	백 봉 태	1	220
"	신 흥 로 교 회	신암4동 612-8	1983. 3.10	옥 지 협	2	180
"	한 샘 교 회	신암4동 346-22	1981. 8.	이 삼 재	1	95
"	성 동 교 회	신암4동 257-1	1981. 4.	김 용 구	4	300
"	초 막 교 회	신암4동 677-41	1987.12.	이 희 석	1	100
침례교	동 대 구 중 앙	신암4동 294-13	1986. 2.	조 성 화	1	90
장 로 교	창 대 교 회	신암 5동 1475	1991. 4.	윤 장 석	1	20
"	하 나 님 의 교 회	신암 5동 20-1	1989.12.	박 태 암	1	50
"	희 망 교 회	신암5동 20	1976. 2.	박 종 인	1	60
"	대 현 교 회	신암5동 128-30	1975. 2.	최 후 출	1	300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장 로 교	성 은 교 회	신암5동 80-87	1983. 7.	김 영 삼	1	60
예 수 교 장 로 회	신 은 교 회	신천1동 645-27	1965.	노 원 석	3	420
"	신 천 교 회	신천1동 613	1973.	박 선 천	2	180
"	동 흥 교 회	신천1동 787-5	1972.	김 형 식	9	500
"	제 일 교 회	신천1동 806-22	1981.	박 효 원	1	10
"	일 신 교 회	신천1동 733-1	1975.	조 규 천	1	50
대한예수교장로회	동 산 교 회	신천2동 589-209	1952. 6. 1	임 진 곤	5	450
"	동 교 회	신천2동 566-13	1988. 4. 3	김 영 달	1	150
"	대 덕 교 회	신천2동 578-1	1984. 9.30	정 찬 익	3	100
"	보 광 교 회	신천2동 530-4	1984. 1. 8	최 중 균	1	60
"	동 대 구 중 앙	신천2동 541-32	1987.10. 1	서 철 교	1	40
"	창 성 교 회	신천2동 564-1	1989. 4. 1	김 창 근	1	20
장 로 교	신 천 제 일	신천 3동 265-30	1980. 1.27	권 정 대	2	300
"	대 구 사 랑	신천3동 850-9	1978. 1. 1	김 선 태	1	50
"	영 락 교 회	신천3동 117-1	1951. 2. 6	안 수 도	9	1,000
"	동 원 교 회	신천3동 54-2	1973. 3. 1	홍 수 화	2	210
"	동 일 교 회	신천3동 147-1	1956. 1.13	조 돈 제	10	3,000
"	동 현 교 회	신천3동 112-1	1970. 5.10	유 한 종	1	300
"	제 건 동 대 구	신천3동 7-2	1971. 5.20	유 봉 준	1	120
감 리 교	제 일 감 리	신천3동 171-15	1948. 1.15	신 완 철	7	1,000
"	밀 알 교 회	신천3동 177-5	1981. 3.16	박 현 규	1	150
침례교	대 구 침례 (대 동 교 회)	신천3동 273-4	1970. 8.21	구 자 인	1	110
장 로 회	영 문 교 회	신천4동 355-11	1977. 5.	신 태 연	1	40
"	동 령 교 회	신천4동 363-3	1976. 8.	구 장 회	1	50
"	대 신 교 회	신천4동 429-3	1976. 7.	황 수 원	1	300
"	대 구 교 회	신천4동 334-9	1981.11. 1	김 동 수	1	200
성 결 교	대 광 교 회	신천4동 304-4	1953. 4.	손 상 기	1	300
기 독 교	아 양 교 회	효목1동 118-8	1980. 9. 7	최 춘 화	6	500
"	동 원 제 일	효목1동 141-33	1980. 1.10	이 맹 룡	4	100

第6章 宗 教

교 과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기 독 교	동 부 순 복 음	효목1동 83-2	1985. 4. 5	김 원 중	3	300
"	충 현 교 회	효목1동 199-21	1982. 4. 5	민 호 기	3	200
"	효 목 중 앙	효목1동 133-14	1971.10.20	이 남 수	5	460
"	대 한 감 리	효목1동 201-12	1971. 4.15	임 지 영	1	50
"	동 문 교 회	효목1동 959-3	1972. 5. 3	최 성 현	5	250
"	수 정 교 회	효목1동 194-63	1991. 4.29	김 병 한	2	70
대한예수교장로회	효 목 교 회	효목2동 443-2	1980.	황 윤 식	1	70
"	동 광 교 회	효목2동 397-3	1978. 6.12	조 학 래	2	160
"	은 충 교 회	효목2동 381-2	1984. 4.26	허 활 성	2	70
대 한 기 독 교	동대구성결교회	효목2동 612	1982.	김 태 화	2	300
나사렛성결회						
"	평 광 교 회	평광동 1246	1960. 2.10	임 동 선	1	50
기 독 교 장 로 교	불 로 교 회	불로동 390	1973. 5. 1	김 성 규	2	450
"	불 로 제 일	불로동 1157	1983. 5. 3	장 재 필	1	260
"	봉 무 교 회	봉무동 944	1966. 2. 1	김 용 길	1	205
장 로 교	도 동 중 앙	도동 79-1	1976. 7. 6	김 영 태	1	115
기 독 교	공 항 교 회	지저동 673-9	1991.10. 8	최 부 영	5	600
"	소 망 교 회	지저동 768-6	1988.	정 홍 규	3	250
장 로 교	신 흥 로 교 회	지저동 819-6	1992. 4.30	옥 치 협	3	300
장 로 회	입 석 교 회	입석동 931-3	1983. 7.20	이 재 춘	2	255
"	신 은 교 회	입석동 965-8	1985. 4. 5	윤 규 진	3	224
"	광 선 교 회	입석동 1006-50	1987. 9.17	홍 재 덕	2	71
"	은 향 교 회	입석동 941-3	1990. 1. 5	김 지 서	1	40
기 독 교	동 촌 제 일	검사동 990-41	1953.10.	신 창 순	6	1,043
"	성 부 교 회	검사동 944-22	1987. 5. 3	손 문 석	1	191
"	동 촌 중 앙	검사동 1033-23	1953. 8. 3	전 광 호	1	120
"	동 촌 교 회	방촌동 1070-18	1952. 6.	이 백 희	2	210
"	방 촌 동 교 회	방촌동 1071-16	1990. 6.	나 동 호	1	20
"	동 촌 동 부	방촌동 8-3	1950. 6.	임 남 식	2	120
"	제 일 교 회	방촌동 934-2	1987.12.	김 갑 수	1	100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예수교장로회	동 현 교 회	부동 644	1979. 7.	최 효 중	1	140
기 독 교	영 신 교 회	신평동 777-6	1989. 8.17	조 삼 수	1	55
장 로 회	반 야 월 서 부	울하동 134	1968. 7.21	권 일 현	5	400
침례교	반 야 월 중 앙 침례교 회	울하동 971-7	1978.11.28	류 풍 열	1	60
장 로 교	동 광 교 회	울하동 230	1988.12.13	김 대 은	2	200
"	반 야 월 중 앙	신기동 557	1987.11. 1	노 성 복	1	250
합 동	안 심 교 회	신기동 122-3	1984. 7.30	유 하 락	2	50
"	호 산 나 교 회	신기동 563-1	1990. 3.26	정 명 식	1	20
장 로 교	본 향 교 회	신기동 591-8	1990. 7. 1	한 도 현	1	80
통 합	대 성 교 회	신기동 179	1988. 7. 1	박 성 보	1	20
그 리 스 도	새 한 교 회	신기동 144-23	1989. 2.13	최 종 익	1	10
장 로 교	선 민 교 회	신기동 268-1	1989.11.14	강 병 원	1	50
장 로 회	반 야 월 남 부	매여동 226	1967. 7.	김 중 호	1	120
"	신 평 교 회	용계동 1012-3	1991.12.21	박 수 병	2	105
"	안 심 교 회	용계동 732-1	1991. 4. 5	유 화 학	1	40
"	혜 림 교 회	용계동 420	1992. 9. 1	서 영 태	1	50
기독교대한성결교	성 진 교 회	용계동 43-1	1985. 1	김 성 건	1	15
기 독 교	동 내 교 회	동내동 392	1986.	권 경 찬	1	130
"	송 정 교 회	괴전동 191	1968.	김 시 백	2	150
"	대 림 교 회	대림동 34	1989.	정 호 원	3	250
"	금 강 교 회	금강동 410	1973.	권 형 태	1	70
장 로 교	반 야 월 교 회	동호동 11	1985. 4. 3	이 창 수	4	600
장 로 회	미 대 교 회	미대동 289	1960.	우 영 관	1	70
"	백 안 교 회	백안동 685	1979.	박 은 근	1	180
"	중 앙 교 회	백안동 275-3	1982.	박 수 영	1	20
"	중 대 교 회	동·중대 537	1970.	박 찬 영	1	42
"	지 묘 교 회	동·지묘 531	1950.12. 1	유 은 규	1	150

第6章 宗 教

2) 중 구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 직 자	신도수
기 독 교	문 화 교 회	동인1가 9	1973. 5	박 충 응	2	800
"	대 구 중 앙 교 회	동인2가 226-1	1975. 1	안 휘 수	1	400
"	동 성 교 회	동인3가 152-1	1985. 6	엄 태 섭	1	126
"	동 막 교 회	동인3가 219-1	1971. 7	정 석 현	1	180
"	중 앙 성 결 교 회	동인3가 232-20	1986. 4	박 현 규	1	140
"	동 도 교 회	동인3가 367-19	1986. 5	김 시 준	1	160
"	동 진 교 회	동인3가 16	1987. 3	구 연 대	1	130
"	동 인 교 회	동인4가 15-1	1975.	이 동 희	1	160
"	은 석 교 회	동인4가 537-1		이 영 민	1	135
"	삼 덕 교 회	삼덕2가 149-28	1976. 1.18	김 태 범	10	3,064
"	수 산 교 회	삼덕2가 222	1968. 2	조 현 식	1	800
"	동 부 교 회	삼덕3가 367	1946.10	김 덕 신	10	4,000
"	재 건 삼 덕 교 회	삼덕3가 64-2	1979. 4	이 주 용	1	100
"	봉 산 교 회	봉산동 122-1	1937. 6.13	이 상 문	5	650
"	봉 산 성 결 교 회	봉산동 52-5	1923. 6.23	류 연 창	3	930
"	중 부 교 회	공평동 11-4	1983. 7.20	황 용 대	1	400
"	동 성 로 교 회	공평동 4903	1971. 4.15	신 도 관		40
"	중 앙 교 회	서성로 1가 39	1924. 4.27	김 복 덕	4	700
"	서 성 로 교 회	서문로 2가 31-2	1962. 3.18	이 규 현	6	900
"	통 일 교 회	인교동 52	1967. 7. 5	장 기 태	1	120
"	대 구 제 일 교 회	남성로 50	1993. 4.22	정 영 환	9	2,400
"	대 구 제 이 교 회	동산동 202	1966. 4. 5	오 세 호	3	520
"	동 로 교 회	장관동 25-1	1946. 1. 6	정 순 모	6	1,500
"	대 구 제 일 교 회 (성 결 교)	대안동 30-9	1951.10.21	신 일 용	4	700
"	서 문 로 교 회	서내동 8-1	1960. 4	이 춘 경	3	750
"	달 성 교 회	달성동 10-27	1959.10	최 락 보	2	450
"	달 성 제 일 교 회	달성동 219-32	1967. 2.28	한 인 수	5	400
"	서 문 교 회	대신1동 180	1912.	이 성 현	17	6,700
"	남 신 교 회	대신1동 294	1968.10	송 신 환	2	150

교과			명칭	위치	건립일	대표자	성직자	신도수
기독교	복민교회	대신2동 1463				하몽옥	1	39
"	남부교회	남산1동 716-12		1931. 4	신현진	5	800	
"	남문교회	남산1동 600-41		1953	강원채	3	400	
"	성광교회	남산1동 922-1		1958.10	서성수	5	300	
"	서현교회	남산2동 175-1		1953	김종식	14	3,000	
"	서남교회	남산2동 156-8		1977	이상선	3	700	
"	남산교회	남산2동 941-22		1912	김희성	8	1,500	
"	삼성교회	남산2동 126-16		1975	김병희	1	100	
"	동서교회	남산2동 127-5		1989	이종록	1	150	
"	남현교회	남산3동 2442-19		1979. 8.17	김수학	1	135	
"	중앙교회	남산3동 2121-31		1987. 5.31	주수은	2	105	
"	순복음영광교회	남산4동 104-21			심규정	1	30	
"	수정교회	남산4동 2659-4		1984. 5.21	채병덕	4	300	
"	서부제일교회	남산4동 2948-2		1978. 9.11	김찬현	3	300	
"	서부교회	남산4동 2951-1		1953	남태섭	4	2,500	
"	애양교회	남산4동 2946-2			한명수		200	
"	세광교회	남산4동 2999		1962. 2.11	우병조	7	700	
"	대명침례교회	남산4동 2636-9		1982	장순홍	5	500	
"	일광교회	남산4동 2482-425		1961. 6.17	권기동	2	350	
"	성지교회	대봉1동 121-365		1951. 9	황해영	10	700	
"	대봉교회	대봉2동 131-12		1984. 9.15	문덕부	2	130	
"	대성교회	대봉2동 732-10		1973. 4.20	이상강	3	1,000	
"	성락교회	대봉2동 88-61		1981. 7	여규식	2	350	
"	순복음교회	대봉2동 590-475		1960. 6	전제중	1	30	
"	남성교회	대봉2동 744-8		1956. 3. 4	최문환	1	100	
"	평강교회	대봉2동 725-36		1988. 6	김정락	1	50	

第6章 宗 教

3) 서 구

교 과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감 리 교	원 대 감 리 교 회	비산동 1194-13	1983.10. 3	현 귀 섭	1	110
장 로 교	만 평 제 일 교 회	비산동 1207-1	1987. 9.20	김 하 균	1	35
"	사 랑 교 회	비산동 1013-1	1984. 5.15	이 상 울	1	1 80
"	베 다 니 교 회	평리1동 1044-37	1990. 4	박 재 성	1	20
침 례 교	새 길 교 회	평리1동 657-23	1986. 6	김 연 옥	1	85
장 로 교	평 리 교 회	평리1동 742-88	1952. 6	양 일 수	8	1,035
"	대 일 교 회	평리2동 1348-3	1983. 5	윤 길 창	7	1,700
"	평 안 교 회	평리2동 1204-1	1988. 5	황 홍 주	1	140
"	반 석 교 회	평리2동 1194-3	1976.10	김 대 호	2	180
"	은 평 교 회	평리2동 1316-3	1986.12	박 수 덕	5	1,600
"	대 영 교 회	평리2동 1432-10	1985. 3	이 동 은	2	200
"	서 문 제 3 교 회	평리2동 1425-3	1986.10	유 해 언	3	360
"	제 2 달 서 교 회	평리2동 1229-34	1988. 4	정 칠 식	1	60
"	문 화 제 2 교 회	평리2동 1368-6	1987. 1	이 우 동	2	90
"	서 부 제 일 교 회	평리2동 1217-4	1988. 1	조 병 진	1	50
"	명 성 교 회	평리2동 1219-7	1987. 4	김 길 웅	1	65
"	갈보리중앙교회	평리2동 1310-3	1989. 2	이 강 수	1	48
"	소 망 교 회	평리2동 1334-11	1987. 2	이 성 식	1	86
"	평 리 제 일 교 회	평리2동 1438-2	1981. 3	김 영 수	1	320
침 례 교 통 합	대 구 침 례 교 회	평리2동 1435-3	1980. 9	김 위 수	1	70
	대한예수교장로회평리중앙교회	평리3동 678-8	1989.11.12	윤 재 우	1	60
고 신 교	대 서 교 회	평리3동 675-4	1978. 6. 5	박 충 식	3	120
합 동	복 락 교 회	평리3동 718-26	1990. 6.30	이 태 길	3	50
"	상 이 교 회	평리3동 684-19	1982. 5. 3	조 광 조	2	60
"	대한예수교장로	평리3동 1041-1	1988. 2. 7	김 영 배	2	50
예 장 합 동	충 일 교 회	평리4동 1163-12	1984. 9. 1	임 은 찬	4	210
"	대 광 교 회	평리4동 1097-2	1989. 4.30	김 귀 석	2	80
장 로 교	충 현 교 회	평리4동 1144-10	1990. 6.23	주 건	1	100
예 장 합 동	서대구제일교회	평리5동 621-1	1990. 3.10	이 재 원	5	2,500
예 장 합 동	제 3 교 회	평리5동 1532-5	1975. 9.28	김 상 해	4	300
"	남 성 교 회	평리5동 1493-3	1982. 6.20	이 진 수	2	300
"	광 명 교 회	평리5동 634-21	1986. 5.10	공 정 표	1	250

第3節 基督教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고 신 교	광 민 교 회	평리5동 622-3	1983.10.10	손 무 덕	2	120
"	동 산 교 회	평리5동 634-27	1980.10. 5	박 태 경	5	400
"	은 일 교 회	평리5동 427-21	1989.10. 5	김 인 화	1	10
구 세 군	중 대 구 영 문	평리5동 1535-5	1985. 6.23	조 효 정	1	90
그 리 스 도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평리5동 1542-11	1985. 9.10	조 수 복	1	90
세 일 교 단	평 리 제 일 교 회	평리5동 1524-9	1986. 3. 5	권 기 찬	1	25
장 로 교	이 현 교 회	이현 329-3	1930.	이 수 학	1	160
"	일 신 교 회	중리 712-12	1986. 1	양 은 식	1	100
"	시 민 교 회	중리 717-5	1980.10	류 형 식	1	400
"	서 광 교 회	중리 37-10	1984. 9	이 덕 회	1	100
"	제 일 교 회	중리 701-4	1985. 7	초 진 식	1	35
"	승 리 교 회	중리 555-7973	1986.12	박 정 태	1	500
"	중 리 교 회	중리 64-3	1985.10.	구 경 모	1	150
"	성 로 교 회	중리 76-1	1985. 7	김 원 동	1	80
"	달 서 중 앙 교 회	중리 26-1	1980. 2	이 상 철	1	23
"	서 머 나 교 회	중리 33-15	1989. 9	지 용 덕	1	300
침 례 교	늘 푸 른 교 회	중리 707-13	1986.12	배 우 호	1	80
장 로 교	원 일 교 회	원대2가 71-2	1963. 3. 3	김 성 규	6	300
"	원 대 제 일 교 회	원대3가 1372	1986. 4.15	조 정 수	1	70
예 수 교	원 대 중 앙 교 회	원대3가 1345	1969.10.26	최 만 수	1	281
"	원대중앙감리교회	원대3가 1449-7	1952. 1.27	김 의 철	1	220
예 장 합 동	서대구중앙교회	비산6동 542-55	1969. 4	김 기 준	2	600
예 장 통 합	북 비 산 교 회	비산6동 562-2	1985.11	정 태 경	3	400
"	평 산 교 회	비산6동 485-2	1971. 1	이 흥 식	3	180
고 신 파	성 산 교 회	비산6동 457	1949.10	유 윤 옥	5	800
성 결 교	서대구성결교회	비산6동 355-12	1974.12	양 규 식	1	300
장 로 회	부 광 교 회	비산7동 1297-4	1977. 3	이 광 우	1	800
"	비 원 교 회	비산7동 1249	1986. 6	백 영 침	1	600
"	서 광 교 회	비산7동 1627	1982. 7	윤 재 근	1	300
"	벤 엘 교 회	비산7동 1246-12	1985. 4	황 보 관	1	300
"	활 천 교 회	비산7동 1890-42	1987. 4	송 활 선	1	120
"	한 빛 교 회	비산7동 1719-3	1986. 9	사공태문	1	120

第6章 宗 教

4) 남 구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 직 자	신도수
장	로 회	대 봉 교 회	이천1동 311-1	1948. 9.12	김 정 일	11	3,500
"		대 봉 제 일 교 회	이천2동 559-5	1960. 1. 3	이 광 호	6	1,200
성	결 교	대 봉 성 결 교 회	이천2동 197-4	1954. 4.18	강 석 춘	1	110
장	로 회	구 남 교 회	봉덕1동 849-3	1956. 6.24	전 광 호	1	133
"		신 일 교 회	봉덕1동 749	1965. 7.26	최 태 군	5	810
"		대 현 교 회	봉덕1동 529-7	1963. 1. 3	강 학 근	2	410
"		영 남 교 회	봉덕1동 515-1	1963. 3. 4	김 상 중	2	190
침	레 교	성서침례교회	봉덕1동 1299-6	1985.10. 1	김 희 옥	2	335
장	로 회	양 문 교 회	봉덕2동 1092-4	1977. 1.21	성 선 복	1	200
"		삼 일 교 회	봉덕2동 1200	1975. 5.29	문 성 곤	1	60
합	동	봉 덕 교 회	봉덕2동 927-6	1976. 4.20	이 제 문	2	1,500
성	결 교	대 덕 성 결 교 회	봉덕2동 920-4	1958.10. 3	배 재 규	1	70
장	로 회	봉 덕 중 앙 교 회	봉덕3동 1321-1	1983. 6.18	김 태 원	1	159
"		봉 적 제 일 교 회	봉덕3동 1292-7	1971. 3.15	박 경 열	2	200
"		덕 수 교 회	봉덕3동 665-2	1976.11. 2	우 현 룡	3	150
"		동 심 교 회	봉덕3동 1322-3	1977. 5.27	박 선 천	4	300
"		성 도 교 회	봉덕3동 618-1	1971.10. 3	박 갑 진	4	230
"		평 강 교 회	봉덕3동 1291-2	1992. 3.15	박 성 규	9	700
"		남 명 교 회	대명1동 1652-9	1973.11.16	함 영 호	6	700
"		대 덕 교 회	대명1동 1722-2	1974. 5. 3	이 창 복	3	130
침	레 교	성문침례교회	대명1동 637-1	1976.12. 9	이 준 철	5	330
성	결 교	삼 일 교 회	대명1동 642-107	1976. 4	김 성 목	3	50
장	로 회	성 우 교 회	대명2동 1809-21	1989.10. 3	김 군 식	1	50
"		갈 릴 리 교 회	대명2동 1805-9	1991.10. 1	안 형 식	1	50
"		선 교 장 로 교 회	대명2동 1801-1	1991. 7. 1	정 순 균	1	50
그	리스 토 교	말 일 성 도 예 수 그리스도교회	대명2동 1820-13	1982.12. 7	이 병 만	1	60
장	로 회	삼 성 교 회	대명3동 2295-109	1966.12.18	이 정 인	7	800
"		일 심 교 회	대명3동 2295-48	1973.10. 1	여 원 회	2	200
"		은 광 교 회	대명4동 3028-59	1977. 9	신 홍 철	3	250
"		반 석 교 회	대명4동 3009-65	1978.10	함 중 수	3	300
"		남 대 구 교 회	대명4동 3044-25	1976. 7	허 중 철	2	130
"		성 당 제 일 교 회	대명4동 3038-3	1976. 5	김 성 광	3	150
"		성 심 교 회	대명4동 3029-19	1987. 1. 1	이 회 완	4	350

第3節 基督教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장	로	회	달 명 교 회	대명5동 288-4	1982. 7. 2	신 태 수	1	160
	"		남 영 교 회	대명5동 41-1	1966. 5. 3	김 정 우	1	250
침	례	회	대 립 침 례 교 회	대명5동 151	1962. 3. 8	장 광 석	1	400
장	로	회	명 일 교 회	대명6동 602-14	1970. 2. 8	김 희 윤	1	110
	"		명 현 교 회	대명6동 1210-8	1982. 1.10	김 종 근	1	50
	"		서 성 교 회	대명6동 1088-4	1985. 3. 2	최 재 현	1	100
침	례	회	대 명 동 교 회	대명6동 1434-1	1981. 5. 2	이 덕 만	1	100
장	로	회	광 명 교 회	대명7동 2258-32	1970. 5. 3	장 준 오	3	145
	"		명 덕 교 회	대명7동 1914-29	1966. 9. 7	박 찬 규	6	520
	"		남 광 교 회	대명7동 2131-26	1973. 5. 9	설 서 병	4	210
	"		성 일 교 회	대명7동 2132-5	1959.10.25	최 성 관	4	500
침	례	교	중 앙 교 회	대명7동 2130-26	1975. 4.20	강 대 석	1	110
감	리	교	달 구 별 교 회	대명7동 542-7	1987. 9.25	이 재 열	1	124
장	로	회	남 일 교 회	대명8동 15-210	1968. 6.17	김 한 중	3	300
	"		남 홍 교 회	대명8동 1989-30	1956. 5. 8	최 성 훈	6	400
	"		영 지 교 회	대명8동 2013-224	1953. 1. 4	김 영 환	3	200
	"		천 성 교 회	대명8동 2002-2	1987. 8	채 종 수	1	100
구	세	군	구세군명덕영문	대명8동 2039	1953.10.10	준 준 홍	2	150
장	로	회	대 명 교 회	대명9동 344-3	1915. 6. 3	임 태 득	5	400
	"		안 지 랑 교 회	대명9동 900-1	1985. 3. 9	전 태 진	1	130
	"		새 샘 교 회	대명9동 900-4	1985.11. 1	안 석 진	1	60
성	결	교	충 신 교 회	대명9동 888-9	1960. 4. 2	백 의 호	1	150
침	례	교	대 명 중 앙 교 회	대명9동 616-2	1961. 3. 5	김 부 규	1	2,000
장	로	회	남 도 교 회	대명10동 1622-10	1974. 3. 6	엄 광 섭	1	120
	"		하 나 교 회	대명10동 1648-19	1988.12. 5	김 신 원	1	30
	"		노 명 교 회	대명10동 1647-8	1988. 1	박 정 일	1	70
순	복	음	순복음대구교회	대명10동 산244-5	1981. 5	고 석 환	37	15,000
	"		순복음영남교회	대명10동 1623-60	1987.11.16	박 청 원	1	120
장	로	회	성 명 교 회	대명11동 1118-1	1970. 4. 9	조 정 호	6	1,325
	"		대 덕 교 회	대명11동 1568-6	1970. 7.10	권 중 희	2	125
	"		관 문 교 회	대명11동 2768-17	1978. 4.23	김 성 동	5	810

第6章 宗 教

5) 북 구

교 과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태 평 교 회	고성3가 1-13		김 진 수	2	140
	태 원 교 회	고성1가 156-22		오 춘 근	1	25
	시 민 교 회	고성2가 63-3		유 광 혁	4	100
	태 평 로 교 회	고성3가 6-216		김 장 수	2	400
	한 성 교 회	고성3가 49-3		박 형 춘	1	40
	대 구 원 대 교 회	고성3가 139		김 두 진	1	450
	북 성 교 회	칠성2가1동 421-13		서 덕 조	5	400
	칠 성 동 교 회	칠성2가 1동 462		정 재 선	3	300
	북 부 교 회	칠성2가2동 409-554		김 태 복	7	20
	세 일 교 회	칠성2가2동 355-27		최 종 수	1	200
	북 교 회	칠성1동 1034-1		박 평 식	3	50
	한 마 음 교 회			백 준 기	2	30
	달 구 별 교 회	침산2동 299-2		안 기 성	1	
	북 일 교 회	침산2동 101-6		윤 회 주	2	450
	침 산 중 양 교 회	침산2동 295-14		박 재 발	2	70
	침 산 제 일 교 회	침산2동 22-100		정 규 채	2	380
	침 산 동 부 교 회	침산2동 266-1		최 무 석	2	250
	성 북 교 회	노원1가 2-4		장 지 철	1	200
	침 산 교 회	노원1가 211		최 인	1	700
	노 원 제 일 교 회	노원2가 275-1		변 광 선	1	30
	삼 영 교 회	노원2가 300-1		신 문 덕	1	500
	원 동 교 회	노원2가 116-18		고 장 환	1	80
	노 원 교 회	노원3가1동 729-2		최 봉 기	2	350
	대구예루살렘교회	노원3가2동 35-2		이 시 대	5	300
	산 격 제 일 교 회	산격1동 1071		권 오 주	1	3,000
	성 덕 산 격 교 회	산격1동 1102-1		이 영 선	1	50
	북 문 교 회	산격2동 489-65		김 정 석	3	350
	신 기 교 회	산격2동 174		박 일 해	3	320
	산 격 교 회	산격2동 500-61		홍 성 철	4	150
	선 린 침 례	산격2동 942-47		박 화 준	1	90
	명 성 교 회	산격3동 1418-8		구 정 학	3	300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 직 자	신 도 수
	산 성 교 회	산격3동 1276-7		김 석 배	3	400
	산 광 교 회	산격3동 1230-18		김 동 한	3	160
	동 성 교 회	산격3동 1259-11		황 석 울	3	60
	범 일 교 회	산격3동 1237-1		김 성 득	1	100
	영 남 교 회	산격4동 1197-35		박 광 명	1	510
	대 도 교 회	산격4동 1404-12		최 백 기	1	250
	대 구 성 결 교 회	북현1동 412-6		박 창 식	1	70
	목 양 교 회	북현1동 418-6		조 한 구	2	200
	영 남 중 앙 교 회	북현1동 431-9		박 창 운	1	20
	북 현 교 회	북현1동 465-4		배 영 오	2	200
	신 현 교 회	북현1동 484-12		김 상 화	1	80
	은 당 교 회	북현1동 462		박 한 선	1	100
	우 정 교 회	북현1동 472-4		김 윤	1	100
	평 화 교 회	북현1동 473-1		최 한 욱	1	50
	성 북 교 회	북현1동 473		송 완 무	1	90
	시 민 성 결 교 회	북현2동 57-4		이 균 성	2	600
	북 현 교 회	북현2동 148		오 용 덕	1	350
	북 현 제 일 교 회	북현2동 1107-7		김 상 철	1	50
	세 명 교 회	북현2동 200-16		권 기 응	2	300
	구 일 루 터	북현2동 361-33		구 태 화	1	30
	성 림 교 회	북현2동 362-2		이 용 해	1	75
	성 빈 교 회	북현2동 376-8		김 재 민	1	500
	북대구감리교회	북현2동 339-23		김 상 호	1	50
	신 창 교 회	대현1동 199-10		여 홍 근	4	400
	충 현 교 회	대현1동 173-6		최 윤 철	3	150
	대학생성경읽기 선 교 회	대현1동 247		정 갈 랍	1	300
	성 한 교 회	대현1동 167-5		최 시 원	1	50
	중 앙 침례 교 회	대현2동 428-2		윤 태 준	2	400

第6章 宗 教

교 과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영 생 교 회	대현2동 412-4		양 현 달	1	100
	신 광 교 회	대현3동 321-7		류 관 선	5	1,500
	환 돌 교 회	대현3동 492-2		이 종 하	3	1,000
	사 랑 교 회	대현3동 282-3		김 회 정	1	120
	반 석 교 회	대현3동 270-11		김 상 대	3	70
	검 단 교 회	검단동 1146		김 성 곤	2	200
	검 단 제 일 교 회	검단동 1017-1		허 남 근	1	120
	성 복 교 회	무태·서변동 786		이 진 용	1	150
	동 서 교 회	무태·동변동 362-2		최 필 곤	1	75
	연 경 교 회	무태·연경동 749		이 계 훈	1	30
	노 곡 교 회	노곡동 316		김 태 균	1	180
	조 아 교 회	조아동 247-4		박 학 곤	2	150
	조 아 제 일 교 회	조아동 82-3		김 한 홍	1	110
	태 전 교 회	칠곡1동 태전동 466-1		김 해 룡	1	300
	영 광 교 회	칠곡1동 태전동 687-27		허 장 식	1	57
	은 광 교 회	칠곡1동 태전동 310		정 운 재	1	160
	대 홍 교 회	칠곡1동 태전동 718-1		라 민 수	1	100
	베 다 니 교 회	칠곡1동 태전동 422-20		송 재 명	1	45
	구 암 교 회	구암동 480-1		남 상 용	1	170
	복 음 교 회	관음동 723		김 상 환	1	70
	중 부 교 회	관음동 457		강 우 수	1	100
	중 앙 교 회	관음동 1021		정 은 수	1	50
	영 신 교 회	관음동 493-1		윤 재 근	1	50
	성 산 교 회	관음동 605-1		홍 봉 명	4	140
	매 천 교 회	칠곡2·매천동 477-2		황 성 환	2	90
	사 수 교 회	사수동 501-2		김 영 경	1	40
	팔 달 교 회	팔달동 283-1		배 인 규	2	100
	팔 달 중 앙 교 회	팔달동 151-23		정 학	1	250
	방 주 교 회	팔달동 286-1		이 기 덕	1	100
	칠 곡 교 회	칠곡3동 읍내동 842		김 영 환	2	550
	칠 곡 제 일 교 회	칠곡3동 읍내동 453-1		구 쾌 도	1	100
	부 강 침례	칠곡3동 읍내동 676		유 병 호	1	50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칠곡중앙교회	칠곡3동 읍내동 1127		우 중 대	2	130
	칠곡서부교회	칠곡3동 읍내동 780-3		이 중 화	1	30
	강 북 교 회	칠곡3동 읍내동 518			1	30
	삼 애 교 회	칠곡3동 읍내동 304		최 유 환	1	30
	활 천 교 회	칠곡3동 읍내동 1060		이 경 우	1	80
	대 천 교 회	칠곡3동 읍내동 970-1		손 희 수	1	30
	국 우 교 회	국우동 624		신 완 식	1	60

6) 수성구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예 장 (합 동 측)	한 샘 교 회	범어1동 800-3		이 희 만	3	150
기 독 교 장 로 회	성 산 교 회	범어1동 733		전 태 진	2	120
예 장 (합 동 측)	범 어 교 회	범어1동 805-4		김 성 무	10	3,000
예 장 (통 합 측)	제 일 등 교 회	범어1동 805-105		조 용 복	10	40
예 장 (합 동 측)	대 동 교 회	범어2동 167-2		김 기 년	10	800
예 장 (고 신 측)	대 구 등 교 회	범어2동 252-12		최 수 갑	4	150
예 장 (합 동 측)	샤 론 교 회	범어2동 424-5		김 종 배	1	100
기 독 교 대 한 예 수	성 삼 교 회	범어2동 180-1		예 종 도	1	110
침 례 교 회	성 서 침 례 교 회	범어2동 421-7		장 창 수	1	80
김 리 교	대 구 감 리 교 회	범어3동 2017		윤 병 규	1	295
예 장 (합 동 측)	동 부 중 앙 교 회	범어3동 475-4		최 진 호	3	121
"	동 일 교 회	범어3동 43-9		유 창 대	3	160
장 로 교	아 멘 교 회	범어4동 292-3		김 명 동	4	300
"	동 명 교 회	범어4동 140-3		이 근 태	2	35
"	신 일 교 회	범어4동 75-5		김 군 식	6	30
"	대 동 로 교 회	범어4동 206-1		정 종 수	2	100
침 례 교	동 대 구 교 회	범어4동 65-35		유 영 식	2	45
장 로 교	서 광 교 회	범어4동 204-1		소 신 열	2	40
"	동 신 교 회	만촌3동 856-4		김 창 렬	13	1,500
"	양 우 리 교 회	만촌3동 854-2		여 혜 정	2	250
"	만 촌 교 회	만촌3동 1025-43		박 진 구	4	200
"	늘 푸 른 교 회	만촌3동 861-1		백 윤 교	2	50

第6章 宗 教

교 과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예수교사도신앙	대 구 교 회	만촌3동 866-5		윤 중 학	1	45
"	에 덴 교 회	만촌3동 1039-1		김 창 환	1	30
장 로 교	십 승 교 회	수성1가 522-1		김 원 기	500	600
예 장 (합 동 측)	천 산 교 회	수성1가 641-5		한 원 식	3	300
"	성 립 교 회	수성1가 113-4		박 요 한	2	30
장 로 교	수 성 교 회	수성2,3가 143		김 창 수	5	850
"	성 우 교 회	수성2가 240-2		김 달 원	1	100
"	신 은 교 회	수성2가 264-2		장 태 보	1	12
침 례 교	성 서 침 례 교 회	수성3가 326		이 철 규	1	50
장 로 교	신 성 교 회	수성4가 1057-12		오 준 용	1	100
"	대 구 동 성 교 회	수성4가 1019-6		이 태 연	6	470
"	말 일 성 도 교 회	수성4가 191-3		배 성 수	10	120
"	성 민 교 회	황금1동 365		한 봉 근	1	120
장로교(합동측)	초 대 교 회	황금1동 84-5		이 명 필	1	65
여 호 와 의 증 인	대구황금서부회중	황금1동 240 상가203		박 희 증	3	60
장 로 교	황 금 제 일 교 회	황금1동 967-1		심 재 관	1	65
"	황 금 성 교 회	황금1동 240 상가12-2호		염 우 섭	3	100
"	제 일 동 교 회	황금2동 767-1		조 용 복	4	60
침 례 교	영 광 교 회	황금2동 698-5		천 병 진	3	150
합 동 측	소 망 교 회	황금2동 681-3		이 태 희	2	70
침 례 교	동 부 교 회	황금2동 858-1		권 중 완	2	250
나 사 랫	영 남 성 결 교 회	황금2동 807-4		정 지 승	2	100
"	동 광 교 회	황금2동 773-6		조 영 남	2	100
"	성 화 교 회	황금2동 881-8		이 교 현	2	110
순 복 음	신 동 산 교 회	중동 532-146		서 달 수	190	600
"	순 복 음 교 회	중동 551-5		김 철 수	54	350
제 7 안 식 일	예 수 제 립 교 회	중동 410		김 경 호	40	100
세 일 주 단	광명세일농아교회	중동 453		권 기 찬	12	65
장 로 교	중 동 교 회	중동 664-5		유 수 완	14	45
"	수 석 교 회	중동 532-15		라 길 동	156	250
한국기독교침례교	동 남 교 회	중동500-4		손 견 삼	30	100
침 례 교	수 성 중 앙 교 회	중동 31-7		신 재 훈	1	40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직자	신도수
장 로 교	상 동 교 회	상동 256		이 성 경	12	1,500
"	동 성 교 회	상동 616-17		김 학 수	2	70
"	세 일 교 회	상동 15-5		김 영 풍	1	70
"	제 일 교 회	파동 133-9		황 용 문	3	200
"	파 동 교 회	파동 247		신 성 균	1	100
"	은 성 교 회	파동 284		김 기 수	1	3100
"	남 교 회	파동 613		이 감 형	7	300
"	심 광 교 회	파동 368-3		박 순 채	1	100
"	광 영 교 회	파동 149-8		송 성 근	1	100
"	중 앙 교 회	파동 515-2		심 영 학	1	100
"	은 진 교 회	파동 27-63		홍 대 춘	1	200
장 로 교 통 합	영 남 제 일 교 회	두산동 139-5		신 성 훈	13	250
"	칠 성 교 회	두산동 90		정 을 동	4	400
"	광 성 교 회	두산동 744-16		김 병 길	2	40
장로교합동보수	초 성 교 회	두산동 159-1		배 영 환	2	12
장 로 교 통 합	두 산 교 회	두산동 71-3		조 경 준	3	80
"	지 산 제 일 교 회	지산1동 468-2		신 정 환	2	1,100
"	대 온 교 회	지산1동 980-8		곽 인 영	1	35
장 로 교 고 신	제 2 서 교 회	지산1동 974-3		이 인 영	1	150
"	황 금 교 회	지산1동 954-3		박 무 용	2	250
장 로 교 통 합	지 산 교 회	지산1동 503-1		김 하 울	1	100
장 로 교 고 신	소 망 교 회	지산1동 1027-6		김 영 재	1	60
장 로 교 합 동	성 덕 교 회	지산동 566-7		김 주 석	5	500
장 로 교 통 합	정 동 교 회	지산1동 1038-2		임 관 영	2	600
"	일 광 교 회	지산1동 446-1		최 윤 관	1	200
장 로 회	영 광 제 일 교 회	지산2동 1209-2		석 근 대	1	90
"	재 광 교 회	지산2동 1196-19		김 영 수	1	80
"	영 신 교 회	지산2동 1197-5		김 종 상	2	200
"	중 앙 교 회	지산2동 1204-11		김 주 현	1	120
"	미 문 교 회	지산2동 1186-2		황 용 문	1	110
순 복 음	에 바다농아교회	지산2동 1197-5		김 복 수	2	200

第6章 宗 教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 직 자	신 도 수
장 로 회	늘 빛 교 회	지산2동 1203-2		한 성 근	1	250
"	시 온 교 회	지산2동 1250-19		천 승 욱	1	30
"	수 성 교 회	지산2동 1161-57		백 의 호	1	80
"	새 빛 교 회	지산2동 1207-12		박 경 서	1	30
감 리 교	갈 릴 리 교 회	지산2동 1206-6		김 영 윤	1	15
장 로 회	한 길 교 회	지산2동 1244		김 중 균	1	60
"	수 가 교 회	지산2동 1246		이 경 숙	1	20
"	수 동 교 회	지산2동 1193-6		이 희 욱	1	50
"	정 금 교 회	지산2동 1199-10		노 병 철	1	80
"	제 2 삼 승 교 회	지산2동 1206-1		이 성 대	1	40
"	봉 산 교 회	지산2동 1210-5		이 상 문	2	500
"	한 사 랑 교 회	지산2동 1212-8		박 광 섭	2	70
장 로 교	선 린 교 회	범물동 14B10L		권 요 한	1	70
"	충 신 교 회	범물동 37B15L		현 오 름	1	30
"	범 물 교 회	범물동 48B12L		박 석 기	1	50
"	범 일 교 회	범물동 488		김 수 석	1	30
"	주 안 교 회	범물동 51B10L		최 중 인	1	55
장 로 회	옥 수 교 회	옥수동 162		최 재 욱	1	60
"	사 월 교 회	사월동 296		박 경 환	6	500
"	신 매 교 회	신매동 209		문 동 경	2	180
"	매 호 중 앙 교 회	매호동 970-1		최 선 무	1	120
"	매 호 교 회	매호동 884		박 삼 식	2	50
"	동 부 교 회	노변동 122-1		김 도 한	4	400
"	중 앙 성 결 교 회	신매동 286-2		조 덕 영	1	70
장 로 교	고 산 교 회	시지동 132		이 수 봉	1	120
"	고 산 중 앙 교 회	시지동 268		김 장 수	2	250
"	영 광 교 회	내환동 187-1		임 병 제	3	80
"	수 성 동 부 교 회	가전동 153-4		최 재 현	1	100
"	고 산 천 주 교 회	시지동 253		김 정 환	1	800

7) 달서구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 직 자	신 도 수
장 로 교	성 문 교 회	성당1동 220-1		이 복 경	3	510
"	대 성 교 회	성당2동 428-3		박 윤 화	1	200
"	제 일 서 교 회	성당2동 394-2		정 재 훈	1	150
"	성 당 중 앙 교 회	성당2동 411-5		황 창 수	1	170
"	남 덕 교 회	성당2동 666-1		장 용 덕	1	850
"	성 산 교 회	성당2동 726-6		최 태 조	1	200
"	성 본 교 회	성당2동 828-30		감 수 운	1	430
"	본 향 교 회	성당2동 413-5		유 호 결	1	30
"	중 부 교 회	성당2동 707-12		김 영 도	1	5
"	평 화 교 회	성당2동 713-3		조 정 희	1	30
"	성 당 서 현 교 회	성당2동 704-5		정 주 현	1	60
"	서 일 교 회	두류1동 848-1		유 인 상	3	500
"	청 산 교 회	두류1동 832-5		김 성 택	2	250
"	서 광 교 회	두류1동 807-70		김 학 로	2	500
"	서 대 구 교 회	두류2동 1247-10		이 재 현	3	156
"	내 당 교 회	두류1동 840-55		조 석 원	8	1,500
"	장 성 교 회	두류1동 101-10		정 현 식	2	80
"	혜 광 교 회	두류3동 612-11		박 기 택	4	200
"	중 앙 교 회	두류1동 496-12		최 태 수	1	200
"	내 일 교 회	두류1동 494-9		김 성 덕	5	450
"	대 은 교 회	두류3동 470-4		김 덕 오	1	100
"	서 산 교 회	용산동 211		김 상 두	3	160
"	성 서 교 회	장기동 139-2		신 주 희	3	400
"	성 민 교 회	장기동 361		송 영 일	1	50
"	감 서 교 회	감삼동 101-14		이 영 호	1	150
"	제 일 교 회	감삼동 109-10		장 남 희	1	50
"	대 서 교 회	감삼동 129-9		노 성 환	2	70
"	감 삼 교 회	감삼동 163-1		이 종 근	3	200
"	영 진 교 회	감삼동 166-10		김 도 원	2	55
감 리 교	서대구감리교회	감삼동 168-15		김 광 용	1	90

第6章 宗 教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표자	성직자	신도수
장 로 교	제일서대구교회	감삼동 281-2		김 환 영	2	70
	"	서대구중앙교회	감삼동 188-19	박 종 순	1	30
	"	성 소 교 회	감삼동 197-4	구 승 일	1	30
	"	벤 엘 교 회	감삼동 203-2	이 성 근	1	70
	"	서 부 교 회	감삼동 210-12	김 완 섭	1	120
	"	광 문 교 회	감삼동 296-3	이 판 근	1	200
	"	은 샘 교 회	감삼동 319-3	장 상 의	2	80
감 리 교	성서감리교회	이곡동 1000-180		유 재 인	1	10
장 로 교	성서중앙교회	이곡동 661-22		김 석 표	7	120
	"	성 강 교 회	파산동 121	박 태 호	2	80
	"	제 일 서 대 구 갈 산 남 부 교 회	갈산동 221	박 계 인	1	160
	"	성서제일교회	신당동 185	지 병 규	3	200
	"	달 구 별 교 회	신당동 680	최 상 택	1	70
	"	베 델 교 회	갈산동 358-84	한 종 철	2	25
	"	만 평 제 일 교 회	이곡동 1000-180	김 하 균	1	50
	"	금 산 중 앙 교 회	감삼동 47-25	장 동 관	1	50
	"	대 한 예 수 교 사 랑 의 교 회	감삼동 52-29	정 득 호	2	50
	"	죽 전 교 회	감삼동 41-10	이 유 택	1	30
	"	대 한 예 수 교 새 생 명 중 앙 교 회	감삼동 56-15	김 희 연	2	30
	"	동 남 교 회	죽전동 262-2	김 우 석	4	180
	"	화 평 교 회	감삼동 35-6	권 태 문	8	200
침 례 교	성서침례교회	감삼동 61-2		방 의 태	2	200
	"	서대구중앙교회	감삼동 2-2	배 경 린	1	80
	"	팔 성 교 회	본리동 2-2	황 성 화	1	60
	"	순복음달서교회	본리동 306-9	강 석 구	1	50
	"	바 로 선 교 회	본리동 306-7	남 응 기	1	40
	"	광 명 교 회	본리동 375-2	이 석 광	1	210
	"	봉 산 교 회	본리동 145	김 상 철	3	400
	"	삼 일 교 회	본리동 408-1	최 영 태	1	300
	"	대 광 교 회	본리동 666-1	이 강 국	2	70

第3節 基督教

교과			명칭	위치	건립일	대표자	성직자	신도수
침례교	례교	대삼교회	본리동 675-2			여광명	1	20
	"	승리교회	대천동 571-3			김시권	1	30
장로교	교	승리교회	상인동 1464-5			최홍덕	3	60
	성결교	활청교회	상인동 1468-11			임홍수	1	20
침례교	교	동양교회	상인동 1471-3			고선중	2	40
장로교	교	제3서교회	도원동 601			안화수	1	50
	"	한샘교회	도원동 1401-4				1	30
"	"	월배반석교회	도원동 1446-1				1	30
"	"	세계선교기도원	도원동 523			최종술	3	100
"	"	영광교회	상인동 455-1			이강용	2	40
"	"	대구월성교회	상인동 564			우부용	3	180
"	"	월배동부교회	상인동 1473			배종도	1	50
"	"	상인교회	상인동 1465-13			윤인원	1	30
"	"	평서교회	상인동 1463-3			이재명	2	50
"	"	월배제일교회	상인동 1421-7			민병철	3	300
"	"	달서제일교회	상인동 1446-2			박길영	1	40
"	"	만디옥중앙교회	상인동 314-5			이민찬	1	50
"	"	대흥교회	상인동 1458-7			정안철	2	30
"	"	새로남교회	상인동 1397-3			박세윤	2	100
"	"	새소망교회	상인동 253-3			남양희	1	60
"	"	남문교회	상인동 240-7			최진현	2	70
침례교	교	월배침례교회	상인동 1458-18			이충학	1	100
장로교	교	진성교회	상인동 1470-4			강홍찬	1	100
	"	대구권능교회	상인동 1454-1			하영일	1	30
"	"	남대구중앙교회	상인동 1473-1			소재영	2	70
"	"	은혜교회	상인동 1458-1			조달호	5	70
"	"	대광교회	상인동 1473			김성일	1	30
"	"	충은교회	상인동 1469-1			유창호	1	30
구세군장로교	군	구세군남대구영문	상인동 1468-2			이덕중	1	20
	장로교	오방교회	상인동 1396-4			곽태용	1	10
	"	영광교회	상인동 1440-5			최병세	1	30
	"	월배중앙교회	상인동 684-32			신성현	2	200

第6章 宗 教

교과		명칭	위치	건립일	대표자	성직자	신도수
장로교		월광교회	상인동 790-10		강외석	2	60
	"	월배교회	상인동 557-1		이광우	4	560
침례교		새빛침례교회	진천동 390		박상재	2	70
장로교		월배중부교회	진천동 492-16		유정현	1	150
	"	사랑의교회	진천동 398		이풍길	1	40
"		은혜교회	진천동 819		조달호	2	60
"		영복교회	대곡동 32-2		채병걸	1	25
"		진천교회	진천동 470		김예출	1	20
"		대곡교회	대곡동 23-8		노신환	1	20
"		평광교회	상인동 874		권팔기	3	100
"		성산교회	상인동 1183-1		이호일	2	100
"		상현교회	월성동 270-5		진성환	1	50
"		서광교회	월성동 270-5		이덕희	1	350
"		부활회교회	송현1동 2006-9		장계문	1	5
"		동산교회	송현1동 1992-5		이영학	2	350
"		영광교회	송현1동 1934-32		김원택	2	130
"		송백교회	송현1동 1991-12		김동일	1	150
"		남대구제일교회	송현1동 2011-33		김영태	1	150
"		오순절기도원	송현1동 1931-28		조만순	1	80
"		한일교회	송현1동 1954-8		하인권	1	220
"		송산교회	송현1동 1953-1		최재진	1	170
"		경향교회	송현1동 1958-2		이재륜	4	150
"		주사랑교회	송현1동 1944		김희자	3	100
"		신정교회	송현1동 1948-1		이훈걸	1	80
"		대민교회	송현2동 1916-1		최찬호	1	100
"		새생명교회	송현2동 1032-2		오태옥	1	120
"		송현중앙교회	송현1동 516-1		김수덕	3	150
장로교		서문제2교회	송현2동 1916-19		이성만	2	150
침례교		성서침례교회	송현2동 100-3		손중만	1	50
장로교		송암교회	송현2동 158-5		김혁석	1	30
	"	서문제4교회	송현2동 137		정영호	1	120
"		성화교회	송현2동 82-16		박만서	1	45

교	파	명 칭	위 치	건 립 일	대 표 자	성 직 자	신 도 수
장	로	교	실 로 암 교 회	송현2동 127-1	박 영 수	1	70
	"		송 현 교 회	송현2동 184-3	박 지 은	2	1,200
	"		대 구 평 안 교 회	송현2동 187-2	박 정 식	2	60
	"		성 천 교 회	송현2동 483	안 세 경	1	50
	"		서 문 제 2 교 회	송현2동 1916-19	이 성 만	2	150
루	터	교	반 석 교 회	송현2동 1913-8	윤 병 상	1	60
	"		주 안 교 회	본동 904-1	노 병 호	1	
	"		남 송 교 회	본동 777-1	김 연 경	3	250
	"		달 서 교 회	본동 757	강 규 찬	2	600
	"		본 동 교 회	본동 792-12	이 강 웅	2	200
	"			본동 697-4	안 동 환	1	120

第4節 新宗教

I. 新宗教의 發生과 그 意義

19세기는 한국사회의 舊體制가 내부적으로는 사회변동에 따른 지배체제의 모순과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외부적으로는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가 점차 세계시장 질서를 구축하면서 국내사회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을 강요하는 현실에 봉착하여, 전체적으로는 양반 문사들로 이뤄진 관료 지배집단이 더 이상 지배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성의 위기가 나타나던 시기였다. 특히 왕조의 聖化를 담당하는 관료집단의 관직등용 매카니즘인 科擧制의 문란과 蔭敍制의 남발로 인한 관직의 상품화와 四色黨爭에 의한 양반층내의 분열, 外戚의 勢道에 따른 王權의 쇠퇴, 지방관의 收租權의 남용으로 인한 농민에 대한 강압적 收奪 등은 더 이상 민중들이 兩班文士集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숙종조 이래의 오랜 흉년에 따른 飢饉者의 속출, 질병의 만연, 토지를 떠난 流民의 대량 발생 등에서 나타나는, 王朝에 대한 현실 문제의 해결 기대 역시 무망한 것으로 비추어졌다. 더 우기 異樣船의 잦은 출몰과 외래신앙인 天主學의 보급, 중국 북경의 함락등에서 초래되는 西勢東漸의 현실적 위기감 등은 당연한 질서로 믿어 왔던 조선왕조의 지배체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19세기의 조선조의 위기 상황은 민중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려

은 왕조의 운명이 다했음을 확인해 주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기대를 자라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기대는, 舊體制의 變革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으며, 동시에 舊體制가 변동을 겪는 새로운 현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일상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체계를 요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실 파악의 궁극적 의미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종교이다. 결국, 지금까지 양반 지배층이 제공해 왔던 性理學의 의미체계는 그 변혁기에는 무용한 것으로 무언가 새로운, 민중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교가 요구되었다. 東學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최초로 나타난 신종교였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新宗教運動은, 지금까지 당연시 하여온 생활세계의 심층구조를 주제화하여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하여 생활세계의 일상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文化的 回轉儀(cultural gyroscope)²¹⁸⁾로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변혁기의 현실 문제를 이해하는 기층민들의 현실 적응의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近代初期의 新宗教運動은, 지금까지 생활세계를 통해 典型化된 현실파악의 심층구조를 활성화하여 舊體制 변혁기의 현실을 파악하는 새로운 현실파악의 도구적 지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신종교운동을 통해 새롭게 제시되는 현실문제 파악의 방식은 언제나 그러한 해석에 권위를 인정하는 추종 세력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 세력간의 충돌을 항상 전제한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에서 결국 새로운 해석 방식이 더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현실문제 해결의 능력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 종교를 밀어내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수용되게 되는 것이다. 東學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지배층의 유일 사상과도 같았던 性理學에서 제시하는 君子之德을, 東學은 13자 주문과 守心定氣의 수련이라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방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上帝로 표현된 한울님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고 부여한 布德天下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근본적으로 窮理之誠을 통한 仁을 체현함으로써 君子에 이르는 수 있는 德을 획득한다는 性理學의 주장과 먼저 싸워야 했다.

주지하듯이, 조선조 사회는 성리학에 의한 聖化된 人倫共同體를 지향하는 君子의 德에 의한

218) 벨라는, “의미의 가장 일반화된 지향에 뿌리 박고 있는 종교의 기능은 文化的 回轉儀로서의 기능이며, 세계와 그와 관련된 自我에 관한 안정된 定義를 내려줌으로써 사회나 삶의 덧없음과 위기에 침착하게 맞설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R.N. Bellah, “Japan’s Cultural Identity: Some Refrlections on the Work of Watsuji Tetsuro”, *The Journal of Asian Study* vol.24, No.4, 1965, p.173.

치리를 지배의 이념으로 삼은 왕조였다. 그런 까닭에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세계관에 따른 현실지배이념과 다른 어떠한 세계관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斯文亂賊시 했다. 사실 조선조는 그 초기 부터 「國之大事 惟祀爲重」²¹⁹⁾이란 데서 잘 나타나듯이, 抑佛崇儒와 淫祀禁斷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대신 文廟制度和 釋奠儀式을 정비한 祀典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러한 祀典의 정비에는 그 이전까지의 불교나 민간신앙에 의한 잡다한 祀神을 정비하여 祭禮의 형식과 절차 및 그 시행기관을 위계적 서열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祭禮를 통한 왕조의 중앙 집권적 조직화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신앙행위를 장악하여 祭禮를 통한 민간의 교화를 전담함과 아울러 救濟財를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새로 정권을 잡은 신혼 사대부들의 민간에 대한 지배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동시에 그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교 이외의 어떤 종교운동이나 특히 신종교운동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특히 대구가 위치한 경북지역은, 17세기 이래로 경상좌도를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가 각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장악하고 강력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야당인 南人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집권세력이었던 西人 내지는 老論으로 이어지는 여당의 비판적 견제세력으로 존재하던 지역이다. 또한 嶺南의 在地士族들은 退溪를 중심으로한 李賢輔, 柳成龍, 金誠一, 趙穆 등의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한 퇴계학파의 학문적 후광에 입고 비록 관직에 의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사회적 위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孫仲墩과 李彥迪의 후손이 집성촌을 이룬 良佐洞 孫씨와 李씨가 경주의 북부에서 그리고 迎日 鄭씨와 昌寧 曹씨는 영천의 남북에서 집성촌을 이루으로써 실질적으로도 강력한 토착 在地士族에 의한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²²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만큼, 영남지역은 조선시대 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성리학의 君子之德을 표방하며 향촌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在地士族의 권위가 강력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비록 18세기 이래로 영남에서도 下道라 하여 안동 상주권에 비해 떨치받고 있던 경주에서, 그것도 殘班의 서자로 태어난 水雲이 創唱한 東學은 在地士族들의 눈에는 가소로울 정도로 천박한 惑世誣民의 斯文亂賊에 불과한 것이었다.

219) 《三峰集》 권 8下, 〈朝鮮經國典〉 憲典 祭祀條.

220) 경상북도·영남대학교, 《慶北鄉校誌》 1991, pp.168~169.

II. 東學의 發生과 嶺南儒林社會

1. 水雲의 東學에 대한 유림들의 반응과 水雲의 처형

이렇듯, 대구를 중심으로한 경북지역은 儒林의 세력이 어느 지방 보다 강력히 존재하고 또한 스스로 鄒魯之鄉이라 불려 자족할 정도로 窮理之學을 사회적 명예의 자원으로 삼았던 양반신분들이 주축을 이룬 토호 세력이 강력히 실질적인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들 兩班土豪들은 현실의 사회적 지배관계에서 뿐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문제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설명과 해답체계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였으며,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 위세가 보존되는 한 문제되는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과 해답을 제공할 수있는 새로운 종교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사정이었다.

주지하듯이, 근대의 변혁기에 등장한 본격적인 신종교운동은 최수운에 의한 동학이다. 水雲은 이른바 「天師問答」이라 하는 上帝 강림의 체험을 한 후, 1년여 간의 공부기간을 거친 뒤 1860년 4월 5일 ‘道를 天道라 칭하고 學을 東學이라 부르며, 布德天下하여 廣濟蒼生하리라’며 동학의 창교를 선언한다. 동학의 創教 당시는 이미 조선의 지배체제가 오랜 세도정치의 폐해로 그 말기 증상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중국의 북경 함락까지 가져 온 西勢의 東漸 현상이 불안한 사회분위기를 고조시킬 때였다. 水雲은 이 시기에 그때까지 天道를 가르쳐 온 性理學을 포함한 모든 道가 사실상 天道를 명확히 밝혀 줄 만한 능력을 상실했음을, 새롭게 天道를 말하는 西學(당시의 天主教)이 들어오게 된 사실만으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²²¹⁾ 나아가 水雲은 1861년 자신이 도를 깨우쳤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온 사람들과 東學을 논하면서 ‘吾道今不聞 古不聞之事也’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당시 모든 사회적 지식생산과 그 현실적 운용을 통해 독점적인 지배를 관철시키고 있던 양반유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사회적 명예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곧 지금까지 고전에 대한 독서를 통해 窮理之誠하여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 운행원리를 깨닫고 현실세계를 그 원리에 따른 聖化된 人倫共

221) 이러한 지적은 그가 布德을 선언하면서 쓴 글에서, “古道 쇠함에 西教가 이 기회를 틈타 포교를 감행하니 이것은 우리나라에 해독이 될지로다. 내가 上帝의 신탁을 받아 神符를 가졌으니 우리 教를 신봉하는 자는 질병을 면하며 天壽을 누리리라. 西教는 백성을 멸하고 나라를 빼앗은 邪教로다.”고 한 주장에서 나타난다. 吉田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社, 1922, p.321에서 재인용. 사실상 그가 東學이라는 새로운 教를 주창하게 된 데에는 당시 모든 조선인에게 中華의 나라로 인식되던 중국의 수도 北京이 西教를 믿는 서양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항간에 전파되고, 그 사실은 곧 天道가 실현되는 中華의 나라가 중국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곧 서양 오랑게에게 짓밟힌 땅인 淸은 이미 天道를 밝힐 中華가 아니며, 오히려 上帝가 직접 天道의 실현을 위해 찾아온 땅인 우리나라에서 그 天道를 밝혀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맡은 것이 東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同體로 만들어가는 것을 君子 곧 자신들의 소명으로 삼았던 양반 유생들에게는, 德으로 표현된 현실세계지배의 능력을 性理學이 아닌 東學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는 선언 자체가 불쾌하고 황당무계한 것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

특히, 유교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독점적 힘을 발휘하던 당시 사회에서의 이상적 인간상은 君子였으며 이 군자가 되는 길은 四書三經과 같은 유교고전의 독서를 통한 窮理之誠으로 道成立德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東學은 그 道成立德의 방법을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주문의 낭독으로 守心正氣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신분제 사회에서 누구든지 君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주장이 민간에게는 새로운 救濟財로 받아들여짐으로써 포교 3년여에 벌써 영남 10여 郡에 그 교세를 펼치게 된다. 그러나 道成立德의 방법을 독점하고 있던 양반유생들의 입장에서서는 그런 東學의 주문을 통한 守心正氣의 수련 방법이 황당무계한 것이며, 또한 「侍天主」라는 용어 자체가 당시 정부의 탄압을 받던 天主教의 神格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었기에 西教를 퍼뜨리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바로 이런 오해는 당시 議政府의 啓言에서 “지금 이 동학이 洋術을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이름을 바꾸어 어리석은 백성을 현혹시키려 하니 어찌 우둔하지 않은가”²²²⁾고 인식하는 대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래서 東學은 포교 당시 부터 당시 斥邪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東學이 天主學과 같다는 평판에 맞서 그 차별성을 강조해야 했으며, 동시에 그 어느 지역 보다 강력한 유생집단으로 부터의 비판도 견뎌내어야 하는 포교의 이중적 장벽을 극복해야 했다.

양반유생 집단이 우선 東學을 바라보는 시각은, 水雲이 체포되어 사형 당하기 직전이 1863년 12월 1일을 기해 당시 경상도 전역으로 교세를 확장해 가던 東學의 전과를 막기 위해 尙州의 道南書院 유림 25명이 玉成書院 유림에게 보낸 東學排斥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보낸 通文²²³⁾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 유림들은 먼저 경상도 지역이 鄒魯의 이름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주문은 서양의 天主의 法에 의존하고 있으며, 淸水를 바치는 의례는 張角의 敎인 黃巾으로 부터 답습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동학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평가하여, “貴賤에 차등이 없고 구분이 없어 푸줏간 백정이나 술집작부도 모여들고, 남녀가 함께 섞여 모임으로써 행실이 음탕해 저 과부나 홀아비가 즐겨 모인다. 재물이 있든가 없든가 서로 도우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즐거워 한다. 또 徒黨을 널리 모으는 것을 제1의 功業으로 삼아 한 마을에 머물게 되면 마을 한사람까지라도 또 한 鄉에 머물게 되면 한명의 鄉民까지도 힘써 전하려 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커져 화를 미치게 된

222) 《日省錄》, 高宗 元年 3월 2일, 「今次東學 踏襲洋術 而特移易名目 眩亂豈蠢耳」.

223) 崔承熙編, 《韓國思想史資料選集 朝鮮後期編》, 1986, p. 440, 「東學排斥通文」.

다.”²²⁴⁾고 보았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東學이 민간에서 그 교세를 펼 수 있었던 동기가 오히려 신분의 구분이나 재화의 유무에 상관없이 道成立德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주효했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유림들의 東學 排斥의 辯은 사실 신분제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사회적 위세의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무튼 儒敎 이외의 어떠한 종교운동도 그 자체가 흑세무민의 邪敎로 간주될 수 밖에 없던 조선조에서 특히, 그것도 가장 근본주의적 性理學의 학풍이 지배하고 있던 경상도 땅에서 그 東學運動은 자연히 양반 유생들의 비판과 관헌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중에도 포교 초기였던 1862년 12월 그믐부터 각지에 接所라는 講道所를 두고 그 지역의 道人 중 덕망있고 다소 유복한 자를 골라서 接主(또는 接主人)으로 임명하여 해당 接所내의 도인들에 대한 敎化를 담당하도록 하는 接主制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敎團宗敎로서의 발전을 보게된다. 당시 접소를 설치하고 접주를 둔 지역을 보면²²⁵⁾, 慶州府內, 慶州府西, 영덕, 영해, 청주, 延日, 안동, 단양, 영양, 영천, 신령, 고성, 울산, 장기, 등이었다. 그리고 대구와 청도 경기를 포괄하는 접소를 1개소 두고 있었다. 그래서 접소가 15개소에 접주는 경주부서 접소에 2인을 두어 16명을 임명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대구가 東學이 단일 접소를 둘 만큼 교세를 확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중에도 당시 교세는 도인이 3천여명에 달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水雲은 그가 40세 되던 해인 1863년 8월 14일 「守心正氣」의 4자를 써서 崔時亨에게 전하면서 2대 교주로 임명하고 ‘敎에 관한 건으로 찾아오는 자는 먼저 최시형에게 면회하고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도인들에게 공포하게 된다²²⁶⁾. 아마도 東學이 天道敎로 한국의 신종교운동에 가장 중요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 중에는, 水雲이 일찌기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교단의 조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宗權 계승의 전통을 남겼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것이다. 그 해 12월 수운은 宣傳官 鄭雲龜에게 체포되어 대구로 압송되고 慶尙監司였던 徐憲淳에게 左道惑民의 罪로 혹독한 심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殉敎할 수 밖에 없으나 나중에 반드시 伸冤할 때가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더 이상 동학에 대한 관헌이나 세상의 평가에 답하지 않고 옥중에 있다가, 1864년 3월 10일 포교 3년만에 41세를 일기로 대구감영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당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옥중에서 수운은 獄卒을 매수하여 獄卒로

224) 위의 책, 「一貴賤而等滅無別 則屠沽者往焉. 混男女以 薄爲設 則怨曠者就焉. 好貨財而有無相資 則貧窮者悅焉. 一以廣收徒黨爲第一功業 居一村而欲盡一村之人 居一鄉而欲盡一鄉之人 次次傳及 勢成滔川」.

225) 村山智順, 崔吉城·張相彥 共譯, 《朝鮮의 類似宗教》, 계명대출판부, 1991, p.47.

226) 吉川文太郎, 앞의 책, p.324.

變服한 崔時亨이 찾아오자 烟管에 밀서를 넣어 전하면서 자신의 뜻을 알리고 또 時亨의 신변도 위험함을 알려 피신케 하였다 한다. 그가 죽은 3일 뒤에 교도 金敬淑 등 수명이 시체를 수습하여 慈仁郡 後淵店이라는 곳에 이르러 보니 아직 시신에 온기가 있어 그곳에서 소생하기를 기다렸다 한다. 마치 예수의 3일만의 부활을 기다리듯 하였으나 소생 기운이 없자, 밤을 틈타 시신을 경주 남방 용담정 부근에 장사지냈다고 한다²²⁷⁾.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당시 동학도들 사이에도 천주학과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된다.

2. 동학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敎祖 伸怨運動

이렇듯, 東學과 대구지역과의 인연은 崔水雲이 흑세무민의 邪教인 天主를 전파한 혐의로 붙잡혀 신문을 받아 처형된 곳으로서 맺게되는 셈이다. 이후 동학의 교세는 급격히 쇠락한다. 특히 1866년에는 천주교 신자 남종삼등을 처형하고 8월에 斥邪論을 발표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東學도 자연히 함께 철저히 지하로 잠적하여 그해 12월 26일 大神師의 탄신 기념일에는 고작 수명의 교도가 최시형의 은거처에 모여 奉祀²²⁸⁾를 올릴 정도로 쇠락하게 된다. 그 뒤 비록 동학이 최시형에 의해 六任制가 확립되는 등 교단의 조직적 정비와 교리의 체계화가 달성되는 과정에서도 대구지역에는 최시형 당시에 지방의 집회기관인 都所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천도교로 바뀐 이후에도 천도교 교파중 어떤 것도 대구에 지방지부를 설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동학운동과 대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수운의 처형 이후 東學徒가 거의 지하로 잠적, 활동을 하던 중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마치 도적의 무리와 같은 뉴앙스로 東學黨이라 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동학 교도로 수운 처형 당시 지리산에서 수도중이던 李弼이 교조의 억울함을 따지기 위해 寧海府를 습격한 이른바 李弼의 敎祖伸怨運動 이후였다. 1871년 3월 경북 寧海에서 李弼이 교조의 伸怨을 주장하면서 교도 5백여 명과 함께 그 달 10일 단을 세워 제를 올린 뒤 영해부를 습격하고 그 知府를 살해한 이 사건은, 동학 신도들에 의한 敎祖伸怨運動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李弼이 府兵의 공격을 받아 일월산으로 도망갔다가 8월에 다시 聞慶에서 재기하려다가 붙잡혀 죽음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東學 신자들은 관헌의 감시와 처벌은 물론 특히 지방의 양반유생들도 멋대로 그들을 침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227) 吉田文太郎, 앞의 책, p.326.

228) 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大神師의 誕辰日이나 忌日을 맞아 각자가 金四錢씩을 각출하여 비용으로 쓸 것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天道敎의 誠米의 효시라고 한다.

더욱이 부패한 관헌들이나 유생들은 동학 신자들에 대한 처벌을 눈감아 준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재산은 물론 인신까지 함부로 하며 부녀자를 겁탈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도 교세는 오히려 커져갔다. 그것은 외세 앞에 흔들리는 국권의 위기 상황과 이미 그 지배의 정당성을 상실한 조선정부의 부패한 지방 관헌과 토호들의 수탈에 지친 농민들의 지방 수령들과 토호들에 대한 반발등이 어울어져 東學이 내세우는 布德天下하여 廣濟蒼生할 수 있다는 救濟財가 시의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 東學운동이 정부와 양반유생들의 적극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勢가 확대된 것은, 그 당시까지의 현세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체계로서의 救濟財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性理學이 이미 민중들 사이에서 그 救濟財에 대한 기대나 승인이 철회된 상황, 다시 말해서 그 救濟財의 제공자인 양반관료나 유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이미 사라지고 유교 자체가 아무런 종교적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III. 日帝의 天皇制國家 支配理念과 新宗教運動의 새로운 展開

1. 日帝 宗教政策과 新宗教運動

결국 무능에 빠졌던 조선지배층의 마지막은 나라의 국권을 잃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만다. 1905년 11월 17일 이른바 韓日協商條約이 교환되고 統監政治가 시작되면서 우리날은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물론 한국에서 일본의 독자적 지배권이 확립된 이 統監政治시대에는 露日戰爭의 승리 결과이기도 했다. 노일전쟁에서 승리는 또한, 이미 1878년 이래 참모본부의 의회나 정부로 부터 독립되어 天皇에 直屬된 것만으로도 日帝의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특수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軍部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를 제공한다. 統監府가 설치되고 초대 統監으로 온 伊藤博文은 바로 당시 군부 가운데서도 육군을 장악하고 있던 長州출신의 元老였다. 明治政府내에서 元老들은 물론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지만, 天皇의 勅令에 의해 그 지위를 부여받고 헌법상 기관인 內閣總理大臣의 임명을 좌우하고, 중요한 國務에 참가할 수 있었다²²⁹⁾. 이들 군부는 당시로는 행정부나 의회로 부터도 자유롭게 天皇制國家의 國體의 神聖性을 보호하고 皇道의 우월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런만큼, 皇道를 식민지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이들의 주된 임무일 것이며, 그 방식

229) 岩井忠熊, 〈大正期の天皇制〉《天皇制と民衆》, 東京大學出版部, 1988, p.155.

도 군사력 위주의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강제적 방식에 의거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눈에 비친 당시 한국사회는, 神聖한 일본의 國體에 버금갈 만한 그런 國體를 가지지 못하였고, 그런 까닭에 항상 중국의 변방으로서 결국에는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사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國體로 부터 부여받은 변혁의 카리스마적 소명의식을 한국의 식민지에서도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젖어 있는 집단이었다. 이러한 選民의인 우월의식은 특히 한국의 초기 식민지 경영단계에서 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초대 統監으로 온 伊藤 역시 皇道를 한국내에 이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 노력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선의 皇民化였다. 이를 위해 국민교화의 수단으로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에도 그는 익숙해 있었다. 그의 종교 정책은 통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금방 나타났다. 그것은 곧, ① 半島의 教化를 施政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② 이를 위해 외국선교사를 일종의 國民教化를 담당하는 敎化師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③ 政權과 敎權을 엄격히 분리하여 敎權은 정신적 방면에서의 국민계몽과 교화를 담당하는 것에 국한시켜 이른바 宗教의 社會化를 달성하고, ④ 이러한 기능에 충실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것²³⁰⁾이었다.

이러한 종교정책의 방침은 결국, 天皇制國家의 성격에서 유래한 일본내에서 행하였던 종교정책의 기본골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종교란 항상 ‘國家의 機軸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해서 國家의 施政目標를 잘 숙지하여 그것을 국민들에게 가르쳐 양심적으로 그 목표에 헌신할수 있는 인격을 양성하는 敎化團體 내지는 修養團體여야한다는 종교에 대한 先理解가 들어있다. 이런 종교관을 따라 伊藤을 비롯한 초기 日帝의 한국통치자들은 조선에서도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며, 정치단체나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기능하는 종교단체는 올바른 敎化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교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天道敎였다. 이 天道敎가 동학혁명 이후 내세울 수 있었던 除暴求民의 구호는, 바로 정치력이 해결해야할 부문을 조선조의 施政이 바로 행해지지 않을 때나 내세울 수 있는 구호일지는 모르나, 이제 施政改革을 내건 일제의 통치가 이뤄지는 마당에서는 그러한 종교의 정치단체화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이후 한일합방이 본격화 되고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에도 이런 시각은 계속되었다.

특히,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신종교운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연히 이들 종교단체에 대한 取締도 본격적으로 고려되면서 總督府의 施政方針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230) 이러한 정책은 伊藤이 친일 감리교 감독인 헤리슨과의 대담에서 잘 나타난다. 이런 대담 기록은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施政年報》大正 7年—9年, 國學資料院, 1983, p.149를 참조.

1911년의 「施政年報」에는 처음으로 治安부문에서 宗教取締항을 설정하여 당시 한국에서의 종교단체의 활동상황과 포교현황을 조사 정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법규에 의한 종교통제의 방침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宗教取締에 관해서는 明治39년 통감부령 제45호로 내지인의 종교선포 수속절차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도 없어서 그로 인해 布敎所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조직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天道敎, 侍天敎, 大倮敎, 大同敎, 太極敎, 圓宗宗務院, 孔子敎, 大宗教, 敬天敎, 大成宗教 등의 여러 宗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政治와 宗教를 서로 혼동하여 純然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取締가 불가피하다’²³¹⁾

이것은 총독부의 종교정책과 그 방향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곧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모든 종교단체 특히 天道敎를 비롯한 한국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정치단체로 보아 규제하겠다는 의도²³²⁾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 종교단체의 國家 公認制를 통해 天皇制國家의 지배이념에 걸 맞는, 조선인의 皇民化에 필요한 국민교화단체로서의 기능과 탈정치적인 개인의 수양이나 주술적 욕구에 부응하는 단체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통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성이 강했던 天道敎는 總督府하에서 가장 탄압을 받는 종교로 되어, 항상 정치적 색채를 멀리하여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강요당한다. 日帝에 있어서 특히 天道敎는 東學농민전쟁의 경험과 韓末 施政개선을 요구하는 천도교도들의 움직임²³³⁾과 露日전쟁시의 천도교도들의 움직임, 一進會의 정치적 지향 등을 고려할 때, 분명 天道敎는 그 布德天下, 濟暴救民의 구호에서 표현되었듯이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장 큰 신도조직을 거느린 종교단체였다. 이것은 곧 日帝의 눈에서는 종교로 볼 수 없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탄압에 직면해야 해야했다. 總督府시대에 천도교는 교인들의 헌금은 물론, 1910년 당시 천도교측이 운영하던 학교가 30여개소였으나 1919년까지는 모두 폐쇄되는 탄압을 겪고, 전혀 비정치적인 修養團體나 주술성이 강한 신비주의적 종파로의 변신을 강요당한다.

그 결과, 1920년대에서는 천도교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개인의 일상적

231)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明治 44年, 國學資料院, 1983, p.77.

232) 이 의도대로 1912년에는 大同自由基督教會라는 단체가 창설되자, ‘政敎를 혼동하여 純然한 宗教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절히 이를 取締하였다 한다. 《朝鮮總督府年報》, 明治 45年, p.100.

233) 1904년의 李仁淑 등이 작성하여 議政大臣 尹容善 등에 올린 시정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바치는 등, 天道敎 측의 甲辰革新運動을 지칭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人格의 修養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것은 결국 종교의 세속화 내지는 私有化를 부채질하여 呪術性이 강하고 신비주의적 요소를 지닌 종교로 변용을 가져오게 되며, 아울러 이러한 변용 자체는 신종교운동의 탈정치화를 촉진시킨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특히 이른바 官制改革이라는 3·1운동 이후의 문화정책이 추진하는 민족 분열 정책에 따라 각 신종교 교단에서부터 새로운 교단으로의 분립이 촉진된다. 이런 교단 분립은 우선은 신종교 교단이 天道敎처럼 거대 단일 교단으로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교리나 조직체계를 갖춘 경우보다는, 교단이 분립될수록 교조와 특정 신도를 중심으로한 신비주의적인 칼트(cult)조직화하여 오직 교단 자체의 운용에만 집착함으로서 대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색을 띄지 않도록 조치하는데는 매우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만큼 일제 당국으로서는 신종교교단의 분립을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덜고 문화적으로는 민족적 분열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일제의 대 신종교정책은 天道敎의 분열상을 보면 잘 나타난다.

곧, 天道敎는 露日戰爭을 빌미로 친일 행위로 일본정부의 힘을 빌려 敎祖의 伸怨을 피하고 교단을 공인받으려 한 李容九등이 손병희와 결별함으로써 비롯된 1906년 侍天敎를 시발로 시천교내의 노선 다름에서 1913년 上帝敎로 분리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분립의 큰 원인은 교단운영을 둘러싼 교권 분열이었다. 그러나 1920년 金相高 등이 세운 靑林敎부터는 바로 이러한 일제의 종교 정책이 분립을 조장하게 된다. 청림교만 해도 2세 교주 太斗燮은 후천개벽을 내세워 仙官의 도움을 받는 새로운 나라가 곧 세워진다고 하면서 모든 兵禍를 피할 수 있는 避禍堂을 세운다 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경찰의 알려지기도 한다. 이 청림교 이후에도 1922년에는 天道敎 聯合派, 大華敎와 東學敎, 1923년에는 人天敎와 白白敎, 水雲敎, 1924년에는 天命道, 1926년에는 天道敎 新舊派 분리, 平和敎, 無極大道敎, 1927년에는 無窮敎, 1932년에는 天天敎, 天法敎 등으로 계속 분립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신종교운동의 분립과 새로운 교단의 우후죽순적인 등장도 일제가 민중사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침략전쟁에 뛰어들면서 國家神道を 天皇制國家 이데올로기의 전과 수단으로 삼아 神社參拜를 강요하는 시기인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이른바 特高警察에 의한 종교사찰이 본격화되면서 종교경찰²³⁴⁾은

234) 1939년 4월에 개정된 일본 內務省의 「特別高等警察執務心得」가운데, 52조는 이러한 종교경찰의 임무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보면, “제52조:종교단체중에는 그 敎義나 敎理에 反國體的 思想을 내포하여 敎묘히 神示나 天啓를 빙자하여 不敬스럽고 不穩한 妄說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바, 이런 용의점이 있는 敎나 宗團에 대해서는 항상 엄밀한 査察 偵探을 통해 그 교설이나 사상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힘을 것이며, 동시에 取締나 검거의 시기, 방법등에 잘못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荻野富士夫, 《特高警察體制史—社會運動抑壓取締の救助と實態》, せきた書房, 1984, p.327에서 재인용.

특히 유사종교단체의 활동을 주로 감시하여 결국에는 國體의 신성성을 모독하고 흑세무민하는 邪教집단으로 단정하여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모든 신종교 교단은 사실상 지하로 잠적해 버린다.

2. 일제하 대구의 신종교운동

이러한 일제의 신종교운동에 대한 통제 정책은 사실상 대구 지역과는 별로 상관되지 않는 일이었을런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록 東學 운동이 발생한 지역이 대구 인근의 경주라 해도, 오히려 대구 지역만은 최재우 당시부터 단일 接所가 설치되지 않은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말 변혁기에 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신종교운동 자체가 활발했던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三南을 휩쓸었던 동학혁명도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우선은, 대구가 선조 34년(1601년) 이래 경상도 관찰사가 대구부사를 겸하면서 사실상 영남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조선조 체제 유지 세력의 근거지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배층인 양반 유생들에 의해 斯文亂賊으로 비판받는 東學이나 여타 신종교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대구가 조선조의 체제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역이었다고 판단할만한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없다. 오히려 대구는 평양이나 강경과 더불어 전국 3대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상거래의 중심지로 사회적 유동인구가 많았던 지역이다. 그만큼 한말에서 일제에 걸친 한국 사회의 대 변혁기에도 새로운 문물의 수용이 타 지역에 비해 빠른 편이었다. 이것은 특히 기독교와 같은 새로운 서양문물의 전파 매체가 되었던 종교의 유입이 鄒魯之鄉으로만 알아왔던 영남의 행정 중심지인 대구가 의외로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유입되고 있었다는 사실²³⁵⁾을 놓고 볼 때 시사될 수 있는 사실이다.

사실 대구는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장로교의 각 지방 선교상황을 전하고 있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 의하면, 당시 선교사가 12명, 정기적 설교자 105명, 신자가 7,871명, 평균 출

235) 대구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William M. Baird(한국명 裨偉良)은 1893년 4월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하여 약령시에서 첫 전도사업을 한 뒤, 대구를 자신의 선교거점으로 삼은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한다. 첫째는 대구가 지리적으로 경북지방의 중심지이며, 둘째는 인구가 많고, 셋째는 부산과 서울이 연결되는 지점이며 또 낙동강을 통해 부산과 연결될 수 있으며, 넷째는 정치적으로도 경상감영이 있어 중요하고, 다섯째는 약령시가 있어 상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들고 있다. Richard M.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A Profile*, California, 1968, pp.30~38.

석자가 8,599명, 예배당이 154곳으로 집계²³⁶⁾되고 있다. 이 수치는 부산은 물론 京城보다 더 높은 수치로 평양과 재령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장로교 교세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어떤 면에서 대구에서는, 東學과 같은 양반 유생들의 배척을 받는 신종교 보다는 체제 변혁기간에 새로운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서양 열강의 비호를 받는 기독교의 수용이 오히려 이미 멸망의 조짐을 보인 조선조 체제의 붕괴 이후에 오는 제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받아들여 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1932년 총독부 산하 警務局의 조사를 보아도²³⁷⁾, 당시 신종교 가운데서는 가장 조직적이고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던 천도교가 그 지방 종리원이 소재하고 있던 지역은 天道敎 4대 교파 가운데 新派의 종리원이 경북지역에 설치되고 있는데 그것도 영천, 경주²³⁸⁾, 상주, 성주, 김천지역으로 대구에는 천도교 어떤 파의 종리원도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신종교의 여타 교단에도 비슷한 실정이다. 대체로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에 신종교운동이 나타난 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1903년 경 부터 東學을 필두로 1906년 天道敎, 1907년 경부터 東學敎, 侍天敎등이 포교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 東學계열의 교단은 모두 지역적으로는 위에 천도교 지방 종리원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포교활동을 전개할 뿐이다. 경북지역에서는 동학계 신종교 교단을 제외하고는 甌山敎 계열의 普天敎와 无極大道敎가 포교활동을 보였다.

특히 이들 甌山敎 계열의 신종교 교단은 1920년 대 부터 30년대 중반까지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에서는 동학 계열보다 더 폭넓은 교세를 장악했던 교단이다. 姜甌山의 수제자로 甌山이 죽기 직전인 1909년 1월 3일 甌山으로 부터 敎統을 승계했다고 하는 車京石이 姜一淳이 죽은 뒤 창립한 普天敎²³⁹⁾는 甌山敎 계열의 교단 중 가장 교세가 컸으며 조직이 잘 정비된 일제하에서 천도교 이상으로 교세를 떨쳤다. 교단의 조직이 처음 갖춰진 것은 1916년 11월 24인을 선정하여 二十四方으로 임명하고 南北敎理를 두면서 부터였다. 또 1919년에는 方主制를 실시하여 60方主를 임명하고 각 방주 밑에 六任등의 조직을 두어 교단의 조직과 포교 단위를 함께 설정하고, 1921년 9월 24일 덕유산 來麓 黃石山에서 「普化」라 이름한 敎名을 하늘에 알리는 敎名告天祭를 올림으로써 명실 상부한 교단을 조직 결성한다. 이듬해 普天敎로 개명하

236)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1, 1993, p.126에서 재인용.

237) 村山智順, 앞의 책, pp.63~66

238) 영천과 경주에는 천도교 청우당(신파)의 종리원도 있었다. 당시 지방 종리원은 道戶 100호 이상의 府나 郡, 島에 하나의 종리원을 두었다.

239) 이 교단에 대해서는 甌山敎本部, 《普天敎誌》, 1964, 참조. 그리고 연구 자료로는 李康五, 〈普天敎〉《全北大學校 論文集》 8, 1973, pp.9~60 참조.

지만, 이후 일제의 官制改革에 의한 문화정책에 편승하여 정치색을 전혀 배제한 종교집단으로 급속한 교세를 확장하여갔다. 그 교리로는 仁義의 一理를 근간으로 教天, 明德, 正倫, 愛人을 四綱으로 삼고, 尊上帝, 崇道德, 親睦同人, 罔亂陰陽, 理材公正, 節用厚生, 不有誕妄, 無爲自尊, 莫懷貪慾, 慎勿猜妬, 正直不阿, 勿毀他人을 12箴으로한 생활윤리를 강조한다. 대체로 신자들은 上帝 姜甌山을 받들며 그가 이뤄 놓은 天地公事에 따라 後天開闢의 運度가 열릴 것을 믿고 ‘玉皇上帝下鑑之位’라 기록한 神位를 모셔두고 냉수 한 사발을 바치고 「太乙呪文」을 독송함으로써 소원 성취를 간구하였다. 한편 無極大道教는 姜甌山의 제자인 趙哲濟²⁴⁰⁾가 1921년 敬天修道, 誠信養成, 安心安身을 강령으로 삼아 창교한 甌山 계열의 신종교다.

일본측 공식 기록에 의하면²⁴¹⁾, 보천교는 개교 시기인 1910년 부터 경북지역에 전파되기는 하나, 1919년 부터 18개 지역에 포교소를 갖추고 3천5백여명의 신자를 거느리게 된다. 이후 普天教로 개명하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벌이게 되는 1923년 부터는 23개 포교소에서 만여명에 이르는 신자를 거느린 교세를 확보하게 된다. 無極大道教도 비록 그 숫자는 적으나 1927년에는 경북일대에 17개소의 포교소와 2천여명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대개 신종교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20년대에는 경북일대에서 이 甌山教 계열의 신종교인 보천교와 무극대도교가 가장 교세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普天教가 일제의 감시나 통제를 벗어나고 동시에 교단 내부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時局大同團을 결성하여 친일 행위를 일삼으면서 총독부의 비호를 받게 되는 1922년을 기점²⁴²⁾으

240) 鼎山 趙哲濟는 1986년 1월 19일, 현 지명으로 경상남도 함안군 서면 회문리에서 태어나, 1917년 설날 새벽에 망명지였던 浙江省에서 이른바 無極主人 姜甌山의 계시를 받고 기도주와 태을주를 받아 甌山의 道通을 계승받고, 귀국하여 1921년 4월 28일에 창립한 교단이다. 이 無極大道教는 해방 이후 鼎山이 죽은 뒤에는 부산에서 太極道로 교단명을 바꿔 운영되다가, 그 뒤 다시 그 교단에서 나온 朴漢慶이 서울에서 大巡眞理會로 창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鼎山의 생애에 대해서는 1992년 태극도에서 간행된 《太極道主 趙鼎山 傳記》가 있다.

241) 村山智順, 앞의 책, pp.547~549

242) 普天教도 어느 민족종교와 마찬가지로 1914년 5월에는 당시 일본 헌병대 조조원이었던 申成學이 차경석이 새 정부 수립을 도모한다고 밀고함으로써 체포되어 구속 심문이 있는 이후, 감시가 심해져 1917년 10월 부터 차경석은 집을 떠나 숨어 다녀야 했었다 한다. 특히, 1921년 1월에는 3.1운동에 자극 받은 총독부가 보천교를 비밀결사로 파악하여 교인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 경북 安東에서는 이들 교인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조치법이 만들어 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감시와 보천교 내의 문제로 인해 운신이 어려웠던 車京石은 그 후 1922년 부터는 총독부에 협조를 구하고 친일로 기울어져 총독부의 양해를 얻고, 1924년 9월에는 일본 정부에 특사를 파견하여 총리대신과 면담하여 일본정부에 충성을 약속한 뒤 총독부 정무총감의 지시인 匡救團을 결성을 차경석이 時局大同團으로 변경 결성하여 친일행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후 普天教는 친일 종교단체로 日帝의 총독부의 조선 지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이용 당하게 된다. 李康五, 앞의 논문, pp.27~33 이와 동시에 교단내에서도 차경석에 대한 비리 고발이 잇달았고 교단 혁신운동이 빈발하면서 교세는 차츰 약화된다.

로, 대구를 포함한 경북 일대에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보천교의 차경석이 보천교인 3명과 大同團 단원 9명을 일본에 파견하여 3萬5千圓이라는 거금을 일본 정부나 정당에 로비 자금으로 쓰고 다니던 1925년 까지는 경북 일대에 22개소의 지부에 1만여가 넘는 신도수를 거느린 전국에서 가장 큰 신자집단이 있는 지역²⁴³⁾으로 변한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구지역에도 東學계열의 天道敎나 上帝敎 등 보다는 오히려 龜山 계열의 普天敎나 무극대도교는 일정한 교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한말의 변혁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신종교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이 지역이 일제하에서 오히려 친일적 행각으로 인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당시의 보천교와 같은 교단에 많은 신자집단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면서도 대구지역은 특히 일제하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기독교의 영향²⁴⁴⁾이 매우 컸던 지역이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대구 지역의 신종교 교단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類似宗教集團으로 낙인될 가능성은 더 컸을 것이며 그 만듦 사회적 영향력도 별로 주목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解放政局부터 第2共和國까지의 新宗教運動

1. 新宗教運動의 새로운 도약과 社會的 烙印

종교경찰이라는 특별고등경찰의 감시와 통제속에서 천황제 국가의 지배이념에 배치되는 어떠한 信敎의 자유도 사실상 금지시켰던 일제의 패망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해방정국의 도래는, 신종교운동에서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은 1936년 일제의 유사종교집단 해산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지하로 잠적했던 신종교교단이 다시 새로운 조직의 재 정비와 더불어 발전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에는 미군정이라

243) 村山智順, 앞의 책, pp.545~549 참조. 한편 교세는 바로 이러한 친일운동을 비판하는 교단내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던 1925년을 기점으로 경북 일대에서는 약화되기 시작하나 1934년 村山이 위 조사를 실시한 시점에서도 전국에서 경북 지역이 여전히 가장 많은 신도 집단을 거느린 지역이었다.

244) 특히 대구는 1899년에 설립된 동산병원과 1913년에 설립된 대구 나병원 등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 건립되면서 서양 의술과 기독교 단체의 사회활동에 대해 일반 민간의 신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간신앙의 의례에 기초를 둔 신종교 집단의 의례나 주로 治病術을 강조하는 종교행위 자체를 미신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유사종교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은 타 지역에 비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는 새로운 지배세력이 밀려와 종교계에도 미군정의 비호를 받는 기독교가 폭발적인 교세 성장을 보여 종교 수요인구를 흡수하는 상황과, 동시에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이념분쟁과 지배층의 분열로 인한 사회적 동요가 무질서를 조장하는 상황이 신종교운동에서의 부정적 방향과 긍정적 방향의 이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일제하에서 분립이 가속화 되었던 신종교 교단은 그의 재건이나 재조직화²⁴⁵⁾라는 긍정적 발전과 함께 새로운 분열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났다. 더우기 후자의 부정적 측면을 가속화 시킨 것은, 불교나 기독교등 일제하에서 일제의 종교정책에 따라 조직화되었던 종단이 오히려 일제때의 행각을 둘러싼 교권의 분열이 나타나 불교계²⁴⁶⁾나 기독교계의 주류에서 떨어져 나간 신흥교단이 발생함으로써 이들 계통의 신종교 교단이 기성 교단과의 알력으로 邪敎集團으로 낙인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종교 교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일제하에서 있었던 신종교 교단 중 해방과 더불어 재조직화와 발전에 성공한 경우는 당시는 圓佛敎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당시의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적 분열 상황과 함께 기성이나 신종교의 교단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종교계 내에서도 각자가 자기 주장적인 理想이 담긴 교단의 정비를 추구하면서 교단의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더우기 해방정국이라는 특이한 理想과 새로운 욕구의 혁명적 분출기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온갖 비전과 구상이 쏟아져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대 수준을 향상 시켰으며, 동시에 언제나 현세에서의 당장의 구원 실현을 보장하는 구제제에 집착하는 새로운 종교적 카리스마가 메시아적 소명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다. 다시 말해서 당시는 전혀 새로운 救濟財를 내걸고 해방정국의 혼란과 무질서 극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신종교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종교운동에 있어서도 기대했던 교단 재건이나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교권을 둘러싼 갈등과 이념상의 분열과 그 동안 억눌렸던 종교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할 정도의 새로운 종교집단이 그 교리나 조직상의 체계적 고려도 없이 雨後竹筍

245) 이러한 보기로는 小太山 朴重彬의 원불교를 들 수 있다. 이 교단은 1916년 小太山이 만든 불법연구회를 그가 죽은 뒤 법맥을 이은 鼎山 宋奎 宗師가 해방과 동시에 내정한 바 있던 이름을 따라 1947년 1월에 재단법인 圓佛敎를 만들고 4월 27일자로 圓佛敎로 새롭게 정비한다. 특히 鼎山 宗師는 사업 목표를 敎化和 敎育과 자선에 두고 원불교의 세계화에 진력하여 새로운 출발을 보인다.

246) 불교계는 해방 직후, 교단의 친일문제와 개혁을 둘러싸고 총무원을 중심으로 한 교권 장악 세력과 불교 청년회, 불교여성총동맹 등의 6개 재야세력과 禪學院이 가세한 佛敎總本山으로 양분된다. 이것은 나중에 선학원의 좌경화를 빌미로 불교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는 등 불교계의 교권이 분열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처럼 마구 쏟아져 나와 그 이전 보다 훨씬 종교적 多岐化 傾向²⁴⁷⁾이 지배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분열은 6·25동란을 겪으면서 불교계와 기독교계²⁴⁸⁾에도 극심하게 나타나 그로부터 무수한 교단이 새롭게 생겨남으로써 이른바 불교계나 기독교 계열 신종교의 폭발적 증가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1954년 文鮮明에 의해 창교한 『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나, 1955년 朴泰善이 조직한 『한국예수교부흥협회』는 기독교 계열 신종교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기독교는 여타 종교에 비해 그 교리적 해석이나 실천에 있어서 성서 중심의 근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 해석이나 교리를 둘러싼 이단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만큼 성경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을 토대로 나타난 통일교나 전도관과 같은 기독교계 신종교 교단은 그 성립 초기부터 기성 교단이나 사회와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통일교는 1955년 5월에는 이화여대생과 교수 17명이 통일교와 관련되어 제적처분되는 사태가 일어나 세인의 주목을 끌었으며, 1958년에는 전도관에서 운영하던 신앙촌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그해 9월 13일 부터 시작된 경찰의 수사는 교조 박태선이 사기·상해·위증의 죄로 구속되는 사태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²⁴⁹⁾되면서 사회로부터 그러한 신종교 교단은 邪教내지는 類似宗教集團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고 그런 낙인은 점차 모든 신종교운동 자체를 사회문제시 하는 시각으로 확대되게 된다.

한편 불교계에서도 일제의 「寺刹令」에 따른 本末寺制에 묶여 있던 전국의 불교계가 독신승의 조계종과 대치승인 태고종으로 양분되면서 나타난 중앙 집권적인 교권의 행사의 약화를 틈타 새로운 교단이 태어난다. 이 경우는 대개 末寺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신앙노선을 선언함

247) 해방 이후 증산계 교단이 무려 40여개의 새로운 교단으로 분열하는 양상을 -그 뒤 잠시 연합운동 이 나타나기도 했다- 보인 것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분열은 1949년 유동렬에 의해 주도된 증산계 17개 교단의 연합체로서의 甌山敎 統整院을 구성함으로써 다시 연합되는 경향도 보였으나, 유씨의 남쪽으로 이 마저 다시 깨어진다.

248) 기독교는 1951년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싸고 고려파와 예장의 분열을 출발로, 교리상의 문제로 1953년에는 김재준의 기독교 장로회가 다시 예장에서 분리하며 1959년에는 W.C.C이 에큐메니칼 문제로 예장은 다시 합동과 통합측으로 분열한다. 현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단만 해도 68개 교단이 있다.

249) 통일교 사건은 퇴학당한 학생들이 복교를 탄원하고 당시 이대 총장은 통일교 신앙의 포기를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조선일보》1955.5.26.), 같은 해 10월에는 통일교 사건에서 文鮮明만 무죄를 선고하여 일단락 된다. 반면 신앙촌 사건은 결국 박태선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신자들의 반발이 있자 당시 문교부 장관이 박장로의 체형은 마땅하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한다. 특히 이 재판과정에서는 신도들의 법정소란이 계속되었으며, 급기야는 신도들이 동아일보를 피습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4.19 이후에는 3.15 부정 선거와 관련되었다는 죄목으로 박태선을 재수감하는 등 정부와 언론, 신자들의 공방전이 계속된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1993, p.95

으로써 신 교단을 형성하는 경우와, 在家 신자로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 새롭게 法脈을 찾아 새로운 종단으로 創教를 선언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로는 天台宗을 들 수 있다. 천태종은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15세에 출가한 이후 줄곧 전국 사찰을 돌며 수련을 해 온 上月圓覺 大祖師(속명 朴準東)가 해방이 되자 소백산 구봉이 있는 如意生 마을에 이르러 46년 정월에 초가를 지어 救仁寺를 세움으로써 비롯된 교단이다. 오늘날에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 중 하나로 4만여명의 신자가 한꺼번에 먹고 잘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백만이 넘는 신도를 거느린 대교단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로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4대교단 중 하나인 眞覺宗을 들 수 있다. 이 진각종은 바로 대구가 모태가 된 신종교 교단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 신종교 교단은 기독교계 신종교 교단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교단 형성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기독교계가 각 교파에 따라 교리적 쟁점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며, 아울러 구원론에 있어서도 마지막 심판 전의 이른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성경 자체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리 논쟁을 통해 異端을 분별하는 노력이 교리적으로도 존재해 온 만큼, 기존 교파와 다른 신종교 교단의 형성은 그 자체가 항상 異端 是非를 불러올 수 밖에 없었던데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자체의 종교적 특성 외에도 당시 불교계가 일제하에서 오히려 엄격한 교리적 체계를 강조하기 보다는 頓悟를 강조하는 禪風이 지배했으며 동시에 교단의 교권 분열로 末寺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이 상실된 데 따른 결과로도 보여진다. 아무튼 기독교계 신종교운동은 불교계 신종교와는 달리 항상 異端 시비를 겪으면서 기성 교단과 구분되는 만큼 차별화된 교리체계를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교단으로서의 사회적 승인을 얻어야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기성 교단으로부터의 異端 규정과 似而非 내지는 類似宗教集團이라는 사회적 낙인과정을 통과 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유난히 이미 일제가 사용해 온 類似宗教 개념에 似而非 宗教 내지는 邪教라는 사회적 낙인이 신종교운동에 쉽게 찍혀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2. 대구 토착 신종교 운동의 등장과 그 특성

일제하에서는 신종교운동 분야에서 눈에 띄만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던 대구지역은 해방과 더불어 일제의 종교통제의 상징이었던 神社가 헐리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특기할 사항은 眞覺宗을 비롯하여 聖德道, 大韓道德會, 道德會 등 불법계나 중국 道教계통의 신종교 교단이 대구에서 성립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1) 眞覺宗의 성립과 발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대구에서 발생한 신종교는 密敎 계통의 새로운 佛敎系 교단인 大韓佛敎 眞覺宗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불교의 4대 교단 중 하나로 성장한 교단으로 이미 기성 교단으로 제도화 되고 있지만, 불교계 신종교 교단 가운데서도 가장 빨리 형성된 교단이다. 이 교단의 宗祖는 교단에서는 大宗師로 불리우는 梅堂 孫珪祥이며, 法身大日如來를 敎主로 六字眞言을 本尊으로 《大日經》, 《金剛頂經》, 《大乘莊嚴寶王經》을 소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교단이다.

宗祖인 梅堂은 1902년 5월 10일(음) 경북 울릉군 남면 玉泉洞에서 태어났다. 眞覺聖尊으로 교단내에서 받들어 지고 있는 그는 어려서는 漢學을 배운 뒤, 韓日合邦 이후에는 소학교에서 소위 신식 공부도 하였다고 한다. 20세가 되던 해에 현재 교단의 總印으로 있는 裴信과 혼인하고 울릉도를 떠나 포항에서 포목상을 하면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면서 대구에서 계성중학을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지극히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던 그가 새로운 종교적 행로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36세때였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모친 뜻을 따라 포항에 있던 竹林寺를 찾게 되었는데 그 때 주지와 나눈 대화를 통해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10여년 가까이 인근 사찰을 찾아 불공을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해방을 맞아 잠시 정치에 뜻을 두고 상경하여 새로운 체험을 쌓기도 했으나 별로 중요한 계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오게 된다. 서울에서 내려온 뒤 부터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 시름 앓기 시작했다.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마지막으로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북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에 있는 觀心菩薩이라 불리우던朴씨 성을 가진 노파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東海의 큰 聖人이 오신다’며 큰 절을 하며 그를 맞아들였다. 이곳에서 大宗師는 백일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그는 「옴·마·니·반·메·흠」이라는 다라니를 讀誦하면서 기도에 정진하였는데, 그런 중 마지막 날인 1946년 5월 16일 지금까지 그를 괴롭혀 왔던 병마가 물러감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 때 깨달은 것이 현재 교단의 宗智로 가르쳐 지고 있는 것으로, 「毘盧遮那 부처님은 十方三世에 하나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었다 한다. 이런 소식이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옴마니반메흠’— 교단에서는 이것을 六字大明王眞言이라 한다—의 효험이 나타나자, 그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1947년 6월 14일(음) 대구의 남산동에 「참회원」을 세우고 옴마니반메흠을 本尊佛로 한 종단의 開宗을 선언하게 된다. 開宗을 선언한 이후 梅堂은 스스로 포교에 앞장 서면서 이

교단의 法統을 신라 진덕여왕 1년(632년)에 明朗法師가 당 유학후 돌아와 세운 神印宗에 두는 등, 교리의 체계화에도 힘쓴다. 그리하여 1949년 12월 4일에는 교명을 心印佛敎로 하고 교당을 心印堂으로 하여 경상북도에 교화단체로 등록하여 정식 교단으로 출발하게 된다. 그는 교단 성립시 부터 在家佛敎로서 생활인의 불교를 표방하고 교육사업과 불경의 한글 번역에 힘쓰면서 ‘卽身成佛 現世淨化’라는 교지를 포교하고자 했다. 이런 취지에서 그는 1953년 5월 15일 心印중학교를 설립하면서 대구지역의 교육사업에 뛰어 든다. 그리고 1953년 8월 교단 이름을 대한불교 진각종으로 변경하고 悔堂이 大宗師에 취임한다. 이어 1954년 1월 27일자로 財團法人 大韓佛敎 眞覺宗 菩薩會 維持財團을 설립하고 등록을 마친다. 1957년 3월에는 다시 心印高等學校를 설립, 당국으로 부터 인가를 받는다. 이와 같이 眞覺宗은 설립 초기 부터 교육에 힘쓰면서 교단의 발전을 육영사업과 동시에 꾀함으로써, 당시 기독교계 신종교 교단인 통일교나 전도관 등이 類似 내지는 似而非 종교 시비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빚던 것과는 달리 순탄한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2) 일관도계 新宗教의 등장

心印佛敎가 창교를 선언한 바로 다음 해인 1947년 5월에 중국 天津에서 李德福(후에 金福堂이란 이름으로 한국에 귀화), 張瑞筌, 金恩善 등 세사람의 一貫道の 前人이 입국하여 1948년 가을 부터 一貫道라는 중국계 신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張 前人은 경상도를, 김복당은 호남지역을 담당하여 전도하기로 하고 김은선은 귀국했다고 한다²⁵⁰⁾. 특히 이들 중 한국에 귀화한 金福堂 前人은 1948년 8월 부터는 서울로 진출하여 一貫道 본부를 설치했다가 1953년 9월 1일에 그 명칭을 國際道德協會로 정하고 초대 회장에 신숙희씨를 선임하고 협회의 선언문과 강령, 중지를 선포함으로써 一貫道の 새 종파를 열게 된다. 원래 一貫道는 중국에서 정통道敎를 표방하고 三期末劫思想²⁵¹⁾을 전개하여 道도 伏羲 神農氏에서 부터 文武 周公, 老子, 莊子, 孔孟에 이르기 까지 前 18대와 釋迦佛로 부터 28대 達摩에 이르는 中 28대, 그리고 6대 慧能을 거쳐 18대 弓長孫 祖師에 이르르는 道通의 법맥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뿐 아니라, 佛 · 仙 · 儒 · 耶 · 回등의 5대 세계 종교의 교리도 하나로 歸一한다는 이른바 五敎歸一을 주장하

250) 한국종교학회, 《韓國新宗教 實態調查報告書》, 1988, p.342.

251) 세계의 運度를 3기로 나누고, 제1기는 天降9劫으로 獸面人心의 春陽期이고, 제2기는 天降18劫으로 人面獸心의 紅陽期 곧 여름이고, 제3기는 天降81劫으로 人面人心이 이뤄지는 白陽期로 추수기라고 본다. 이것은 一夫의 正易에서 주장하는 生 · 長 · 成의 易이 전개되듯이 成易인 正易이 등장한 시기를 神明開闢이 이뤄지는 역사의 추수기로 보는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

면서,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理·氣·象의 三天世界에서 性理心法을 구현하여 천지 생성의 이치를 터득하고 避災逃難하며 了生超死하는 진리에 이른다고 본다. 결국 이 一貫道는 道教에서 주장하는 無爲自然이 실현되는 시대가 이르렀다는 천년왕국적 사상에 바탕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통털어 일관되게 주장되는 참 진리를 밝혀 세상을 완전히 聖化된 도덕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실천 이념으로 한 종교운동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진리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전래 초기부터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크게 3파로 나뉘게 된다. 그 첫째가 위 國際道德協會로서 여기서는 達摩를 礎祖로 하여 그 이후 18대 無藏祖의 법맥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金福堂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金福堂을 教祖로 한 신종교로 창설된 것²⁵²⁾이다. 여기서는 미륵불을 신앙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분파는 張瑞笈과 이미 중국에서 一貫道에 入信하였던 중국인 前人들과 함께 입국하였던 吳聖根이 1947년 부터 서울 은평구 홍제동에서 金福堂과는 다른 道壇을 설립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大韓道德會』이다. 이 교단은 1948 4월부터 현재 『大韓道德會』의 대표인 前人 高雲程이 주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포교를 통해 교세를 뿌리내리고 있다가, 1949년 4월 5일 대구시 남구 봉덕2동 1014의 43번지 (현재 대한도덕회 대구회관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교단 본부이다.)에 교단 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 간다. 1961년 12월에는 당시 정부의 민족종교 통합정책에 따라 설립된 東道教에 가입하여 그 산하의 『大韓道德會』로 등록함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교단으로 정식 출발하게 된다. 이 大韓道德會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眞理와 인간의 본성을 궁극적 理로 삼는 眞天道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이 眞天道는 ‘天命에 의해 玄關 正門(靈門)이 열리게 하고 正因道種을 심어주어 達本還元 歸根認知케 하며, 道心이 마비된 현실사회에서 天性에 따라 실천 궁행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하고 인류의 지상목표인 眞善美의 이상세계 건설²⁵³⁾을 교리로 삼는 교단이다.

그리고 이와 달리, 현재 道德會로 이어지고 있는, 動亂 와중인 1952년 2월 5일을 기해 부산

252) 이후 이 교단은 1961년 12월 5일자로 문교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사회의 도덕 운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일반에게 인식되면서 65년 6월에는 金福堂이 그協會의 총재로 취임하면서 《道德》이라는 격월간지를 발행하기도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이념을 보면, 五教(佛·仙·儒·耶·回)등의 5대 세계 종교의 聖인들이 가르친 法의 궁극인 性理心法을 전수하여 개인의 본성을 회복하고 迷魅한 心田을 개발하여 德化社會를 건설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한다. 1969년 6월에 다시 財團法人 『國際道德協會一貫道』를 만들어 등록함으로써 교명을 현재의 『國際道德協會一貫道』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1991년 12월 26일 총재인 金福堂이 죽은 뒤(교단에서는 이것을 歸空이라 한다), 현재는 6인 총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253)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1993, p.1144.

시 동구 수정동에 前人들의 가르침을 받은 한국인 가운데 孫佑憲(1920—1987)²⁵⁴⁾이 세운 道德礎基會가 있다. 특히 이것은 창립과정에서 중국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만큼, 國際道德協會나 大韓道德會 보다 훨씬 한국의 토착종교의 救濟財를 흡수하면서 習合의인 新宗教로 출발한다. 6.25가 끝난 뒤인 1954년 道德礎基會는 대구로 옮겨오고 그 때부터 大韓道德會와 더불어 一貫道계 신종교의 중심 활동 지역이 대구가 된다. 1962년 12월에는 대구시 인교동으로 교단 본부를 이전하였으며, 1964년 7월에는 財團法人 道德會로 정식 등록하여 교단의 명칭을 바꾸게 된다. 초기부터 이 교단은 三一神誥를 주요 경전으로 삼아 天地人의 三才 신앙을 강조하고 天書를 받드는 것을 중요한 의례로 삼고 있다. 또한 그들이 받드는 神格도 위패로 모시는 明明上帝와 檀君, 南海古佛로 부르는 미륵불이다. 특히, 여기서는 天才로 알려진 어린 여아가 단군에게서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는 《神祖收天經》이라는 秘典을 갖고 있는데 檀君을 도덕의 창조주라고 받들고 있을 만큼, 檀君信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결국, 이러한 一貫道계열의 大韓道德會나 道德會는 창립 초기에는 중국의 一貫道 前人들의 신앙체계를 그대로 전수하는 입장이었으나, 한국인들이 실질적인 교단의 대표로 되면서 부터는 한국의 전통 민간신앙과 습합되면서 교리와 체계의 변용을 겪게 된다. 이들 교단들은 비록 교단이 창립하였다고는 하나 50년대까지는 눈에 띄는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에 들어와 새롭게 법인체로 등록하면서 조직이나 교리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교리의 체계화와 조직의 정비가 활성화된다. 아무튼 이와 같이 대구가 道德會와 같은 새로운 人倫과 天道를 실현하는 종교운동의 중심지로 된 것은, 해방정국의 혼란과 6.25라는 민족적 갈등,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만연된 生活苦 등이 반영하는 일상적 생활세계의 위기를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들로 이뤄진 人倫共同體를 실현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이 지역의 당시 사회적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의 도덕 공동체 실현과 같은 수양단체적 종교운동은 우선 당시에 만연된 신종교운동에 대한 邪教 내지는 似而非 종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기도 했던 것이다.

3) 奉南의 心修法과 새로운 창조적 변용으로서의 聖德道

心印佛敎의 창교를 시작으로 대구가 또 하나의 신종교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게 한 것은 1952년 전란의 포연이 채 가시지도 않은 팔공산 자락에서 창교한 聖德道이다. 聖德道の 敎祖

254) 孫佑憲은 밀양 출신으로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당시 대원고무공장을 경영하던 기업인이었다.

는 月根 金沃濟로 그는 원래 흔히 찬물교라 알려진 奉南敎의 敎祖 金奉南(본명은 永根)의 제자였다. 1898년 제주도 연평리 牛島에서 태어난 金奉南은 어려서 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14세 때 부터 위장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 치료를 위해 海女를 따라 부산으로 나오게 된다. 오는 도중 배의 기관 고장으로 위험을 겪으면서 배의 고장 원인이 기관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임을 알게된 그는, 자신의 질병도 마음의 먼지가 많이 쌓인 탓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求道の 길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⁵⁵⁾. 그런 중에 그는 白南道人이라 불리우던 無量敎의 포교사였던 皇甫欽을 만나 새로운 세 단계의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皇甫欽은 당시 治病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을 독송케 하고 그것이 끝나면 淸水라 하는 찬물을 한잔씩 마시게 함으로써 웬만한 병은 치료하여 白南道人이라는 명성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奉南이 白南道人 밑에서 구도의 수련을 쌓기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1937년 1월 15일, 경남 기장의 연화산에서 봉남은 두차례의 기도 후에 天上으로 부터 ‘물법’을 받고 배속에서 피맺힌 고기 덩어리를 토해 냄으로써 지금까지의 위장병이 깨끗이 낫고 전에 없던 知覺이 나타남을 느끼는 득도²⁵⁶⁾하게 된다고 한다. 이후 그는 찬물을 이용해 병자를 치료하면서 수련을 계속하다가 1943년 11월 15일에는 다시 두번째 득도²⁵⁷⁾를 하게 된다. 이 때 봉남은 儒·佛·仙 三敎의 法을 하나로 깨우치면서 衆生三苦(飢·寒·疾)를 해탈하는 心修法을 깨닫고 이것이야말로 大道大法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까지는 이른바 奉南敎도 아직 특별히 교리체계나 조직을 정비한 교단종교는 아니었었다. 다만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주로 상대하면서 자신의 물법을 통해 치료를 해 주는 정도였었다. 그리하여 일제말기에는 봉남이 흑세무민의 邪教로 지목되어 特高警察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일시 종교활동을 중단했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1946년 3월 15일 부산 영도에서 첫 수련 끝에 金沃濟, 裴戊生 등 몇몇 제자에게 물법을 전수하였는데²⁵⁸⁾, 이것은 心修法의 三습원리에 따라 물법 사용과 단식을 겸하여 신병을 치료하고 수양하는 것이라고 한다. 봉남의 세번째 득도인 三通은 尙州 은척의 성지사에서 백일기도를 드린 후에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그는 天地의 大明大德을 觀하고 心修法의 근원인 靈海와 靈局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로소 그는 물법

255) 이 기록은 자신의 어머니가 산후풍으로 죽을 직전에서 물법으로 치료를 받고 나온 뒤, 김봉남을 따르다가 현재는 김해의 三法修道敎化院의 원장을 맡고 있는 楊外煥 원장과의 대담에서 취재한 기사를 실은 《중앙경제》, 1989.6.18자 기사를 따르고 있다.

256) 奉南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하는 三法修道敎化院 측에서는 이날을 記念致誠日로 삼고 있다.

257) 이날을 三法修道敎化院 측에서는 傳法 기념일로 삼고 있다.

258) 이날을 三法修道敎化院에서는 得理 기념일로 삼고 있다.

의 원리야 말로 우주 만물 생명의 근본 이치로서 儒佛仙 삼법의 이치가 모두 물법으로 歸一됨을 확연히 깨달았다고 한다²⁵⁹. 그 뒤 金奉南이 1950년 4월 11일 갑자기 타계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수천명에 이르렀다 한다. 그가 죽은 뒤, 그를 따르던 제자 들 중에서 月根 金沃濟(1909-1960)와 月奉 裴戊生(1898-?)이 특히 두두러진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月根은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과 진주, 부산등지를 오가며 教化를 담당하고 月奉은 밀양, 양산 등지를 중심으로 물법을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奉南 자신이 생존시에 그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으며, 다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법으로 치료하고 見性悟道の 길을 가르치는 등 의례 중심의 종교활동만을 하였었기 때문에 敎祖의 죽음 이후 그 후계자들에 의해 그러한 가르침이 문자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分派를 낳을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리하여 奉南 사후에는 月奉의 三法修道敎化院, 月根의 聖德道를 비롯하여, 康基春의 龍華三德道, 姜四萬의 天地大安道, 安斗承의 찬물교, 등 10여개 파로 분립하게 된다.

聖德道を 만든 月根은 김해에서 부산을 오가며 교화에 힘쓰다가 1952년 5월 27일(음) 대구의 팔공산 자락인 達成池에서 心水妙法の 진리를 大覺하고 法海 선생과 더불어 독자적인 교화활동을 전개하면서 부터 새로운 교단을 열게 된다. 聖德道에서는 바로 이 날을 道德立法일로 삼고 있는데, 같은 해 7월 7일(음) 득도후 「無量清靜正方心」이라는 淸心呪를 읊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착한 기운(곧 道氣)을 받게 되어 邪氣가 사라지고 淸靜靈心을 체험²⁶⁰ 하면서 해탈에 이르렀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체험이 있는 후 부터 淸心呪 독송을 가장 중요한 心修의 수련법으로 삼고 교화활동에 나선다. 그 뒤, 1954년 11월 26일(음)을 기해 자신들의 法道を 이어나갈 후계의 법을 정하고²⁶¹, 奉南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재구성하여 체계화하여 이것을 《自性反省 聖德明心道德經》으로 간행한다. 이것이 聖德道の 경전으로 여기서는 聖德明心道를 儒佛仙의 원리에서 찾고 있다. 결국 聖의 원리는 儒에 있는데, 三綱五倫과 仁義禮智의 실천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것이며, 德의 원리는 佛에 있는데 無量大德을 본받아 마음을 닦아 自性自佛을 찾는 見性에 있으며, 道의 원리는 仙으로 仙은 미신을 타파하고 改過遷善하여 중생을 교화하여 活人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결국, 유교에서 가르친 人倫을 지키고 心

259) 李康五, 〈奉南敎(찬물교계)〉총론, 《한국신흥종교연구》자료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71, p.27.

260) 이 날을 聖德道에서는 道氣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261) 이 날을 四柱立法일로 기념하고 있다.

修하여 見性하고 중생을 教化하여 공덕을 쌓아가는 것을 救濟財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미신의 타파를 크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는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헛된 욕심으로 미신을 하여 소원을 빌면 그 역시 바르지 못한 것으로 그에 따른 應報를 스스로 받게 된다’²⁶²⁾는 관점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신 타파에 대한 입장은 奉南의 물법계 신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인데 이것은 찬물을 마시는 등의 의례가 당시 그들의 교단이 찬물교로 불리울 정도로 전통적인 淨化水를 떠놓고 소원을 간구하는 민간신앙적 요소로 오해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특히 聖德道는 이 미신타파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찬물교에서 나온 분파로서 민간신앙적 요소가 틀림없이 항존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동시에 찬물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미신 타파와 중생제도의 강조는 聖德道 신앙의 탈주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당시 新宗教 일반에 대한 邪教 내지는 似而非 宗教라는 사회적 낙인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교세의 신장에 긍정적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것은 단일 독립 교단이기 보다는 오히려 月根이 독자적으로 해석한 奉南의 心修法을 나름대로 전하기 위해 셋집을 이용해 教化활동을 펼치는 수준이었다. 그런 만큼 포교활동도 주로 개인 집을 찾아다니며 과거 奉南의 물법을 따르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心修를 강조하는 수양단체적 성격을 지닌 집단을 형성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도 초기에는 대구지역 보다는 진주나 영주, 안동등지에서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지역 敎化院이 성립된 시기를 보아도, 1955년에 진주, 안동, 봉화가 그리고 1956년에는 풍기, 의성이, 1957년에는 大谷, 남해, 하양 등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대구에서는 1955년 경 부터 孫忠敬의 집 일부를 敎化院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敎化院을 발족시키나 그 뒤, 다시 개인 주택을 빌려 포교활동을 벌릴 정도였다. 그러다가 1960년 3월 4일(음)이 月根이 세상을 뜨고, 같은 해 10월 29일 대구시 중구 인교동 44번지에 주소지를 둔 『社團法人 聖德道敎化院』으로 정식 등록하면서 부터 본격적인 교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三法修道敎化院 측과 金海 대동면 수안리에 있던 奉南의 祭閣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 소송을 벌렸으나 그 소송에서 패하게 되자, 月奉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고 동시에 교리상으로도 奉南의 가르침과 결별하여 완전히 독자적인 교단으로 출발함으로써 聖德道는 이후 奉南의 물법계와는 무관한 교단으로 재창립되게 되는 셈이다.

262) 재단법인 성덕도유지재단, 《聖德의 빛》, 1992, p.9

V. 60年代의 經濟開發期와 70年代 高度 經濟成長期の 新宗教運動

1. 신종교 교단의 합리적 조직화와 교단 운영의 현대화

1) 5·16과 신종교운동의 일시적 정체

해방 이후 50년대까지의 대구 지역의 신종교운동은 해방정국과 6·25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자라난 亂世型的 신종교였다. 그래서 그것은 개개인이 道成立德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현세의 무질서한 사회를 개선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이 정착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救世의 使命을 자기 소명으로 삼는 그런 인격들이 모여 신종교 운동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50년대까지 대구의 신종교운동은 亂世救國型的 志士의 태도가 신종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경향으로, 이들은 道德을 현세문제 해결의 주술적 힘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여 이 道德의 추구에 전념함으로써 신종교 교단의 성격이 일종의 수양단체적 성격을 지닌게 하였다. 현실적으로도, 50년대의 사회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6.25 이후의 혼란상에 원조 물자를 둘러싼 부정과 부패는 물론 사회 전반의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외국군의 주둔으로 인한 무분별한 서구 문물의 유입에 따른 가치관이나 도덕성의 붕괴 등은 바로 이러한 수양단체적 종교운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60년대는 이러한 만연된 부정 부패를 종식하기 위한 4·19 혁명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를 이은 제 2공화국하에서의 온갖 욕구와 이념의 혁명적 분출에 따른 여전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궁핍이 일반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는 우선 한국 사회를 일종의 군사적 동원체제에 따라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게 조직화하고 동원화하는데 유리한 체제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를 계획경제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부터 군사정권이 추구했던 이른바 ‘부정 부패의 척결’과 ‘舊惡을 일소’한다는 통치이념에 따라 사회적 기강을 강화하고 경제 건설의 가치를 내걸고 경제 개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침체와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亂世救國型的 신종교운동은 그 사회적 수요를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50년대에 볼 수 있었던 신종교 교단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등은 두두러지지 않게 된다. 50년대의 似而非와 邪教라는 사회적 낙인을 불러일으켰던 신종교 교단의 혼돈상은 강력한 사회 통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군사정권으로 하여금 난립한 신종교 교단의 정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신종교운동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군사정부는 해방과 더불어 우

후죽순처럼 분립이 가속화된 민족 종교를 정리하기 위해, 1961년 9월 대전 문화원에서 檀君, 水雲과 龜山 계통의 13개 교단이 참석하여 東道教라는 하나의 단일 교단을 결성케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신종교 교단에 대한 정비를 시도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문제되는 교단의 경우 과거 보다 강력한 사회적 통제가 따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이후 신종교 교단간의 연합운동 등 조직이나 체계면에서의 변화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2) 신종교운동의 체제 정비와 교단의 근대화 시도

그러나 오히려 신종교운동의 이러한 일시적 침체는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새로운 적응을 위한 교단의 조직화와 교의 체계화를 요구하게 한다. 이러한 신종교 교단의 조직이나 교리면에서의 조직적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은 교단 안팎에서 모두 요구되고 있었다. 이미 정부에 의해 주도된 東道教 결성은 과거 오래된 신종교 교단에서 우후 죽순처럼 분립하여 난립하고 있던 교단간의 통합이나 연합 움직임을 낳는다. 예컨대 1964년에는 이창환의 세계종교통일본부, 이창규의 대한종단연합회, 1965년에는 미륵불교향도회, 1967년에는 박제두에 의한 계룡산 신도안에서 범종교연맹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단군계 종교의 통일제단을 만들려는 시도, 1970년에는 보천교에서 증산종단친목회를 구성하는 등 지리멸렬하게 흩어져 분립하는 교단의 조직적 정비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교단내의 이해 관계로 대부분 실패로 끝나지만, 이것은 각 신종교 교단이 사회가 산업사회로 조직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롭게 조직이나 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에 직면했음을 보여 준 것이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이나 체제의 재정비는, 정부 주도에 의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대도시로의 집중이 나타나 지금까지 농촌지역에서 일정하게 교세를 유지하고 있던 각 교단들이 신자들의 이주에 따라 교단 본부를 도시로 옮기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移住派와 定住派 사이의 분립이 초래되는 상황²⁶³⁾을 빚었다. 도시로 이주하거나 분립한 교단들은 농촌과는 다른 환경에서 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敎典編纂과 신앙이나 의례의 체계적 정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구에서 창립된 眞覺宗이나 道德會, 大韓道德會, 聖德道 등도 한결같이 그 이전까지 敎祖를 중심으로 단골관계처럼 찾아오는 신도를 상대로 포교활동을 전개하던 것을 보다 합리적인

263) 이러한 전형적 보기는 부산의 太極道가 1969년 4월 大巡眞理會로 분립되어 창립되면서 서울로 옮겨와 전혀 새롭게 조직화되는 경우일 것이다.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 포교에서도 교단에서 발행한 책자나 문서, 신문등을 이용해 포교에 임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眞覺宗은 1963년 10월 孫珪祥 大宗師가 入寂하자, 苑淨 孫大鍊 중사가 대종사에 오르고 1963년 12월 3일에는 교단의 소의 經典을 확정하고 정식으로 宗團 등록을 마친다. 그리고 1964년 3월에 宗制를 개편에 들어가 總印院을 설치하고 通理院을 그 산하에 두어 교단 행정을 담당하도록하는 조직 정비를 마친다. 그리하여 초대 總印에는 苑淨이 취임하고 1964년 3월 25일에는 學校法人 悔堂學院 설립하여 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체를 구비한다. 1966년 8월 2일자로 유지재단 명칭을 財團法人 大韓佛教眞覺宗 維持財團으로 고치고, 1968년 12월에는 總印院을 대구에서 현재 眞覺宗 본부가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로 옮기고 宗祖殿과 宗祖碑를 세워 전국을 대상으로한 포교활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1973년 1월 1일에는 월보 형식의 《眞覺宗報》를 발행하는 등 인쇄매체를 이용한 포교활동을 벌리면서 기성 교단으로 제도화되게 된다.

한편, 大韓道德會나 道德會 역시 이 시기에 조직과 교리 체계의 정비에 들어간다. 특히 大韓道德會는 정부가 주도한 東道教에 참여함으로써 檀君 신앙을 가미한 새로운 교리를 도입하며, 道德會는 1962년 12월 22일 대구시 중구 인교동으로 본부를 옮기고 社團法人 道德會로 등록하였으나 1964년 7월 28일자로 다시 財團法人 道德會로 등록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한다.

또한 聖德道도 1960년 10월 29일 社團法人 聖德道敎化院을 설립하여 조직을 정비한 뒤, 1964년 6월 1일부터 당시 聖德道가 가장 활발하게 포교되고 있던 지역 중 하나인 진주의 경남일보사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聖德道報》를 발행하여 인쇄매체를 이용한 포교에 들어간다. 1967년 3월 14일자로 법인명을 社團法人 聖德道로 바꾸면서 교단 명칭도 聖德道로 바꾸면서 조직을 정비한다.

이러한 교단의 합리적 조직화 움직임은, 신종교운동에서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신종교 교단도 기존의 제도화된 종단들처럼 조직이나 교리면에서 합리적 형식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향은 해방 이후 창립한 교단뿐 아니라 天道敎를 비롯한 그 이전에 창립된 오래된 신종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오래된 신종교 교단들도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크게 증가하자, 그 동안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신종교 교단이 그 지역적 경계를 넘어 전국을 상대로 포교의 영역을 넓혀 나갈 필요성이 생김과 아울러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리면이나 조직 및 활동면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구지역에도 그 전까지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지 못했던 신종교 교단들이 새롭게 일신된 면모를 갖추고 전

파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례중에 하나가 統一敎, 大巡眞理會 등 국내 신종교뿐 아니라, 특히 韓日國交正常化와 더불어 대구는 부산과 함께 재일교포 사회와 인적 교류가 많던 지역이라는 특징 때문인지 일본계 신종교들이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한다. 이 중에서도 創家學會는 50년대 말경에 이미 농어촌 지역에 침투해 있다가 이 시기에 도시로 확산되게 되는데 특히 대구에도 1969년 경에 정식 座談會가 결성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이 나타난다. 그 보다 앞서 1966년에는 창가학회와는 다른 일본 신종교인 世界메시아敎가 대구에 전해지는 등, 이미 일제 이후 존재해 왔던 天理敎와 더불어 일본계 신종교는 대구를 유망한 토양으로 하여 성장하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각종 국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교나 국외의 신종교가 밀려오면서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 인구를 주요한 새로운 종교적 수요층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 이전의 신종교와는 다른 한일敎처럼 현대적 교육을 받은 창시자가 처음부터 조직이나 교리면에서 기존 종교의 救濟財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형식을 갖추고 출발하는 현대적 기업형 신종교가 대구에서 등장하게 된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도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던 신암동이나 내당동 일대의 이른바 피난민촌의 슬럼화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새로운 단골형의 종교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좋은 보기가 眞人道나 檀君朝鮮宗天敎로서, 불과 한사람의 교주와 전문 靈能者로 이뤄진 소규모 종교집단이 독립교단의 형태를 띄면서 유지되어 나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3) 유신체제와 신종교운동

제3공화국 이후 공화당 정권은 박대통령을 정점으로 개발독재라는 말이 걸맞게 경제 재건의 대가로 정치적 자유의 유보를 공공연히 국민에게 요구했다. 그것은 60년대를 마감하면서 박정희의 3선 개헌으로 나타났다. ‘60년대 후반기에 모처럼 되찾은 안정의 부위기를 변동 없이 70년대 초반까지 굳게 다지고, 내 손으로 벌려 놓은 방대한 건설사업을 내 책임으로 매듭 짓어 보자는 생각’²⁶⁴⁾에서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3선 개헌에 성공함으로써 70년대를 연 박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와의 격렬한 선거전을 치루면서 아예 대통령 선거를 없애 버리고 강력한 대통령 독제를 가능케할 유신헌법을 채택함으로써 70년대의 한국 정치사의 큰 줄기를 잡았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단행된 유신 쿠데타는 국력 신장을 위해 ‘능률을 극대화하여’, ‘국민총화’를 이름으로써 ‘우리들의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여, ‘민족의 생존권

264) 〈改憲案 국민투표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담화〉(1969.10.10) 및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1975.1, 별책부록(光復30年 重要자료집), p.230.

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과업'을 수행하는 '안정되고 능률적인 민주질서의 확립'²⁶⁵⁾을 목표로한 국민 총 동원체제를 지향하는 정권의 정치적 변혁이었다.

이제 한국사회의 지배적 통치 이념은 능률과 안정, 국력 신장 이라는 가치에 집중하게 된다. 동시에 유신체제에 대한 외국에서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민족주의 가치도 서슴없이 내세우게 된다. 또한 국민 총 동원체제를 위해 전략적인 향토예비군이나 민방위 체제와 더불어, 근면 자조 자립을 앞세운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어촌은 물론 도시까지도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한 '잘살기 위한 운동'에 총동원된다. 이것이 70년대의 두차례 유가 파동에도 불구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한국경제의 도약 토대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 물론 이러한 국민정신운동을 동반한 지배체제의 국민동원적 경제발전 전략은 신종교운동에도 커다란 변화를 준다. 곧 이제까지의 난세구국적 소명에 입각한 종교활동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그 활동이 강화되고, 오히려 국가 지배이데올로기의 정당화에 동원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게 된다. 그래서 대체로 70년대에 강화된 충효 교육에 발맞추어, 이기심을 극복하고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격의 함양을 강조하는 50년대 나타난 신종교는 주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파자로서 동원됨으로써 오히려 난세구국적 소명을 가진 신자들로 부터 환영 받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내세우는 잘사는 사회에 대한 비전에 편승하여 앞으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운세가 되었음을 알리는 한민족 중심주의적 사고로 응집되면서 민족주의 색채를 강하게 띤 종교운동이 강화된다.

이러한 예는 특히, 대구에서 태동 발전한 眞覺會와 道德會²⁶⁶⁾ 계열과 聖德道, 한얼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²⁶⁷⁾. 곧 이들 대구에서 출발한 신종교 교단의 성장이 여타 지역에서

265) <헌법개정안공고에 대한 대통령 담화 및 동 제안 이유서>(1972.10.27) 앞의 <...자료집>, p.260.

266) 특히 道德會는 이 기간 중, 1977년 2월 본부를 서울로 옮겼다고 다시 이듬해 11월 에는 수성동으로 돌아오는 등 교단내의 문제로 세력이 매우 약화되기 시작한다.

267) 통계의 신빙성이 문제이기는 하나 1969년 통계는 <중앙연감> 1970년이고, 1977년 통계는 문공부 <종교 법인 및 단체현황>(업무자료)이다. 이것은 우선 타 종교에 비해 성덕도와 한얼교 一貫道 계열의 국제도덕협회의 신자 수가 70년대에 급증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신 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天理教	聖德道	한얼교	도덕협회
1969년	619,219	636,067	113,720	317,486	12,886	106,326	?
1977년	806,550	814,673	170,631	389,173	331,798	430,159	472,387

그리고 眞覺宗의 신자 수는 1969년 통계가 없어 1972년 통계를 보면, 231,980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1977년 위와 같은 통계 자료에는 556,80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진각종이 7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성장한 신종교 교단의 성장에 비해 매우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당시 공화당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이 대구 경북지역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 대구 지역의 신종교 교단은 여타 지역의 신종교 교단에 비해 70년대에는 유신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동원된 경향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나타나면서 민족주의 색채가 신종교운동 전반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60년대 부흥했던 단군계 신종교는 물론, 甌山敎계, 심지어는 統一敎를 비롯한 기독교계 신종교까지 한국이 미래 세계의 중심적 국가가 됨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이데올로기가 내세우는 국력 신장의 비전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종교적 가치나 운동도,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는 강력한 현실 세계에 대한 통제와 간섭,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등을 통해 국가 자체가 문제해결의 주술적 힘을 지닌 지배단체로 비침으로써 국가의 힘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강력한 새마을 운동의 추진으로 도시 근교나 농촌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巫나 점복 등을 행하던 이른바 行術業者들이 단골이나 고객들과 떠나 관청이 지정한 일정 지역에 모여살게 하는 등, 그들의 토착적인 종교환경 자체를 정비함으로써²⁶⁸⁾ 이들이 새로운 종교적 권능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만큼 배제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요한 새로운 종교적 권능자를 배출해 오던 민간신앙 부문의 종교적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여 신종교를 창립하는 과정에까지 이르는 예는 극히 적어지게 되었다. 특히, 1971년 1월 6일 ‘반공투쟁의 기본 이념아래 승공 태세의 확립과 무속의 전통문화개발 및 그 보존과 무속인들의 권익옹호와 상호 친목 증진’을 위해 조직된 大韓勝共敬信聯合會²⁶⁹⁾는 사실상 당시 빈번하게 나타나던 무장 공비나 간첩들에 대한 신고망을 구축하여 ‘반공투쟁’에 기여하여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고 그들은 동시에 국가이데올로기에 어느 정도 봉사하여 그야말로 무속인의 공공적 권익을 증진’시켰던 것이다. 민간신앙 부문까지도 장악할 만큼 정부의 사회 통제력이 강화된 상태에서의 신종교운동은 새로운 신종교의 창립이 나타나지 않는 등 새로운 변화를 보이면서 이미 창립된 교단은 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보다 현대화된 조직으로의 정비를 심화시키게 된다.

268) 대구에서도 지금의 지산동 일대나 앞산 안지랭이 골, 팔공산 갓바위 부근 등에 널리 분포해 있던 무속인들을 갓바위 아래 마을로 이전 시켜 이른바 무당촌을 이루게 한 것은 이러한 새마을 사업의 결과이기도 했다.

269) 현재 이회는 산하에 188개의 지부와 산하 굿당 85개소, 회원 42,690명을 거느린 무속인의 단체로 되어 있다. 중점 사업으로는 해마다 팔도굿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1993, p.1134.

2. 근대화 정책 추진기에 새로 등장한 대구 신종교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의 신종교운동은 조선조말 태동한 오랜된 신종교가 일제하에서 普天教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교세를 가지지 못했으나, 해방과 더불어 개인의 수양과 도덕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대구 토착의 새로운 신종교 교단이 출현하면서 대구지역 특유의 종교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60년대 들어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로 몰려든 인구는 도시의 새로운 생활방식의 부적응에서 오는 불안이나 여러가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종교에 귀의하는 이른바 종교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개신교의 인구 증가는 폭발적인 추세였다²⁷⁰⁾. 곧 새로운 예배당 건설이 늘어나면서 교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물량적인 면에서도 거대한 대규모 교회로의 성장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간의 신자 확보 경쟁이 뜨거워져 부흥회라는 이름하의 집회가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부흥회의 유행은 전도관의 사회적 물의와 함께 개신교를 비합리적인 靈術과 신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술적이며 祈福的 신앙이 지배하는 신앙집단²⁷¹⁾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시각도 등장하게 된다.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진 집단들은 일반적으로 당시의 개신교 교회의 신앙형태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면서도 그런 祈福的 형태와는 다르면서도 자신들의 사회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수요층으로 자라나게 된다. 60년대 말 부터 대구지역에서는 특히 신암동이나 내당동, 비산동 등 도심에서 떨어져 농촌 등지에서 이주민들이 모여드는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과밀 인구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새로운 종교 수요층이 많이 몰려 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종교 수요층은 새로운 異蹟의 소문과 함께 전혀 새로운 교리체계를 통해 교화를 추구하는 正一會와 같은 수양단체적 성격의 신종교 교단의 주요한 신자군을 제공하기도 한다.

270) 종교통계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던 1962년의 《합동연감》에 따르면, 교회 수에서 불교가 2,306개소 기독교가 6,785개소 그리고 천주교가 1,004개소, 東道教가 45개소였으나, 1970년 《중앙연감》에 의한 1969년의 교별 교회수를 보면, 불교가 2,135개소 기독교가 12,866개소 천주교가 369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별 신자 수에서도 그 정확성이 의문이지만 기독교가 1962년에 100만대에서 3백만대로 늘어나는 등 특히 기독교의 교회수와 신자수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여준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1993, pp168~169.) 당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전제로 할 때, 이 종교인구의 증가 가운데 특히 개신교 교회와 신자수의 증가는 곧 대도시에서의 기독교 인구의 증가 경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71) 70년대를 거치면서 가장 큰 교회성장을 이룬 순복음교회의 창립자인 조용기는 당시 아예 설교를 규정하여, ‘청중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meet to the need)이 바로 설교’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趙鏞基, 〈목회자와 설교철〉《교회성장》1, 영산출판사, 1981, p.87.

1) 萬教統合을 위해 企劃된 종교로서의 한얼교

한얼교는 1965년 12월 4일 당시 27세의 젊은 철학도에 의해 대구에서 창교된 교단이다. 이 교단에서 法統이라 불리우는 敎祖 申正一²⁷²⁾은 본명이 申浩相으로 1938년 5월 3일 대구시 중구 종로 1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적 부터 부모를 따라 염불 기도를 하는 등 불교에 심취하였다고 한다²⁷³⁾. 경북중학교를 다니면서 부터 그는 불경에 접하기 시작하고 특히 반야심경을 애독하면서 不生不滅의 法을 공부하면서 종교적 소양을 나타냈다고 한다. 1955년 경북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서울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이주한다. 서울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이 안되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목격한 이후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등 고교 시절에는 사춘기 특유의 正體 위기를 겪으며 방황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서울에서 다시 ‘부모님의 청과 애원을 저버릴 수 없어’ 경북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대학 시절도 이른바 ‘不在意識’으로 충만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법대 2학년 때인 1959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달성군 옥포면의 용연사를 찾아 당시 그 절에 주지였던 林慧山 스님을 찾아가 玄德禪師를 戒師로 모시고 사미계를 받고 입산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 학교도 나오면서 학업은 계속했다. 용연사에서 일년 정도 수행한 후 그는 臨休寺, 현풍의 유가사, 그리고 그 뒤 다시 4학년 때인 61년부터는 桐華寺 毘盧殿으로 옮겨 당시 유명한 禪知識이던 九山과 효봉 스님등을 만나면서 여전히 萬法歸一 一歸何處라는 公案을 參究하였다고 한다. 1962년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바로 대학원 철학과에 입학하여 ‘불교 교리를 체계화할 목적’으로 동양철학을 전공하게 된다. 그런 중에도 그는 또 다시 울산의 도설암, 임휴사 등지에서 東光, 田岡 古庵등의 여러 禪知識들과 만나며 수행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65년 12월 海印寺 龍塔禪院을 끝으로 7년여년 간의 수행을 마치고 달성군 무등동 千佛臺에서 保任을 갖고 12월 4일 무등동으로 내려와, 그 동안 수행 과정에서 이른바 一止觀法이라는 사유방식을 터득하고 이 一止를 한얼로 보고 이것에 대한 믿음과 바름에 대한 수행(正行)을 기본으로 한 대중 설교를 펴기 시작 ²⁷⁴⁾했다. 처음 활동을 개시하면서 가르친 설법은 “항상 선행을 생각하여 이것을 하고자 하고 항상 마음을 하나로 모아 법을 생각하고 항

272) 正一이라는 호는 조계종의 宗正으로 있던 尹古庵 스님이 가야산 龍塔禪院에서 당시 대학원생이던 신호상을 만나 그의 구도 자세를 보고 지어준 號라고 한다. 金正休, 《解脫로 가는 길: 申正一法主의 수행과 悟道》, 弘法院, 1979, p.5. 이 책은 申正一이 써준 원고와 저자의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조계종 靑岩寺 주지로 있으면서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있던 작가 金正休가 쓴 正一의 자전적 기록이다.

273) 이하의 기록은 金正休 스님이 正一과 그 부모로 부터 들은 것을 참고로 펴낸 앞의 책에 의존하고 있다.

274) 한얼교에서는 이날을 창교일로 잡고 있다.

상 정진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생각을 모아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말라”고 하면서 각자가 소원을 말하면 목전에서 이뤄진다고 했다고 한다²⁷⁵⁾. 그때 한 아낙이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를 업고와 낮게 해 주기를 바라자, 正一은 正心正行을 말하며 아이의 다리를 만져주자 곧 나아 걸었다고 한다. 바로 이 異蹟소식은 그에게 치병을 바라는 사람들을 운집하게 했으며 주변에서 正一道師란 별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얼교에서는 이것을 무등동의 布教靈蹟으로 부른다. 이것에 대해 正一 자신의 술회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일생동안 무등동에서 일어난 布教靈蹟에 대해 잊을 수가 없다. 비록 수도생활을 통해 內心 도달의 완성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만, 사람들이 구름처럼 운집하리라고는 믿지를 않았다. 그들은 나의 설교를 그대로 生佛의 法語라고 믿었고 만물을 주재하는 전능인으로 믿었다. 이때 나는 이들의 정신세계를 관리하는 총괄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생을 구도와 포교 행각으로 살고 싶었다.”²⁷⁶⁾ 마치 佛陀가 그랬던 것처럼 수행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단을 창설하여 수 많은 대중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경북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었기에 막상 신종교 교조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부감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正一은 1966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에도, 무등동에서 高靈 지방을 필두로 신동, 왜관, 성주, 구미, 현풍, 창녕 등지에 이르도록 대중을 상대로 한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에 구미 지역의 설교에서 집회 허가를 얻지 않고 설교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구류 처분을 받고 유치장 신세를 진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留置場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교단 설립을 결심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바로 그는 대구시 서구 내당동인 城西에 자리를 잡고 정식으로 교단을 창립하게 된다. 결국 실질적인 교단 성립 시기는 1966년인 셈이다. 아무튼 正一의 설교는 처음부터 治病의 異蹟 소문과 함께²⁷⁷⁾ 대구의 성서 지역을 중심으로 현풍과 동명 등지를 오가며 서대구 일대와 그 교통 권역을 중심으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 급속히 세를 확장해 나갔다. 그래서 1967년 4월 17일 문교부에 社團法人 正一會로 법인 등록을 마치고 正一은 스스로 회장에 위임한다. 이어 같은 해 5월 13일에는 妙秘藏 聖國橋라는 이름의 대강당을 건립하고 만경관에 모인 5천여 신도들 앞에서 이른바 正學을 발표하여 교단의 기본 교리체계를 확정한다. 이 正學에 대해 正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正은 마음이며 正은 몸이며 正은 性品이며 正은 法이며 正은 자기자신이며 正은 우주의

275) 김정휴, 앞의 책, p.187.

276) 김정휴, 앞의 책, p.195.

277) 당시 正一은 신자들 사이에서는 正任으로 불리워졌다.

모든 있는 것들이며 正은 시간이며 正은 공간이며 그러면서도 正은 한얼이요, 正은 부처요 正은 神이며 正은 天主이니라. 그런 까닭에 正은 넘치지 않으며 正은 모자라지도 않으며 正은 모나지 않고 빠듯지 않으며 正은 기대지 않으며 스스로 다 갖추었나니 正은 지혜이며 正은 자비이며 正은 진리이며 正은 참다운 길이며 正은 광명이며 正은 妙이며 正은 그대로 임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正과 더불어 말과 글로서만 正을 구하거나 찾지 말고 행함으로써 正을 찾을 것이며 남으로 말미암아 正을 찾거나 구하지 말 것이니라.”²⁷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正一會의 敎祖 申浩相은 그 자신 불교에 입산하여 禪修行을 통해 일종의 見性悟道를 추구하고 거기서 각성된 종교적 자각을, 佛敎나 神敎, 기독교 등 모든 종교의 神性を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正이라는 見性的 대상을 설정하여 그것을 매개로 한 전혀 새로운 종교적 神聖을 이념화하여 새로운 종교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활동은 佛敎의 見性에 대한 전래적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름의 수행과 학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여 그 주변에 제자를 모으고 개인적 문제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 일종의 상담과 조치를 함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종교적 소명의식으로 집약되며, 바로 그런 의식이 신종교 교단을 창설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이후 正一會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흥회등을 통해 확산 일로에 있던 개신교의 신유 활동에 버금가는 종교적 이적으로서의 布敎靈蹟²⁷⁹⁾을 보이며 기독교에 거리감을 가지고 있던 종교 수요층을 배경으로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1967년 부터 正一會의 지회를 영천, 경산, 월성, 창녕, 부산 등지에 설립하고, 2년 뒤인 1969년에는 회당이 21개소에 신도 106,326명²⁸⁰⁾으로, 대구지역에서는 가장 큰 신도집단을 거느린 신종교 교단으로 자라난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治病의 이적과 함께 교세의 급속한 신장을 이룬 正一會는, 申浩相 자신이 수도 생활을 할때 부터 參究했던 萬法歸一 一歸何處의 문제를 正一로 완성하여 체계화

278) 《正學經書》를 인용한 金正休의 앞의 책, p.202.

279) 한얼교의 편집실에서 펴내던 종교체험기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해탈로 가는 길〉을 보면(앞의 책 pp. 204~209), 환자가 正任 앞에 가서 正에 대해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묘비장 성국가〉를 들으며 正一의 안수를 받고 정상을 회복한 사례를 전하고 있다. 또 안수 이후에 無無呪를 讀誦하여 치료 효과를 본 경우를 들고 있다. 그 無無呪란, “세상에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주됨이 없어 변화하는 것이요, 모두 생겨서 없어지는 순간의 것 허망한 것이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보일 때까지 생겨서 없어지는 이치를 항상 보면, 맑고 밝은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正”이라는 기도문과 같은 것이다. 이같이 正一會 시기에는 正一道士로 알려진 敎祖의 布敎靈蹟에 의존하여 治病이나 소원 성취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요 신자군을 이루게 된다.

280) 이 통계는 《중앙연감》 1970년판의 통계이다. 당시 정일회의 이러한 수치는 그 보다 먼저 성립된 聖德道の 80회당에 신자수 12,886명 보다 회당 수에서는 떨어지나 신자 수에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종교사회연구원, 《한국종교연감》, 1993, p.169.

한 이른바 正思想을, 대중의 구원을 위한 구원 종교에 요구되는 救濟財로 바꾸기 위해 ‘한얼’이란 개념을 단군신앙에서 취득하여 단군신앙과 접목시키는데 몰두한다. 여기서 正으로 표현되었던 불교적 如來 개념이 ‘한얼’로 대치되면서 한얼에 대한 믿음과 바름(正)에 대한 수행을 기본으로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동시에 그들을 성원으로한 조화를 달성한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弘益人間하고 正立聖華를 달성하여 인류의 大華福을 완성한다는 구원관을 정립하게 된다. 그래서 1970년 6월에는 1970년 6월에 단군성전 건립추진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제1회 강화도 마니산 성지순례 제천 행사를 가지는 등 단군신앙을 본격적으로 습합시킨다. 1972년 10월에는 자신이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見性悟道와 그 수행법을 체계화한 각종 저술들을 출간과 正一會 기관지 《얼》을 창간, 출판하기 위해 도서출판 정화사를 등록하고 대표를 맡는다. 그리고 1973년 7월 21일에는 檀君을 숭봉하는 20여 단체와 함께 단군숭봉 연합결성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일회는 이제 불교적 색채를 완전히 버리고 단군계 신종교로 오히려 알려질 만큼 단군신앙을 강조하면서 그 자신, 《통합종교의 출현》(1973), 《단군바른님》(1975), 《얼, 바름, 행복》(1976) 등을 출간, 인쇄매체를 통한 현대화된 신종교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

1978년 1월 申浩相은 지금까지 正一會에의 변화를 마감하면서 이를 해체하고 『한얼교』의 창교를 정식 선언하면서 이를 각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린다. 이 한얼교 창교의 취지는 이 교단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우리 한교는 예로부터 물려 받은 홍익인간의 뜻을 正立聖華로서 오늘에 계승하고 萬教一本이며 諸法歸正의 진리를 한얼과 바름으로 나타내어 한교의 宗旨로 삼아 創敎의 문을 여니 진리의 광명은 온누리에 밝았다. 한얼님으로서 진리의 본체를 밝히고 天佛神主님의 究竟本體를 하나로 융섭하며 진리의 광명을 바른법으로 하여 眞·道·本·中·平·公의 大道를 꿰어 뚫고 그 묘함을 밝히며 진리의 완성체를 바른님으로 표현하여 檀君, 孔子, 釋迦, 예수, 마호멧 등 일체 성현을 한뜻으로 神位하고 진리의 미완성체를 「빼똥님」으로 하여 凡夫, 衆生, 罪人을 다 머금하고 빼똥님이 바른님이 되는 방편과 수행을 밝히며 진리의 다리 즉 聖國橋로서 진리의 敎體를 밝히는 바이다.”²⁸¹⁾

이어 6월에는 한얼교의 경전인 《민족성전》, 《인류성전》, 《한얼경서》 등을 출간하여 교리의 체계화를 달성함과 아울러 9월에는 『社團法人 한얼교중앙회』를 조직하여 조직 정비를 마친다. 이로써 한얼교는 모든 세계종교의 구원관을 창의적으로 재해석 종합한 새로운 구원관에 입각하여, 創家學會나 통일교 등에서 이미 나타났던 신종교 교단의 기업형 경영방식을 도입하면서, 80년대의 신종교 붐을 타고 교단 홍보나 교리체계화를 위한 교단내 각종 연구소나 출판사

281) 金正休, 앞의 책, pp.247-248에서 재인용.

업은 물론, 기업 경영 등의 경제활동과 정치, 사회 등 각종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기업형 신종교의 새로운 본보기로 나타나게 된다.

2) 마음 정화의 치병술과 眞人道の 유행

眞人道는 신비주의적 성령 강림을 추구하는 부흥회가 기독교계를 휩쓸고 神愈기도가 유행하던 1970년대 중반에 대구에서 출현했다가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사라진 일종의 流行神의으로 나타났던 신종교이다. 敎祖의 신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無想聖賢師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교단에서 나온 《眞人道法の門》이라는 책자²⁸²⁾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책에 실려있는 敎祖 부인의 신앙고백 형태의 기록에 의하면, 敎祖의 부인은 1940년 생이며 1964년 11월에 결혼을 하여 비산 3동에서 철공소를 운영하는 남편과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는 1969년에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떠나 어느 산중에서 수도를 하다가, 3개월이 지나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 갔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장사에는 무관심하고 자주 집을 떠나 수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 뒤 1974년 부터 스스로 無想聖賢師라 부르고 마음 정화를 통해 眞人道를 보여줌으로써 병을 치료하고 부정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병원과 교도소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집에 국민마음 정화실을 설치하고 스스로 익힌 치병술을 행했다고 한다. 그래서 1974년 그는 眞人道를 창립하고 국민마음 정화실을 교당으로 삼게 된다. 그런 중에 한 환자가 가혹행위로 치병을 빙자한다는 고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다. 이런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마음정화라는 방법으로 병을 고친 환자들을 중심으로 차츰 주변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無法而行原을 대구시 서구 비산4구에 설치하고 1977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수 무상정화 마음교육 행심통불기간을 정하고 매 1주일마다 마음 정화의 교육을 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종교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미래인의 참길〉이라는 사회정화지라는 이름의 팜플렛을 발행²⁸³⁾하여 그것을 나눠주는 문서 포교를 통해 본격적 포교활동

282) 이것은 1982년 無法而行原에서 출판된 것으로 眞人道の「聖賢經」으로 쓰여지게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無想靜化眞人道眞世法〉이라는 교조 자신의 가르침이 들어 있고 그 밖에 〈사회정화지〉로 1977년 8월부터 간행하여 교도소 등지에 나눠준 팜플렛을 모은 것과, 신자들의 신앙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283) 이 비용은 주로 마음정화실에서 「마음정화 행심법도」 교육을 받은 뒤, 無想函에 회사한 비용으로 충당했는데, 5년째 되던 해인 1981년 11월에 “나는 온세상인 앞에 목숨걸고 교도소, 병원, 약이 필요없는 세상을 꼭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약하는 바이다”고 선언하고 5년만 모든 국민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음정화하면 부정 부패가 없는 사회가 된다고 「고함」에서 주장하고 그 동안 150만부 이상의 정화지를 인쇄, 보급하던 것을 중단하게 된다.

에 들어간다. 1980년에는 스스로 “나는 무법님(하느님 부처님 성신님)의 참뜻을 받아 진인도를 확립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²⁸⁴⁾고 선언하면서 無想眞人道眞世法을 지구인에게 선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82년 5월에는 《무상법 진인도법의 문》을 간행하면서 교리의 체계화를 시도한다. 진인도에서는 「허공에 계시는 無法님에게 無想行할 것을 맹세합니다」하는 나의 맹세와 「나의 마음 찾아 모아 無想 마음 이룩하세. 나의 할일 無定行을 가정 행복 이룩하세. 無想 無念 무정행을 나라 부흥 이룩하세. 나의 무상 무정행을 세계 평화 이룩하세」하는 내용의 나의 행심을 아침에 외우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신자들은 70년대 중반 부터 80년대 초까지 대구의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그들은 가슴이 둥근 태양 마크에 가운데 眞人道라 쓰여 있고 그 위에 진심보호, 그 아래는 평화 행복이라 쓰여진 지름 4cm 정도의 배지를 달고 다니며 무상 미륵 종불이라는 無想念誦을 독송한다. 그리고 마음淨化室이라는 집회 장소를 동 단위로 마련하고 가지고 行道라 부르는 신자들이 모여 이른바 마음정화 행심을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無想法를 깨닫고 무법님의 원력과 다스림을 확인함으로써 병이 낫고 사회정화에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심리적 치병술에 의존한 진인도는 1977년 부터 대구지역 중년 부인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인도의 유행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정화운동을 기치로 내건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오히려 급격히 쇠락하고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3) 단골형 신종교로서의 檀君朝鮮宗天教 靈龔殿²⁸⁵⁾

한얼교가 60년대에 창교된 교단으로서 현대화된 조직과 체계화된 교리를 가지고 기업형 신종교로 발전한 경우인데 비해, 이 교단은 아직 체계적인 교리나 조직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그야말로 특별한 靈術을 기대하면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일정한 敎化를 달성하여 교단을 형성한 경우로서 민간신앙에서 볼 수 있는 단골형 신종교 교단이다. 敎祖는 金熙宇로 그는 단기 4257년²⁸⁶⁾ (서기 1924년) 7월 1일 전남 靈巖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한말에 全州 鎭營長을 지냈던 김윤창씨로 조부가 관직에 있으면서 세운 공로로 그의 선조들

284) 앞의 책, 〈진인도 정신〉 1980, p.236.

285) 이 교단에 대한 연구나 기록은 조사 설문에 의해 기록된 《한국종교연감》 1993년의 교단 실태 기록 뿐이다. 그래서 이하의 기록은 필자 자신이 직접 敎祖를 만나 정리한 것이다.

286) 그가 맹목적일 정도로 고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군에 대한 저술을 평가할때도 항상 강조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檀紀 사용 여부였다. 그리고 이 교단에서는 그를 道士로 부르고 있으나 교주 자신은 그 명칭을 꺼리고 靈龔殿 대표로 호칭되기를 원했다.

이 중3품에까지 추존될 정도였다고 한다. 부친인 金英錫씨 슬하에서 일제때 영암의 市町소학교를 마치고 동경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부속중학교를 3년 수료 후 귀국했다고 한다. 학교를 중퇴한 뒤, 일본 군에 징용되어 군복무를 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얼마간 전남도경에서 경찰관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 뒤, 경찰 생활에 회의를 느껴 불교에 심취하면서 대구 근교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며 승려 생활을 배우고, 在家의 대처승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신도들을 데리고 여러 사찰이나 산중에서 염불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소원 성취를 빌어주는 등의 종교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던 중 기도 가운데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 檀君이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임을 깨닫고 1964년 3월 3일을 기해 檀君朝鮮宗天教를 창교하고 대구시 신암1동에 계시에서 주어진 이름인 靈龔殿이라는 예배처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교당 설립에는 당시 부터 김희우씨와 함께 일하던 郭鳳學(여. 1921.10.27.생)씨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녀는 이 교단에서 홍도사로 불리우고 있는데, 항상 기도를 위해 각 산천을 찾을 시에는 교조와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특별한 靈能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治病을 위한 기도시에는 그녀의 손을 통해 나오는 특별한 능력이 효능을 인정받아 많은 신자를 모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檀君朝鮮宗天教 靈龔殿의 이름은 바로 계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홍도사로 불리우는 광봉학씨의 靈通에 의존하여 그녀로 부터 치병을 원하는 고객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보였다. 아무튼 金熙宇씨는 이 靈龔殿을 만들고서도 1965년 부터는 당시 그 해에 창립된 『대한 불교 정토종』의 승려로 활동하게 된다. 法名이 法淨인 그는 정토종에서 교육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토종의 승려로 80년 말까지 활동했다고 한다.

檀君朝鮮宗天教는 사실상 대표인 金熙宇와 홍도사로 불리우는 郭鳳學 양인에 의해 운영되는 교단이다. 대표 김희우씨는 얼마전 까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운영위원을 맡는 등 주로 교단의 대외적인 업무와 《神明記》의 번역과 해석 등의 교리체계화 및 법회시의 설교를 맡고 있으며, 광봉학씨는 전형적인 靈能者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靈通을 받아 치병을 위한 按手나 신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려주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그래서 교조인 대표는 일종의 설교가로서 홍도사는 영능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만큼 교단 조직이라 부를 만한 실질적인 조직형태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다만 매월 음력 초하룻날에 올리는 定日祈禱天祭와 일요경배에 모이는 70여명의 신도를 주축으로 특별히 치병을 위해 찾아오는 고객 형식의 신도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신도명부에 등재하는 정도로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교단 본부를 처음 창교시의 신암1동에서 위치인 대구직할시 동구 신암4동 281

-30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교육원을 두고 있었다.

교단내에서 간행된 체계화된 교리서나 간행물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대표 회우씨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神明記》를 삼고 《天符經》과, 《三一신고》등과 불교 경전도 함께 설교시에 참조한다고 한다. 교리서가 없는 만큼 체계화된 교리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나 다만 정기 법회때 신도들과 함께 암송하는 기도문에서 그 교리의 대강을 살필 수 있다. 기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어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歸依三神上帝님이시여!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횡포를 없애주시고 만민이 평등한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다 같이 행복하게 歸依三神上帝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길이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 기도문에서 보여지듯이, 歸依三神上帝를 救濟財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결국 三神上帝님의 造化와 教化, 治化의 三法에 의존하여 생활함으로써 이 땅에서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歸依三神上帝를 교단에서는 ‘六子尊號’로 부르는데, 법회시에 위 기도문을 三讀하고 六子尊號를 계속 讀誦하도록 가르친다. 이 육자존호는 신자들이 항상 독송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화장실이나 누워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것은 부처의 名號를 부르는 것과는 달리 三神上帝님은 존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三神上帝는 창조주이신 桓因과 교화주이신 桓雄, 치화주이신 檀君王儉을 말하는데, 이는 결국 前佛시대의 三佛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 桓因天帝는 定光如來佛이며, 桓雄은 東方天日世界十二上願佛이고, 단군왕검은 藥師琉璃光如來佛이라고 했다. 그래서 定日기도천제시에는 신자들은 먼저, 단군영정을 모셔둔 사당에 4배를 올리고, 또 前佛 三佛像에게 4배를 올리며 마지막으로 삼위태백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백두산 전경이 찍힌 사진에 참배하여야 한다. 이 의례를 치른 뒤, 대표의 법론이 설해지는데 그 내용은 주로 가정의 화목을 神明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부부간의 화목과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자녀에 대한 사랑, 친척간의 화목을 강조하고, 항상 ‘좋은 것은 남에게 돌리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또 교조는 자신이 받은 계시에 따르면, 開天의 시기는 지금부터 54억 8천6백만년 전으로 이제 27년에서 3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전 인류를 三神上帝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화를 담당하는 스승의 나라로 된다고 주장했다. 신자들은 天符章이라 부르는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가 새겨진 목걸이나 뺨지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교단의 신자로서의 동일의식을 키우고 있다. 또한 중요한 의례로는 매월 초하룻날에 드리는 定日祈禱天祭와 창교일인 음력 3월 3일의 기념법회, 3월 15일의 御天節, 그리고 개천절 특별 법회를 올리고 있다.

3. 주요 신종교 교단의 移入과 성장

앞서 지적한대로 60-70년대는 타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대구 토착의 신종교가 아닌 외지의 신종교가 새롭게 이입되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도 기독교계 신종교는 제외하고 오래된 신종교 가운데 특히 대구 지역에서 정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던 大巡眞理會와 또 대구를 주요 거점으로 확산된 일본계 신종교에 대해 주목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것은 大巡眞理會의 경우, 그 모교단인 無極大道教가 일제때 같은 증산계의 보천교와 더불어 대구 지역에서 일정 교세를 가졌으며, 또 그 교단이 趙哲濟가 죽은 뒤, 朴漢慶에 의해 교단이 분립되던 1969년 부터 바로 대구 지역에 뿌리내렸을 뿐 아니라 70년대를 거치면서 大巡眞理會의 성장에 대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신종교의 경우는 創家學會는 두말 할 필요도 없고 世界救世教, 심지어는 P.L교단 등이 유입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 그 성장이나 활동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78년에는 生長의 家가 대구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光明會라는 이름으로 성립하여 특히 90년대에 들어 가장 성장하는 교단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만큼 대구에서의 60-70년대에 걸친 일본 신종교의 유입은 특히 주목될 수 밖에 없다.

1) 大巡眞理會의 유입과 성장

대순진리회는 교단의 道主 鼎山 趙哲濟 때부터 대구와 인연을 사실상 갖고 있었다. 그것은 鼎山이 1924년 무극대도교를 창립한 뒤 8월 중순에 대구 南山洞에서 백일공부를 하는 중에 수시로 팔공산에서 狩獵을 하면서 대구를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度數를 정한 일과 관련된 것이다. 곧, 당시 鼎山이 사냥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총을 발사하여 산을 울리게 함은 12월은 丑이고 邱는 언덕이니 소가 언덕에 비비는 格도 되지마는, 후일 國運이 否塞할 때 이곳 대구가 大求의 保壘가 되어 救國할 언덕이 되게 하려는 함이니라”²⁸⁷⁾하여 대구가 6.25 때 마지막 보루로 남아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게 한 度數를 세운 인연을 갖고 있는 도시로 趙鼎山계 교단인 太極道나 대순진리회 측에서는 주장한다. 아무튼 대순진리회는 趙鼎山이 창립한 無極道를 일제의 유사종교단체 해산령에 따라 1935년 12월 말로 해산하고, 1948년 1월 1일을 기해 부산에서 창립한 太極道로부터 1958년 3월 6일 鼎山이 죽은 뒤, 분규²⁸⁸⁾가

287) 太極道編纂委員會, 《太極眞經》(3:66), 1989, p.413.

288) 당시 趙鼎山 사망 후 道典으로 있던 박한경이 無學道通을 주장하며 교단 실권을 장악하자, 박종화, 이운성, 김용화 등 간부진이 이에 반대하면서 교단 분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언론이나 행정당국의 간섭과 규제를 받으면서 5.16 후 간부들이 연이어 수감 조사를 받는 등 분열에 빠진다. 연이어 간부들이 교단에서 경영하던 『부산협동상회』라는 미국상의 상당 재산을 빼돌려 교단을 떠나버렸다. 그 후 10여년을 계속 교단을 이끌던 박한경은 자신을 따르는 300세대의 甘川洞 주민들과 함께 서울로 가서 대순진리회를 창립한다. 이 때 태극도의 상당 수가 박한경을 따라갔다고 한다.

일어나 1968년 6월 25일 당시 道典이던 朴漢慶이 태극도를 떠나 1969년 4월 창립한 교단이다. 박한경은 6월 교단본부부를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중앙본부 도장을 창건하고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교단으로 출발한다.

당시 교단 설립 취지문에서 밝힌 것을 보면, “...우리 대순진리회는 誠·敬·信 三法言으로 修道의 요체를 삼고, 安心·安身 二律令으로 수행의 訓典을 삼아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國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하고 無自欺로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修心煉性하고 洗氣煉質하여, 陰陽合德, 神人調和, 解怨相生, 道通眞境’의 大巡眞理를 勉而修之하고...”²⁸⁹⁾로 규정한다. 여기서 특히 대순진리회는 삼강오륜에 입각한 가정과 국법의 준수를 밝혀 사회교화 단체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강조한다. 앞서 지적한 데로 60년대 후반들어 유신체제로 나아가기 까지, 국민 총 동원체제를 위해 전략적인 향토에 비군이나 민방위 체제와 더불어, 근면 자조 자립을 앞세운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어촌은 물론 도시까지도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한 ‘잘살기 위한 운동’에 총동원된다. 아무튼 이러한 국민정신운동을 동반한 지배체제의 국민동원적 경제발전 전략에는 바로 대순진리회의 國法遵守와 도덕율에 입각한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는 道人 守則이 국가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이런 교단은 특히 유신체제와 같은 비민주적 정치적 형태에서도 정치적 불만을 國法遵守로 교화시킴으로써 정권의 차원에서도 사회적 동원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단체로 인식될 수 있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민주화를 요구하며 빈번한 시위와 저항이 계속되는 상황에 처한 일반 민중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당장의 일상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꺼이 국가지배 이데올로기에 더 동조하려는 보수주의 세력을 기층사회로 부터 발생시킨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세력의 존재는 70년대의 대순진리회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도 교단 창립 직후 1만9천여명이었던 교세는 1974년 말에는 2.5배 증가한 5만여명으로 늘고, 79년말에는 3.2배 증가한 18만여명으로 늘어난다²⁹⁰⁾.

이런 대순진리회의 성장은 70년대 들어서면서 1972년 3월부터 교단의 활동 방향을 대순진리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과 동시에 구호자선, 사회복지, 교육사업 등으로 결정하고 이런 사업을 교단의 기본사업으로 정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1976년 6월에는 대순장학회를 구성하여 중고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80년에는

289) 大巡眞理會敎務部, 《大巡眞理會要覽》, p. 9.

290) 한국종교학회, 《한국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85, p. 173.

536명에게 2천4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한다. 또 구호자선 사업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장애자 돕기, 이재민 돕기, 양로원 등 시설 돕기 사업을 벌이고, 사회복지사업으로 새마을사업, 자연보호캠페인, 사회정화사업, 원호성금, 방위성금 등 국가시책에 따라 이른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각종 성금모집에도 어떤 교단 보다 앞장서 각 교구별로 앞다투어 실적 경쟁을 하듯이 술선수범함으로써 정권으로 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갔다. 전반적으로 대구에서의 대순진리회의 활동도 이러한 중앙본부의 지침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장학 사업을 통한 학생층에 대한 포교는 몇몇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대구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리하여 80년대의 신종교 부흥기에 접어들면 대구지역의 신종교 교단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신장하는 교단 중 하나로 자라나게 된다.

2) 최대의 일본 신종교 創價學會 유입과 성장

오늘날 대구지역사회의 신종교운동을 논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이 지역이 일본 신종교가 가장 쉽게 뿌리 내리고 배양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현재 일본신종교 가운데 가장 교세가 큰 創價學會²⁹¹⁾의 회관 숫자만 해도 직할시 이상 만을 기준으로 할 때, 1991년 말 현재 서울이 17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구로 8개, 부산이 5개소, 인천이 3개소 광주가 2개소 대전이 1개소이다. 그리고 PL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존재가 확인 되지 않지만, 대구지역에서 전파된 적이 있으며, 世界메시아敎²⁹²⁾는 부산에 있는 한국 본부와 서울의 출장소를 제외하고는 대구에만 포교소가 있다. 더우기 生長의 家는 대구에서 아예 光明會라는 자생적인 신자집단을 형성하여 그 뒤부터 일본의 生長의 家와 관련을 맺고 한국 포교의 거점이 되는 등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일제때 부터 항상 일본 신종교의 진출 거점이었던 부산보다 오히려 일본 신종교교단이 잘 정착되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91) 국내에서는 1974년 이후 韓國日蓮正宗佛敎會로 개명하였다가, 1990년 이후에는 SGI한국불교회로 활동하고 있다.

292) 대구에 世界메시아敎 포교소가 설치된 것은 1968년이다. 수성구 과동 국민주택단지에 설치된 이 포교소는 현재도 매일 첫째 주일 10시에 올리는 月例祭에는 70여명의 신도가 참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世界救世敎 계통의 일본신종교가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大韓民國世界救世敎(부산 대연동)이며 또 하나는 世界메시아敎한국본부(부산 광안2동)이다. 대구에 있는 포교소는 후자의 교단인데, 사실 일본의 世界救世敎는 1935년 大本敎의 신자였던 岡田茂吉이 만든 大日本觀音會를 47년에 日本觀音敎團으로 재건했다가 1950년 世界메시아敎로 개명하고 다시 그것을 世界救世敎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신도 수 80여만을 거느린 신종교교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이 교단명이 과거의 명칭과 함께 사용되면서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 물론 현재 일본 국내를 제외하고는 최대의 신도수를 지닌 韓國日蓮正宗佛教會의 일본 모교단인 創價學會의 창설자는 마끼구찌 쓰네자부로(牧口常三郎)이다. 그는 1871년 新潟縣 刈羽郡 출신으로 北海道 尋常사범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모교인 부속 尋常소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한 교육자로서 자신의 교육이념을 日蓮의 가르침과 연결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1937년 東京에서 결성한 創價教育學會였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의 創價學會와 같은 在家佛教 교단으로 만든 것은 토다 조세이(戸田城聖)이다. 그리고 현재의 日蓮正宗 국교화의 꿈을 가지고 公明黨을 만들어 정치, 문화, 기업경영 등의 영역에 까지 확대된 활동과 SGI를 만들어 적극적인 해외 포교를 벌이며 실질적으로 創價學會를 인르고 있는 사람은 현재 創價學會 명예회장인 이께다 다이사쿠(池田大作)이다.

원래 創價學會는 日蓮正宗의 在家信徒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日蓮正宗의 教義에 마끼구찌의 價値論과 토다의 生命論이 가미된 것으로 日蓮正宗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별도의 法華講 계통의 신종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교의를 이루는 日蓮正宗은 日蓮의 여섯 제자 가운데 하나인 日興이 大石寺를 세움으로써 시작된 法華經계 교단이다. 그 교리는 大石寺 26대 法主인 日寬에 의해 체계화 되었는데 다른 日蓮宗과는 달리 日蓮을 本佛로 주장한다. 그것은 末法에서는 釋迦는 이미 佛界를 벗어났기 때문에 日蓮이야말로 末法の 本佛이라는 것이다. 日蓮이 說한 난무묘호렌케교(南無妙法蓮華經)라는 法華經이 바로 민중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 경전의 제목을 독송한다. 또 日蓮正宗이 日蓮의 正法을 받은 宗인 까닭은 大石寺에 있는 日蓮이 직접 쓴 글씨를 楠판자위에 조각한 板曼陀羅가 日蓮이 세상사람들을 위해 예배하도록 한 本尊으로 그것을 갖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만다라야말로 전 우주의 생명력이 모여들어 있기 때문에, 배알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무한한 功德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또 本門의 題目은 本尊을 믿고 그것을 향해 소리내어 염불하는 난무묘호렌케교우라는 題目이며, 本門의 戒壇은 한 나라의 總意를 모아 本尊에게 예배하는 道場을 건설하는 것으로 곧 國立戒壇 건립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래 天皇이나 將軍이 法華經에 귀의하여 日蓮正宗을 國教로 삼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牧口의 價値論은, 眞 善 美에 대신하는 美 利 善의 가치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추구에 있는데 행복 추구는 결국 가치의 창조인데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교육이란 美 利 善의 생활을 지도하고 이 가치에 반대되는 醜 害 惡의 생활로 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創價學會는 바로 이런 참 교육을 실시하여 大善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다. 戸田의 生命論의 요체는 생명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三世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 전체가 생

명이며 곧 佛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色心不二를 주장한다. 따라서 三世의 숙명적인 業을 바꾸기 위해서는 正法에 귀의하여 本尊을 향해 唱題 염불함으로써 결국 우주의 대생명력과 리듬이 맞게 되어 숙명을 바꾸는 힘이 됨과 아울러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 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하나로 이뤄져 만들어 진 것이 오늘의 創價學會이다.

이러한 신념체계에 따라 회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종교적 실천은 謹行라는 것으로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本尊을 향하여 唱題 염불을 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그 本尊이 신심의 근본이며 成佛의 原點이고 功德의 源泉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는 집에 안치된 작은 本尊 曼陀羅를 향해서 아침에는 五座까지 하고 저녁에는 三座까지 한다. 이 謹行이 가장 중요한 실천의례로 이를 잘 행하면 이른바 福運이 따른다고 가르친다. 이와 함께 신자들은 座談會와 日蓮遺文(御書)의 학습회에 참가하고 《聖敎新聞》등 기관지를 구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創價學會가 대구에 뿌리를 내린 것은 1962년 3월이었다. 서울²⁹³⁾과 동시에 포교활동을 시작한 創價學會는 처음에는 왜색종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여론의 큰 저항을 받았다. 동시에 1964년 정부는 創價學會의 公明黨 운영과 관련하여 일본내 創價學會의 활동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의 포교활동을 금지시켰다. 오히려 이런 조치는 創價學會가 내세우는 日蓮正宗 이외의 모든 종교가 邪宗教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상에서 몰아내고 正法을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그런 조치가 邪宗教의 책동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서는 태도를 강화시켜 국내 創價學會 신자들의 결속력을 더 높여주었을 뿐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자, 정부의 금지 조치가 유명무실해 진 틈을 타 1967년 대구파와 서울의 정릉파는 연합하여 공식적으로 「日蓮正宗韓國信徒會」를 만들어 활동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모임은 자연히 일본의 創價學會가 1969년 한국내 創價學會 신도들의 통합을 추구하고 그 대표자로 정릉파의 黃錫煥씨를 임명하면서 분쟁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당시 정릉파 내에는 李敦秀라는 일본 東京教育大 재학시절 學會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귀국한 創價學會의 엘리트가 일본 創價學會의 결정에 반발하여 교권 분쟁에 빠지게 된다.

293) 초기 創價學會에는 敎의 수입과정에 따라 재일교포로부터 創價學會를 소개 받은 집단인 李貞順 등이 주축이 된 정릉파와 문서나 책자로 創價學會를 접하게된 朴素巖이 주축을 이루는 창신동 파가 대립하였으며, 여기에 같은 재일교포의 영향을 입은 崔圭恒이 중심이 된 大邱派 등 세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중에 정릉파와 대구파가 연합하고, 창신동파는 나중에 韓國日蓮正宗學會를 결성하면서 대구와 정릉파의 연합체와 구분된다.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자, 1973년 부터 일본 관광객을 가장하고 創價學會 임원들이 입국하여 조직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 5월에는 「韓國日蓮正宗佛教會」라는 통합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기구에 전국 조직이 하부 조직으로 결성되는 데는 2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였다. 75년 6월 20일에는 당시 創價學會 부회장이던 和泉覺의 방문지도를 받아,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총합본부를구성한다. 그 뒤, 1976년 5월 전국 각 시도 대표자가 모여 조직을 이원화하고 9인 운영위원회와 3인의 의장제(서울의 李敦秀, 石南秀, 그리고 부산의 洪快萬이 3인이다.)를 도입하고 그해 11월에는 전국을 18개 총합본부로 한 77개 지역본부로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창신동파가 韓國佛教日蓮正宗總本部로 분립하고, 다시 1979년 5월에는 李敦秀씨가 大韓日蓮正宗 法華講 佛教徒會로 떨어져 나가고 創價學會와 완전히 분리하여 일본의 日蓮正宗의 總寺인 大石寺와 연결을 맺고 있다. 70년대의 이런 분쟁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적으로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創價學會 조직인 韓國日蓮正宗佛教會는 난무묘호렌케교라는 題目 독송의 소리를 전국 농어촌 지역까지 퍼져 나오게 했다. 그뒤 1981년 국립중앙병원 원장 서리를 지낸바 있는 조대철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創價學會의 한국 지부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VI. 80年代 以後 政治·社會的 變革과 新宗教運動의 새로운 展開

1. 신군부의 정통성문제와 신종교운동의 폭발적 신장

10·26이라는 충격적 사건에 의해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12.12 군부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이른바 신군부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권력의 실체로 대두하면서, 서울의 봄으로 표현되는 민주화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바램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이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1980년 8월 27일 그 동안 신군부의 실세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해 오던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신군부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권력구조가 편성된다. 신군부로 불리우는 새로운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취약한 지배 정당성을 확립하고 홀으려진 민심을 수습할 목적으로 교복 자율화, 통금해지, 칼라 T.V 방영,등의 민심수습책을 쓰면서, 사회정화운동으로 대변되는 신군부의 기강에 따른 사회적 동원체제를 확보한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희생 위에서 성립된 신군부 정권은 지배 정당성이라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취약성을 가진 정권이었기에, 신군부의 정권 창출과정에서는 국민들로 부터 그들의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 조작의 정책들이 동원되어야만 했다. 이 정책의 근본 방향은 ‘國風80’으

로 상징되는 민족문화의 재건과 활성화를 지향하는 문화정책을 통해 민심을 끌어 모으고 전두환을 새로운 민족적 지도자 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교복 자율화와 통금 해제, T.V. 칼라 방영에 따른 색채혁명 등은 대중사회의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게 된다. 70년대까지 ‘잘살아 보자’는 구호아래 근검 절약을 강조했던 정부는 이제 ‘소비가 미덕’이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겨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소비욕구의 충족으로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 그 결과 5공화국으로 문을 연 80년대는 한국사회에도 이른바 소비가 생산을 이끄는 대중사회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가 생산을 이끄는 소비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는 소비욕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일반적으로 욕구 분출의 혁명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과도한 욕구 만족에의 충동은 절제가 미숙한 청소년들 사이에 범죄를 증가시키고, 또한 충동적인 성범죄, 마약과 같은 끊임없는 충동의 즉각적 해소 물질에 대한 소비를 늘리는 등 사회 전반에 새로운 문제를 낳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종교 교단은 통상적으로 기성 교단에 비해 조직이나 신도의 수적인 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나 존립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기성 종교로 부터 似而非 내지는 邪教라는 공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지배체제의 변동기에 재빨리 변화하는 구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종교적 언어를 구사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어 자라나기 마련이다. 80년의 권력 교체기와 변화같은 상황은 바로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신종교의 등장과 기존의 이미 쇠퇴한 신종교 교단까지도 새롭게 등장한 권력의 지배 정당성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흥²⁹⁴⁾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조건을 만나게 된다. 특히, 5공화국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문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민족 정통성이나 한민족 의식을 강조하는 새로운 신종교 교단의 탄생²⁹⁵⁾을 촉

294) 이런 전형적 보기로는 「永生教 하나님의 성회 勝利祭壇」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980년 10월 15일 전도관의 전도사였던 조희성이 만든 교단으로 여기서 발행된 李石萬의 『대한의 脈』, 영생승리사, 1984이란 책자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한말 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李書九가 지은 채지가속에 〈남조 선뱃노래〉라는 귀절에 들어 있는 ‘광복후 36년에 경상도에서 나온 숲씨’인 全元帥라고 하여, 전두환씨의 지배 카리스마를 부여하기도 한다. (위의 책, p.94) 이 永生教는 80년대 신종교운동에서 가장 많은 헤프닝적 사건을 많이 일으킨 교단이기도 하다.

295) 80년대에 성립된 이른바 민족신앙을 강조하는 신종교교단을 보면, 光明奉天彌勒眞法會(1981.1.9. 서울, 林鐘蓮, 민족종교 통합지향), 檀君敎宗務廳(1981.3.3. 서울, 鄭鳳和, 단군신앙), 永生教 하나님의 성회 勝利祭壇(1980.10.15. 경기 부천 조희성, 檀君選民신앙), 三眞道(1985.6 서울, 片壹周, 단군신앙), 正道敎(1982.4.15. 부산, 李正院, 甌山신앙), 天道靈符三友會(1981.8. 전북 김제, 宋月學, 단군신앙), 天宇敎(1988.5.11. 서울, 崔南穗, 단군신앙), 風流道源龍華道場(1986.3.1. 전북 김제, 車長良, 甌山신앙), 開天敬祖會(1983.6.20. 대구, 金學謹, 단군신앙), 大韓仙道太白院(1981.2.15. 서울, 金相哲, 선도수련), 한민道典(1984.4.8. 청주, 金玉順, 대자연 하나님 남방여왕)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신종교 교단의 새로운 형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진시키기도 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는 욕구의 혁명적 분출을 부치기는 소비문화의 확대와 함께, 종교적으로도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는 종교 윤리에 입각한 구원론 보다는 당장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呪術이나 신비주의적인 靈能術에 의존하는 경향을 낳는다. 성령 축복을 강조하는 부흥회의 열기가 기독교계를 휩쓸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속속 등장할 정도로 이른바 ‘능력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인파가 몰려드는 것도 80년대의 종교 풍속이었다. 이런 呪術이나 靈能術에 대한 수요는 신종교운동 자체를 활성화 시켜 각종 교단들이 새롭게 탄생하거나 부흥하는 등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80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가져다준 신종교운동에서의 활성화는 우선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단군신앙의 열기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단군계 신종교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둘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氣나 丹田行功, 요가 등 특별한 건강 수행법이 주요한 救濟財로 등장한다는 점이다²⁹⁶⁾해짐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신종교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또한 학문적 관심²⁹⁷⁾. 세째는 敎祖의 특별한 靈術을 토대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뤄지는 靈術系 신종교²⁹⁸⁾의 활성화이다. 그리고 네째는 산업사회에서 빚어지는 온갖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가정 중심의 행복재를 강조하는 수양단체적 성격의 신종교 교단의 형성이다. 특히, 이러한 여러 유형의 신종교운동이 활발²⁹⁹⁾해짐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신종교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또한 학문적 관심도 확대됨으로써 50년대의 似而非 시비와 같은 사회적 낙인은 신종교운동에서 많이 사라져 한국 사회의 종교적 다원주의를 부채질 하게 된다. 이런 움직임은 대구지역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296) 1986년 10월 「사단법인 국선도 법연구회」가 사회단체 등록을 하고 전국적으로 국선도와 眞丹法을 보급하는 경우나, 1981년에 창립한 대한선도태백원이 神武道 수련을 통한 초능력 개발을 지향하는 경우 등은 이런 형태의 신종교 교단이다.

297)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天尊의 집〉을 들 수 있다. 陽天尊님으로 불리우는 교조 牟幸龍이 1984년 5월부터 서울 면목동에서 초능력에 의한 치병술을 행하면서 부터 형성된 교단으로 1986년 3월 29일 진리의 상을 봉안하면서 부터 교단으로 형성된 신종교로 지금은 본부를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두고 있다. 현재 전국적인 조직과 미국과 일본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최근에 그 성장이 가장 눈에 띄는 교단이다. 天道仙法의 수련도장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을 교단의 중요 포교처로 삼고 있다.

298) 1985년 11월 16일 결성된 韓國民族宗教協議會는 바로 이러한 신종교 교단의 사회적 지위가 확대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협의회의 결성을 통해, 민족종교 학술대회나 한국 민족종교사상 강좌 등을 개최하고 정부나 언론 등에 대한 로비활동도 조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종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이 단체에는 원불교를 비롯해 25개 신종교 교단이 가입해 있다.

299) 1985년에는 한국종교학회에서 처음으로 《韓國新宗教 實態調査報告書》가 간행됨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보여준다.

2. 대구 토착 기성 신종교 교단들의 변화

아마도 어떤 통계 보다도 종교인구 통계는 가장 신빙성 없는 것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그 통계 수치를 정확히 적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신종교 교단의 신자수에 대한 통계는 교단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발표된 바 없다. 다만 1985년 정부가 행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보면, 대구지역에서 천도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수는 907명이었으며, 원불교가 2,173명, 대종교가 646명, 기타 종교로 분류된 항목이 14,665명이었다³⁰⁰⁾. 물론 이것을 당시 신종교교단에 참여하는 인구로만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사실상 신종교 교단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대구지역의 기존 신종교들의 80년대 움직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대구 최초의 신종교 교단이었던 眞覺宗은 이미 80년대에는 불교교단으로 기성화해 있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사회사업으로서 장학회와 양로원을 운영하며 각종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들어 포교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대구에는 포교회 산하 기로원을 두어 스승봉양 기관으로 삼고, 금강합창단, 심인청소년 예술단, 8개소의 유치원등을 설치 운영한다. 1988년 11월에는 眞覺대학을 설치하여 승려 교육기관으로 삼고, 1990년 7월에는 미국 로스엔젤리스에 현지 법인을 설치하여 해외 포교에 나선다. 또한 이듬해에는 199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경주군 강동면에 위덕대학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설치 중에 있다.

道德會는 1989년 李洪德씨가 5대 道宗師로 취임하여 운영하였으나 대체로 노인 부녀층이 道觀(신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쇠락 일로를 걷고 있다가 1990년 12월 10일에는 본부를 대구에서 대전으로 옮겨감으로써 대구지역에서의 도덕회 활동은 80년대를 지나면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大韓道德會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聖德道는 70년대까지 교구제를 실시하는등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오다 83년 法海의 죽음과 함께 교단내의 敎權 승계과정을 겪으면서 활동이 침체기를 겪는다. 그러다가 1986년 2월 15일자로 김재진을 이사장으로한 「재단법인 聖德道유지재단」으로 변경하고 포교활동을 강화한다. 그래서 86년에는 2월에 橫川에, 4월에는 蔚山에 교화원을 설치하고 90년 11월에는 포항에 까지 교화원을 설치하는 등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점차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1992년 1월1일자로 《成德의 빛》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여 포교 수단으로 삼고, 링아링

300) 문화공보부, 《종무행정자료》, 1988, pp.6~7

을 그린 「圓慈聖德相」을 전국 교화원에 비치하게 하며, 매년 교화사와 교화생 자격 심사³⁰¹⁾를 실시하는 등 敎權의 전문화를 달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1992년 12월에는 경북 영천군 신령면에 聖德수련원을 준공하여 매년 1만 2천여명을 입소시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또 같은 面에 聖德專門大學 설립 허가를 받아 1994년 개교를 서두르고 있는 등 최근 들어 그 활동은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80년대의 단군신앙 열기와 함께, 대구에서 나온 新宗教 중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교단은 한얼교일 것이다. 한얼교의 교조 申浩相은 80년 11월 21일 이른바 ‘한의 원리’라는 한사상을 선포한다. 또 81년 2월 28일에는 민족정신 선양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초대 회장에 正一이 취임하고 이듬해 3월 27일에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한얼성전 개천궁을 세우고 84년에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민족성전 머리궁 기공식을 가지는 등 단군신앙의 중심적 구심체로 한얼교를 이끌어 갔다. 특히, 그러면서도 교단 운영에서의 현대적 경영기법 뿐 아니라 교단이 아예 기업을 세워 운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성산업, 한얼앙고라, 대양선하, 한얼상사 등 6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1990년 5월에는 의료법인 한얼의료재단을, 그리고 한주의 이념정치연구원,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등을 운영하는 등 교단을 발판으로 대통령 출마와 더불어 정계와 재계에 다 같이 자신의 세력을 심어가고 있다. 그리고 대구에는 중구 포정동에 있는 만성궁을 비롯하여 8개의 성궁을 포교소로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포교소는 주로 영남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한얼교는 여전히 대구를 중심으로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새롭게 대구에 전파된 신종교들의 80년대 현황

1) 오래된 新宗教의 대구 포교활동의 새로운 전개

앞서 지적한 데로 80년대는 민족문화에 대한 재발견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민족종교로 불리워지는 오래된 신종교의 부흥이 눈에 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이전에 대구에서는 별로 교세를 갖지 못했던 오래된 신종교들이 전파되기도 한다. 80년대 단군신앙의 부흥은 대구에도 大倥敎의 시교당이 세워지면서 그 이전에 개인집에서 주로 무당들에 의해 이어지던 단군신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게 된다. 현재 대구에는 대덕시교당(현재는 경북도본사로 승격)

301) 교화사나 교화생이 될 자격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道生은 교구 책임 교화사의 추천을 거쳐 본원의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도생에 한하여 개별 反省과 면접 및 道德經을 중심으로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敎權의 제도화와 조직의 합리적 체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과 영남시교당, 대구시교당 등 3개의 시교당과 평리성전, 동대구 성전등이 있다. 각 시교당은 각각 전무가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교당에는 또 별도의 분원을 기도처로 설치하기도 한다. 예컨대 1984년 9월 21일 정두병 전무가 세운 영남시교당을 보면, 지금 110여 명의 신자가 지교, 참교, 상교, 봉교자 등으로 직분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산하에 대덕 천진원, 중구 기도원, 동부 기도원, 서구 기도원을 두고 활동을 한다. 그러나 단군 신앙은 대중교에 의해 주도 되기 보다는 오히려 「檀君朝鮮宗天教」나 「開天敬祖會」³⁰²⁾와 같이 개인 집에서 별도의 방식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독립 교단을 형성하든지 아니면 무당의 神으로 모셔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1) 水雲敎의 대구지부 설립

대구에서의 大宗教의 부활과 더불어 오래된 신종교와 관련하여 또 하난 주목되는 것은 동학계열의 신종교인 水雲敎의 전파이다. 물론 대구에는 80년대 이전 부터도 天道敎는 대구시교구와 남대구교구를 갖추고 일정 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天道敎는 이미 기성 교단화한 것이었기에 이 시기에도 별다른 주목될 만한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 1983년 4월 15일 水雲敎가 대구에 지부를 결성함으로써 오래된 신종교의 재건 현상을 확인시켜 준다. 이 지부 결성의 주역은 김순남(여)씨로 그녀는 원래 상주에서 수운교를 믿었던 사람이었다. 水雲敎는 경주 출신의 李象龍이 1923년 서울에서 창립한 교단이다. 11세에 부모를 잃고 불국사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된 이상룡은 승려생활을 하다가 朴性昊 등을 만나 수운교를 만들게 된다³⁰³⁾. 그러나 지금도 교단에서 주장하듯이, 당시 李象龍은 水雲이 사실상 죽지 않고 도피하다가 이제 몸을 드러낸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름도 水雲임을 감추기 위해 李崔出龍子라 불렀다. 이런 소문은 당시 친구파로 나뉘져 교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던 天道敎측 신자들을 대거 끌여들여 천도교측과 불화를 빚고 현재 본부가 있는 대전 유성구 추목동으로 옮겨 온다. 그 뒤 일제하에서 일본 불교의 말사에 들어갔다가 해방과 더불어 수운교를 다시 부활시킨다. 이 水雲敎에서는 동학의 경전이나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수용의 관점은 불교식으로 '諸佛諸天을 숭배하여' 上求菩提로 成佛하는 것을 救濟로 간주한다. 그래서 水雲敎에는 天道敎와는 달리 佛·天·心의 一圓을 강조하면서 守心正氣로 수련하여 善人君子가 되어 현세에서 福과 壽를 누리는 永生仙國의 실현을 救濟財로 삼고 있다. 특히, 신도들이 회당을 절이라

302) 이것은 1983년 6월 20일 金學權에 의해 창립되었는데,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을 보급함으로써 일종의 민족자각운동을 일으키는 사회단체적 성격을 지닌 교단이었다. 매월 1일과 15일에 경배식이라는 모임을 갖는데 아직은 평리동 일대의 몇 몇 사람만이 찾는 작은 교단에 불과하다.

303) 村山智順, 앞의 책, p.203.

고 부르는데서도 알수 있듯이, 東學 고유의 신앙이 불교와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습합된 것이다. 지부를 결성한 김순남씨도 상주에서 대전을 오가며 이 敎를 믿다가 대구에 와서 신암동에 사찰을 짓고 지부를 결성했다고 한다. 이 지부가 결성되면서 부터 대전에서 水雲敎를 믿었던 이주자들이 주로 모여들었는데 지금은 매주 일요일 행하는 法日참배에 7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치성을 드리고 있었다.

(2) 대순진리회의 괄목할 성장

단군계나 동학계 신종교와 더불어 龜山계열의 오래된 신종교 역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한다. 이 가운데서도 대구지역에서는 이미 69년에 뿌리를 내린 大巡眞理會가 역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1985년 6월말 현재로 교단 중앙 종무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순진리회의 전국분포를 보면, 6대 도시 가운데 역시 서울이 교당수 449개소에 교직자 1,396명, 道人이 199,745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이 대구로 교당수는 167개소에 교직자 378명, 도인수 62,664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리고 경북은 교단 38개소, 교직자 288명, 도인수 76,285명으로 되어있다.³⁰⁴⁾ 사실상 이들 중 경북의 도인들은 상당수가 대구와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대구 지역이 서울에 이어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교세가 큰 지역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사실 대구에서만 이렇게 교세가 커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80년대에 들어와서 교세가 가장 크게 확장하는 신종교교단 중 하나로 자라고 있었다. 앞서 70년대에 5년을 단위로 보았을때 교단 창립 후 5년에는 대체로 2.5배의 증가를 보이다가 다음 5년만에는 3.2배의 증가,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선 다음 5년간은 4배 정도로 신자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순진리회 측은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실시된 이른바 사회정화운동에 발맞추어 大巡靑年會(현 회장: 장호주), 大巡婦人會(현 회장: 김옥자)를 조직케 하여 지역사회 봉사와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나서도록 교단 차원에서 독려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이러한 활동은 지배 정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신군부의 지배 이데올로기 정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특히 5공화국 이후 대순진리회의 성장은 가히 타 신종교 교단의 그것에 비해 눈부신 것이었다.

그래서 1984년 2월 6일에는 학교법인 대진학원의 설립을 인가받고, 그해 말인 87년 12월 17일 대진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88년에는 대진여고, 1991년 3월에는 대진대학교의 개교에까지 이르러 기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 과정에서 86년 6월에는 여주도장, 87년 12월에는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를 등록하고, 89년 7월에는 제주도에 제주 수련도장, 90년 12

304) 한국종교학회, 《한국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85, pp.175~176.

월 여주도장 본전을 증축하고 92년 7월에는 포천 수도장 건립, 92년 11월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등을 만드는 등 교세의 신장은 계속된다. 이런 교세의 신장 이면에는 신자들의 지나친 헌금 강요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특히 1989년 10월 30일에 발생한 한 사건은 이런 문제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즉, 그날 서울 하계동과 공능동 일대에 복면 강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다. 그러나 4일 뒤 경찰에 검거된 범인들은 모두 大巡眞理會 上鳳 4방면 연락소에 나가는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상봉 회관을 지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 몰래 남편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선무에게 전해주고 남편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계획한 선무 등이 와서 통장과 도장을 빼앗고 강도를 위장한 뒤 신고한 사건³⁰⁵⁾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대순진리회의 각 방면 신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인 정도로 헌금에 열중하였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도 대순진리회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져, 때로는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전파되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³⁰⁶⁾도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3) 태극도 대구지부 결성

한편 대순진리회가 대구에서 성공적 발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순진리회의 母敎團이었던 太極道는 늦게 대구에 전파되기 시작한다. 당시 太極道는 원래 박한경이 교단을 떠나 분립하면서 趙鼎山의 아들인 조영래가 교단을 이끌면서 無學道人制를 철폐하고 교단 운영에서의 합리적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교단 개혁을 꾀했으나, 오히려 이것은 교단의 원로들로 부터 반발을 초래해 교세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대구 포교 초기부터 사실상 교단 차원의 지원도 없었기에 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군소 교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영래가 1981년 물러나고 80년대 들어 다시 재정비되면서 원래 교단의 교도들이 살고 있었던 甘川洞에 1985년 교단 본부를 다시 건립하면서 부터 조직이나 교리체계, 교단 자료 정비 등을 통해 교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太極道를 대구에 처음 전한 사람은 현재 태극도 대구지부회관을 맡고 있는 金鳳學씨로 그는 1978년 8월에 신암동 평화시장 근처 개인 집에서 처음 태극도 지부를 개설한다. 그러나 교세의 성장 정도는 미미한 편으로, 현재 太極道는 대구지부회관 주일기도에 80여명의 신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부장 김씨의 증언으로는 전체 대구 시내 신도수가 3천세대 정도라고 했다.

305) 《중앙일보》, 1989.11.4, 「대순진리회, 회원들이 헌금 강도」제하의 기사.

306)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언론 등에서 사회문제화 된 적은 거의 없었다.

2) 80년대에 창립되어 전파된 신종교들

이러한 오래된 신종교의 새로운 체계화나 재건에 의해 나타나는 신종교운동이나 지금까지 대구지역이나 여타 지역에서 나타났던 신종교는, 대체적으로 保國安民과 같은 사회적 구원이나 道成立德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현세를 聖化된 人倫共同體로 만들어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을 공통적으로 지향하는게 우리나라 신종교운동의 특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는 달리, 80년대의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면서 등장한 몇몇 신종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개인의 治病이나 건강, 초능력의 획득 등을 주로 지향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대구지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들로는,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신군부의 지도자를 옛부터 예언된 지도자로 美化시키면서 동시에 교주 자신을 모든 종교가 예언한 마지막 때의 승리자로 주장하는 「永生教 하나님의 성회 勝利祭壇」와 특별한 산행 수행을 통해 터득한 靈能術로 치병을 행하다가 교단을 형성한 「天尊의 집」 등이 있다.

(1) 永生教 하나님의 성회 勝利祭壇

이 중에서도 永生教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은 흔히 永生教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단은 80년 10월 15일 전도관의 전도사였던 조희성이 만든 교단이다. 교단에서 ‘아담 이긴자’³⁰⁷⁾로 불리는 그는 오랜 군 장교 생활을 거쳐 전도관에서 기독교를 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영생승리사에서 나온 책자에는 1980년에 全元帥로 예언된 쏘씨가 나타나 ‘모든 잘못된 길을 다 바로 잡아’ 그 길로 오는 ‘이긴자’를 대비하게 된다고 주장³⁰⁸⁾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온 역대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팜플렛을 永生教에서는 교묘하게 전혀 永生教와는 무관한 것인 양 뿌리면서 신군부의 지배 정당성을 홍보하고, 조희성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드러내게 된다. 영생교에는 일정한 교리나 교의가 없으며 단지 조희성 자신이 1990년에 행할 심판자로 왔으며 이 教를 믿는자는 모두 무병 영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 박수를 요란하게 치는 집회를 가지는 등 교주 개인의 종교적 권능에 광신적으로 의존하는 칼트적 성격을 지닌 집단이다. 대구에는 80년대 중반부터 뿌리를 내렸는데 특히 경북대 법대의 신모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인들을 상대로한 포교의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307) 여기서 이들의 또 하나의 책자인 《人體不死更少年이 秘訣》, (1984)에서는 모든종교의 완성을 永生으로 보고, 둘째 아담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이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두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그러한 사탄의 두목인 예수를 이긴 자가 곧 조희성 자신으로 이제 永生教에만 들어 오면 영생을 한다고 주장한다.

308) 영생승리사, 《대한의 脈》, 1984, pp.87~97.

89년 2월에는 신교수의 납치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는 등, 한때 대구의 신암동에 지부를 두었으나 지금은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한국영생학회』라는 교단 외곽 단체를 만들어 구약성경의 단지파를 檀族 곧 고조선족으로 보고 단군숭배를 가미하여 해마다 3월에 시민회관 등을 빌려 대대적으로 단군숭배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활동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2) 天尊의 집

天尊의 집은 과거 신종교들이 광제창생이나 보국안민 등 사회적 구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철저히 개인의 治病이나 건강, 초능력의 획득 등을 주로 지향하는 방향성을 지닌 救濟財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보기이다. 이 교단의 창시자는 현재 교단에서 양천존님으로 불리우는 牟幸龍이다. 그는 1934년 12월 27일 생으로 한 동안 상업에 종사하다가 각지를 돌아다니며 산행기도를 자주 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4년 마석에 있는 天馬山에서 100일 산행기도를 결심하고 기도 생활을하던 중, 100일 채 되는날 천마산 봉우리쪽에서 금관을 쓴 노인이 나타나 ‘내가 옥황상제다’라는 말을 남기도 사려졌는데, 그후부터 그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신통력이 생겨났다고 한다. 1983년 11월 8일 天尊會라 부르는 수행을 통해, “저 하늘 가장 높은 곳 大羅天 三清境殿에서 이 하계를 내려다 보시는 우주의 주재자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天尊님의 마음 심히 안타까우시어 마침내 큰 뜻을 정하시니”³⁰⁹⁾ 그 때부터 천존의 원력을 빌려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맡아 하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84년 5월 20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면목2동에서 天手라는 특별한 靈術을 통해 氣를 환자에게 전함으로써 치료를 행하게 된다. 특히 이 天手에는 항상 양천자님이라 불리우는 敎祖와 그의 부인인 天母가 함께 시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처음 이같이 氣를 이용한 치병술을 통해 환자들을 상대로 그의 靈術이 전해지면서 차츰 새로운 종교적 권능자로 변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86년 3월 29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1리에 大羅天이라 명명한 천존의 집을 교단 본부로 설치하고 「진리의 상」을 봉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교단화로 나아가고, 같은 해 8월 6일자로 교직자의 계열 직위표를 만들어 조직을 정비한다. 동시에 자신의 산행기도로 얻어진 특별한 초능력에 기초해서 우주만물의 근원을 氣로 파악하고 바로 이 氣의 운동과 변화로 물질계가 형상화되는 것으로 본다. 이 氣는 생명의 元氣로서 곧 모든 생명을 살리는 대자연의 順氣이지만, 때로는 逆氣가 감돌아 질병이나 산성비 현상 등이 생긴다고 한다. 진리의 상이나 양천존의 몸에서 나오는 氣는 바로 생명체에 반

309) 《천존의 말씀》〈언약편〉.

드시 필요한 생명의 원기로서 모든 생명의 원기는 천존의 집을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³¹⁰⁾ 모든 질병의 원인인 逆氣된 氣가 順氣해서 나가는 방식은 양천존이라는 변압기를 통해 역기가 순기로 바뀌어 나가고 그것을 받을 때 생명의 원기가 활동하여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근원적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나 결국 질병 치료는 물론 神人合一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가르친다. 이러한 구원관이나 산행기도와 같은 수련법은 일본의 修驗道계 신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천존의 집」과 같은 교단은 그 점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신종교와는 다른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은 교단 설립과 동시에 전국적 지부가 결성되고 牟幸龍이 지은 《天道仙法》의 수행법을 가르치는 천도선법 수련도장을 1991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5개소나 개설하며, 미국에 3개소 호주, 일본 등지에도 수련도장³¹¹⁾과 지부를 개설하는 등 교단 측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 말 현재 이미 27만여명의 신도를 거느린 교단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대구에도 내당동과 신천동에 진리의 상을 모신 지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양천존은 1990년 12월 22일부터 91년 1월 11일까지 21일간의 금식 산행기도를 함으로써 모씨와 그 부인의 몸이 3분의 2정도가 神의 몸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1993년 이전에 108일 기도를 통해 완전히 신인합일을 이루고 人神시대를 열게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기도 후에는 전국 지부와 각자의 생명의 샘터라는 수련장과 진리의 상에 하늘의 권능을 심어 생명의 원기를 내려 보낼 뿐 아니라 중요 직책자들 개개인에게도 원력을 보낸다고 한다. 아무튼 이러한 교조의 초능력에 의존하는 신종교 교단의 발생은 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신종교운동의 유형이기도 했다. 이런 교단의 형태를 빌리지 않은 개별적인 氣 수련가들에 의한 치병 활동의 유행은 80년대 후반 이후 대구 지역사회에서 특히 유행하고 있는 한 현상중 하나이다.

4. 일본 신종교의 한국적 변용과 성장

1) 創價學會의 포교 활동 강화

80년대는 신종교운동에 있어서 다양성과 새로운 부흥이 나타나면서, 일본계 신종교의 한국적 수용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일단은 대구에 전파되어 있던 기존의 天理教나 創價學會, 세계메시아교는 여전히 존속한다. 그 중에서도 韓國日蓮正宗佛敎會³¹²⁾로 결성된 創

310) 《천존의 집》 20, 1991. 1. 30.

311) 여기서는 이 천도선법을 수련하는 사람을 가리켜 천우라고 부른다.

312) 최근에는 공식 명칭을 「SGI 한국불교회」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價學會는 70년대의 분과 과정을 청산하고 대구가 그 초창기의 주요 3대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자랑하듯, 80년대의 신종교 활성화를 틈타 교세를 크게 신장한다. 대구를 지역적으로 신천동과 신암동 범어동의 동부 1방면과, 평리동 원대동 등의 북부 2방면, 그리고 대명동 봉덕동과 두류 공원 일대의 남부 3방면으로 나누고, 또 각 방면마다 3개 권을 두고 다시 각 권마다 4개 지부를 두는 등 지역단위로 折伏이라는 포교 활동을 廣宣流布라는 이름으로 강화한다. 그리고 북부, 서부 에 이어 최근 93년 9월 5일에는 대명권이 주로 사용할 남산문화회관을 개설하고, 신암동에도 동부문화회관을 개설하여 포교의 중심지를 삼고 있다. 그리고 경북대 등에 「경대교내좌담회」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주요 포교 대상화하여 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聖敎 타임즈》를 각 대학 교수들에게 무료 배포하는 등 최근 들어 부쩍 포교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은 創價學會는 한국내에서 天理敎 이상의 기성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2) 生長의 家의 대구 토착화로서의 光明會

한편 이러한 創價學會의 성장과 더불어 80년대에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일본종교의 수용이 대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다른 아닌 일본에서도 5대 신종교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 《生長の家》³¹³⁾이다. 일본의 新宗教인 生長の家가 한국에 들어 온 것은 해방 직후 金顯昭에 의해 서울에서 일부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生命의 實相》을 읽으면서부터 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1970년 9월 10일 光明의 집 본부를 만들어 정식으로 生長の家가 한국에 뿌리 내리고, 85년에 지금의 生長の家 韓國本山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별로 활동적이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88년 이후 대구에서 뿌리를 내려 크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光明會」는 이 生長の家와는 다른 것이다. 서울에 본부를 둔 生長の家 韓國本山은 그 회장이 金顯振이나 光明會는 그 단체와는 무관하게 金海龍씨에 의해 대구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김해룡씨의 공식적인 직함은 韓國敎文社(1988.6.28.등록) 대표이며 그 자매기관으로 되어있는 光明會의 회장이다. 그는 조선일보기자 출신으로 편집국에 근무하다 대구지국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그가 광명회를 조직한 것은 1978년 경으로 그 이전에는 서울에서 근무할 때, 《生命의 實相》을 읽는 모임을 가지면서 부터 生長の家와 접하였다가, 대구로 와서는 처음에는 대구 신천동에서 건물을

313) 生長の家の 敎祖는(교단에서는 尊師라 부른다) 다니구찌 마사하루(谷口雅春 1893. 11. 22~1985. 6. 17)로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중퇴한 한계적 지식인의 전형이었던 그가 1930년 3월1일 창립한 신종교이다. 특히 이 교단의 교조 다니구찌는 일제하에서 군국주의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패전 후 일본에서도 전범으로 몰려 교단을 떠나기도 했었던 인물이다.

빌려 모임을 갖었다고 한다. 현재는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28-2 동양고속 빌딩 5층을 전세 내어 본부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광명회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여 韓國敎文社가 문을 연 1988년 6월 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임은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청년부 강화가 있고, 수요일 오전에 實相觀 강화 및 실습이 있으며, 토요일 오후에 일반부 강화와 토요일 밤의 철야수행, 일요일 오전에 학생부 강화, 그리고 매일 밤에 열리는 특별철야수행, 매년 2회씩 4박5일 일정으로 열리는 일반연성회가 있다. 지부로는 90년까지는 서울과 부산에 지부를 두고 다른 곳에서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예식장등의 건물을 빌려 회장 강연형식으로 집회를 갖고 있었으나, 1993년 6월 현재는 울산지부, 마산지부, 진주지부, 거창 지부등을 두고 있다.

한국교문사에서서는 1988년 부터 『光明』이라는 잡지를 매월 정기 간행하고 있다. 生長の家와 마찬가지로 주로 이 잡지를 통해 誌友를 확보하여 포교하고 있는데 현재는 월 5,000부 정도를 출판하여 회원들이 각자 구매, 보급하고 있었다. 회의 운영은 잡지의 구독료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에 의해 운영되고, 회장 개인의 딸이 운영하는 약국의 수입중 일부를 지원 받기도 하였다. 토요일반부 강화에는 대개 100여명 안팎의 회원이 모여들고 있으며, 그 의례를 보면, 먼저 實相이라 쓰여진 강단 중앙에 걸려 있는 액자를 보면서 實相을 觀하고³¹⁴⁾, 다음으로는 甘露의 법이나 천사의 말씀 등을 낭독한 뒤, 회장의 강론으로 이어진다. 대개 이 강론에는 感謝行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치병의 체험이나 일상적인 부부관계 가정문제등의 해결 체험을 예로 들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주로 그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강론이 마친 뒤에는 손을 들어 합장을 하고 ‘어머님 은혜’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감사행의 수행의례를 한다. 여기서는 합장을 한 채,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하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소리를 계속 소리내어 함께 읊게 하였다.

철야수행이나 다른 수행법으로는 神想觀이라는 다니구찌의 唯神實相哲學에 기초한 觀念法을 쓰고있다. 이것은 實相世界의 眞理를 觀하여 현실세계의 迷夢을 소멸하려는 것이다. 그 방법은 正坐한 자세로 합장한 손을 얼굴 앞에 들어 올리듯이 치켜들고 눈을 감고 大生命의 實相을 마음속으로 觀하고 ‘살아있는 온갖 것을 살리어 주시는 절대자 神³¹⁵⁾이여 행복을 주소서’로 시작되는 招神歌를 부른다. 이어 ‘이압’하는 기합소리를 내서 상대방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 넣는 행위를 한다. 이것이 끝나면 “이 大調和의 實相世界에 와서 우리 神의 아들로서

314) 이것을 實相完全圓滿 송행이라 한다.

315) 이 신을 生長の家에서는 미오야가미모토즈미다마(御祖神元津靈)라 부르고 있으나 광명회에서는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신으로 부터 무한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 신의 무한한 생명력이 자기 가운데 들어 온다(『如意法珠觀』).”는 묵념을 계속한다. 또한 호흡법을 통해 이 무한한 생명력이 자신 속에 충만함을 지속시키려고 한다. 神想觀은 대개 3~40분씩 행한다. 사실 生長の家에서도 행하는 이 神想觀은 원래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敎祖가 종교법상 종교법인으로 등록할 때 종교법상의 예배대상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광명회의 김희장도 자신들의 모임이 절대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萬教歸一의 원리에 따라 광명회에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참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광명회가 일본의 生長の家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의례의 형식이나 한국교문사라는 등록출판사의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제로는 生長の家の 한국내 포교단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김희장의 자녀중 한분이 바로 일본의 生長の家 본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러한 광명회와 生長の家の 실제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교단은 특히 창립 초기부터 교사들 사이에 많은 회원들을 확보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상당수의 국민학교나 중등학교 교사들이 회원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VII. 大邱地域 新宗教運動의 特性과 그 展望

1. 대구지역 신종교운동 역사의 개괄과 그 특성

지금까지 우리는 대구지역의 신종교운동의 주요 흐름들을 추적해 왔다. 그 흐름을 대체적으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 ① 조선조 말에서 한말까지(1864-1909): 신종교에 대한 거부와 儒林의 반발
- ② 일제하에서 해방까지(1910-1945): 신종교 유행속에서의 선택과 현실 순응
- ③ 해방정국에서 50년대(1945-1960): 대구토착 신종교운동의 활성화와 전파
- ④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하(1961-1979): 신종교의 현대화와 타 신종교의 유입
- ⑤ 80년대에서 현재까지(1980- 현재): 신종교운동의 새로운 부흥과 新展開 방향

이렇게 볼 때 대구지역에서의 신종교운동은 해방 이후 부터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구에서 일어났던 心印佛教였던 대한불교 眞覺宗은 이미 기성 교단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을 정도로 기성화했다. 그리고 一貫道 계열의 대한도덕회나 도덕회는 근대화의 과정속에서 적응에 실패하여 쇠락하여 가는 교단 중 하나로 되었으며, 聖德道는 奉南계열의 찬물교가 가지고 있었던 주술적 부문을 탈각하여 전혀 새로운

수양단체적 신종교로 발전하면서 최근까지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적절히 적응하며 전국 규모의 교단으로 자라 교단 직영의 聖德專門大學의 개교를 눈 앞에 두는 등 90년대에도 그 성장은 예견된다. 또한 젊은 철학도의 선수행을 통해 기획된 새로운 종교로 출발한 한얼교 역시 대구의 신종교 가운데 성공한 경우로 한때 교단 운영 기업이 1차 부도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전형적인 기업형 신종교로 현재는 단군 신앙의 중심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구에서 형성된 신종교 교단은 오래된 천도교나 대종교, 증산 계열의 어떤 교단에 못지 않게 전국적 규모를 지닌 교단으로 자라고 있으며, 그 점에서 지역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가장 성공적인 토착 신종교 교단을 많이 성장 시킨 곳이 대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신종교운동에서 성공적이었던 교단의 성격을 보면, 우선 몇가지 특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교운동이 우리 보다 더 다양하고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 학계에서는, 신종교의 중요한 救濟財나 의례의 원천이 전통적 종교나 기성 종교와 어떤 관계를 갖고 형성되는가에 따라 신종교교단을 유형화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흔히 ①借傘型, ②內棲型, ③提携型, ④完全自立型으로 구분³¹⁶⁾한다. 借傘型은 신종교로서의 사회적 낙인이나 제제를 피하기 위해 기성종교의 보호막 아래 거주하면서 그들의 행정상의 규제를 받지만, 교의나 의례의 핵심적인 부문에서 기성종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독자적 해석을 내려 독자성을 유지하는 유형이다. 또 內棲型은 특정의 기성 교단에 소속되어 그 종교적 전통의 핵심을 계승하기는 하지만 기성교단과는 구분되는 독자성을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는 借傘型에 비해 오히려 종교적 전통의 핵심을 보다 근본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이 강조된다. 그리고 提携型은 借傘型이나 內棲型과는 달리, 기성교단 밖에 있으면서 기성교단의 종교적 전통중 聖地 공유나 기성교단의 특별한 자격 인준 등을 통해 기성교단의 종교적 전통을 보완하는 유형이다. 끝으로 完全自立型은 문자 그대로 기성교단으로부터 교의나 의례, 조직 등의 모든 면에서 독자적 체제와 운영을 갖는 유형을 말한다. 논의의 편의상 이 類概念을 사용할 때, 대구의 신종교 교단을 분류한다면, 眞覺宗은 불교라는 기성 종교속에 들어가면서도 조계종이나 태고종과 같은 교단과는 다른 것으로 內棲型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道德會나 大韓道德會는 기성 종교의 습합이라는 점에서 提携型이나 제휴의 준거가 뚜렷하지 않아 교단의 正體危機를 겪게 되어 쇠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聖德道는 초기에는 봉남계열의 찬물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提携型에서 60년대 이후에는 完全自立型으로 전환한 경우이고, 한얼교는 불교와의 제휴형에서 70년대 이후 完全自立型으로 바뀐 경

316) 井上順孝, 孝本貢 외 編, 《新宗教事典》, 東京;弘文堂, 1990, pp.132~134.

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大巡眞理會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提携型이다. 이렇게 볼 때 대구에서 성장한 성공적 신종교교단의 경우 모두 完全自立型으로 이것은 비교적 이 교단들이 빠른 기간에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립은 이들 聖德道나 한얼교 등 대구의 대표적인 신종교 교단들이 그 교리적 면에서, 새로운道を 논리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知的 思想型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는 것 같다. 또한 대순진리회나 일본계 신종교를 포함하여 대구에서 쉽게 뿌리내린 신종교는 대체로 교리면이나 실천면에서 도덕사회의 구현이나 국법준수 등 사회적 명분이 강한 집단주의적 가치지향이 강한 종교적 救濟財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70년대에 대구 서구일대에서 유행하던 眞人道가 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소멸된 것이나 90년도의 새로운 한국사의 전개를 호언하던 永生敎가 급격한 쇠퇴한 것은 바로 이러한 救濟財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호 태도가 永生이나 治病과 같은 주술성이 강한 종교성에 대한 근본적 거부감을 낳고, 동시에 교단 자체가 자기정체성을 뚜렷이 확립할 만한 知的 思惟體系가 결여되어 민간신앙적 요소를 탈각하고 自立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구지역의 신종교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주목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역의 의미있는 사회적 행위의 유형은 집단주의적 가치에 동조적이며 동시에 자기 정체성이 강한 폐쇄성을 띄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행위 유형은 산업사회의 개방적이며 개인주의적인 행위유형을 거부하는 태도를 낳는다.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합리적 생활양식을 거부하려는 이러한 태도가 곧 일반적으로 대구의 보수성의 정체인지도 모른다.

2. 대구지역 신종교운동의 현황과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대구지역에서의 신종교운동은 대구에서 創敎되었거나 대구에서 일정 교세를 가지고 의미있게 포교된 교단을 중심으로 역사적 개관을 하였다. 그런 중에도 기독교나 불교계 신종교 부문은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독자적 교의와 의례, 실천 및 조직을 지닌 교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敎의 선포로 출발한 신종교 교단 가운데 현재 대구에서 활동중인 교단의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대구지역 신종교운동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교세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정확하지 않은 신도 수는 제외하고 주요 회당 및 시설, 주요 교직자만을 알 수 있는대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계열별 분류는 신앙대상이 되는 神格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먼저 교단 명, 대구 소재 주요 교당 및 관련 기구의 소재지, 그리고 정기 간행물을 《》에는 잡지를 적고, 〈〉에는

신문 명을 기록하고 각 간행물의 발행 부수를 교단에서 응답한대로 적었다³¹⁷⁾.

1) 동학계 신종교

이 름	대구 소재 주요 교당 및 관련 기구 소재지	정기간행물 및 부수
天 道 教	남대구 교구; 대구 남구 대명9동 554-1 (방상언) 대구시 교구; 대구 중구 대신동 324-1 (김석산)	월간 《신인간》 1만부 《천도교 월보》 2만부
水 雲 教	대구지부; 대구 동구 신암동 645-17 (김순남)	

2) 불교계 신종교

圓 佛 教	대구교구 동명훈련원; 대구 동구 봉무동 285-4 (송순봉)	《원불교신문》
	대구원광유치원; 대구 중구 남산1동 677-45 (송순봉)	주간, 1만부
	지산원광어린이집: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5단지 (남궁은)	
	대구원광한의의원: 대구 중구 남성로 8-3 (유현정)	《원광》월간
	대구교구 사무소; 대구 중구 남산1동 677-45 (송순봉)	1만부
	대구교당; 대구 중구 남산1동 677-45 (송순봉)	
	대명교당: 대구 남구 대명9동 922-3 (조효경)	
	대현교당: 대구 북구 대현1동 165-5 (김지은)	
	봉덕교당; 대구 남구 봉덕동 1구 850-4 (박현일)	
	삼덕교당: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287 (송명호)	
	서문교당: 대구 서구 비산4동 264-12 (신종수)	
	서성로교당: 대구 중구 서성로1가 57 (유의명)	
	수성교당: 대구 수성구범어1동 805-29 (최기진)	

亞細亞淨土佛教韓國總本山 대구 동구 신암3동 165-21 (裴在學:淨空)

(* 1988.5.창단 신도수 50여명)

3) 증산계 신종교

大巡眞理會	남부회관; 대구 남구 대명9동 547-2 (안영일)	《대순회보》
	동부회관: 대구 동구 신암4동 345-4 (천정술)	격월간

317) 이 기록은 주로 《한국종교연감》 1993년에 실려있는 것을 참고로 했다. 여기에 실려있지 않은 사항은 직접 교단에 전화 문의로 확인하였다.

서부회관: 대구서구 비산7동 2008-131 (정수오)
수성회관: 대구 수성구 만촌동 413-5 (박두호)
동대구회관: 대구 동구 신암동 350-15 (천재기)
영천회관: 대구 동구 신암동 249-1 (조영배)
달성회관: 대구 남구 대명동 2133-5 (박운성)
원대회관: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1421-7 (정재상)
부여회관: 대구 동구 신암1동 804-3 (김경순)
남문회관: 대구 중구 남산1동 611-2 (최해경)
대구회관: 대구 동구 신암4동 33-8 (서영순)
신천회관: 대구 동구 신천2동 501-1 (황지옥)
신천회관: 대구 동구 신천동 778-4 (최철호)
달성회의실: 대구 남구 대명7동 2133-5

甌山敎本部 중구교회: 대구 중구 효목1동 140-3 (우종화)
동구교회: 대구 동구 지저동 774-40 (피복순)

甌山道 대구도장: 대구 수성구 수성1가 524-7
달서도장: 대구 남구송현동 1919-18
동부도장: 대구 동구 신암동 (tel; 753-5611)

太極道 대구지부회관: 대구 동구 신암동 607-20 (김봉학) 월간<태극도보>3천부
월간<태극도학생회보> 1,500부

4) 단군계 신종교

大倣敎 대덕시교당: 대구 남구 두산동 178-4 (박원태) 월간《대종교보》
영남시교당: 대구시 서구 이천동 (정두병) 5000부
대구시교당: 대구시 수성구 (김병옥)

한얼敎 대구만성궁: 대구 중구 포정동 21-3 (황해상:교단 총무부장)
도서출판 정화사: " " 월간《정화》
중구성궁: 대구 중구 달성동 182-65 (문분귀) 2천부
남구성궁: 대구 남구 봉덕동 1300-2 (손여란)

남구2성궁: 대구 남구 대명7동 2130 (금동필)
 동구성궁: 대구 동구 효목1동 83-1 (서정희)
 수성성궁: 대구 수성구 상동 623-9 (배갑록)
 달성성궁: 대구 달서구 두류동 105-8 (황태분)
 서구성궁: 대구 서구 비산3동 395-4 (곽춘자)
 북구성궁: 대구 북구 칠성2가 275-11 (김분이)
 한주의 이념정치 연구원: 대구 중구 대봉동 21-23 (임구호)

檀君朝鮮宗天敎 대구 동구 신암4동 211-13 (김희우)

開天敬祖會 대구 서구 평리1동 1046-16 (김학근)

5) 기독교계 신종교

世界基督教 대구교회: 대구 남구 대명7동 1731-4 (이동한)
 統一神靈 경북교회: 대구 수성구 범어3동 24-16 (윤영대)
 協會 북대구교회: 대구 북구 칠성2동 409-303
 서대구교회: 대구 서구 평리4동 422-5920
 안심교회: 대구 동구 신기동 221-2
 상인교회: 대구 서구 상인동 1464-6
 성서교회: 대구 서구 성서 414-1

天父敎 한국예수교 유지재단: 대구시 동구 서호동 96-8
 (한국예수교 대구전도관: 대구 수성구 수성4동 1150-1
 총회) 대구천부교회: 대구 북구 노원1동 201-5

다미선교회 대구 동구 신암4동 115-1

예수재림교 만촌교회: 대구 수성구 만촌2동 1048-16 * 이 교단은 휴거를 믿는
 한국연합회 대명교회: 대구 남구 대명2동 170-1 종말론 신종교 집단임

6) 기타

聖德道 재단법인 성덕도 유지재단: 대구 중구인교동 44 (윤명수) 《성덕의 빛》
 대명교화원: 대구 남구 대명10동 990-2 3만부
 신령교화원: 대구 동구 각산동 296-5

대구교화원: 대구 중구 대봉동 162-8

大韓道德會 대구회관: 대구 남구 봉덕2동 1015-43 (고운정)

天尊의 집 동대구지부: 대구 동구 신천4동 484-1 (조정제) <천존의 집>

대구지부: 대구 서구 내당2동 969-1 (임창용) ?

國仙道 남구지원: 대구 남구 봉덕3동 639-2 (임상수) <국선도회보>년보

수성구지원: 대구 수성구 범어3동 7-1 (심한식) 5천부

7) 외래 신종교

韓國日蓮正宗 북부문화회관: 대구 북구 원대3동 1431-5 <聖敎타임즈>

佛敎會 서부문화회관: 대구 북구 비산동 7-1793

(創價學會) 남산문화회관: 대구 중구 남산3동 2376-2

동부문화회관: 대구 동구 신암4동 259-5

침산회관: 대구 북구 침산동2가 7-13 (정병길)

대봉회관: 대구 수성구 상동 597-1 (이홍길)

원대회관: 대구 서구 비산동 7-1793 (황상옥)

평리회관: " " (이석남)

태평회관: " " (양기락)

대명회관: 대구 달서구 두류1동 776-24 (서재홍)

두류회관: 대구 달서구 성당동 117-16 (김성룡)

大韓天理敎 경북교구: 대구 동구 신천4동 297-2 (양정남)

경산교회: 대구 남구 남산동 249

대구교회: 대구 중구 북성로 2-3

명성교회: 대구 중구 동인3동 41-3

신암교회: 대구 동구 신암동 2-483

영남교회: 대구 중구 동인동 4-271

창성교회: 대구 동구 신천2동 564-1

우신포교소: 대구 남구 대명9동 908-5

금호포교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0-11

세계메시아교 대구포교소: 대구 수성구 파동 국민주택 217호

光明會	한국교문사: 대구 동구 신천4동 382-2 (김해룡)	월간 《光明》 1만부
여호와증인	대구회중: 대구 중구 동인4가 330-6	《과수대》격월간
	평리왕국회관: 대구 서구 평리4동 1370-1	50만부
	황금왕국회관: 대구 수성구 황금동 240	
	신암왕국회관: 대구 동구 신암3동 167-1	
	영남협회: 대구 남구 대봉2동 170-2	
	고성왕국회관: 대구 북구 고성2동 114-15	

이상의 현황을 두고 대구의 신종교운동은 대구에서도 우선 몇몇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우선 신암동은 특히 오래된 신종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신종교 교단이 집중적으로 교당을 짓거나 회관을 갖는 등 신종교 수요층이 많은 지역으로 우선 주목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 연구가 앞으로도 있어야 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화에 따라 이주해 온 이입자들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이입자들의 새로운 도시적 환경에의 적응문제와 신종교 수요와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문튼 근대 초기 신종교 발생기에는 오히려 신종교운동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대구도 80년대를 지나면서는 점차 우 다양한 방향의 신종교운동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신종교의 착근이 어느 지역보다 쉽게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면서도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신종교운동 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전 호흡과 같은 수련이나 생명의 원기와 같은 근원적 생명력을 현세에서 활성화시켜 질병이나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주요한 救濟財로 삼는 靈術的 宗教가 많은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동양대학 교수인 니시아마 시게루(西山茂)는 일본 신종교운동에서도 1970년대 후반 부터 일본이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과거의 신종교와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교가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것을 新新宗教라는 개념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는 이것을 근대화와 도시화로 특징지어지는 단계의 성장기가 마감되면서 비합리의 復權現象이라고 부를 만한 靈術을 강조하고 주술이 거리낌 없이 행사되는 신종교³¹⁸⁾로 규정한다. 이러한 新新宗教 유형은 바로 天尊의 집에서 전형적

318) 西山茂, 〈戰後新宗教の變容と新新宗教の台頭〉《宗教時報》78, 文化廳·文化部·宗務科, 1986, pp 3~12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0년대 창립하였으나 사실상 개인 사찰로 유지되어 오던 檀君朝鮮宗天敎가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매주 70여명씩의 신도가 몰려와 敎祖의 설교를 듣고 洪道士의 靈能術에 따른 치료 행위를 받는 것을 보면, 니시야마 교수의 지적처럼 新新宗教의 형태를 빌린 呪術과 靈術이 어울어진 신앙 형태가 지배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眞人道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유형이 유행적 종교운동으로는 나타날지 모르나 지속적인 교단종교로서의 발전에 까지 이를 지는 의문이다.